

국립국어원 2011-01-25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47-01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1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박 경 래

▣ 연구 보조원 : 박용희 · 금순미

▣ 조사 지역 :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충북 출신)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1’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
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연구책임자 : 박 경 래

2011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8
3. 전사 자료	21
제 1 편 구술 발화	23
제 2 편 어휘	168
제 3 편 음운	223
제 4 편 문법	280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파일 48,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11년 국외 지역 조사는 충청북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2010년 조사가 충청남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는데 비해 2011년의 해외 지역어 조사는 충청북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였다. 2011년 국외지역 충청도 지역어 조사도 2010년 국외지역 충청도 지역어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제보자가 파악되어 있었다. 2011년 국외지역어 조사 대상 지역은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이었다. 조사 지역인 중국 도문시 양수진은 사전에 파악된 제보자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도문시 양수진은 중국의 길림성에 속하는 곳으로 중국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한반도의 북단인 함경북도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중국의 길림성 도문시에 속하는 양수진은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다. 연결에서 도문을 거쳐 훈춘으로 이어지는 중간 정도의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양수진은 백두산에서 발원한 두만강이 흐르는 곳으로 과거 육진 지역이었던 함경북도 온성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여 철수하면서 끊어놓은 온성 다리가 중국의 양수진과 북한의 온성을 오가던 역사적인 흔적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제보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1938년 겨울 부모님과 함께 이 다리를 건너 중국으로 이주한 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다.

지형적으로 두만강 주변으로만 약간의 평야가 발달되어 있을 뿐 산이 많은 곳이다. 두만강 주변의 평야 지대에서는 벼농사를 주로 하지만 인접한 산자락에서는 옥수수나 콩 농사를 주로 한다.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에는 정암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정암촌은 양수진에서 북쪽으로 약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이 정암촌과 양수진 중간에는 석두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으로 도문에서 훈춘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지나고 인터체인지도 개설되어 있다. 정암촌은 1938년 일제에 의해 이주한 충청북도 출신 조선족들이 개척한 마을이다. 1960년까지는 이곳에 충청북도 출신 이외의 조선족은 한 명도 없었고 1961년 처음으로 함경도 출신 한 가족이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주 초기에서부터 1960년까지의 정암촌은 충청북도 출신 이주자만 80호가 모여 사는 중국 속의 충청북도 마을이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는 충청북도에서 이주한 30여 명의 조선족 1세와 조선족 1세가 타계한 조선족 2세 그리고 1961년 이후 이 마을로 이주한 몇 세대의 함경북도 출신 이주자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다. 그러나 2011년 현재는 정암촌에는 충청북도 출신 1세가 몇 분만 생존해 있었는데 그나마 고령이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억을 거의 잃었다. 충청북도 출신 2세들 대부분은 중국 내 대도시나 한국 등으로 이주하였고 이렇게 생긴 빈자리의 일부를 함경도 출신들이 채우고 있으나 한족은 단 한 가구도 없다. 다른 마을과 달리 한족이 이 마을에 하나도 없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 한족에게는 집이나 농토를 팔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도시나 한국으로 돈 벌러 가면서 현재 정암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는 한 집뿐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한족들에게 임대를 했거나 한족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정암촌과 석두는 조선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수진에는 한족들도 상당수 살고 있다. 양수진은 우리나라의 면소재지 정도 되는 곳인데 가게나 대부분의 상권을 한족이 잡고 있다.

양수진에는 조선족 노인들이 상당수 있어서 여름철이면 게이트볼을 즐기거나 마작 등을 하면서 소일하고 있다. 정암촌을 제외한 양수진에 속하는 대부분의 마을은 다수의 함경도 출신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두만강을 마주하고 함경북도와 국경을 이루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족들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시기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19세기 이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중국으로 이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이전에 이주한 시기가 해당한다. 이 시기는 17세기에 병자호란(1626)과 정묘호란(1636)으로 강제 이주되어 수만 명이 조선 서북부 지역에서 요동 일대로 이주한 것과 17세기 말 재해로 인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이 만주족이나 몽골족 등 다른 민족에 동화되어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9세기 후반(대략 1860년)부터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전후까지에 해당하는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계속해서 극심한 기근이 들자 한반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대거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중국 동북부에 정착하였고 이후 일본의 식민 정책으로 땅을 잃은 농민들과 식민지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대거 만주로 이주한 시기다. 세 번째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반강제로 이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중국의 동북 지역을 점령한 후에 계획적이고 반강제적으로 이주를 실행한 시기다.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로 조선의 남부 지역에서도 많이 이주하였다. 두만강 북쪽의 중국 이주는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정암촌이나 양수진의 충청북도 출신 이주자들은 세 번째 시기에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착한 이주민들이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1980년대에 인구의 지역적 분산이 시작되고 1990대 이후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정암촌과 양수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 예비답사와 제보자 선정 과정

2011년 국외 지역어 조사 지점은 정암촌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정암촌이 충청북도 출신 이민자들로 구성된 마을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마을인 정암촌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중국과 수교하기 전인 1992년이었고 정암촌과의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수교와 함께 충북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교류협정을 맺으면서부터였다. 충청북도 출신 이주민 마을인 정암촌이 관심 지역이 된 것도 충북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교류협정을 맺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당시부터 정암촌을 자주 오가면서 정암촌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전 충북대학교 총장 임 교수님의 역할이 컸다. 1994년 충북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정암촌을 방문하고 나서 정암촌이 주변 지역과는 다른 언어적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암촌 방언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 충북대학교 임 교수님을 통하여 당시 김 연변대학교 부총장(현 연변대학교 총장)을 소개받았다. 임 교수께서 김 부총장님께 부탁하여 현지 안내인을 소개받기로 하고 정암촌의 방언을 조사하기 위해 1999년 7월 중순 무작정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당시에는 심양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는데 중국어를 한 마디도 할 줄 몰라 현지 운전기사에게 바가지료를 쓰기도 했다. 돌아올 때 심양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

다는 북방빈관(北方賓館)을 찾아가다가 10분을 걸어도 나타나지 않아 지나가는 승용차를 세워 한자로 쓴 북방빈관을 보여주니 타라고 해서 탔더니 옆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내려놓고는 무조건 100위안을 내라는 것이었다.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30위안을 주고 말았다. 숙소 예약은 지금 받지 않으니 나중에 돌아갈 때 하라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공항으로 가서 연길행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더니 역사를 전공하는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박 학생이 마중을 나왔다. 우전빈관(郵電賓館)에 숙소를 정하고 김 부총장을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다음날 아침 숙소에서 제공하는 좁쌀죽과 빵 등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하였다. 냄새와 간이 강해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였다. 대학원생 박 학생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정암촌으로 향했다. 길을 몰라 가는 중간에 미루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 노인들에게 한국말로 정암촌을 물으니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었다. 외국에서 아무나 붙잡고 한국말로 물어도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인들이 가르쳐준 길은 도문에서 양수진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 석두를 지나 정암촌으로 가는 길이었다. 점심 무렵에 정암촌에 도착하였다.

정암촌에 도착하자 안내 학생이 촌장을 찾아가서 찾아온 경위를 설명하자 바로 동네 중간에 있는 집으로 안내하였다. 집은 남향으로 앉혀 있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가옥 구조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까지 조사자가 본 적이 없는 일자(一字)형에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없는 구조였다. 더욱 신기했던 점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세 개의 가마솥이 일렬종대로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었다. 맨 뒤에 있는 가마솥 뒤의 부엌 끝으로 물을 끄는 펌프가 하나 있었다. 방에는 문과 마주하고 있는 반대쪽 벽에 나무로 만든 찬장이 하나 놓여 있었고 왼쪽인 서쪽에는 옷장이 하나 놓여 있는 전형적인 함경도식 집이었다.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방에는 할아버지 내외와 할아버지의 손자가 하나 있었다. 주인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찾아온 경위를 설명하였더니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겸손해 하셨다. 점심 때가 되어서 할아버지 댁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았다.

점심 식사 후에 주인 할아버지의 성함과 고향, 그리고 정암촌 마을의 인구 구성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조사하였다. 할아버지의 성함은 이 이었고 당시 나이는 72세였으며 고향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이고 이주 당시 열 살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설명에 의하면 1999년 7월 조사 당시에 정암촌에는 함경도 출신이 두 가구가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충청북도 출신 이주자들이었다. 이들은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청원군, 증원군(현재의 충주시) 출신이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집이 한 채도 없는 하천변의 버드나무 숲이었는데 이곳을 정비하고 다듬어 80호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마을의 규모가 80호인 것은 기차 한량에 타고온 가구의 수가 80가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을 이름은 동네 뒤편의 산꼭대기에 정자 모양의 바위를 본따 정암(亭巖)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현재의 정암촌은 모두 벽돌로 쌓은 기와집이지만 1999년 당시에는 몇 채의 기와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가집이었다. 이때 제보자였던 이 할아버지가 2011년 중국 해외 지역어 조사 제보자다.

제보자는 정암촌에서 거주하다가 2001년 양수진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1980년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 못했고 정암촌 외의 주변 지역은 함경도 출신 이주자들로 둘러싸여 있어 정암촌이 마치 충청북도 방언섬과 같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암촌 주민들은 중국으로 이주해서도 충청도 방언을 비교적 오랫동안 온전히 간직하며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중국 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의 한국어 실습지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2010년 중국 길림성 돈화시 현유진의 충청남도 출신 이주자들의 언어 조사를 마치고

2011년 해외 지역어 조사를 위한 잠정적인 제보자로 확인한 이 할아버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차 양수진에 들렀다. 할아버지 내외분은 모두 건강하셨다. 할아버지 내외 분께 다음해에 꼭 다시 와서 언어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다. 2011년 여름 중국 해외 지역어 조사를 위해 한국에 있는 이 할아버지의 며느리에게 할아버지 내외의 안부를 확인하고 7월 13일에 출국하였다.

1.3 조사 기간과 조사 과정

2011년 중국 해외 지역어 조사는 7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미 2010년의 예비 답사를 통해 중국 해외 지역어 조사를 위한 제보자로 확인되어 있던 이 할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출국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2011년 여름방학이 시작된 6월 초에 비자를 준비하고 항공권을 구입하는 한편 국내 지역어 조사를 위한 제보자 선정을 위해 6월 17일, 6월 27일, 28일, 30일과 7월 1일일까지 영동군을 방문하였다. 마침내 7월 2일 영동군 제보자가 확정되었고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지역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중국 해외 지역어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7월 13일 10시 10분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길림성의 연길시로 출국하였다. 인천 공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전라도 출신 중국 해외 지역어 조사를 위해 먼저 와 있던 소 에게 점심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의했다. 연길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시간으로 11시 45분이었는데 소 교수와 조선족 잡지사 김 기자가 승용차로 마중을 나와 있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잡지사에 들러 소 교수로부터 현지 조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듣고 미리 정해놓은 연변대학 근처의 숙소로 갔다. 숙소는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아파트가 비어 있어 이 집을 빌려 쓰기로 하였다.

저녁 무렵에 연변대학교 김 교수를 만나 김 교수의 근황은 물론이고 연변대학교의 근황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연구에 대한 근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김 교수는 연길에 온 목적으로 듣고 다음날 도문시 양수진에 동행하기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숙소로 돌아와 양수진에 있는 이 할아버지 댁으로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반갑게 받았다. 할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 여전하시다고 하셨다. 다음날 가겠노라고 하자 흔쾌히 오라고 하셨다.

7월 14일 아침 김 교수를 만나 수박과 포도 등의 과일을 사서 승용차에 싣고 장춘에서부터 훈춘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연길에서부터 도문을 거쳐 양수진의 이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연길시에서 양수진까지의 거리는 75km이고 양수진에서 정암촌까지는 10km가 된다. 11시 무렵에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댁으로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는데도 받지 않으셨다. 순간적으로 아침에 떠나면서 전화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였다. 성미가 급하신 할아버지가 조사의 어려움을 알고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고 낮 시간이어서 노인회관(중국에서는 ‘독보조’라고 함)에 게이트볼(중국에서는 ‘문구’라고 함)을 하러 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할머니까지 댁에 안 계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댁에서 한참 떨어진 노인정에 가서 할아버지의 행방을 물으니 할아버지 동생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었다. 여러 차례 중국에 다녔으나 처음 뵙는 분이셨다. 동생 분은 형님이 늘 노인회관에 나와 문구를 즐기셨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가 보자고 하셨다.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다

시 이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왔으나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할아버지 동생분을 모셔다 드리려 집 앞을 나서는데 할머니께서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삼륜차에서 내리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이 삼륜차는 양수진 안에서는 한 번 타는 데 요금이 2위안이다.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리 링거를 맞고 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집에 들어가 그간의 안부를 간단히 여쭙고 할아버지의 행방을 물으니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연길에 가셨는데 저녁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잠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김 교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점심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연길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제보자인 이 할아버지와 약 한 시간 반 가량 농경 용품과 생활용품 관련 어휘 항목, 그리고 인체 관련 어휘항목을 조사하였다. 요리하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의 소음이 크게 들렸다. 점심 식사 후 이웃사람들이 화투놀이를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분들과 몇 마디 주고받는 동안 모두 화투 놀이 준비를 하였다. 약 세 시간 가량 화투놀이를 하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화투놀이에는 이웃 할머니 두 분과 장년의 남자까지 모두 넷이 하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 노는 것 같았다. 화투 놀이하는 규칙이 한국에서와 달라 옆에서 구경만 하였다.

7월 15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인체와 관련된 어휘 항목을 한 시산 남짓 조사하였다. 문구장에 사람들이 모일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문구를 치러 나가셨다. 설거지를 마치고 할머니(신)께서 가족관계 이야기를 구술해 주셨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이날도 예외 없이 화투놀이를 하기 위해 이웃에서 놀러 왔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갔다. 문구장에서 돌아오신 제보자 할아버지께서 현재 중국의 생활상과 할아버지 가족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 그리고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할아버지가 연금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하여 구술해 주셨다. 저녁 식사 후 인체의 하체와 관련된 어휘 항목에서부터 친족 관련 어휘항목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7월 16일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친 제보자 할아버지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아침 일찍 연길에 있는 치과에 가셨다가 오후에 돌아오셨다. 오전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쉬었다. 맨바닥에 앉아 조사를 해서 그런지 허리가 아파 자주 누워 허리를 펴 주었다. 가옥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정책 때문이었는지 중국 조선족들은 가족들끼리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한 방에서 눕거나 담배 피우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앉아 담배를 피운다거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방에 있는데도 한쪽에서 누워도 흠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허리가 불편한 조사자에게는 가끔씩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기에 위안이 되었다. 저녁 무렵에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동물과 식물에 관련된 어휘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7월 17일 아침 식사 후 오전에 음운편 음운목록과 음운과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잠시 쉬었다가 제보자 할아버지 내외와 제보자의 둘째 아들 그리고 제보자의 동생 내외를 모시고 양수진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였다. 점심 식사 후 집에 돌아오니 이날도 화투꾼들이 모여 화투놀이를 하였다. 화투놀이를 하는 동안 뒤에서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잠깐씩 누워서 허리를 펴고 쉬었다. 제보자는 문구를 치러 가셨다가 저녁 무렵에 오셨다. 음운 과정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텃밭에 관한 내용과 논농사에 관한 내용의 구술조사를 하였다.

7월 18일 이날도 오전에 두 시간가량 음운 과정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웃 주민이 놀러 와서 대화하는 내용을 잠시 녹음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화투놀이를 하였고 제보자는 문구장에 다녀오셨다. 저녁 무렵에 돌아오신 제보자와 음운 과정 항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였다.

7월 19일 오전에 약 두 시간 가량의 음운 과정 항목에 대한 조사로 음운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점심 식사 후 할머니와 이웃 사람들이 화투놀이는 하는 동안 자료정리를 하면서 쉬었다.

7월 20일 아침 식사 후 약 두 시간 가량 문법 편의 대명사와 조사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어 어휘편 농경에서부터 가옥 관련 항목까지 조사하였고 도량형 관련 내용과 기타 어휘와 지역사회 관련 내용으로 구술발화 조사를 하였다.

7월 21일 제보자 할아버지가 외출하신 사이 보조 제보자인 신 할머니와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제보자로부터 귀를 잘못 관리하여 고생한 이야기, 정암촌 관련 이야기, 산삼 이야기 등의 구술발화를 조사하였다. 이어 보조조사에서부터 연결 어미, 종결어미, 보조용언을 비롯하여 부사와 속담까지 문법편 전체의 조사를 마쳤다. 오후에 의복과 민속 관련 어휘 항목까지 조사함으로써 어휘, 음운, 문법 항목의 조사를 모두 마쳤다. 저녁 무렵에 질문지 그림책을 놓고 약 반 시간가량 무작위로 어휘 항목에 대한 확인 및 보충 조사를 하였다.

저녁을 먹고 마당 가에 앉아서 예전에 청주 MBC에서 정암촌을 취재한 이야기, 문화혁명과 대약진 운동에 대한 이야기, 큰아들 화상 입게 된 이야기, 벌치는 이야기 등에 대한 구술발화 조사를 하였고 민요도 몇 자락 조사하였다.

7월 22일 양수진 장남이었다. 이날은 어휘와, 음운, 문법 항목 조사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자연스럽게 구술발화를 조사할 수 있었다. 아침에 전통 혼례식과 가축, 동물에 관한 내용과 장례 및 제사, 벼농사와 관련된 내용의 구술발화 조사를 한 다음 제보자 할아버지는 노인회관에 놀러 가셨다. 보조 제보자인 신 할머니와 시장을 돌아보고 닭과 과일 등을 사서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 때는 닭고기 요리를 먹었다. 저녁 무렵에는 밭농사, 논농사,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소 기르기 등 생업활동과 관련된 내용과 목화와 삼 기르기, 누에치기 등 의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술발화를 조사하였다.

7월 23일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옷만들기와 같은 의생활 관련 내용의 구술발화를 조사하였다. 질병과 민간요법, 거주생활, 세시풍속 등에 대한 내용의 구술발화를 조사하였다.

7월 24일 아침 일찍 제보자와 함께 두만강으로 합류하는 양수진 하천가에 나가 산책하며 신선한 바람을 쐐었다. 가족 관련 이야기며 질병과 민간요법에 대한 구술발화, 두만강과 관련된 이야기, 온성에 있는 조카딸을 방문했던 내용의 구술을 비롯하여 몇 자락의 민요도 자연스럽게 녹음하였다. 한여름이었지만 아침 바람이 서늘하였다. 제보자의 목청이 좋았고 은근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아침 식사 후 제보자의 둘째 아들인 이 의 친구 최 이라는 사람이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제보자 내외와 둘째아들과 함께 훈춘, 권하, 방천, 장영자 세관 등을 둘러보고 훈춘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오후 세시 반경에 양수진에 도착하였다. 네 시경에 양수 노인활동실에서 충북대학교 해외봉사단 학생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중국 조선족들의 삶과 언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7월 25일 아침 일찍 강원도 영월이 고향인 박 할아버지(1929.12.28, 83세)가 놀러 오셨다. 박 할아버지와 대화를 녹음하고 제보자의 가축 기르기 관련 구술발화도 녹음하였다. 오전에 연길에 마련해 두었던 숙소를 옮겼다. 점심 때 충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임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해외봉사단장으로 오신 김 충북대학교 병원 부원장과 점심 식사를 하였다. 김 교수는 10여년 전에 조사자의 수술을 집도했던 분이다.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되어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에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연길 시장등을 둘러보았다. 저녁에는 김 교수의 연변대학교 의과대학 제자 교수들과 풍무에서 자리를 함께하였다.

7월 26일 김 교수와 함께 연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승용차로 연길과 용정 사이에 있는 모아산, 용정의 대성학교, 용정 우물터, 일송정 등을 둘러보고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면서 조선족들의 집거촌인 개산툰과 도문을 거쳐 일제 때 함경북도 온성으로 통하던 양수진의 단교를 둘러보고 연길 숙소로 돌아왔다. 조선족 집거촌에는 하나같이 노인들 일색이었고 활기가 없어 보여 안타까웠다.

7월 27일 아침 식사 후 연길 시 중심 지역의 간판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한국에는 두 달째 비가 계속 내려 피해가 많은데 연길 시는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였다. 1999년 연길에 처음 왔을 때 중심가의 간판이 신기하여 간판 이름을 적어두었는데 2011년의 간판과 비교해 보려면 간판을 적어야 했는데 중국어 표기가 익숙하지 않아 베껴 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사진을 찍는 동안 가게 주인의 위협적인 언행도 있었다. 사진을 다 찍고 신화서점에서 지도를 한 장 구입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였다.

7월 28일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동안 쉬었다가 연변대학교 김 교수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 점심 식사 후 귀국 준비를 하였다.

7월 29일 김 교수가 연길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다. 이번 조사에 여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보답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1.4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름 : 이
- 나이 : 84세(용띠, 1928년 **월 *일생)
- 출생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 거주지 :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 선대거주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
- 직업 : 농업, 무(현재)
- 경력 : 판로군 입대, 한국전쟁 참전
- 학력 : 중국 보병학교에서 중국어 학습, 한글 학습
- 병역 : 판로군으로 대장정, 한국전쟁 참전
- 제보자 소개 과정 :
 - 1994년 수교와 더불어 중국 연길시 소재 연변대학교를 통해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에 충북마을인 정암촌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였음.
 - 1999년 7월 개인적으로 정암촌을 방문하여 촌장의 안내로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방언조사를 실시했음.
 - 2011년 국외지역 지역어 조사를 위해 제보자로 확정함.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충기가 좋은 편이고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며 부부가 충북출신이어서 국외지역 제보자로서 적격자로 판단되었음. 지역어 조사 시 가급적 충청도 방언을 구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격이 활달하셔서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탓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조금씩 조사해야 해서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나 목소리가 작은 편임.
- 가옥 구조상 조사하는 동안에 잡음이 녹음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

(2) 보조 제보자

- 이름 : 신 (이 제보자의 아내)
- 나이 : 77세(돼지띠, 1937년생)
- 직업 : 농업, 무(현재)
- 출생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 거주지 :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 선대거주지 : 충북 옥천군
중국 길림성 도문시
- 직업 : 농업, 무(현재)
- 경력 : 없음
- 학력 : 한글 해독
- 병역 :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 1999년 7월 개인적으로 정암촌을 방문하여 촌장의 안내로 주 제보자인 이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음.
 - 2011년 국외지역 지역어 조사를 위한 보조 제보자 역할.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충기가 좋은 편이나 나이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고 늘 두통에 시달리고 계심. 조사에는 소극적으로 참견하는 정도에 그쳤고 적극적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은 비교적 또랑또랑하고 정확하고 목소리가 큰 편이나 조사에는 거의 응하지 않았음.
- 가옥 구조상 조사하는 동안에 잡음이 녹음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

1.5 조사 일정

(1) 조 사 자: 박경래(세명대 교수)

(2) 조사 일시: 2011년 7월 13일~7월 29일
예비조사: 2010년 8월 11일~8월 13일

(3)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철북 1조 제보자의 집

(4) 조사 내용:

파일 이름	녹음 시간	분 야	제보자	전사여부
SCB_DM_01	02:40	구술발화1: 문구(게이트볼) 관련, 이웃 주민과 대화		미전사
SCB_DM_02	27:20	어휘1: 농경용품 21633-1 노루발(P.266) ~ 21717 시루(P.274)		전사
SCB_DM_03	20:10	어휘2: 생활용품; 21718 시루밑(P.274) ~ 21742 도롱이		전사
SCB_DM_04	1:07:10	어휘3: 인체,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P.286) ~ 21937 목물(P.310)		전사
SCB_DM_05	1:08:50	구술발화2; 가족관련 이야기(보조제보자1; 신명옥 구술)		전사
SCB_DM_06	53:40	구술발화3: 현재 생활상, 이주 동기, 제보자의 일생 이야기1(젊은 시절)		전사
SCB_DM_07	14:45	구술발화4: 제보자의 일생 이야기2(연금을 받게 된 과정)		전사
SCB_DM_08	1:14:40	어휘4: 2.6.3. 하체; 22001 복사뼈(P.312) ~ 22258 부아		전사
SCB_DM_09	1:05:40	어휘5: 2.8. 친족; 22301 아버지(P.354) ~ 22379 사투리		전사
SCB_DM_10	1:34:30	어휘6: 2.9. 동물; 22401 고기(P.386) ~ 22736 올가미(P.436)		전사
SCB_DM_11	20:05	어휘7: 2.10. 식물; 22801 진달래꽃(P.440) ~ 22828 잔디(P.448)		전사
SCB_DM_12	2:10:20	어휘8: 2.10.2. 나무; 22901 소나무(P.450) ~ 23441 서풍(P.512)		전사
SCB_DM_13	1:33:10	음운1: 3.1. 음운목록; 31001 태(P.516) ~ 31088 적다(P.523)		전사
SCB_DM_14	51:20	구술발화5: 제보자의 일생 이야기3(정착 과정, 호랑이 만난 경험)		미전사
SCB_DM_15	1:42:50	음운2: 음운과정; 32001 막다(P.524)~32090 마르다(재단)(P.531)		전사
SCB_DM_16	30:50	음운3: 음운과정; 32091 까다(안개)(P.532)~32127 쏘다(곡식)(P.535)		전사
SCB_DM_17	1:16:30	음운4: 음운과정; 32127 쏘다(곡식)(P.535)~32210 쓰다듬다(p. 541)		전사
SCB_DM_18	18:40	음운5: 음운과정; 32211 사:납다(P.542) ~ 32234 가렵다(P.543)		전사
SCB_DM_19	10:15	구술발화6: 이웃사람과의 대화		미전사
SCB_DM_20	18:00	음운6: 음운과정; 32235 때리다(P.544) ~ 32258 고소하다(P.545)		전사
SCB_DM_21	55:30	음운7: 음운과정; 32259 내리다(P.546) ~ 32317 어지르다(P.550)		전사
SCB_DM_22	55:40	음운8: 음운과정; 32317 어지르다(P.550) ~		전사

		곡용 32362 밖(P.554)		
SCB_DM_23	21:55	구술발화7: 텃밭 이야기, 논농사 이야기		미전사
SCB_DM_24	1:24:45	문법1: 대명사; 40101 나(P.556) ~ 40236 조차(P.577)		전사
SCB_DM_25	24:55	구술발화8: 일상 이야기(보조 제보자 신명옥과 차남, 이웃집 할머니 대화)		미전사
SCB_DM_26	31:25	구술발화9: 귀를 잘못 관리한 이야기, 정암촌 관련 이야기, 산삼 이야기		미전사
SCB_DM_27	40:35	문법2: 4.2.2. 보조사; 40236 조차(P.576) ~ 40342 -이시지요(P.588)		전사
SCB_DM_28	09:10	문법3: 4.3.6. -이다; 40343 무엇이나(P.588) ~ 40357 -올라(P.592)		전사
SCB_DM_29	1:03:15	문법4: 그밖의 종결어미; 40357 -올라(P.592) ~ 4.9 보조용언 40908 -나/는가 보다(P.612)		전사
SCB_DM_30	1:13:45	구술발화10: 청주 MBC 취재, 아들 화상, 별치기, 민요, 문화혁명과 대약진 운동, 대장정 이야기 등		미전사
SCB_DM_31	1:05:00	문법5: 부사; 41001 실컷(P.612) ~ 속담 41116 아니뎌 굴뚝에 연기 나라(p.620)끝.		전사
SCB_DM_32	48:25	어휘9: 농경, 경작; 20109 극쟁이(P.90) ~ 곡물 20416 콩(P.118)		전사
SCB_DM_33	1:17:45	어휘10: 2.1.4. 곡물 20416 콩(P.118) ~ 20842 개다리소반(P.162)		전사
SCB_DM_34	1:25:15	어휘11: 가옥, 방과 가구; 20901 안방(P.166) ~ 마을과 가게 21265 여남은(P.213)		전사
SCB_DM_35	22:40	구술발화11: 도량형 관련 대화, 기타 어휘와 관련된 대화, 지역사회 이야기		미전사
SCB_DM_36	27:50	어휘12: 의복,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P.216) ~ 바느질과 세탁 21404 씨아(P.226)		전사
SCB_DM_37	30:05	어휘13: 바느질과 세탁; 21405 물레(P.228) ~ 21443 다듬이질(P.238)		전사
SCB_DM_38	55:20	어휘14: 민속; 세세풍속; 21501 설날(P.242) ~ 21633 장도리(P.264)		전사
SCB_DM_39	26:15	어휘15: 그림책 일부 어휘		전사
SCB_DM_40	1:32:00	구술발화12: 청주 MBC 정암촌 취재, 판로군, 문화혁명, 아들 화상, 별치기 등 이야기		전사
SCB_DM_41	47:45	구술발화13: 전통 혼례식, 가축, 동물 관련 이야기		미전사
SCB_DM_42	50:35	구술발화14: 장례식, 제사, 벼농사 이야기		미전사
SCB_DM_43	1:52:40	구술발화15: 밭농사,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소 기르기, 의생활, 누에치기		전사
SCB_DM_44	1:12:45	구술발화16: 민요, 공동체 생활, 의생활, 질병과 민간요법(뱀에 물린 경우 등), 거		미전사

		주생활(집짓기), 세시풍속		
SCB_DM_45	56:35	구술발화17: 질병과 민간 요법, 두만강변, 북한 온성 방문, 민요 몇 가락		미전사
SCB_DM_46	19:20	구술발화18: 박병칠 할아버지 이야기, 가축 기르기(토끼, 닭)		미전사
SCB_DM_47	16:00	구술발화19: 질병과 민간 요법		미전사

(5) 조사 시간: 총 43시간 10분

(6) 녹음기: 마란츠 PMD 660

(7) 마이크 : SHURE SM11

1.6. 전사

(1) 전사자: 박용희 / 박경래

전사 일시: 2011년 8월 12일 ~ 2011년 11월 20일

전사 내용: 구술발화 6번, 7번, 40번, 43번 파일 및 어휘, 음운, 문법 항목 전사

구술발화 전사시간: 4시간 32분

구술발화 CJL_DM_06 - 53:40

구술발화 CJL_DM_07 - 14:15

구술발화 CJL_DM_40 - 1:32:00

구술발화 CJL_DM_43 - 1:52:40

어휘 CJL_DM_02 ~ CJL_DM_04

어휘 CJL_DM_08 ~ CJL_DM_12

어휘 CJL_DM_32 ~ CJL_DM_34

어휘 CJL_DM_36 ~ CJL_DM_39

음운 CJL_DM_13

음운 CJL_DM_15 ~ CJL_DM_18

음운 CJL_DM_20 ~ CJL_DM_22

문법 CJL_DM_24

문법 CJL_DM_27 ~ CJL_DM_29

문법 CJL_DM_31

(2) 1차 점검: 박경래 / 박용희

1차 점검: 2011년 11월 5일 ~ 2008년 11월 25일

(3) 2차 점검: 박경래

2차 점검: 2011년 11월 25일 ~ 2011년 12월 1일

2. 전사 원칙

2.1. 구술발화 전사

보은 지역어의 구술 발화는 여섯 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되 발음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발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말과 조사자의 말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전사하였다. 구술 내용이 전환될 경우에도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전사하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문장을 직역하여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 “#1”(보조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제보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말한 경우에는 해당 인용 부분을 따옴표(‘ ’)로 표시하였다. 보은 지역어 조사의 제보자는 세 명이였다. 으나 각각 따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구술 참여자가 조사 상황에 여럿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들리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경우에는 음절 수 또는 모라(mora) 수 만큼 * 부호를 넣었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추측 가능하거나 생략되었더라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측할 수 있는 말이나 생략된 말을 () 안에 표기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음절이나 형태소 경계에서 제보자가 휴지를 두어 발음한 경우에는 음절 사이에 “-”를 넣어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발화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의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

- 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그 외에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도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지역어형을 분절하고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고,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규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⑪ 조사 시 제보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응답형을 생각하지 못할 때 조사자가 해당 어형을 제시하여 나온 응답형일 경우 (조사자 제시)로 기록하였다.
 - ⑫ 제보자의 응답형에 대해 제보자가 확신할 수 없어하는 경우에는 (?제)로, 조사자가 응답형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로 표시하였다.
 - ⑬ 확인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어휘 항목은 구술발화의 보조 제보자 표시 부호와 나란하게 “#1”를 어휘 뒤에 붙였고 어휘나 음운, 문법 조사에서 보조 제보자의 응답형은 방언형 뒤에 “(보조)”라고 표시하였다.
 - ⑭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등)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음운 항목 번호로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문장 단위로 분절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문장 단위로 분절한 것은 해당

문법 항목의 사용 환경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다.

- ② 질문항목에 없거나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문법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wi]’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왜’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ε)’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옥천 제보자는 ‘에(e)’ 발음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으로 표시하였다.
- ⑥ 이중모음 으([yi])는 으—ㄴ:구(연구), 으—ㅇ:감(영감)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 ⑦ 하나의 단어 내에서 음절과 음절 사이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발음하는 곳에는 “-”으로 표기 하였다.
- ⑧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2011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1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파일 번호: 06

CJL_DM_06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현재의 생활상, 중국으로의 이주 동기와 과정, 제보자의 일생 이야기1(젊은 시절)

조사자: 박경래

주제보자: 이 (남, 1928년생)

보조제보자: 신 (제보자 이용안 할아버지의 부인)

제보자 주소: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에서
2001년에 이사)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 일시: 2011년 7월 15일

전사자: 박용희, 박경래

시간: 53분 40초

1.1.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30 @ 송아지 사능 거는 자기가 사구... {송아지 사는 것은 자기가 사고...}

10330 # 으:. {응.}

10330 @ 그걸 가따가 ... {그걸 갖다가...}

10330 # 배알, 저 배귀니나 양배권 주구 인제 매겨 달라. {백원, 저 백원이나 이백 원 주고
이제 먹여 달라.}

10330 # 그 목축짱애다 여치. {그 목축장에다 넣지.}

10330 # 게 여쿠서는 가으래 가으래 시런 그: 제 송아지 차저오지. {그래 넣고는 가을에 가
을에 ** 그 제 송아지 찾아오지.}

10330 # 차저오면 처넌 하나넌 떠러저. {찾아오면 천원 하나는 떨어져.}

10330 # 게 열 마리 사면 마넌 하난 떠러지지. {그래 열 마리 사면 만원 하나는 떨어지지.}

10330 # 게 봉값 내노쿠 마넌 하난 떠러지지. {그래 봉값 내놓고 만원 하나는 떨어지지.}

10330 @ 으:. {아.}

10330 # 그래 이르키 돼 지금. {그래 이렇게 돼 지금.}

10330 # 여기 톤 마:뉘니면 마:는 도니여. {여기 돈 만원이면 많은 돈이야.}

10330 #1 여기 차 팔러 완넌데 에:: 그르니까 그만 모:타지 머. {여기 차 팔러 왔는데 에 그
러니까 그보다 못하지 뭐.}

10330 #1 박 선생 자주구 인는 차만 모:타지. {박 선생 가지고 있는 차보다 못하지.}

10330 #1 그 자주구 완넌데 메 때가 완능가 하니까 일곱 때가 와편지 여기 팔러, 장나래.
{그 가지고 왔는데 몇 대가 왔는가 하면 일곱 대가 왔던지 여기 팔러, 장날.}

10330 #1 일곱 때가 완넌데 한 대에 최저 한도가 얼마 다나 삼마넌. {일곱 대가 왔는데 한

대에 최저 한도가 얼마 달라느냐 하면 삼만원.}

10330 #1 그 다매 좀 비쌌 게 웅마년, 칠마년 그 다매 그 우애 천마년까지 가지. {그 다음에 좀 비싼 게 육만원, 칠만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천만원까지 가지.}

10330 #1 그래 저 중 거뚜 가주와끼는 가주와뚜구만 누가 몰: 싸라미 하나나 이썬? {그래 저 좋은 것도 가지고 왔기는 가지고 왔던구먼 누가 몰 사람이 하나나 있어?}

10330 #1 우리야 하나두 몰: 싸라미 읍찌. {우리야 하나도 몰 사람이 없지.}

10330 #1 게 그거 보구 예:이 차 싸서 아무두 몰: 사람 업능 거 머하능가. {그래 그거 보고 에이 차 사서 아무도 몰 사람 없는 거 뭐하는가.}

10330 #1 게 추수차를 해두 버:는데 이재가 추수차털 몰:면 버:넌데 가: 차 모: 빼워꺼덩. {그래 추조차를 해도 버:는데 의재(義載)가 추조차를 몰면 버:는데 개가 차를 못 배웠거든.}

10330 #1 그래서 그래서 안 싼 안 싸구 마러찌. {그래서 그래서 안, 안 사고 말았지.}

1.2.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0103 # 게 저: 지그때 여기서 돈 빠리 하년 사람드리 지금 상점하년 사라미 한쪽덜 배끼 업썬. {그래 저 지금은 여기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점하는 사람이 한쪽들 밖에 없어.}

10103 # 상점하능 게 거신 다: 한조기여. {상점하는 게 거의 다 한쪽이야.}

10103 # 게 조선싸라몬 그르케 크게 하능 거기 하나두 업썬. {그래 조선사람은 그렇게 크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10103 # 식당 그에 식당애 여기 버:능 거뚜 한 때 안즈면 그저 보:통 보:통 그저 배고시뵈얌 배권 한내 두:리 안즈면 그저 한 그저 배고시뵈얌 그저 이르키 드르가지. {식당 그래 식당에 여기서 버는 것도 한 때 앓으면 그저 보통 보통 그저 백오십원 이백원 하나 둘이 앓으면 그저 한 그저 백오십원 그저 이렇게 들어가지.}

10103 # 채손 너무 마:너서 채소가 마:니 남찌 머. {요리는 너무 많아서 요리가 많이 남지 뭐.}

10103 # 여기 남는 채소가 업:청해. {여기는 남는 요리가 업청나.}

10103 # 그래서 이 한국처럼 이래 쪼끔쪼끔 요만큼 다머서 주녕 게 아니라 한 사례만 한 사례, 요거 시보워니다 하면 시보원 이시버니다 하면 이시번이구.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조금조금 요만큼 담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한 접시면 한 접시, 요게 십오원이다 하면 십오원 이십원이다 하면 이십원이고.}

10103 # 게 배권짜리 채 하나 사: 사게 되면 배권짜리 채 하나 사게 되면 그저 거뚜 가주구 머꾸. {그래 백원짜리 요리 하나 사 사면 백원짜리 요리 하나 사면 그저 그것도 가지고 먹고.}

10103 # 게 보:통 일고 야들까지 채를 사게 되문 한 삼사배권 드르가요. {그래 보통 일곱 여덟 가지 요리를 사면 한 삼사백원 들어가요.}

10103 @ 뭘 그르케 마니: 사요, 머글만큼만 하면 뭘 곁. {뭘 그렇게 많이 사요, 먹을 만큼만 하면 뭘 곁.}

10103 # 머글만큼만 하자니까 사라미 어데 어네: "야 내가 오늘 한팅 낸다" 할 썬개는 그

- 다매 거기 만조걸 씨겨 주기 위해서 마:이 싸지. {먹을 만큼만 하려니까 사람이 어디 어디 "야, 내가 오늘 한턱 낸다" 할 적에는 그 다음에 거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지.}
- 10103 # 짜투리두 먹따보면 다: 먹찌 모타지 마:이 머거라 마:이 머거라 해두. {짜투리도 먹다 보면 다 먹지 못하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해도.}
- 10103 # 그기 마:이 먹-따능 게 그저 절반치 차지 채 절반식 멎는 다: 남찌 머. {그게 많이 먹는다는 게 그저 절반 정도 요리 절반 정도 먹고 다 남지 뭐.}
- 10103 # 그래서 그게 나무먼 게 너무 아까운 건 아까운 건 쓸료 봉지다 싸서 가주 가지. {그래서 그게 남으면 그래 너무 아까운 건 아까운 건 비닐봉지에다 싸서 가지고 가지.}
- 10103 # 게 이르키두 하구. {그래 이렇게도 하고.}
- 10103 # 하이튼 여기 혼해여 차. {하이튼 여기 혼해 참.}
- 10103 # 자유가 망:쿠 그 다매 돈 이씨면 무시기나 맘:대루 싸 머글 쑈 이꾸. {자유가 많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무엇이냐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 10103 # 교통이 어디나 갈 쑈 이꾸. {교통이 어디나 갈 수 있고.}
- 10103 # 그저 머 주민등록쪼이고 어디 머 보지두 양쿠 다: 아무데나... {그저 뭐 주민등록증이고 어디 뭐 보지도 않고 다 아무데나...}
- 10103 # 여기서 부경 갈라면 가구 머 대:런 갈라면 가구 아:무데나 가지. {여기에서 북경 가려면 가고 뭐 대런 가려면 가고 아무데나 가지.}
- 10103 # 그 다매 여기 지금 선생니미 오다가 산 봐:따구 안 해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오다가 산 봤다고 안 했어요?}
- 10103 # 저: 목판강서부터 시작 해가주, 목판강 뒤에는 그래두 사니 이꺼덩. {저 목단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단강 뒤에는 그래도 산이 있거든.}
- 10103 # 목판강서 시작걸 해 가주구 활빈 가목싸 그 다매 이짜개 저: 지지할: 하이라루 사니 하:나두 읍썬. {목판강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하얼빈 감옥사 그 다음에 이쪽에 저 치치할 하이랄 산이 하나도 없어.}
- 10103 # 한: 그 해 뜨능 게 해 뜨능 게 어디서 뜨능가 하게 되면 그: 바닷물 평되문 바닷물 아래서 해 올라오능 거 그거 가치, 또:까태 해 뜨능 기. {한 그 해 뜨는 게 해 뜨는 게 어디에서 뜨느냐하면 그 바닷물이 수평되면 바닷물 아래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 그거 같이, 똑같아 해 뜨는 게.}
- 10103 # 그르키 되:구, 다: 땡기머 환:는데 게서 게 그런데 다: 도러땡기머 봐:찌 머. {그렇게 되고, 다 다니며 봤는데 그래서 그래 그런데 다 돌아다니며 봤지 뭐.}
- 10103 # 그 다매 거기 무수개 주로 농삼무렁가 하게 되면 주:로 밀: 옥씨기 그저 이기 주로 중시미지. [그 다음에 거기 무슨 주로 농산물인가하면 주로 밀 옥수수 그저 이게 주로 중심이지.}
- 10103 # 그 벼두 만치 아이여. {그 벼도 많지 않아.}
- 10103 # 벼두 벼두 그르키 만:치 아니여. {벼도 벼도 그렇게 많지 않아.}
- 10103 # 논바트 망:키는 하지만 이쪽 활빈서버터 목땅강 어가내 거기년 다: 다: 수저이지 머 거기는, 몽땅. {논밭은 많기는 하지만 이쪽 하얼빈서부터 목단강 어간에 거기는 다, 다 논이지 뭐 거기는, 몽땅.}
- 10103 # 그 우루수 둔: 또 엽따 마리어. {그 위로는 또 없다 말이야.}

1.3.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여기 사:방 삼 길림성에 사:방 삼뱅니 사:방 삼뱅니에 삼뱅니에 느피 쿵::개 이찌.
{여기 사방 삼, 길림성에 사방 삼백리, 사방 삼백리에 삼백리에 높이 큰 게 있지.}

10201 # 느피.{높이.} 10201 @ 느파나가? {높 하나가?}

10201 # 으: 느파나가 사:방 삼뱅니지. {응, 높 하나가 사방 삼백리지.}

10201 @ 그개 어디 이씨요? {그개 어디에 있어요?}

10201 # 그 길림성 더개 인넌데. {그 길림성 덕해 있는데.}

10201 # 더캐라구 인넌데. {덕해라고 있는데.}

10201 @ 더캐? {덕해?}

10201 # 예: 거기 이찌. {예, 거기 있지.}

10201 # 거긴데 그 늑 가:애는 가애는 몽::땅 깔때란 마리여, 깔때. {거긴데 그 늑 가는 가는 몽땅 깔대란 말이야, 깔대.}

10201 # 게 깔때: 깔때:데 여기 남방에서 기러기가 날라 거기 간다 마리여. {그래 깔대 깔대인데 여기 남방에서 기러기가 날아 거기서 간다 말이야.}

10201 # 거: 가서는 그 깔때 쏘바개, 깔때 쏘바개 가서 아릴 나치. {거기에 가서는 그 깔대 속에 깔대 속에 가서 알을 낳지.}

10201 # 거기서 기러기 새끼를 쳐 자주구 거기서 머꾸서넌 키워 자주구서넌 그 다매 또 가:으리 되면 또 나간다 마리여 남방으루. {거기에서 기러기 새끼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는 키워 가지고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또 나간단 말이야 남방으로.}

10201 # 이르기 와따: 가따 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10201 # 그래 거기 그르키 마:는데 가 이찌. {그래 거기 그렇게 많은 데가 있어.}

10201 # 거기: 아:거가 만:치. {거기에 악어가 많지.}

10201 @ 아거요? {악어요?}

10201 # 아:거. {악어.}

10201 # 그래 여 오:리 자버머꾸 그저 고기 자버머꾸 그저 이러지. {그래 여 오리 잡아먹고 그저 고기 잡아먹고 그저 이러지.}

10201 @ 겨우래 추우면 어뜨개요?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해요?}

10201 # 물 쏘개 드르가지. {물 속에 들어가지.}

10201 # 물 쏘개서 고기 자버먹찌, 겨우래 추우면. {물 속에서 고기 잡아먹지, 겨울에 추우면.}

10201 # 기:피요 거기. {깊어요 거기.}

10201 # 여기서 사:방 삼뱅니. {여기서 사방 백리.}

10201 # 널벼요 삼뱅니 여기서 훈춘 가기만 널비 여기서 더운 날씨가 이르키 다: 되지. {넓어요 삼백리, 여기서 훈춘 가기보다, 넓이가 여기서 더운 날씨가 이렇게 다 되지.}

10201 # 이:리루 이: 함파내서 이리 누버 함파내서 이리두 삼뱅니 이:리두 삼뱅니 이리두 삼뱅니라 마리여. {이리도 이 한 판에서 이리 누워 한 판에서 이리도 삼백리 이리도 삼백리란 말이야.}

10201 # 커:요 그거. {커요 그거.}

10201 # 느피 그르키 커. {높이 그렇게 커.}

10201 @ 거기는 언제 가셨어요? {거기는 언제 가셨어요?}

10201 # 그저네 땡길 때 거기 가 봐:찌, 부대애 대해서 부대서 땡길 찌개. {그저에 다닐 때 거기 가 봤지, 부대에서 부대에서 다닐 적에.}

10201 #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느푸 구경하면 아::처라캐 뵈이지 머 그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늙을 구경하면 까마득하게 보이지 뭐 그저.}

10201 @ 예 어트개 뵈요? {예, 어떻게 보여요?}

10201 # 아치라캐 뵈인다구. {까마득하게 보인다고.}

10201 # 그저 가물가물라캐 뵈이지 호호호. {그저 가물가물하게 보이지. 호호호.}

10201 # 헤헤 헤. {헤헤 헤.}

10201 @ 예:. {예.}

10201 # 그 사라미 다: 도러댕기구 대:런, 대:런 여기서 동부개서 저: 광 저:: 광동까지 거: 러가찌. {그 사람이 다 돌아다니고 대런, 대런 여기에서 동북에서 저 광(동) 저 광 동까지 걸어갔지.}

10201 # 거러가는데 여기가 지금 메 칠링가 되게되면 한 팔철 리 팔철 리 거의 되요. {걸어 가는데 여기가 지금 몇 천리인가 하면 한 팔천 리 팔천 리 거의 되요.}

10201 # 그래두 그 다맨 이에 동부서부터 그냥:: 거러서 행군해서 거러서 광동까지 가때써. {그래도 그 다음에는 여기 동북에서부터 그냥 걸어서 행군해서 걸어서 광동까지 갔 었지.}

10201 # 게 중화임민공화국 성립 후에 여기 나와찌. {그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여기 로 나왔지.}

10201 @ 그때:는 군대 이쓸 때는 마:른 중궁말만 하셔찌요? {그때는 군대 있을 때는 말은 중국말만 하셨지요?}

10201 @ 중궁말루 하셔찌요? {중궁말로 하셨지요?}

10201 # 몽::땅 중궁마리지 머. {몽땅 중국말이지 뭐.}

10201 # 내게 중궁말루 조섬말루 엠:말 하드끼 과:거애 그 엠:말 하드끼 이르케 해뎠는데 아이 쓰니까 이저명넌다 마리어. {나한테 중국말로 조선말로 옛말 하듯이 과거에 그 옛말 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안 쓰니까 잊어버린다 말이야.}

10201 # 그래 다: 이저머거찌. {그래 다 잊어버렸지.}

10201 # 그래 그 다: 그래 그: 한족 뿌대애: 내 혼자 이쓰니까. {그래 그 다 그래 그 한족 부대에 나 혼자 있으니까.}

10201 # 항 개 바:니먼 항 개 부대면 항 개 부대 나 혼자 이씨니까. {한 개 반이면 한 개 부대면 한 개 부대에 나 혼자 있으니까.}

10201 # 아무래두 중궁말 아나만 안 된다 마리어. {아무래도 중국말 안하면 안 된다 말이 야.}

10201 # 게 삼녀넬 버버리지대찌 삼년을. {그래 삼년을 병어리짓 했지 삼년을.}

10201 # 처:매 가 한중마를 몰라. {처음에 가서 한족말을 몰라서.}

10201 # 주기래 주그라구 해두 모르구 밤 머그라구 해두 모르구 거저: 그저 눈치망 가주구 서 생화래찌 처:매. {죽이래 죽으라고 해도 모르구 밥 먹으라고 해도 모르구 그저 그저 눈치만 가지고 생활했지 처음에.}

10201 # 그래서 그 다매는 한 오륙년 지내니까 그 다매 마르 배우기 시자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오륙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말을 배우기 시작했지.}

10201 # 그래 어트개 하능가 하니까 그르키:: 모빠운 사람드른 마:르 모르거나 그릴 모르거

나 이르게 한 사람드른 내 아푸루 그 부대서 조장얼 하나 선택개서 주지.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은, 말을 모르거나 글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 앞으로 그 부대에서 조장을 하나 선택해서 (붙여)주지.}

10201 # 너 임무 완성 해:라. {너 임무 완성해라.}

10201 # 그러구서는 매::일 한 자 글씨 매일 한 자 그러게 되면 먼저 배운 건 또 다: 이저 멍는다 마리어. {그러구서는 매일 한자, 글씨 매일 한 자 그러면 먼저 배운 건 또 다 잊어버린다 말이야.}

10201 # 한 서너달 지내개 되면 먼저 배운 건 다: 이저 머꾸. {한 서너달 지나면 먼저 배운 건 다 잊어버리고.}

10201 # 그라다 또 전투할 땐 또 읍:꾸, 전투나 홀려니나 하면 또 모: 빼우지. {그러다가 또 전투할 때는 또 없고, 전투나 훈련이나 하면 또 못 배우지.}

10201 # 그라다 또 실 저: 주두 주둔부대가 해서 주둔하구 이쓰면 또 배워지. {그러나가 또 저 주둔 주둔부대가 해서 주둔하고 있으면 또 배우지.}

10201 # 그래서 그래서 한 칠팔년 배워찌. {그래서 그래서 한 칠팔년 배웠지.}

10201 # 기 말:두 배우구 그 다매 글두 배우구. {그래 말도 배우고 그다음에 글도 배우고.}

10201 # 이래두 배워서 지금 감파니래두 보능 게 군대가 배운 기지 지비 이썰 때 공부 모 태찌. {이래도 배워서 지금 간판이라도 보는 게 군대가서 배운 것이지 집에 있을 때는 공부 못했지.}

10201 # 옐:나래 하라부지 꺾부터 아버지까지 뭐랜능가 하게 되면 마짜시글 공부 씨기면 애빈, 애비라 그라그딩 그때는, 인재 하라부지가 애비 그 애비 눈 똥 거와 마창가지다. {옛날에 할아버지 꺾부터 아버지까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맞자식을 공부시키면 애빈, 애비라 그러거든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가 애비 그 애비 눈 뜬 것과 마찬가지로.}

10201 # 마짜시글 공부 씨기면 애비 눈똥 거와 마창가지다. {맞자식을 공부시키면 애비 눈 뜬 것과 마찬가지로.}

10201 # 이르카구 형니덜 공부 씨겨찌. {이렇게 하고 형님을 공부 시켰지.}

10201 # 게 나넌 제자 제저 제차라구 그저 둘째라구 아이 씨기구서넌 여기루 와끼 때매 공부 모:태찌. {그래 나는 지차 지차라고 그저 둘째라고 안 시키고는 여기로 왔기 때문에 공부 못했지.}

10201 # 게 처매는 뭐: 가이가 뒤뜨래 삼넌 후에야 지비다 편지해찌. {그래 처음에는 뭐 가가 뒤뜰에 삼넌 후에야 집에다 편지했지.}

10201 # 삼넌 거: 가서 삼넌 배운 후에야 지비다 편지 함 번...{삼넌 거기 가서 삼넌 배운 후에야 집에다가 편지 한 번...}

10201 # 그래 그르케 생활했는데 머. {그래 그렇게 생활했는데 뭐.}

10201 @ 여기 오셔쓸 때가 며싸리예요? {여기 오셨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201 # 옐: 쌀. {옐 살.}

10201 @ 옐: 쌀. {옐 살.}

10201 # 으:. {응.}

10201 # 그때:... {그때...}

10201 @ 삼십팔려니라 그랜나요? {삼십팔년이라고 그랬나요?}

10201 # 삼십팔련 삼십팔련 이:월딸. {삼십팔년 삼십팔년 이월달.}

10201 @ 이월따리면 추운데. {이월달이면 추운데.} 10201 # 아: 추워서요. {아, 추웠어요.}

10201 @ 여기 엄청나게 추워쓸 텐데. {여기는 엄청나게 추웠을텐데.} 10201 # 대:다이 추워찌 머, 여기. 허허허. {대단히 추웠지 뭐, 여기. 허허허}

10201 @ 근대 집뚜 어꾸 그럴 때 오셔쓰꺼 아니요 그럼. {그런데 집도 없고 그럴 때 오셨을 거 아니요, 그럼.}

10201 # 예:. {예.}

10201 # 그래 머 그래서 그거다매 나무 지배: 마라자면 저런 허더간 가튼 열팡에 열팡이라능 건 그 우팡에 이룬데 드러찌. {그래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의 집에 말하자면 저런 헛간 같은 열팡에 열팡이라는 것은 그 윗방에 이룬데 들었지.}

10201 # 게 여기 마그면 이런 우팡에 이런 데 드러 이써. {그래 여기 막으면 이런 윗방에 이런 데 들어 있어.}

10201 # 그러다 그러면서 집 지쿠 나가찌. {그러다가 그러면서 집 짓고 나갔지.}

10201 # 고야 고야 고야. {고야, 교야, 고야.} 10201 @ 그러면 거기 정암 정아매다가 해짜나요? {그러면 거기 정암 정아매다가 했잖아요?}

10201 # 예:. {예.}

10201 @ 처:매는 거기 말구 저기 왕청 인는데 어디 머 가서써따 그랜나요? {처음에는 거기 말고 저기 왕청 있는데 어디 뭐 가셨었다고 그랬나요?}

10201 # 아이. {아니야.} 10201 @ 고 얘기 한번 해 해줘 보세요. {그 얘기 한 번 해줘 보세요.}

10201 # 왕청 나자고는, 지금 이르키 돼:거덩. {왕청 나자고는,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

10201 # 보언, 옥천, 청주. {보은, 옥천, 청주.}

10201 @ 예. {예.}

10201 # 세: 개 구내서 세: 개 구내서 모지별 해찌, 일번 애드리. {세 개 군에서 세 개 군에서 모집을 했지, 일본애들이.}

10201 # 모지별 한테 만주 드르갈 싸라미 이쓰면 여기 그땐 만:주라구 해끄덩 만:주, 도장 열 찌거라, 이르키 돼:찌. {모집을 했는데 만주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여기, 그때는 만주라고 했거든 만주,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되었지.}

10201 # 그때: 우리 아버지 마:래 어트기 똥능가 하니까 우리 이쓸 때 열 싸래두 내: 아홉살 여 싸래두 내 알:지 그거. {끄때 우리 아버지 말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있을 때 열 살에도 내 아홉 살 열 살에도 내가 알지 그거.}

10201 # 지주 지주 땅 여파래 이룬 지주 땅 이르케 이쓰른 지주 땅 여파래 습찌 지대가 또 이마냥 개 이써따 마리어.{지주 지주 땅 옆에 이런 지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지주 땅 옆에 습지가 또 이만한 게 있었던 말이야.}

10201 # 긴테 우리가 이걸 소작-농으루 부쳐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작농으로 부쳤지.}

10201 # 소작농으로 그때 아버지가 하라부지에 다: 이쓰면서, 삼춘두 이써꾸, 게:시구... {소작농으로 그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있으면서, 삼춘도 있었고, 계시고...}

10201 # 그다:매 이개 인재 소:장농으루 이따가 게 우리 이게 열망가 육'화리 육'화리라는 게 예:: 여서 푸대럴 지주내 집 주구 네: 푸대로 우리 명넌다 마리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작농으로 있다가, 그래 우리 이게 얼마인가 하면 육화리 육화리라는 게 예 여섯 포대를 지주네 집에 주고 네 포대로 우리가 먹는단 말이야.}

10201 # 농살 지어 주구. {농사를 지어 주고.}

10201 # 그래서 유화리나 사화리나 유화리 하면 그러케 하지.{그래서 육화리나 사화리나 육화리 하면 그렇게 하지.}

10201 # 근데 이게 습찌 지대가 이썬 가주구 여기 노닐 푸러쓰면 지주 땅얼 암 부쳐두 제가 농살 저서 저머그니까 그담맨 되개따. {그런데 이게 습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논을 풀면 지주 땅을 안 부쳐도 제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으니까 그 다음에 되겠다.}

10201 # 게 삼녀닐 하라부지하구 아버지하구 쪽찌개루 흘겔 저다가 여기다 뵤:찌, 삼녀늘. {그래 삼년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지게로 흠을 저다가 여기다가 부엌지, 삼년을.}

10201 # 게 뵤 가주구서넌 도궤 가주구서넌 거기 노닐 맨드러다 마리어. {그래 부어 가지고 서 돌아 가지고 거기에 논을 만들었던 말이야.}

10201 # 노닐 크게 인재 뎌 고개: 그레이까 단 마지기 단 마지기를 맨드러따 마리어. {논을 크게 이제 뎌 그기 그러니까 뎌 마지기 뎌 마지기를 만들었던 말이야.}

10201 @ 팽장이 큰대요. {팽장이 큰대요.}

10201 # 응 단 마지기. {응, 뎌 마지기.}

10201 # 단 마지기를 맨드러 가주서넌 해 뵤는데 그 다매 자기 땅 여파리라구 지주가 땅 문서를 자기 아푸루 올려놔다 마리어, 이거를. {뎌 마지기를 만들어 가지고는 해 뵤는데 그 다음에 자기 땅 옆이라고 지주가 땅 문서를 자기 앞으로 올려놔단 말이야, 이것을.}

10201 # 그래 인재 그래 노니까 그때는, 돈: 인넌 사라미 켄러기란 마리어. {그래 이제 그래 뵤으니까,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이란 말이야.}

10201 #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저 항구개 저 오:송 경찰서에 가서 이겔 다 해 놔꺼덩.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저 한국에 저 오송 경찰서에 가서 이겔 다 해 뵤거든.}

10201 # 그래 아버지가 가:찌, 지주내 지비릴, 가 가주구서넌 지주:떠러 어째서 이개 내가 일군 땅인데 어트리 돼:서 네 아푸루 땅문서를 옹겨 뵤나, 당금 취소하구 내 아푸루 옹기개따. {그래 아버지가 갔지, 지주내 집을, 가 가지고 지주에게 어째서 이개 내가 일군 땅인데 어떻게 되어서 네 앞으로 땅 문서를 옹겨 뵤나, 당장 취소하고 내 앞으로 옹기겠다.}

10201 # 이르키 돼:찌. {이렇게 뵤지.}

10201 # 그럼 네 아푸루 해:라. {그럼 네 앞으로 해라.}

10201 # 오송 가서 경찰서 가서 해:라. {오송 가서 경찰서에 가서 해라.}

10201 # 게 해 뵤쓰니까 저넌 인젠 시름 노쿠 하라 구란다 마리어. {그래 해 뵤으니까 저는 이제 시름 놓고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10201 # 안 된다, 네가 가치 가자. {안 된다, 네가 같이 가자.}

10201 # 이근 양 가개따내 또 지주넌. {이건 안 가겠다네 또 지주는.}

10201 # 그래서 싸:미 버러저따 마리어, 여기서.{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야, 여기서.}

10201 # 게 인재 하라부지는 인재 나, 연세 게시니까 인재 그만두구. {그래 이제 할아버지는 나(이),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10201 # 그담맨 아버지가 지주하구 싸우미 부개 되니까 지주가 머시멸 두: 머시멸 동워내 가주구 지주까지 서:이 아버지릴 두디려 뵤따 마리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지주

하고 싸움이 붙게 되니까 지주가 머슴을 두 머슴을 동원해 가지고 지주까지 셋이 아버지를 두드려패 왔단 말이야.}

10201 # 그래개 일쭤이르 이러나지 모타개 마자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일주일을 일어나지 못하게 맞았지, 아버지가.}

10201 # 그 다매 마구 나니까 안 되개꺼덩, 그 우리 아버지두 성지리 혈차이요. {그 다음에 맞고 나니까 안 되겠거든, 우리 아버지도 성질이 쉽지 않아요.}

10201 # 그래 가주선 한 일쭤일 후애 그 다매 나서따 마리여. {그래 가지고는 한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나왔단 말이야.}

10201 # 그 다매 한 열흘마내 인재 모덜 추어 가주구 여를마내 안 되개따 또 가자. {그 다음에 한 열흘만에 이제 몸을 추어 가지고 열흘만에 안 되겠다 또 가자.}

10201 # 지주 정가내 그 바태 이:라러 간 새 아버지가 가따 마리여. {지주 정간에 그 밭에 일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가 갔단 말이야.}

10201 # 가 가주서넌 지주하구 마싸덜 붙 부터찌. {가 가지고는 지주하고 말 싸움이 붙었지.}

10201 # 게 지주덜 두디려 노쿠 아버지가 지주덜 드러뉘퍼 노쿠서넌 지주 조:상얼 드러다가 변소가내 가다 처여따 마리여. {그래 지주를 두드려패 놓고 아버지가 지주를 들어 누퍼 놓고서는 지주 위패를 들어다가 변소에 가져다 처넣었단 말이야.}

10201 # 그라구선 에이 씨양누무거 이놈데서 모쌀거따 그래 그때 이제 지주가 경찰서애다 보고해 가주구 아버지덜 부뜰개 돼:찌. {그러고는 에이 쌍놈의 것 이놈의 데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주가 경찰서애다 보고해 가지고 아버지를 붙들게 되었지.}

10201 # 지주 조:상에 변소가내, 그래 양반질두 모:탄다 마리여. {지주 위패가 변소에 들어가, 그래 양반질도 못 한단 말이야.}

10201 # 거기서 부라개서 동네에서 머라구 헨능가 하니까 지주 조:상이 변소가내 드러가 따::. {거기에서 부락에서 동네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주 위패가 변소에 들어갔다.}

10201 # 이 소무니 나가주구 양바내서 떠러저따 마리여, 양반질두 모:탄다 마리여. {이 소문이 나가지고 양반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양반질도 못 한단 말이야.}

10201 # 그래 가주서 그 다매는 청주루다 도망가찌.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청주로 도망갔지.}

10201 # 게 청주루 도망가 가주구 그게 이쓰니까 도장얼 찌꾸 와따 마리여. {그래 청주로 도망가 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도장을 찍고 왔단 말이야.}

10201 # 그래서 드러웁 잼니다, 여기르.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를.}

10201 # 그래서 형니문 거기다 공부하라구 떨구구, 그 다매 나만:, 내가 그래잉개 젤: 쿵 기지 돼:찌 인재. {그래서 형님은 거기다 공부하라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만, 내가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되었지 이제.}

10201 # 일곱 식구가 드러와찌 여기.{일곱 식구가 들어왔지 여기.}

10201 # 게 일곱 식구가 드루와 가주구서넌 여와서 생활하개 되지. {그래 일곱 식구가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와서 생활하게 되지.}

10201 # 그래서 내가 공부 모:탕개 위:니 돼: 가주구, 거: 술바찌 거기 반 매루 가찌. {그래서 내가 공부 못 한 게 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 술밭재 거기 밭 매러 갔지.}

10201 # 반 때루 가니까 공부하구 시분 생가기 영:: 기가 매키여 나제, 공부는 해야 되겐데 공부는 못 안: 씨기니까 어트가나. {발 때러 가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영 기가 막혀 낮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못 안 시키니까 어떻게 하나.}

10201 # 그때는 월싸그덜 무리야 돼따 마'리여, 월싸금. {그때는 월사금을 물어야 되었던 말 이야, 월사금.}

10201 # 월싸그먼 먼데 도:니 이씨야 공불 씨기지. {월싸금은 무는데 돈이 있어야 공부를 시키지.}

10201 # 게 애:드른 석뚜 해교애 가지. {그래 애들은 석뚜 학교애 가지.}

10201 # 나는 그: 가능 거 보먼 가구 십찌. {나는 그 가는 거 보먼 가고 싶지.}

10201 # 공부넌 해여 돼개찌.{공부는 해야 되겠지.}

10201 # 게 아버지넌 안: 시기찌. {그래 아버지는 안 시키지.}

10201 # 게 일만 그쩍 한다 마'리여. {그래 일만 죽도록 한단 말이야.}

10201 # 그래 시:팔새 된 다매 다: 갈, 풍사늘 다: 저꺼찌. {그래 십팔새 된 다음에 온갖 풍상을 다 겪었지.}

10201 # 그래 십니평 십니평 마:끼패라두 가구. {그래 십리평 십리평 마끼패라도 가고.}

10201 # 그 다매 아:부지 하는 닐 그저 하구 내 혼자 가 낭구해 오구. {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는 일 그저 하고 나 혼자 가서 나무해 오고.}

10201 # 거 낭구하구 지비 불 때구. {그 나무하고 집에 불 때고.}

10201 # 시골찌배 가통 거 이런 곡씩 가통 거 시러디릴 때 아버지하구 가치 시러디리구. {시골집 같은 거 이런 곡식 같은 거 실어들일 때 아버지하고 같이 실어들이고.}

10201 # 그냥, 그냥:: 농사일 해찌.{그냥, 그냥 농사일 했지.}

10201 # 게 열려서던 열려덜 쌀 된 다매, 아이 되개따구. {그래 열여섯 열여덜 살 된 다음에, 안 되겠다고.}

10201 # 해방 후애지 그때. {해방 후지 그때.}

10201 # 열려서쌀 해방 마자꺼딩, 해방 후애. {열여섯 살 해방맞았거든, 해방 후에.}

10201 # 그 다:매 어머니가 채:소바태 가씨. {그 다음에 어머니가 채소밭애 갔어.}

10201 # 채:소바태 그래니까 배:차랑 모두 그거 나무새 시문데 남새 시문데 거기릴 나가서. {채소밭애 그러니까 배추랑 모두 그거 나물 심은데 나물 심은데 거기를 나가서.}

10201 # 게 아'부지넌 또 머헝가하니 사내 순 꾸루 가씨 순, 돈뻘리 하너라구 순 꾸루 가씨. {그래 아버지는 또 뭘 했는가 하면 산에 숯 구으러 갔어 숯, 돈뻘이 하느라고 숯 구으러 갔지.}

10201 # 그대 이:른 내기다 지빈 이:른 다: 내기다 매겨 노쿠 거기 올라가따 마'리여. {그 다음에 일은 나한테 집에 일은 다 나한테 맡겨놓고 거기 올라갔단 말이야.}

10201 # 에이 씨알 주기 되나 바비 되나 낭 가개따. {에이 씨알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나는 가겠다.}

10201 # 게서 거기서 지비서 아:무두 업쓸 때 떠나 가주구서 어디 간능가 하게 되문 해 가꾸 도문 나가찌.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떠나 가지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해 가지고 도문으로 나갔지.}

10201 # 도문 나가 가주구서 도문서... {도으로 나가 가지고 도문에서...}

10201 # 그때는 무법천지라 마'리여. {그때는 무법천지란 말이야.}

10201 # 해방 지쿠 그때. {해방 직후 그때.}

10201 # 기차 화:통인는데루 올라타찌. {기차 화통 있는데로 올라탔지.}

10201 # 올라타구선 목판강애 포병해교가 이따는데, 팔로구니 말:항 개 이따 마리어, 우리 부락애 와서. {올라타고는 목단강애 포병학교가 있다는데, 판로군이 말한 게 있단 말이야, 우리 부락애 와서.}

10201 # 포병해교가 이따는 내 해교라능 검만 아러찌 포병이 머하능 긴지 몰:'라따 마리어. {포병학교가 있다는 거 내가 학교라는 것만 알았지 포병이 뭐하는 것인지는 몰랐단 말이야.}

10201 # 그래서 그대 거기루 가:찌. {그래서 바로 거기로 갔지.}

10201 # 거기루 가서 저: 화통 아내 화통애 걸쳐 타니까 어:뜨키 바라미 쟤지 어트기 추운 지 머 견딜 수가 이씨야지, 우티넌 이:르키 이꾸 간는데.{거기로 가서 저 화통 안에 화통애 걸쳐 타니까 어떻게 바라이 쟤지 어떻게 추운지 뭐 견딜 수가 있어야지, 옷은 이렇게 입고 갔는데.}

10201 @ 그때가 며칠따린대요? [그때가 몇 월달인데요?]

10201 # 아: 그때 시:월따리지머. {아 그때 시월달이지 뭐.}

10201 # 그래: 구:월딸. 근데 야: 구월딸 시월딸 인데 구월 이십빌라래 떠나꺼덩. {그래 구월달, 그런데 아, 구월달 시월달인데 구월 이십일날 떠났거든.}

10201 # 그래대 어:찌 추분지 견딜 쭈가 이씨. {그래 어찌나 추운지 견딜 수가 있어.}

10201 # 그 다맨 목판강애 도착-하니까 막: 떨기지 막 그냥 배고푸지 머: 어티개 할 쭈가 이씨야지. {그 다음엔 목단강애 도착하니까 막 떨리지 막 그냥 뺨고프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10201 # 조선사람 한: 차줄라니 조선사람 다: 조선사람두 한:조기요 한:죽뚜 한:조기란 마리어. {조선사람을 찾으려니 조선사람 다 조선사람도 한쪽이요 한죽도 한죽이란 말이야.}

10201 # 마:라능 기 다:. {말하는 게 다.}

10201 # 아 이르니 어디가서 조선사라물 만나볼 쭈가 이씨야지. {아 이러니 조선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어야지.}

10201 # 그래 제정 때 그 정아매 순사지라든 순사지란든 저 어: 정창위니라구 이씨. {그래 제정 때 그 정암에서 순사질하던 순사질하던 저 정창원이라고 있어.}

10201 # 정창위니라구. {정창원이라고.}

10201 # 게 그 사라머: 차저야 되겐데 그 사라물 모:차깨다. {그래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못 찾겠다.}

10201 # 그래 볼 거기서 인저: 아지마이 하나 치마 이봉 거 하나 만나 가주구 무러찌. {그래 거기서 이제 아주머니 하나 치마 입은 거 하나 만나 가지고 물었지.}

10201 # 저기 저::기 여기 포병해교 가자면 어디루 가능가 하구. {저기, 저기 여기 포병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는가 하고.}

10201 # 저:기 저 지:드마케 진 저지비라구 구란다 마리어. {저기 저 길게 지은 저 집이라고 그런다 말이야.}

10201 # 게 거기르 가찌. {그래 거기르 갔지.}

10201 # 거기르 가니까 지도위니 사라매: 데리구서, 그 정창위니가 거기 이뽕구만. {거기르 가니까 지도원이 사람이 데리구서, 그 정창원이가 거기 있더구먼.}

10201 # 게 거기서 정창위니가 데리구서넌 지도원 인넌데 가찌. {그래 거기서 정창원이가

데리고는 지도원이 있는데 갔지.}

10201 # 거 지도워니라능 게 그때 당애 서기지 마라자면. {그 지도원이라는 게 그때 당의 서기지 말하자면.}

10201 # 거 부대 *** 거기 가니까 언:제 완능가? {거 부대 *** 거기 가니까 언제 왔는가?}

10201 # 아이 이제 곰만 오능 기리라구. {이제 막 오는 길이라고.}

10201 # 밤 머견능가? {밥 먹었는가?}

10201 # 머 마:를 아려야지. {뭐 말을 알아야지.}

10201 # 그 사라미 정창워니가 또 버녀개 준다 마리며. {그 사람이 정창원이가 또 번역해 준단 말이야.}

10201 # 게 밤 머견느냐구 무려본다구. {그래 밥 먹었느냐고 물어본다고.}

10201 # 아이 머거따 구라니까 그럼 바부터 머꾸 여기 오라구.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럼 밥부터 먹고 여기 오라고.}

10201 # 그래 정카니가 창워니가 데리구 가서 바벌 주녕 게 머 주녕가 하니까 그저: 옥씨기 떡. {그래 정창원이가 창원이가 데리고 가서 밥을 주는 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그 저 옥수수떡.}

10201 # 마라자면 옥씨기르 인저 갈거루 가따 이르키 예:: 구깨: 구깨 빠승 거, 이걸 가따 귀:테라 구라는데 이러키 소느루 쥐어서 가마애다 떡 부치거덩. {말하자면 옥수수를 이제 가루로 가지고 이렇게 예 굶게 굶게 뺀 것, 이것을 가지고 귀테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가마술에 떡 붙이거든.}

10201 # 부쳐서 찌 냉기라 마리며. {붙여서 찌낸 거란 말이야.}

10201 # 게 이걸 가따 권 한종말로 귀:테라 구라지. {그래 이걸 가지고 귀(테) 한족말로 귀테라고 하지.}

10201 # 게: 그거 인저 하나 하나 쥐: 그거 하나 머거찌. {그래 그거 이제 하나 하자 쥐서 그거 하나 먹었지.}

10201 # 게 궁물, 궁물하구 게 그거 하나 머거찌. {그래 국물, 국물하고 그래 그거 하나 먹었지.}

10201 # 머구서넌 또 데리구 간다 마리며. {먹고는 또 데리고 간단 말이야.}

10201 # 데루 가더니 그 다맨 나:이 무때. {데리고 가더니 그 다음에는 나이를 묻더군.}

10201 # 나:임는 내가 마:털 할 쭉 이써? {나이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어?}

10201 # 그래 정창워니가 알 아라서 열려덜 싸리라 그러니까 아 그렇가 하구. {그래 정창원이라 알 알아서 열여덜 살이라고 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10201 # 그 다매 뭐:' 해능가? {그 다 음에 뭐 했는가?}

10201 # 농사일 해:따. {농사일 했다.}

10201 # 거저 이래지 아 그럼 조타구. {그저 이래지 아 그럼 좋다고.}

10201 # 이쓰라구. {있으라고.}

10201 # 이쓰라구 하더이 한: 다를 그냥:: 무넌 내빠러 뇌둔다 마리며. {있으라고 하더니 한 달을 그냥 내버려 뇌둔단 말이야.}

10201 # 그래 가서 밤 머그먼 밤 머꾸. {그래 가서 밥 먹으면 밥 먹고.}

10201 # 부대 애드리 저: 무슨 나가서 저: 학스바러 가면 거가 학스바구. {부대 애들이 저 무슨 나가서 저 학습하러 가면 거기에 가서 학습하고.}

10201 # 학스벌 하는대 칠파니 이르키 커. {학습을 하는데 칠판이 이렇게 커.}

10201 # 근데 그 해표 가서 하던데 해표 칠파니 크다 마리어, 이마내:.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하는데 학교 칠판이 크단 말이야, 이만해.}

10201 # 게 거기다 그리 한:짜 글짜 한짜럴 이르키 이른 글짜 짝:: 빠거 쓰지. {그래 거기다 글이 한자 글자 한자를 이리케 이런 글자를 짝 박아 쓰지.}

10201 # 게 써개. {그래 쓰개.}

10201 # 쓰그먼 나넌 처:매 이르키 보구 하나 그꾸 이르키 보구 하나 그꾸 이르카구 이르카구 나노문 머라구 하능가 하면 기억 교:워니 또 다: 썬능가 하구 다: 뭉개빠린다 마리어. {쓰면 나는 처음에 이렇게 보고 하나 굿고 이렇게 보고 하나 굿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원이 또 다 썼는가 하고 다 지워버린단 말이야.}

10201 # 그러면 게:우 한 자: 거기서 한 자 쓰면 다: 뭉개빠려, 다른 사라문 다: 썬능가. {그러면 겨우 한 자 거기서 한 자 쓰면 다 지워버려, 다른 사람은 다 썼는지.}

10201 # 이르키 하지. {이렇게 하지.}

10201 # 그래 가주서넌 거기서: 한 자: 한 자 배워 가주구선 안 대개따구 그 다매 {그래 가지고는 거기서 한 자 한 자 배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 다음에.}

10201 # 당애 서기가 조:장일 암페해서 내기다 학쑥 조장, 게 마라자면 지금 마라자면 머라구 마라면 문맹퇴치 문맹퇴치 하라능 기지. {당의 서기가 조장을 암페해서 나한테 학쑥 조장, 그래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뭐라고 말하면 문맹퇴치 문맹퇴치 하라는 거지.}

10201 # 그래 그걸 해:서 매껴따 마리어. {그래 그걸 해서 맡겼단 말이야.}

10201 # 그래서 그 다매 말:두 배우구 글두 배우구. {그래서 그 다음에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10201 # 이르게 게오 내 지금 잉능 게 지금 한짜보구 잉능 게 하:너루 일거 가주구-는 그걸 조선말루 확 버너개 내떠리지 모타지.{이렇게 게 내가 지금 읽는 게 지금 한자로 읽는 게 한어로 읽어 가지고는 그것을 조선말로 확 번역해 내지 못하지.}

10201 # 보고넌 봐:두 조선말루 버너개 내떠리지 모타지. {보기는 봐도 조선말로 번역해 내지 못하지.}

10201 # 게 이'미를 이'미를 모른다 마리어. {그래 의미를 의미를 모른단 말이야.}

10201 # 이 저 쇠 금 하면 쇠 금짜를 저: 머여 아 이거 어째 쇠 그미 땀:능가.{이 저 쇠 금 하면 쇠 금자를 저 뭐야 아 이게 어째서 쇠금이 되었는지.}

10201 # 이 이걸 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그걸 지금 모르지. 10201 # 보녕 건 그저 기본상 봐:두. {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그걸 지금 모르지.}

10201 # 기래서 또 그거 알:기 위해서 그냥:: 써찌 머. {그래서 또 그걸 알기 위해서 그냥 썼지 뭐.}

10201 # 그래 이금만 글짜만 기어가재두 힘든 디다가 이: 해푸리 저 글짜 푸리를 알: 쑤가 이씨야지. {그래 이것만 글자만 기억하기도 힘든 데다가 이 해풀이 저 글자 풀이를 알 수가 있어야지.}

10201 # 그래 그거 다: 모타구 마라찌 머. {그래 그거 다 못하고 말았지 뭐.}

10201 # 그래서 언중반중이라 마리어 그. {그래서 언중방중이란 말이야 그.}

10201 # 그래서 관파넌 차저볼 쑤 이찌, 어디 가서. {그래서 간판은 찾아볼 수 있지, 어디 가서.}

10201 # 중구개 땡기며 갑파넌 차저 가주구... {중국에 다니면서 간판은 찾아 가지고...}

10201 # 게: 이르키 사:넌데 함 버능 거기서 이제 부대서 한달 똥아늘 **해니가 고:무내따 마리어. {그래 이렇게 사는데 한 번은 거기서 이제 보대에서 한달 동안을 ** 하니까 고문을 했던 말이야.}

10201 # 나를 찢 나르 사:상 고문해따 마'리어. {나를, 나를 사상 고문했던 말이야.}

10201 # 이 사리미 이르키 딱 갈 싸라밍가 여기 이쉴 싸라밍가 그 다매 도망가, 마까짜느면 다라날 사라밍가 이릉 거 한달 똥아늘 고문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갈 사람인가 여기에 있을 사람인가 그 다음에 도망가, 맞갖지 않으면 달아날 사람인가 이런 걸 한달 동안을 고문했지.}

10201 # 그 다미리야 총얼 준다 마리어, 보초 쓰라구. {그 다음에라야 총을 준단 말이야, 보초 서라고.}

10201 # 해헤 보초 쓰라구 총얼 쥐 그게 보초 서- 진시무로 서찌 머. {해헤, 보초 서라고 총을 쥐서 그래 보초 서, 진심으로 썼지 뭐.}

10201 # 잠 안 자구 짐시무루 서, 그다 그르케 가주구, 야:중애는 인재 정시그루 너는 팔로 구니다, 이르키 지명해 주더군. {잠 안 자고 진심으로 서, 그러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애는 이제 정식으로 너는 판로군이다, 이렇게 지명해 주더군.}

10201 # 그래서 그대 그때부터 군대럴 생화래 가주구 사:오 중구개 해:방 다: 씨기구서 도라땡기며 해방 다 공화국 성립된 다:매 된다매 오십년 사월따래 조선싸라면 부대서 모지배 가주구 모집해: 가주구 조선 조서니 위그파니까 조선 나가라구.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부터 군대를 생활해 가지고 사뭇 중국의 해방을 다 시키고 돌아다니며 해방 다 공화국 성립된 다음에 된 다음에 오십년 사월달에 조선사람은 부대에서 모집해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조선 조선이 위급하니까 조선 나가라고.}

10201 # 그래서 나강 기지 머 그때 사월따래. {그래서 나간 거지 뭐 그때 사월달에.}

10201 @ 사월따래 그때 평양 가서쨌요? {사월달에 그때 평양 가졌어요?}

10201 # 사월따래 평양 모'까구 원사내 가 이쨌찌 머. {사월달에 평양 못 가고 원산에 가 있었지 뭐.}

10201 @ 원산. {원산.}

10201 # 으:. {응.}

10201 # 원사내 가 이쨌지. {원산에 가 있었지.}

10201 # 내 이르키 마라는데 그 사람 부카내선 조아 아나개찌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북한에서는 좋아 안하겠지만.}

10201 # 처:매 원사내 가 이따가서 함 번 비상소집 홀려니 이쨌데. {처음에 원산에 가 있다 가서 한 번 비상소집 훈련이 있데.}

10201 # 그래 비상소집배서 바매 자다가 막: 그냥 비상소집라서넌 그 다맨 막 홀려널 해:지. {그래 비상소집에서 밤에 자다가 막 그냥 비상소집이라서는 그 다음에 막 훈련을 했지.}

10201 # 사느 메개 너먼능가 하니까 세: 개두 념꾸 나니까 아침 자다 자다 이르나서 바매 자다 이르나서 사느 세: 개르 념따 나니까 영:: 배고푸기두 하구 매:기 업찌. {산을 몇 개를 넘었는가 하면 세 개두 넘으니가 아침 자다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산을 세 개를 넘으니가 영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맥이 없지.}

10201 # 근데 그 우리 부대 아내서 또 반장이라능 게 중기 사:수거덩, 중기. {그런데 그 우

리 부대 안에서 또 반장이라는 게 중기 사수거든, 중기.}

10201 # 그땜- 물쭈기 그레-엔데 과:수 바태다 가따 거러 노쿠 훈련하지 아 인데 과:수나무
 미테 이 배가 이땅:크마개 그러잉까 이땅:크마 쿵 거 이게 떠러 소꺼서 소꺼서 이
 르캐 네리 떠러 놓 게 거 모더 놓 게 만:탐 마리어. {그 다음에 물쭈기 그런데 과
 수 밭에 걸어 놓고 훈련하지 이 그런데 과수나무 밑에 이 배가 이만큼하게 그러니
 까 이만큼하게 큰 거 이게 떨어 속아서 속아서 이렇게 내려 떨어 놓은 게 모아 놓
 은 게 많단 말이야.}

10201 # 배 고포니가 그걸 주서 머거찌. {배가 고포니가 그걸 주어 먹었지.}

10201 # 게 대번 중도기 오 가주거서 약 처찌니까 중도기 오 가주구 주거따 마리어. {그래
 대번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약 찼으니까 중독이 되어 가지고 죽었던 말이야.}

10201 # 그래서 그 다매 인재 그완두구 다: 인재 훈련 끈마추구 와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고 다 이제 훈련 끝마치고 왔지.}

10201 # 유:월, 유월 시 에 십싸밀라 저: 이십사밀랄 유월이십사밀라래 또 비상소지비 이러
 나따 마리어. {유월, 유월 에 십삼일날 저 이십삼일날 유월이십삼일날에 또 비상소
 집이 일어났단 말이야.}

10201 # 게 바매 자다가 그저 하는데 비가: 어터개 오년지: 당채 비가 와서, 유월따리니까
 그때 비 온다(마리어).{그래 밤에 자다가 그저 하는데 비가 어떻게 오는지 당채 비
 가 와서, 유월달이니까 그때 비가 온다 말이야.}

10201 # 게 비 마저 가면서 흘려널 하다가 어디 가능가 하니까 양구에 와찌 머. {그래 비를
 맞아 가면서 훈련을 하다가 어디에 갔는가 하면 양구에 왔지 뭐.}

10201 # 양구군에 가 가주구서넌 이쓰니까 대:번 포 진찌럴 파라능 기지. {양구군에 가 가
 지고 있느니까 대번에 포 진지를 파라는 거지.}

10201 # 게: 포 진찌럴 포가 이쓰니 포 진찌럴 막 파찌. {그래 포 진지를 포가 있으니까 포
 진지를 막 찼지.}

10201 # 파 가주서 포를 거기다 거러 놔찌. {파 가지고 포를 거기다 걸어 놔지.}

10201 # 거러 노쿠서넌 대기하넌데 유월이보일랄 새벽 세: 시, 새벽 세: 시 벌써 명령이 내
 린다 마리어. {걸어 놓고는 대기하는데 유월이십오일날 새벽 세 시에, 새벽 세시에
 벌써 명령이 내린다 말이야. }

10201 # 그 다매 싸:서 부카내서 먼저 침공해찌. {그 다음에 싸서 북한에서 먼저 침공했
 어.}

10201 # 내 인재 부칸 구내다 이르키 마라만 내 부카내 드르가면 때려 주길라 *** 할끼여.
 {내 이제 북한 군에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북한에 들어가면 때려 죽이려고 할 거
 야.}

10201 # 헤헤 그래서 내 저꿈 게 그러캐 저꺼따구. {헤헤 그래서 내가 겪은 게 그렇게 겪었
 다고.}

10201 # 그 여기 인저 드러가니까 다: 알개찌만 그 다매두 이제 다: 그 그르키 똥: 기여 이
 개. {그래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녹음되니까) 다 알겠지만 그 다음에도 이제 다 그
 그렇게 된 거야 이제.}

10201 @ 그제 다: 아는 사시린데... {그제 다 아는 사실인데...} 10201 # 그래서...{그래
 서...}

10201 @ 아니라 그러자나요? 허허허. {아니라 그러잖아요? 허허허.}

10201 #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주구 양구 제천 다:냥 다냥 소백산 영주 여까지 나가
 짜 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양구 제천 단양 단양 소백산 영주 여기
 까지 나갔지 뭐.}

10201 @ 저 하교 인는대가 제쳐니자나요. {저 학교 있는데가 제천이잖아요?} 10201 # 예?
 {응?}

10201 # 허허 그리여 그쵸:. {허허 그래 글썄.}

10201 # 그래 거기 거까지 나가짜 며. {그래 거기 거기까지 나갔지 뭐.}

10201 # 나가 가주구서넌 그 다매 어: 짜 며여 거기서 저: 비행기 포껴개 비행기 그: 항공
 빼앵기 포껴개 부상당해 가주구서 서울 세 서울 세부란스 병워내 거 가서 이썸지.
 {나가 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 저 뭐야 거기서 저 비행기 폭격에 비행기 그 한국 비
 행기 폭격에 부상당해 가지고 서울 세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 가서 있었지.}

10201 # 게 척추가 부러져때짜 그기. [그래 척추가부러졌었지 그게.}

10201 # 그래 내 허리 구부러징 게 그래 그리여. 이: 척추 부러징 게. {그래 나 허리 구부
 러진 게 그래서 그래. 이 척추 부러진 게.}

10201 # 그래 가주구서넌 여기두 지금 파퍼니 드르가서 저 빼:내짜 빼:내기넌. {그래 가지
 고는 여기도 지금 파편이 들어가서 저 빼냈지 빼내기는.}

10201 # 그래: 그래 가주선 닌넌데 그래 이 저: 방버비썸? {그래서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
 래 이 저 방법이 있어?}

10201 # 거기서 인재 내가 인재 그때 저: 머 해능가 하니까 라오슈 그 자버댕기는 거: 라오
 스털 해커던 자버댕기능 거.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저 뭐 했는가 하면 라오
 스 그 잡아당기는 거 라오스를 했거든 잡아당기는 거.}

10201 # 그: 이르기 포: 라오스 탁 자버댕기면 꿩: 하구 나가자니여? {그 이렇게 포 라오스
 탁 잡아당기면 꿩 하고 나가잖아?}

10201 # 그거 해짜 며. {그거 했지 뭐.}

10201 # 그럴 몰라서 묘주수두 모타구. {글을 몰라서 조준수도 못하고.}

10201 # 수짜르 몰:러서 그 다매 그래서 그저 거기서 이따가 그 다매는 인저 그거 저: 정저
 니 떡 돼:따 마리어. {숫자를 몰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저 거기에 있다가 그 다
 음에는 그거 저 정전이 떡 되었던 말이야.}

10201 # 어: 정전 되기 저내 정전 되기 저내 어디 간능가 하게 되면 거기서 나와서 병워내
 서 후퇴해 가주구 여기 드루와짜. {에 정전 되기 전에 어디에 갔는가 하면 거기에
 서 나와서 병원에서 후퇴해 가지고 여기 들어왔지.}

10201 # 게 중구게 드러가 암:'노깡 근너 가주구서 암:'노깡 근너 가주서 여기에 드러와 가
 주구 그 다매 예: 도문 조양천 도문 조양쳐내 가 이썸지. {그래 중국에 들어가 압
 록강 건너 가지고 압록강 건너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예 도문 조
 양천 도문 조양천에 가 있었지.}

10201 # 그래 이따가 나가서 나가서 거 가서 저:: 머여 강건군가내교 졸업 마터짜. {그래
 있다가 나가서 나가서 거기 가서 저 무어야 강건곤관학교 졸업했지.}

10201 # 강건군가나교 졸업 마꾸서 그 다맨 이 급썸르 저: 장짜 주릴 때:끼 때메 전사들 데
 리구 또 나가짜. {강건곤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 급수를 장 자 줄을 떼었기
 때문에 전사들을 데리고 또 나갔지.}

10201 # 포 부대에 또 나가짜. {포 부대에 또 나갔지.}

10201 # 또 나가서 하:몽서 하:몽서 방어전 하다가 방어전 하다가 그 다매 드러와-찌, 제대 대 드러와찌. {또 나가서 함흥에서 함흥에서 방어전 하다가 방어전 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왔지, 제대해서 들어왔지.}

10201 # 그래: 인제: 부상처가 도지다나니까 더 할래야 할 쭈가 업써. {그래 이제 부상처가 도지니가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어.}

10201 # 그 다매는 거기서 병원 환:자덜 팔리해찌 머.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병원 환:자들 관리했지 뭐.}

10201 # 병워내 거 부상자덜 팔리하구 다: 삼천명얼 혼자 거누리다니까 바뿌담 마리어. {병원에 그 부상자들 관리하고 다 삼천 명을 혼자 거느리려니까 힘든단 말이야.}

10201 # 삼천명얼 혼자 거누리니까. {삼천 명을 혼자 거느리니까.}

10201 # 그래 인제 거기 조장덜 세우구 반장덜 세우구 이르게 노쿠서 삼천명 거: 거느려찌. {그래서 이제 거기 조장들 세우고 반장들 세우고 이렇게 놓고서 삼천 명 거 거느렸지.}

10201 # 그에 거느려서 거: 사:라미 여랑개 삼천명 가운데 별래별 사람 다: 이따 마리어. {그래 거느려서 거 사람이 여럿이니가 삼천 명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야.}

10201 # 그 막 어떻 건 과거거 쓰능 게 다: 이꾸 어떻 건 막 서루 때리구 싸움질하능 게 다: 이꾸 뭐. {그 막 어떤 건 과거를 쓰는 게 다 있고 어떤 건 막 서로 때리고 싸움질하는 게 다 있고 뭐.}

10201 # 그래서 이쓰니까 내가 또 아파서 병워내 거기 병워내 그: 탄장실 가서 치료하구 이꾸. {그래서 있으니까 내가 또 아파서 병원에 거기 병원에 탄장실 가서 치료하고 있고.}

10201 # 그 다매 제대 돼:찌 머. {그 다음에 제대했지 뭐.}

10201 # 제대 돼:서 중구개 드러자이까 당:채 돼:야지. {제대하고 중국에 들어가려니까 당췌 되어야지.}

10201 @ 함흥에 계셔췌요 그때? {함흥에 계셨어요 그때?}

10201 # 어디: 북청. {아니 북청.}

10201 @ 북청. {북청.}

10201 # 게 거기 이따가 그 다매는 제대하니까 감부구개서 중구개 드러가지 말:구 저 저: 부카내 이쓰라 구란다 마리어. {그래 거기 있다가 제대하니까 간부국에서 중국에 들어가지 말고 저 저 북한에 있으라 그런단 말이야.}

10201 # 거기서 머: 하능가 하니까 부카내 내무서 거기다 안패한다 마리어.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북한에 내무서거기에 안패한단 말이야.}

10201 # 아:이 낭 가개따. {아니 난 가겠다.}

10201 # 지금 엄마 아버지: 갈라전대 심너니 녁:꾸 인제 이러니까 가야개따 그래이까 안': 댜다능 거지. {지금 엄마 아버지와 갈라졌는데 십년이 넘고 이제 이러니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10201 # 거기서 장개드러 가주구 여기서 사러라능 기지. {거기서 장가들어 가지고 여기서 살라는 거지.}

10201 # 하나 새애기 소개해 주께 여기서 데리구 사러라능 기여. {하나 처녀 소개해 줄게 여기에서 데리고 살라는 거야.}

10201 # 그래두 머 어:'트개 예:이 안 된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에이 안 된다.}

10201 # 그래 인재 누구털 썬선능가 하니까, 거기두 다: 면방이 이씨야 되여. {그래 이제 누구를 썬셨는가 하면, 거기두 다 면식이 있어야 돼.}

10201 # 병원 원장얼 썬시찌. {병원 원장을 썬셨지.}

10201 # 이 사라면 이러이러하니까 무슨 병으루 지비루 가야 된다구. [이 사람은 이러이러 하니까 무슨 병으로 집으로 가야 된다고.}

10201 # 인재 이:거 서류털 작성해서 감부구개다 올려 보내 올려 보내서 그대 감부구개 가서 인재 중구개 떡 드르가니까 중국 대:사과내 또 드르가야 된다 마리여. {이제 이거 서류를 작성해서 간부국에다 올려 보내 올려 보내서 그 다음에 간부국에 가서 이제 중국에 딱 들어가니까 중국 대사관에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10201 # 중국 대사과내 또 드르가서 그대 거 가서 얘기하:지. {중국 대사관에 또 들어가서 그 다음 거기 가서 얘기하지.}

10201 # 그 다매 직빵 거기서 찰: 타구서년 저 머여 장춘느루 드르가찌. {그 다음에 직방 거기서 차를 타고는 저 뭐야 장춘으로 들어갔지.}

10201 # 장춘 드르가서 장춘, 장춘 초대소 장춘 초대소에서 거기서 한: 달 무거찌. {장춘에 들어가서 장춘, 장춘 초대소 장춘 초대소에서 거기서 한 달 묵었지.}

10201 # 게 한 달 후애 열래 암:패는 내 어디다 암패덴능가 목땅강 저: 파출쏘 목땅강 파출쏘애 암패 돼:'찌. {그래 한 달 후에 원래 안패는 내가 어디에다 안패되었는가 하면 목단강 저 목단강 파출소에 안패되었지.}

10201 # 그래 인재 지비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 노무해찌 이전 늘거찌 그 다맨 어트개. {그래 이제 집을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 노무했지 이전 늙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10201 # 형님 이따능 개 또 이개 업(업/웁 간음)찌.{형님이 있다는 게 또 이게 없지.}

10201 # 장춘 전투에 이개 끄너저따 마리여. {장춘 전투에 이게 끊어졌단 말이야.}

10201 # 게: 업찌. {그래 없지.}

10201 # 그 다:맨...{그 다음에는...} 10201 @ 그러면 형님 형니몬 그때... {그러면 형님 형님은 그때...}

10201 @ 항구개 이따가 일루 오서썬요? {한국에 있다가 이리로 오셨어요?}

10201 # 아::니. {아니야.}

10201 # 어: 항:구개 그때까지두 항:구개 이따가 여기 와서 아 일번 꾀대 가따와내 와서 와서 일번 군대 완... {어 한국에 그때가지도 한국에 있다가 여기 와서 아 일본 군대 갔다가 와서 와서 일본 군대 왔...}

10201 @ 그래서 다치셔따구. {그래서 다치셨다고.}

10201 # 으: 아이 일번꾀대 가서 다칭 게 아니라 가따 와서 그 다매 또 해:방 전쟁애 또 나가찌. {응, 아니 일본 군대 가서 다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해방 전쟁애 또 나갔지.}

10201 # 중국 해:방 전쟁애. {중국 해방 전쟁애.}

10201 @ 아아. {아아.}

10201 # 내 그래서 장춘 전투에서 이게 끄너저찌. {내 그래서 장춘 전투에서 이게 끊어졌지.}

10201 # 그래 이거 업짜너 지금. {그래 이게 없잖아 지금.}

10201 @ 아 그러세요? {아 그러셔요?}

10201 # 어:. {응.}

10201 # 그래 그래서 형님두 나오닝 개 참패그미 일러내 한 한 돔마넌 나와요. {그래 그래
서 형님도 나오는 게 참패금이 일년에 한 한 돈만원 나와요.}

10201 # 일러내 나오닝 개. {일년에 나오는 게.}

10201 # 게: 그래 가주구서넌 나와서 여기 와서 인넌데 아: 머 어트개.{그래 그래 가지고는
나와서 여기와서 있는데 아 뭐 어떻게 해.}

10201 # 그래 장:개는 가야 되갠데 내 거기서 조서내 이썰 찌개 머: 헨능가 하니까 국 요영
애훈짱 타찌, 그기. {그래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거기에서 조선에 있을 적에
뭐 했느냐 하면 국 여 영예훈장 탔지, 그게.}

10201 # 게 누가 그랬가 하니까 이: 부카내 박 방 머시여 어:: 박 방 머신데 그 사라미 나
르 훈장 다리줘찌. {그래 누가 그랬는가 하면 이 북한에 박 박 뿔이야 박 박 뿔인
데 그 사람이 나를 훈장을 달아줬지.}

10201 # 그래미너 마라딩구만 여우가 멍가?{그러면서 말하더구먼, 요구가 뭐가?}

10201 # 아 나 이젠 나이두 망:쿠 지배 가야 되거따. {아 나 이제 나이도 많고 집에 가야
되겠다.}

10201 # 그래니까 그 다매는 다: 해주구 그래 타구서넌 장춘 가서 이따가 목땅강 가서 파출
쑈애 드르가라능 거 엄마 아버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 해주고 그래
서 타고는 장춘에 가서 있다가 목단강 가서 파출소에 들어가라는 거 엄마 아버지
있는데...}

10201 # 그래서 지부루 와찌 머. {그래서 집으로 왔지 뭐.}

10201 # 지부루 와니가 뭇루 완능가 하니까 저너그루 와쓰먼: 허란데 머꾸 살:기두 괜창쿠
심봉두 바꾸 하넌데 투오여 저:: 투슈루 와따 마리어. {집으로 오니까 무엇으로 왔
느냐 하면 전역으로 왔으면 쉬운데 먹고 살기도 괜찮고 신봉도 받고 하는데 투슈,
저 투슈로 왔단 말이야.}

10201 # 저너기라능 게 자기 하든 직급. {전역이라는 게 자기 하던 직급.}

10201 @ 그걸 가지고 오능 거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요?}

10201 # 지끄별 가주구 그 지끄배 따라서 공자걸 암패한다 마리어. {직급을 가지고 그 직급
에 따라서 공작을 안패한단 말이야.}

10201 # 공자걸 후방애 공작 암패하넌 이게 이따 마리어. 그거 외래 {공작을 후반에 공작
안패하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거 외래.}

10201 # 게 이거 투슈라능 건 완 너넌 다: 씨머저썰까 고마니다. ㄸ그래 이거 투슈라는 건
완 너는 다 씨먹었으니까 그만이다.}

10201 @ 퇴지칸다구... {퇴직한다고...}

10201 # 퇴지칸다능 기지. {퇴직한다는 거지.}

10201 # 게 이게 게 거기서 차이 나찌. {그래 이게 그래 거기에서 차이 났지.}

10201 # 게서 여기 오니까 해:겨래 줘? {그래서 여기 오니까 해결해 줘?}

10201 # 아니하지. {한 하지.}

10201 # 어디 지뽕어 해:겨래 달라니까 아내주지. {어디 직업을 해결해 달라니까 안 해주지.}

10201 # 왜서 아내 주능가 하게 되면 또 그르타 마리어. {왜 안 해주느냐 하면 또 그렇단
말이야.}

10201 # 중구개서 다: 헨는데 조서내 가따 온 사라면 뭐: 때머내 꼬리능가 하게 되면 하:너 마:'르 발써 이: 중국 사람 다루기가 발써 틀리지. {중국에서 다 했는데 조선에 갔다 온 사람은 무엇 때문에 꺼리느냐 하면 한어 말을 발써 이 중국 사람 다루기가 발써 다르지.}

10201 # 그래 무나 정도 이게 또 틀리지. {그래 문화 정도 이게 또 다르지.}

10201 # 그 다매 이르키 돼:서 잘 암패러 아내줄라 그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서 안패를 잘 안해주려고 하지.}

10201 # 능히 공장능력글 가져야 되는데 가찌 모타개 되니까 아이 준다 마리어. {능히 공장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니까 인 중단 말이야.}

10201 # 그래서 모타구 이적찌 이따가 그 다맨... {그래서 못 하고 이적지 있다가 그 다음에는...}

10201 # 으: 농사지라구 이써지 머, 그 어가내 와서. {으 농사질하고 있었지 뭐, 그 어간에 와서.}

10201 # 켜대 인재 저 양바느: 조선-에 데리다가 조서내가서 잔치해찌, 여기 여자덜. {그런데 이제 저 양반을 조선에 데려가서 조선에 가서 잔치했지, 여기 여자들.}

10201 @ 그게 언제 찍이요? {그게 언제 적이에요?}

10201 @ 그러면 그: 북청에 이쓸 때요 하몽에 이쓸 때요. {그러면 그 북청에 있을 때요, 함흥에 있을 때요?}

10201 # 북청애: 북청애 이쓸 때지 머. {북청애, 북청애 있을 때지 뭐.}

10201 # 그래 그때: 데리다가 부대서 부대서, 그때: 북청애 오기 저너지 머. {그래 그때 데리다가 부대에서 부대에서, 그때 북청애 오기 전이지 뭐.}

10201 # 고때 와 가주구, 내가 함 번 여기 휘가 와때거덩. {고때 와 가지고, 내가 한 번 여기 휴가 왔었거든.}

10201 # 그뉘미개 표창 바다 가주구. {느 놈의 거 표창 받아 가지고.}

10201 # 그 다매 여기루 휴가 보내서 휘가 와땡-꺼덩. {그 다음에 여기로 휴가 보내서 휴가 왔었거든.}

10201 # 그때 야콘하구 가때찌. {그때 약혼하고 갔었지.}

10201 # 가 가주구 거 데리 내:다가 그다맨 거기서 잔치르 해:찌. {가 가지고 그 데려내다가 거기서 잔치를 했지.}

10201 # 잔치르 하구 그 다매 먼저 드르가라 해 노쿠 나넌 혼자서 또 북청애 이써지.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라고 해 놓고 나는 혼자서 또 북청애 있었지.}

10201 # 게 북청애 이따가서 그 다매 드루와서 보니까 아:이 부상당해 가주구 이:른 모타개찌. {그래 북청애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 부상당해서 일은 못 하겠지.}

10201 # 그 다매 아:는 또 하나 생겨 매겨 살려야 되개찌. {그 다음에 아이는 또 하나 생겨서 먹여 살려야 되겠지.}

10201 # 그 다맨 어특- 할 쭈가 업따 마리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10201 # 그 다매 중구개 그때: 한:참 대:약찌니 버러지구 또 집채화허 화시글 하구 쿵각찌나 옥씨기짱으 머으 때라 마리어. {그 다음에 중국에 그때 한창 대약진이 벌어지고 또 집채화 화식을 하고 쿵각찌나 옥수숫대를 먹을 때란 말이야.}

10201 # 이르니 어:트개, 그 다매는 근:그나개떠니 게 상해 아더런 청 학생더럴 농초내 빵

- 빵해찌. {이러니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근근하게 했더니 그래 상해 아이들을 청(년) 학생들을 농촌에 빵 빵했지.}
- 10201 # 농초내루 보내찌. {농촌으로 보냈지.}
- 10201 # 넌 농사 일두 좀 배우구 뎨나락씨가 어트리 생겼는지 좀 보거나 하구 그르카구 사러라 모 주서기 모 주서기 그래 다: 내리 보내따 마리어. {넌 농사 일도 좀 배우고 뎨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거나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라, 모 주석이 모 주석이 다 내려 보냈단 말이야.}
- 10201 # 그 사람덜 데리구, 내 하너덜 알기 때무내 또 그사람덜 데리구 호:장지'래찌 그냥, 데리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한어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데리고 호장질 했지 그냥, 데리고는.}
- 10201 # 그래서 하너르 그냥 말:래주구 아 이눔 애드리 또 부모 다: 떠러져서 여기 와: 이 씨니까 망:탕지란다 마리어, 그냥 여 와서. {그래서 한어를 그냥 말해 주고 아 이눔 애들이 또 부모 다 떨어져서 여기 와 있으니까 망탕질한단 말이야, 그냥 여기 와서.}
- 10201 # 도둑절두 하구: 그저 제: 마까지 아눔 건 그저 깔개르 이르키 왕골자리, 마라자면 이런 저: 어:: 갈때루 저른 깔 저른 깔개 이릉 거 새거 가따 까러 노면, 채도지라능게 칼 벽: 식또 칼 그렁 절루 탁:탁 찌거서 다: 그냥 망태기 맨드러 노치 {도둑절도 하고 그저 제 맞갖지 않은 건 그저 깔개를 이렇게 왕골자리, 말하자면 이런 저 에 갈대로 겨른 갈대로 겨른 깔개 이런 거 새것 갖다 깔아 놓으면, 채도지라는 게 칼 부엌 식도 그런 것으로 탁탁 찍어서 다 그냥 망태기 만들어 놓지.}
- 10201 # 게 그거 다: 해: 노쿠 정래하다가는 그 다매 그럭:찌럭 세월 보내찌 농사질하면서. {그래 그거 다 해 놓고 정리하다가는 그 다음에 그럭저럭 세월 보냈지 농사질하면서.}
- 10201 # 살:: 그러니까 팔십삼년도에 가서 이:리 버러지기 시작해따... {살, 그러니까 팔십삼년도에 가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 10201 # 에이 씨앙누무 거 아이 되개따. {에이 쌍 놈의 것 안 되겠다.}
- 10201 # 그 다매는 이제 거기서부터 팔십삼년도부터 그저네는 스조 공작때가 이찌 그 다맨 모 주서기 그저 암패한 내:무 저: 이찌 이런 문화혁명 이찌 행:: 기우리 쎄찌 머.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팔십삼년도부터 그전에는 쓰조 공작대가 있지 그 다음에는 모 주석이 그저 안패한 내무저 있지 이런 문화혁명 있지 영 규율이 세었지 댜.}
- 10201 # 어디 조지근 조지기 영 쎄구 중국 내애 조지기 쎄구 막 이래기 때무내 사상풍이 망:키 때무내 어티기 할: 쭈가 이씨야지. {어디 조직은 조직이 영 세고 중국 내에 조직이 세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상풍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 10201 # 그래 모:타구 이따가 그 다맨 팔십삼년 팔씨비년도에 어찌 왕청에서 한 사라미 사내 무얼 하년데 예: 귀머 귀버선 여기 무얼 하년데 거기르 와따 마리어. {그래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팔십삼년 팔십이년도에 어찌 왕청에서 한 사람이 산에 무얼 하는데 예 귀버섯 여기 무얼 하는데 거기를 왔단 말이야.}
- 10201 # 거기루 해서 누구이게 완능가 하니까 김태추니라구 경영에 인는 사라미여. {거기로 해서 누에게 왔는가 하면 김태춘이라고 경영에 있는 사람이야.}
- 10201 # 그 사람두 패장끄빈데, 그래서 경영에 인는데 와서 내 사:실 이러이러해서 완는데

여기 좀 어티게 사:라멀 모지발 쑈 업능가. {그 사람도 꽤장급인데, 그래서 경영에 있는데 와서 내 사실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여기 좀 어떻게 사람을 모집할 수 없는가?}

10201 # 이따 그래따 마리어. {있단 그랬단 말이야.}

10201 # 그럼 그러자, 그래 사:방애다, 그때 저봐나 이썸 그때 맘:대루 할 때, 사라미 땡겨 쯔 그냥. {그럼 그러자, 그래 사방애다, 그때 전화나 있어 그때 마음대로 할 때, 사람이 다녔지 그냥.}

10201 # 용정 화룡 왕청 그 다매 이 저 저: 이짜개 저: 그 저: 훈춘 이르키 다: 땡기면서 부대 가따 와서 지금 곶:라나개 사는 사람더리 메치나. {용정, 화룡, 왕청, 그 다음에 이 저 저 이쪽에 저 그 저 훈춘 이렇게 다 다니면서 부대에 갔다 와서 지금 곤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10201 # 이걸 알게 돼:쨌. {이걸 알게 되었지.}

10201 # 게 조사썰 해 가주구서.{그래 조사를 해 가지고서.}

10201 # 그 다매 모:니까 통거 다: 모닝까 장관덜만 꽤장급 이상급 장관덜만 함 팔썸명 댄다 마리어. {그 다음에 모으니까 통거 다 모으니까 장관들만 꽤장급 이상들만 한 팔썸명 댄단 말이야.}

10201 # 요기만 향군대 요기만 세 개 이래 우리 자치 주내만. {요기만 한군데 요기만 세 개 이래 우리 자치주 내에만.}

10201 # 그래서 그럼 조타. {그래서 그럼 좋다.}

10201 # 거기 이거 가주구 이거 가주구 우리 모집-해썸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모집했으니까.}

10201 # 주을래 동지가 조선 기밀썰-한테 방문 가썸 쯔개 기밀썰애개야 마:랑 개 이따 마리어. {주을래 동지가 조선 김일성한테 방문했을 적에 김일성에게 말한 게 있단 말이야.}

10201 # 우리 조선 임핑구내 입때해뎀 사람덜 중구개 드러간 사라미 마:는데 이: 중구개 드러간 사람더를 어: 중국 인민해방군과 또가치 대우해 주능 기 어땡가. {우리 조선 인민군에 입대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은데 이 중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예 중국 인민해방군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어떤가?}

10201 # 이르키 기밀썰이 제기해쨌. {이렇게 김일성이 제기했지.}

10201 # 그 뭇꺼니 어디 드루와 인능가 하니까 중앙 중앙 저: 비밀꼬애 이따 마리어. {그 문건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중앙 중앙 저 비밀고에 있단 말이야.}

10201 # 게 그: 마탕 가주구 웅 걸 또 모 주서가태 비준 마터야 된다 마리어. {그래 그 말아 가지고 온 것을 또 모 주석한테 비준을 말아야 된단 말이야.}

10201 # 기래 비준 마터쨌, 모 주서간태. {그래 비준을 말았지 모 주석한테.}

10201 # 마터 가주구 지금 이걸 아:래 내려보내지 양쿠 중앙 비밀꼬애 떠기따 마리어. {말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아래 내려보내지 앓고 중앙 비밀고에 딱 있단 말이야.}

10201 # 그래서 거기서 비밀꼬애 군대가따 온 사라미 마:느니까 거기두 안페뎀 사라미꾸다: 이쨌. {그래서 거기서 비밀고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도 안페뎀 사람이 있고 다 있지.}

10201 # 게 거기서 등사썰 해 가주구 등사: 등사를 해 가주구서넌 여기 내려와 그 뭇꺼느 딱 쨌:쨌. {그래 거기서 등사를 해 가지고 등사 등사를 해 가지고는 여기 내려와 그 문건을 딱 쨌었지.}

10201 # 권: 다매 그 다매 북경으루 쌍팡가찌, 팔십삼년도애.{권 다음에 그 다음에 북경으
로 쌍팡갔지, 팔십삼년도애.}

10201 # 쌍팡가 자주구 북경에서, 쌍팡이라능 기 명가 하게 되면 이견 제기하러 가찌. {쌍
팡가 가지고 북경에서, 쌍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의견 제기하러 갔지.}

10201 # 게 왜 그렇가 하니까 군대 가따 와서 죽찌 앙쿠 사러완넌데 이게 가따 와두 굴머
주구나 그냥 안저 굴머주구나 가서 씹해서 안 된다면... {그래 왜 그런가 하면 군대
갔다 와서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게 갔다 와도 굶어 죽으나 그냥 앓아 굶어 죽으
나 가서 싸움해서 안 된다면...}

10201 # 안 된다면 머: 하능가 하니까 거기서 어: 싸:떨 하든지 주그나 사나 두판작쟁이다,
가자. {안 된가고 하면 뭐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에 싸우을 하든지 죽으나 사나 두
판작적이다, 다가.}

10201 # 게서 팔십명이 가찌. {그래서 팔십명이 갔지.}

10201 # 가:다가 아 이 영길 그 하:남파리 거 가서 다: 부뜰려쎄. {가다가 아 이 영길 그 하
남파리 거기에 가서 다 붙들렸어.}

10201 # 그:저 똥그런 모자 쓴 사람드리 다: 모두 아버지 어디가십니까? 여기 좀 패두해 주
시오. {그저 똥그런 모자 쓴 사람들이 다 모두 아버지 어디가십니까? 여주 좀 패두
해 주시오.}

10201 # 패두해주시오, 패두라능 게 명가 하니까, 줄저서 줄서 주시오 줄서 쥬. {패두해 주
시오, 패두라는 게 뭐냐 하면, 줄서 줄서 주시오 줄서 쥬.}

10201 # 그애 그래 거기서 다: 부뜰려쎄. {그래 그래 거기에서 다 붙들렸지.}

10201 # 데비 드러와쎄. {도로 들어왔어.}

10201 # 지부루 다: 도러가찌 머. {집으로 다 돌아갔지 뭐.}

10201 # 그래 두: 번째마내 여기서 기차털 타서넌 안 덴다. {드래 두 번째만에 여기에서 기
차를 타서는 안 된다.}

10201 # 그 다매 조향충이가 타자. {그 다음에는 조양천에 가서 타자.}

10201 # 게 조향가 쪼끄마치 머 거기넌. {그래 조양(천)은 조그만하지 뭐 거기는.}

10201 # 조양천 여게 가서 타땀 마리어. {조양천 역에 가서 땀단 말이야.}

10201 # 타구서 장춘내 드르가찌. {타고서 장춘에 들어갔지.}

10201 # 장춘 드르가니까 장춘서 아이 거기서 이제 나가는데... {장춘 들어가니까 장춘에서
아이 거기서 이제 나가는데...}

10201 # 차표 패차차라자너요 캐표, 그: 가는데 나가는 사람마다 북경 북경 북경 북경 다:
이러타 마리어. {차표 패찰하잖아요 캐표, 그 가는데 나가는 사람마다 북경 북경
북경 북경 다 이렇단 말이야.}

10201 # 그래이까 이 저 거기 똥그런 모자 하나 쓴 사라미 이상하다: 하구서넌 대번 심양애
가다 우리 차르 떠나 보내 노쿠 심양애다 저나 거라따 마리어. {그러니까 이 저 거
기 똥그런 모자 하나 쓴 사람이 이상하다 하고는 대번 심양애다 우리 차를 떠나 보
내 놓고 심양애다 전화를 걸었던 마리아.}

10201 # 게 심:양애 가니까 역찌내 그저 이 똥그란 모자드리 그저 꺾:: 빠가 선넌데 만:텅구
만 하이트. {그래 시양애 가니까 역전에 그저 이 똥그런 모자들이 그저 꺾 박아 켜
는데 많더구먼 하여튼.}

10201 # 게: 네리는 사람마다 나:머근 사라문 경예르 딱: 부치구서넌 여기 좀 줄저 줄저서

주십시오, 줄서 주시오. {그래 내리는 사람마다 나이 먹은 사람은 경례를 딱 붙이고는 여기 좀 줄서 줄서 주십시오, 줄서 주십시오.}

10201 # 게 나가: 게 줄서서 거기서 또 부풀려찌. {그래 나가 그래 줄서서 거기서 또 붙드렸지.}

10201 # 부풀런는데 인재 캐찰구에 나가야지 인재. {붙들렸는데 이제 캐찰구에 나가야지 이제.}

10201 # 나가는데 표 차표를 다: 바치라능 기지. {나가는데 표 차표를 다 바치라는 거지.}

10201 # 우린 모: 빠칩다. [우리는 못 바칩니다.}

10201 # 에 대:표가바치라구 해야 바치지 우린 모: 빠칩다. {에 대표가 바치라고 해야 바치지 우리는 못 바칩니다.}

10201 # 그 다:맨 거기서 암: 바치구서 그냥 이쓰니까 마지막에 대표 와'땡구만. {그 다음에는 거기서 안 바치고서 그냥 있으니까 마지막에 대표가 왔더구먼.}

10201 # 대표 와서 주라구, 그래 차표릴 다: 바쳐찌. {대표가 와서 주라고, 그래서 차표를 다 바쳤지.}

10201 # 바칭개 어디루 데루 드르가능가 하니까 심양궁구 군봉구 초대소 거기루 데루 드르가등(구만). {바친 게 어디로 도로 들어갔느냐 하면 심양군구 군분구 초대소 거기도 도로 들어가더구먼.}

10201 # 게 데리구 드르가서 다: 안쳐 노쿠서넌 마:'라덩구만, 어째서 북경으루 갈라구 하능가? {그래 데리고 들어가서 다 앉혀 놓고는 말하더구먼 어째서 북경을 갈려고 하느냐?}

10201 # 마:라나지, 아:무두 마:라나지, 누구두 마:라나지. {말 안 하지, 아무도 말 안 하지, 누구도 말 안 하지.}

10201 # 우리 문제릴 해결할 쑈 인는 이쓰면 마:를 하지면 우리 문제 해결하지 말 하나마나 피로 업따, 게 마:라난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으면 말을 하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말 하나마나 필요 없다, 게 말 안 한다.}

10201 # 그래서 그 다매 그 다매 거기서 이제 그: 저: 선전부장 선전 초대소 선전부장이 와가주구 그 다매 아 무슨 이겨 이씨면 마:라라구.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저 선전부장 선전 초대소 선전부장이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아 무슨 의견 있으면 말 하라고.}

10201 # 아 선전부장두' 우리 문제르 해:결 모탐니다. {아 선전부장도 우리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10201 # 그레이까 그 다매 모타구 말: 안하니까 대비 드르가서 누굴 보낸능가 하니까 군봉구 당에서기 군봉구 공산당 당에서기릴 땡 보내따 마리어. {그러니까 그 다므에 못하고 말 안하니까 도로 들어가서 누그를 보냈느냐 하면 군분구 당의 서기 군분구 공산당 당의 서기를 땡 보냈단 말이야.}

10201 # 보내 가주선 말: 하라 구란다 마리어, 제기하라구. {보내 가지고는 말 하라 그런단 말이야, 제기하라고.}

10201 # 아:이 군봉구 당에서기두 우리 문제를 해결 모탐니다. {아이 군봉구 당의 서기도 우리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10201 # 구만 두시오. 그럼 어트가느냐. {그만 두시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201 # 게 당이서기 마:라능 거 모:타개쓰면 모:타개쓰면 말: 안하개쓰면 거기 길림성으루

도러가라. {그래 당의 서기 말하는 거 못하겠으면 못하겠으면 말 안 하겠으면 거기
길림성으로 돌아가라.}

10201 # 길림성으루 도러가라 해거덩, 거기가 성이 따다 마리어 별써. {기림성으로 돌아가
라 하거든, 거기가 성이 다르다 말이야 별써.}

10201 # 게 안 모:' 갑니다, 우린 양만오철리 장정두 하구 여기 동부개서 광동까지 행군두
해쥴러니 거러서래두 북경에 가'개쥴니다. {그래 안 못 갑니다, 우린 이만오천리 장
정도 하고 여기 동북에서 광동까지 행군도 했는데 걸어서라도 북경에 가쥴습니다.}

10201 # 게 이'르키 돼 가주 그 다매 인는데 마:침 성에서 성장이 전나 와따 마리어. {그래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데 마침 성에서 성장한테서 전화 왔단 말이야.}

10201 # 저나 와 가주구선 보내라구 그런데 다: 모도개씨면 대:표만 대:표만 일곱명 보내라.
{전화가와 가지고는 보내라고 그런데 다 못 오겠으면 대표만 대표만 일곱명 보내
라.}

10201 # 게 대:표 일곱 모: 뽀낸다. {그래 대표 일곱 못 보낸다.}

10201 # 전체 떠들구 싸니 그래 다: 그냥 통일 통일 사상이니까 모 뽀낸다. {전체가 떠들고
서 그래 다 그냥 통일 통일 사상이니까 못 보낸다.}

가면 다: 가구 이쓰문 예: 다: 가문 이쓰문 다: 북경으루 갈끼다. {가면 다 가고 있으면 예
다 가면 있으면 다 북경으로 갈 거다.}

10201 # 게 이르게 가자. {그래 이렇게 가자.}

10201 # 이르키 폭동 함 번 일귀쓰. {이렇게 폭동 한 번 일으켰어.}

10201 # 게 일귀가주구선 그 다매 대:표만 가지야 디비 와:'지 머. {그래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대표만 가지(않고) 도로 왔지 뭐.}

길림성으루 다: 와'찌 머. {길림성으로 다 왔지 뭐.}

10201 # 다: 와 가주구서넌 거기서 인전 저: 공산당 당에서기가 차표르 끄너서 다: 길림성
으루 보내'찌. {다 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공산당 당의 서기가 차표를 끊어서
다 길림성으로 보냈지.}

10201 # 우서느루두 보내 보내 가주구서넌 성장하구 저 담:먼 얘기럴 하오. {우선으로도 보
내 보내 가지고 성장하고 저 담화 얘기를 하오.}

10201 # 대표만 디리보내라. {대표만 들여보내라.}

10201 # 게: 성장하구 또 {그래 성장하고 또.}

10201 # 그래 성: 성장이 대:표 일고비이 여기 저: 훈추내 김대중이라구 저: 머여 거: 어:
부대 이쓸 때 사단 사단장지래찌 머. {그래 성 성장이 대표 일곱이 여기 저 훈춘에
김대중이라고 저 뭐야 그 에 부대 있을 때 사단 사단장질 했지 뭐.}

10201 # 그 사라미 키가 내 키마:낭 개 똥똥항 개 이 혁띠를 몬내야. {그 사람이 키가 내
키만한 개 똥똥한 개 이 혁대를 못 매.}

10201 # 혁띠를 몸 매구 이거 이른 끄누루 이르게 해서 매:지. {혁대를 못 매고 이거 이런
끈으로 이렇게 해서 매지.}

10201 # 게 그 사라미 배::짱이 으트기 센:지, 그 사라미 대다나지: 산단장지랜 사라민대.
{그래 그사람이 배짱이 어떻게 센지, 그 사람이 대단하지, 사단장질한 사람인데.}

10201 # 그래 대:표루 성거해 나. {그래 대표로 선거해 봐...}

10201 # 내가 이제 주굴 때까지 우리집 문제는 문제업따.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집
문제는 문제 없다.}

10201 # 나넌 아:덜 둘: 다 대학 조립써겨찌 이젠 머꾸 살기 혼추내서두 일똥이지 머꾸 살:기두. {나는 아들 둘 다 대학 졸업시켰지 이제 먹고 살기도 혼춘에서도 일등이지 먹고 살기도.}

10201 # 돈구 이따. {돈도 있다.}

10201 # 그레이까 난 인젠 명예가 느:덜 위해서 함 번 봉무하다 주글테니까 그런주라라라. {그러니까 난 이제 명예가 너희들 위해서 한 번 목무하다가 죽을테니까 그런줄 알아라.}

10201 # 그라구선 나서따 마리여, 이 사라미. {그러고는 나섰단 말이야, 이 사람이.}

10201 # 그래 느:덜 위에서 힘쓰구 힘쓰다 주거두 위:니 업따 간다. {그래 너희들 위해서 힘쓰고 힘쓰다 죽어도 원이없다 간다.}

10201 # 그래 대표루 세워서 해:뜨니 아 그 다맨 거기서 대:번 그러: 대:표루 드르가 가주구 다마르하지. {그래 대표로 세워서 했더니 아 그 다음엔 그기서 대번에 그래 대표로 들어가 가지고 담화를 하지.}

10201 # 우리가 아오까지 문제를 제출해꺼덩. {우리가 아홉 가지 문제를 제출했거든.}

10201 # 에 군대 가따온 사람들 지금 인저: 다: 야캐지구 버:러먹찌 모타구 그런데 이 사람 드르 어트기 쪼구해서 줌 어:: 생화르 암페해서 줌 생활하개꿈 맨드러 달라. {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지금 이제 다 약해지고 벌어먹지 못하고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쪼고해서 줌 에 생활을 안페해서 줌 생활하게끔 만들어 달라.}

10201 # 그 다매 군대가따 오 와쓸 찌개 그 아즈머내들 아주머내드리 아: 테리구 얼마 고상헨냐 그거두 해결해 달라 해결해 주 달라.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 왔을 적에 그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드리 아이 테리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것도 해결해 달라 해결해 달라.}

10201 # 그 다매: 저: 전사들, 전사드롱 거 이거뚜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저 전사들, 전사들 온 거 이것도 해결해 달라.}

10201 # 그 다맨 저 부상자덜 열사덜 이롱 거 다: 이르캐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저 부상자들 열사들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결해 달라.}

10201 # 게서 성장한태다 이제 아오까지 문제덜 다: 제추래서 인는데, 한 사라미 그 연기레 전투영웅이여. {그래서 성장한태 이제 아홉 가지 문제를 다 제출해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연길의 전투영웅이야.}

10201 # 전투영웅이 이 노궁기 이만 자:거 요만해:, 노궁기릴 가따 떡 책쌍 우애다 놔뒀따 마리여. {전투영웅이 이 녹음기 이보다 작아 요만해, 녹음기를 갖다 떡 책상 위에다 놔뒀단 말이야.}

10201 # 해 성장 마:라능 거 여기 다: 드르가구 우리 마라능 거 다: 드르가구 그애 드르가서 또 이쓰잉개 마즈마개 게 또 이글 해결해 달라 그라니까 머라구 하능가 하니까 그러지. {그래 성장 말하는 거 여기 다 들어가고 우리 말하는 거 다 들어가고 그래 들어가서 또 있으니까 마지막에 또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지.}

10201 # 하이튼 해결해 준다. {하여튼 해결해 준다.}

10201 # 말: 하지, 해결해 준다구. [말 하지, 해결해 준다고.}

10201 # 그래 인재 말: 하는데 이 사라미 머라구 마:랜능가 하니까 지금 이 회에서 여기 다: 노금 돼씨니까 마:낙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노금기르 노금테푸를 국제

시장에 가따 파라 머개씀니다. {그래 이제 말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지금 이 회의에서 여기 다 녹음되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녹음기를 녹음테잎을 국제시장에 갖다 팔아 먹겠습니다.}

10201 # 이르기 돼:따 마리어.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10201 # 아 그라이까 탁: 쳐다보더니만 당금 이자리에서 뭉개조. {아 그러니까 탁 쳐다보더니만 당장 이자리에서 지워줘.}

10201 # 해결한다. 딱 이르기 돼:찌. {해결한다. 딱 이렇게 되었지.}

10201 # 켜테 인재 그래서 거기서 인재 하 요구하니까 제 지워줘'땀 마리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거기서 이제 하도 요구하니까 제 지워주었던 말이야.}

10201 # 우리 문제가 해결 될 꺼 가태서 인재 지워줘'땀 마리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 지워줬단 말이야.}

10201 # 또 머:라구 헨닝가 하니까 이 주에다 저나 걸리를 머라구 해닝가 하니까.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주에다 전화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201 # "세:도 부중 케이거" 한다 마리어. {세도 부중 케이커' 한단 말이야.}

10201 # 누구두 이: 마를 끄내지 말라, 마라지 말라. {누구도 이 말을 꺼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

10201 # 이르기 떡 돼:따 마리어, 저봐 웅 개, 인재 우리 우리두 다: 공작 이뉘니 이찌 머다:. {이렇게 떡 되었단 말이야, 전화 온 게, 이제 우리도 우리도 다 공작 인원이 있지 뭐 다.}

10201 # 그래서 인재 그르기 돼따 마리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단 말이야.}

10201 # 예:이 씨 이럴 뻐애너 아이 된다. {에이 씨 이럴 바에는 안 된다.}

10201 # 또 가자. {또 가자.}

10201 # 게 인재 백풍삼명으 더 뿌러서 백풍삼명으 인저 해: 가주구 북경애 인재. {그래 이제 백삼명을 더 불어서 백삼명을 이제 해 가지고 북경애 이제.}

10201 # 꼬치장판지 요런 판투 우애다 양철통 판투애다가 꼬치장 거 쪼꿈 당:꾸 쏘료부: 두 메다짜리 두: 개 그 다매 돈: 육씩번 그 다매 양표 육씩근, 그때 양표 쓸 때거든. {고추장단지 요런 판투애다 양철통 판투애다가 고추장 거 조금 담고 쏘료부 2미터 짜리 두 개 그 다음에 돈 육십원 그 다음에 양표 육십근, 그때 양표 쓸 때거든.}

10201 # 양표 육씩근. {양표 육십근.} 10201 #3 투파:. {투파.}

10201 # 이르게 해가주구 모도: 줌비해 가주구서넌 떠나찌.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준비해 가지고는 떠났지.}

10201 # 백풍삼명이 가자니까 또 그중에서두 술: 명는 사람.{백삼명이 가려니가 또 그중에서도 술 먹는 사람.} 10201 #1 상 놔따구. {상 났다고.} 10201 # 어: 그만해여. {에 그만해.}

파일 번호: 07

CJL_DM_07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제보자의 일생 이야기2(연금을 받게 된 과정)

조사자: 박경래

주제보자: 이용안(남, 1928년생)

보조제보자: 신명옥 (제보자 이용안 할아버지의 부인)

제보자 주소: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철북 1조(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에서
2001년에 이사)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 일시: 2011년 7월 15일

전사자: 박용희, 박경래

시간: 14분 45초

10201 # 그래서 거기서 일백푼삼명이, {그래서 거기서 백삼명이,}

10201 @ 예. {예.}

10201 # 그 다맨 저: 북경가지 가때지 머. {그 다음엔 저 북경가지 갔었지 뭐.}

10201 # 게 시시. {그래 시시.} 10201 @ 어디서 출발해썬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10201 # 저저 조양천서. {저저 조양천에서.}

10201 @ 조양천내. {조양천에.}

10201 # 조양천내서 출발해서 그 다매 가지. {조양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갔지.}

10201 # 간는데 거기서 쓰 저: 쌀료 두 메다 두: 개 그 다매 꼬치장 판투 그거 하나 돈: 육
씨번 그 다매 양표 육씨근 양표라구 밤 명는 양표가 이썬서. {갔는데 거기서 저 쌀
료 2미터 짜리 두 개 그 다 음에 고추장 판투 그거 하나 돈 육십원 그 다음에 양표
육십근 양표라고 밥 먹는 양표가 있었어.}

10201 # 그래 자주구 자주구 가서넌 거 가서 처남문 광:장 아패: 이르케 안저찌. {그래 가
지고 가지고 가서는 거기 가서 천안문 광장 앞에 이렇게 앉았지.}

10201 # 안:전는데 일백푼삼명 가운데 우리 동무가 하나 이르키 쌀료 미태다 깔:구 이르카
구 안:저따가 아푸루 폭 꼬려저 주거찌. {앉았는데 백삼명 가운데 우리 동무가 하
나 이렇게 쌀료 밑에다 깔구 이렇게 하고 앉았다가 앞으로 폭 꼬라져서 죽었지.}

10201 @ 으으:. {아아.}

10201 # 그저 거저 머: 아:무두 건드리지두 양:쿠 그저 그래 거 안저따가 그다 거기넌 여기
보더 지대가 줌 덤담 마리어. {그저 그저 뭐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저 그래 그
기 앉았다가 그 다음에 거기는 여기보다 지대가 좀 덤단 말이야.}

10201 # 그래서 어트기 돼서 ** 뇌허리 완넌지: 뇌추려리 완는지 어트간지 아푸루 폭 꼬려
저 주거따 마리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뇌일혈이 왔는지 뇌출혈이 왔는지 어떻
게 되었는지 앞으로 폭 꼬라져 죽었던 말이야.}

10201 # 그래 주거서 인재 그거: 우리가 도:너 내:서 북경에서 화:장 시켜서 그 다매 다: 인
저 그: 고려하매다 여:찌. {그래 죽어서 이제 그거 우리가 돈을 내서 북경에서 화장
시켜서 그 다음에 다 이제 그 유골함에다 넣었지.}

10201 # 연는데 이걸 발써 누가 아련능가 하니까 등소평이 아려따 마리어. {넣었는데 이걸
벌써 누가 알았느냐 하면 등소평이 알았던 말이야.}

10201 # 기래서 등소평이 대표 디리보내라 할 찌개 그: 대표 가운데 대표 하나 디리보니라.
{그래서 등소평이 대표 들여보내라고 할 적에 그 대표 가운데 대표 하나 들여보내
라.}

10201 # 한 사람 드려오라구 해꺼덩. {한 사람 들어오라고 했거든.}

10201 # 그르네 이 사라미 그: 누가 드르간능가 하니까 훈추내 김대중이, 김대중이가 드르

가개 땀:는데 혼자 디리보내면 안:되개따 마리여.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누가 들어
 왔느냐 하면 혼춘에 김대중이, 김대중이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혼자 들여보내면 안
 되겠단 말이야.}

10201 # 그래서 그: 하나가 따러 드르가'찌. {그래서 그 하나가 따라 들어갔지.}

10201 # 따러 드르간 사람 무슨 사라밍가 하니께 하:너를 조심말루 버녀가구 조선마를 하:
 너루 버녀가구 그 다매 말:두 자라구 벼노사지. {따라 드러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 하면 한어를 조선말로 번역하고 조선말을 한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하
 고 변호사지.}

10201 # 우리 군대 가따온 사라미 이런 사라미 이썸지. [우리 군대 갔다온 사람이 이런 사
 람이 있었지.}

10201 # 그래 따러 드러가 가주구서넌 그대 등소평하구 지금 김대주니하구 마:'라지. {그래
 따라 들어가 가주고는 그 다음에 등소평하고 지금 김대중이하고 말하지.}

10201 # 그래 아오까지 문제를 아까두 아오까지라구 아오까지 문제를 또 제추래'찌. {그래
 아홉 가지 문제를 아까도 아홉 가지 아홉 가지 문제를 또 제기했지.}

10201 # 제추래 가주구서는 거기서 이제 등소평이 마:래찌. {제기해 가지고는 거기에서 이
 제 등소평이 말했지.}

10201 # 어째서 이르키 와 가주구 사:람 하나 주견냐. {어째선 이렇게 와 가지고 사람을 하
 나 죽였냐.}

10201 # 이걸 아러따 마리여. {이걸 알았단 말이야.}

10201 # 그래 그 노버찌 줌. {그래 그 놓았지 줌.}

10201 # 노분디다가 또 머라구 마랜능가 김대중이가 머라능가 하니까 아오까지 문제를 제
 추래 노쿠 그 다매 어:: 등소평이한테 마:래따 마리여.{놓은데다가 또 뭐라고 말했
 는가 하면 김대중이가 뭐랬느냐 하면 아홉 가지 문제를 제기해 놓고 드 다음에 예
 등소평이한테 말했단 말이야.}

10201 # 이: 아오까지 문제: 제추랑 거 해겨라지 모태문 자리를 내:놔라, 이르키 돼:찌. {이
 아홉 가지 문제 제기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됐지.}

10201 # 그래이까 등소평이 누으 딱: 부러뜨문서 안 된다. 땅 마래찌. {그러니까 등소평이
 눈을 딱 부릅뜨면서 안 된다. 딱 말했지.}

10201 # 전국인미니 나르 승이나지 아징 너넌 승인 아난다. {전국민인이 나를 승인하지 아
 직 너는 승인 안 한다.}

10201 # 이르키 딱 돼:따 마리여. {이렇게 딱 됐단 말이야.}

10201 # 그른데 그: 때 너 이누무 새끼 문제 해결웅 기 아이라 자리다투매 와구나 하구 탕
 쏘면 주거찌. {그런데 그때 너 이놈의 새끼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자리다툼
 에 왔구나 하고 탕 쏘면 죽었지.}

10201 # 그른데 이 사라미 저티 인는 사라미 착: 찌버드러서 아: 이 사람 부대 이썸 때구
 그러쿠 월래든지 이르키 승지리 그괘서 마:리 이르키 콰왕 나가는데 마:니 줌 용서
 해 달라구. {그런데 이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척 끼어들어서 아 이 사람 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말이 이렇게 콰콰 나가는데 많이
 줌 용서해 달라고.}

10201 # 막 비러땀 마리여, 게 비러서 그 다매 거기서 등소평이 가라안저찌 쪼끔. {막 빌었
 단 말이야, 그래 빌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등소평이 가라앉았지 쪼금.}

10201 # 그 마:미 좀 수구러져찌. {그 마음이 좀 수그러졌지.}

10201 # 그래 가주선 그 다매 그 다매 이제 예: 내리가라. {그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 내려가라.}

10201 # 해겨래 준다. {해결해 준다.}

10201 # 이르키 돼:때찌. {이렇게 됐었지.}

10201 # 그래서 내려와서 이짜개 인재 성까지 성 성으루 해서 다: 이르키들 지비덜 다: 와이찌. {그래서 내려와서 이쪽에 성까지 성 성으로 해서 다 이렇게 집에 다 와 있지.}

10201 # 다 완는데 이 뭉꺼니 내려올 쥘 아련는데 아:이 내려온다 마리여. {다 왔는데 이 문건이 내려올 쥘 알았는데 안 내려온단 말이야.}

10201 # 그래 그 다매는 그: 다시 또 이제 대:표덜만 성애 올라가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시 또 이제 대표들만 성애 올라갔지.}

10201 # 대표만 일곱명이 예: 성애 또 올라가찌. {대표만 일곱명이 예 성애 또 올라갔지.}

10201 # 올라가 가주구서넌 그대 거 가서 성장하구 또 애:길 하지. {올라가 가지고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성장하고 또 얘기를 하지.}

10201 # 회:럴 하:구 애:길 하던데 누기 따리간능가 하니까 이 개:산투내 그: 부카내서 그 호사장질하던 사람, 패장끄비지.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따라갔느냐 하면 이 개산툰에 그 북한에서 그 호사장질하던 사람, 패장급이지.}

10201 # 그 인재 그 여자가 하나 인는데 자그 나그내가 부카내서 넌장지래'찌. {그 이제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자기 남편이 북한에서 연장질했지.}

10201 @ 예? {예?}

10201 # 중대장지래'찌, 연장 중대장지래'찌. {중대장질했지, 연장 중대장질했지.}

10201 @ 호사장은 머요? {호사장은 뭐요?}

10201 # 호사장은: 가노사를 다리우는 다스리는 호사장. {호사장은 간호사를 다스리는 다스리는 호사장.}

10201 @ 예예. {예예.}

10201 # 인재 게 그거 하다가 이르키 두: 예: 완는데 제대대 와서 보니까 아 시집시꾸 만: 치 시:: 시애끼 이찌 시누비 이찌 시어머이 시아부지 이찌 예: 거기다 몸 하나 아: 들 하나 나따 마리여. {이제 그래 그거 하다가 이렇게 예 왔는데 제대해서 와서 보니까 아 시집식구 많지 시 시동생 있지 시누이 있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지 예 거기다 몸 하나 아들 하나 나왔단 말이야.}

10201 # 그러구서넌 인는데 이: 남편이 군대 가따와서 주거찌 머. {그러고는 있는데 이 남편이 군대 갔다와서 죽었지 뭐.}

10201 # 게 주그니까 그 여자 혼자서 그: 심봉바더써두 다: 살 쭈가 이씨야지. {그래 죽으니까 그 여자 혼자서 그 심봉받았어도 다 살 수가 있어야지.}

10201 # 가정이 영: 골라나지, 시어 시아부지 모:빨지 시누이 시누비 시동생 머 빠빨지 그 래 가주서넌 그 다맨 이: 여자가 나두 간다구 따루 나서찌. {가정이 영 곤란하지, 시어(머니) 싱아버지 못 별지 시누이 시누이 시동생 뭐 못 별지 그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나도 간다고 따라나섰지.}

10201 # 그 다매 영기래 그 전투영웅 중구개서 전투영웅하든 사لامي 또 따라가따 마리여. {그다음에 연길에 그 전투영웅 중국에서 전투영웅하던 사람이 또 따라갔단 말이야.}

- 10201 # 게: 그 사라마 인재 또 가서 인재 그러니까 어: 개표덜가 일고비 드르가는데서 아호비 드르가땀 마리어, 두:리 더 드르가니까.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어 대표들과 일곱이 들어가는데서 아홉이 들어갔단 말이야, 둘이 더 들어가니까.}
- 10201 # 게: 아호비 드르가서 이제 저 난데 아:무 거두 업짬, 책쌍 하나 뻘:내다 지나기 한 통이지 머, 그 다매는 아:무 거두 업찌머. {게 아홉이 들어가서 이제 저 난데 아무 것도 없지 뭐, 책상 하나뿐에다 전화기 한 통이지 뭐,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없지 뭐.}
- 10201 # 성장 성장 방공실두 그러타 마리어. {성장 성장 판공실도 그렇단 말이야.}
- 10201 # 그래서 담화를 하는데 예: 연기래 전투영웅이 이렇 거 녹쌍기 하나: 노코서넌 성장 마라능 거 다: 드르가구 내 마라능 거 다: 드르가구 우리 마라능 거 대표가 마라능 거 다: 드르가구 이르기 된다 마리어. {그래서 담화를 하는데 예 연길의 전투영웅이 이런 거 녹쌍기 하나 놓고는 성장 말하는 거 다 들어가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가고, 우리 말하는 거 대표가 말하는 거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 10201 # 그래서 그대 거기서 다: 끈나따구 인재 패임할 찌개 영기래 인넌 그: 전투영웅 전투영웅이 거르마이 뿌시럭뿌시러개서넌 거: 중구개대:운짱 혼짱 그 다매 조선에서 항미원조 나가 가주구 혼짱 이거 다: 탁타개서 다: 내놔서 책쌍 우애다 땅: 노먼서 난 이거배끼 항 기 업습니다. {그래서 그담음에 거기서 다 끝났다고 이제 폐회할 적에 연길에 있는 그 전투영웅 전투영웅이 주머니를 부시럭부시럭해서는 그 중국에 대훈장 훈장 그 다음에 조선에 항미원조 나가 가지고 훈장 이거 다 탁타해서 다 내놔서 책상 위에다 땅 놓으면서 난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 10201 # 그런데 우리: 가정이 지금 굴머 주깨 되쑤다. 집뚜 업쑤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 10201 # 게 이 줌 해결해 주시오. {게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 10201 # 하니까 떡 쳐다보구서넌 아 보니까 그래 성장이 척 보:더니 그러치. {하니까 떡 쳐다보고는 아 보니까 그래 성장이 척 보더니 그렇지.}
- 10201 # 그 꼬태 개산투내 아주머이가 그냥 영영 그저 처뻘부터 영영 울:면서 그저 책쌍얼 두드리면서 어: 으: 나그네두 중대장지래다 주건는데 내 혼자서 시어머이 시아버지 에: 내가 낭 거까지 하나 인는데 이걸 어트리 머꾸 사능가? {그 끝에 개산툐의 아주머이가 그냥 영영 그저 첫번부터 영영 울면서 그저 책상을 두드리면서 어 응 남편도 중대장질하다 죽었는데 나 혼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에 내가 나온 것까지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고 사는가?}
- 10201 # 집뚜 업찌 어트개 해겨래여등가 아 거기서 성장 아피서 망: 울:면서 마란 마:관다... {집도 없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 거기서 성장 앞에서 막 울면서 말한 말한다...}
- 10201 # 그 다'매 내려가라우 해겨래 준다구. { 그 다음에 내려가라 해결해 준다고.}
- 10201 # 이르기 떡: 되구서넌 그 다매는 노금기 테푸루 해결 다: 안 되면 아호까지 문제 해결 다: 안 되면 노금테푸르 국제시장에 가따 파러 머깨쑤다. {이렇게 떡 되그는 그 다음에는 녹음기 테잎으로 해결 다 안 되면 아홉 가지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되면 녹음테잎을 국제시장에 가져다 팔아먹겠습니다.}
- 10201 # 그 다맨 거기서 성장애 누니 떡 부르뜨머서 당금 이 자리에서 지워달라. 다: 해겨

래 준다. {그 다음엔 거기서 성장이 눈을 뚝 부릅뜨면서 당장 이 자리에서 지워달라. 다 해결해 준다.}

10201 # 이르케 돼:따 마리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10201 # 그래 거기서 지워찌, 지워 다: 지워찌. {그래 거기서 지웠지, 지워 다 지웠지.}

10201 # 지워 가주서 보니까 마낙썰:, 그: 김대중이가 또 그런다 마리어. {지워 가지고 보니까 만약에 그 김대중이가 또 그런단 말이야.}

10201 # 거기 와서두 성장 아패서 으응: 이거서 해결 모타면 자리를 내놔'라. {거기에 와서도 성장 앞에서 응, 이것을 해결 못 하면 자리를 내놔라.}

10201 # 이르키 뚝 돼:ㅈ:, {이렇게 뚝 되었지.}

10201 # 그래서 그 다맨 아: 거기 또 말: 자라는 사라미 이썬서 아: 비러 가주구서리 성장 으 마:무 가라안처 노쿠 그 다매 내려와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 거기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 빌어 가지고서 성장의 맘을 가라앉혀 놓고 그 다음에 내려왔지.}

10201 # 내려서 우리끼리 인재 회:릴 하지. {내려와서 우리끼리 이제 회의를 하지.}

10201 # 어이 팔십명이면 팔십명 뱅명이면 뱅명이 모도서 회이릴 함 번 해찌. 해 가주구선 비밀리에 회이릴 함 번 해 가주선 이: 김대중이 우리 대:표루 세우지 모:탈 사라미다. 너머 과격 과격카다. {에 팔십명이면 팔십명 백명이면 백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했지. 해 가지고는 비밀리에 회의를 한 번 해 가지고는 이 김대중이 우리 대 표로 세우지 못할 사람이다. 너무 과격 과격하다.}

10201 # 그래서 빼 놔:'지. {그래서 빼냈지.}

10201 # 빼노니까 이 사라미 훈추내: 인는 사라미 아 느:덜해 느:덜 위에서 봉무하자구 나선 사라미 느더리 구만두라면 나넌 구만둔다. {빼놓으니까 이 사람이 훈춘에 있는 사람이 아 너희해 너희를 위해서 복무하자고 나선 사람이 너희들이 그만두라면 나는 그만둔다.}

10201 # 이르케 가주서넌 그저 뚝 구만뒤서 민도칼루다 모가지 뚝 찢러서 주거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저 뚝 그만뒤서 면도칼로 목을 뚝 잘라서 죽었지.}

10201 # 자기절루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10201 # 그래서 훈추내서 그: 김-대중이 대표하-질라던 사라면 주거빠려찌. {그래서 훈춘에서 그 김대중이 대표질하던 사람은 죽어버렸지.}

10201 # 그러구서넌 그 다매 그 후에 이 저: 성에서 머라구 내려완능가 하니까 주애루 내려 옹 개 전놔상으루 머가 내려완능가 하니까 이걸 또 알개 돼따 마리어. {그러고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저 성에서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주로 내려온 게 전화상으로 뭐가 내려왔느냐 하면 이걸 또 알게 되었단 말이야.}

10201 # 우리가 군대 가따온 사라미 사처에 다:: 공작 드르가 이썬니까 알:개 돼:찌. {우리가 군대 갔다온 사람이 사처에 다 공작 들어가 있으니까 알게 되었지.}

10201 # 게 성장이 주:장한테 머라구 해는지. {그래 성장이 주장한테 뭐라고 했는지.}

10201 # "찌거 쓰 세애 부중 케이커" 마래따 마리어. {"찌거 쓰 세애 부중 케이커"하고 말했던 말이야.}

10201 # 게 그 이거 인재 버넉 하자면 "이: 뭉꺼닐 누구두 입빠개 내노치 말라" 이 소리지. {그래 그 이거 이제 번역하면 이 문건을 누구도 입밖에 내지 말라 이 소리지.}

10201 # 부중 케이커. {부중 케이커.}

10201 # 그르게 케이커라능 게 이별 열지 말라. {그렇게 '케이커'라는 게 입을 열지 말라.}

10201 # 이르키 떡: 돼:찌. {이렇게 떡 되었지.}

10201 # 그래 가주서 그 다매 그걸 또 아러땀 마리어.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알
왔단 말이야.}

10201 # 그 다매 또 올라가따 마리어, 대표드리 성으루.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단 말이야,
대표들이 성으로.}

10201 # 성으루 올라간데 그 다매 그 후에 성장이 머라구 주:장한테 거런능가 하개 되면
이: 두: 사람 영웅하구 그 아즈마이 특빠리 그저 일:쭈일 이내루 다: 해겨래 줘라.
{성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 성장이 뭐라고 주장한테 걸었느냐 하면 이
두 사람 영웅하고 그 아주머니 특별히 그저 일주일 이내로 다 해결해 줘라.}

10201 # 몽땅 지비구 명녕 기구 살리미구 생활푸미구 머구 다 해겨래 줘라. [몽당 집이고
먹는 것이고 살림이고 생활품이고 뭐고 다 해결해 줘라.}

10201 # 그래서 직빵 해겨라지 아내씨 그때. {그래서 직방 해결하지 않았어 그때.}

10201 # 직빵 그점: 그 사람드런 그 사람 두:런 그저 직빵 그저 해:결돼:찌. {직방 그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둘은 그저 직방 그저 해결되었지.}

10201 # 게서 일:쭈일 저내두 다 그냥 아주 막: 그냥 다: 서드러서 다: 해줘따 마리어. {그
래서 일주일 전에도 다 그냥 아주 막 그냥 다 서둘러서 다 해줬단 말이야.}

10201 # 게 우리넌 인저 아직 해결 모: 꽤찌. {게 우리는 우리는 이제 아직 해결 못 됐지.}

10201 # 그래 가주서 또 인:는데 팔십삼년도 삼년도에 이 뭉꺼니 내려와따 마리어. {그래
가지고 또 있는데 팔십삼년도 삼년도에 이 문건이 내려왔단 말이야.}

10201 # 내려완는데 어르기 내려완능가 하개 되면 세: 가지 문쟁가 네: 가지 문제배끼 내려
웅 기 업따.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세 가지 문젠가 네 가지 문제밖
에 내려온 게 없단 말이야.}

10201 # 이사 이런 사람덜 군대 신봉 바편 그 심봉대루 다 내줘라. {이사(람) 이런 사람들
군대 신봉받던 그 신봉대로 다 내줘라.}

10201 # 그 다매 또 명:가 하니까 예:: 열싸 가조그 해결해 줘라.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에 열사 가족을 해결해 줘라.}

10201 # 열싸 가족, 주근 사람. {열사가족, 죽은 사람.}

10201 # 그 다매 거:- 저: 전사 하:사 군간 도러온 사람드르 그 사람드르 머께끔 생활 안패
해 달라 줘라. {그 다음에 그 저 전사 하사 군간 돌아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먹
게끔 생활 안패 해 달라 줘라.}

10201 # 요 세: 가지 땅 내려와따 마리어. {요 세 가지 닥 내려와단 말이야.}

10201 # 기래서 그 다매 야: 이마내두 야 우리는 임무 완성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이
만해도 야 우리는 임무 완성이다.}

10201 # 게 인재 우리는 기다리구 이찌. [그래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10201 # 그라구서 기다리구 인는데 아 그 다매넌 이 뭉꺼닐 가주구서 뭉꺼닐 가주구서 게::
속 올리바다 야듭 아홉까지 문제르 게:속 제출하지 머.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 다음에는 이 문건을 가지고 문건을 가지고서 계속 올려받아 여덟 아홉 가지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 뭐.}

10201 # 게 제주래서 그래서 팔십삼년도에 해:결 바다 가주구 우리가 머르 헨능가 하니까
이제 리'슈르 해줘라. {그래 제기해서 그래서 팔십삼년도에 해결 받아가지고 우리

뭐를 했느냐 하면 이제 리슈를 해줘라.}

10201 # 리슈른 명가 명가 하니까 예: 중구개 구까 감부 구까 감부쫓얼 래주구 그 다매 다 그: 구까 감부쫓애 그 국짱꿍-이면 국짱그부루 도널 주구 그 다매 현끄비면 현장끄 비면 현장끄부루 도널 주구 이르캐서 해:라. {리슈는 뭔가 뭔가 하면 예 중국에 국가 간부 국가 간부증을 내주고 그 다음에 다 그 국가 간부증에 그 국장급이면 국장급으로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현금이며 현장급이면 현장급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해라.}

10201 # 그래서 우리 바더 바더 명는 심봉임다, 그기. {그래서 우리가 받아 받아 먹는 심봉입니다, 그제.}

10201 # 예: 그래서 그때 다 해결돼써. {예 그래서 그때 다 해결됐어.} 10201 @ 팔십삼-삼녀내. {팔십삼년에?}

10201 # 팔십삼년도. {팔십삼년도.}

10201 #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 이르기 사라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다 이렇게 살았지.}

10201 # 게: 그제 다: 공산당이 먼저 어: 이 사람덜 해:주개따구 문건 해서 해중 게 아입니다. {그래 그제 다 공산당이 먼저 어 이 사람들 해주겠다고 문건 해서 해준 게 아입니다.}

10201 # 우리가 투쟁해서 이기 나옴 거십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이기 나온 것입니다.}

10201 @ 그래두 그러케 그때 모여서 할 쭉 이쉴 만큼 그: 의지들두 이썬내요? {그래도 그렇게 그때 모여서 할 수 있을 만큼 그 의지들도 있었네요.}

10201 # 그때는 의지가 어트기 된능가 야 씨 이렇 건 이 위미를 위해서 봉무하구 드루와써 두 임민드런 우리덜 보기덜 어: 머 아닝개 아이라 머 개:가 바우또래 가따온 시기다. {그때는 의지가 어떻게 되었는데, 야 시 이런 건 이 위민을 위해 복무하고 들어왔어도 인민들은 우리를 보기를 어 머 아닝개 아니라 뭐 개가 바윗돌에 갔다온 식이다.}

10201 # 이그 머 우리가 이르기 사러 머:라냐.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 뭘하느냐.}

10201 # 이래 주그나 저래 주그나 항가지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가지다.}

10201 # 그래 함 번 하자. 이르기 저:찌 머. {그래 한 번 하자. 이렇게 됐지 뭐.}

10201 # 그래 가주서 그 다매 동운되 가:찌.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동원되어 갔지.}

10201 # 모쭼: 모쭼- 해: 가주구. {모집 모집해 가지고.}

10201 # 게 그 사람 김대중이가 힘이 세게 써찌. {그래 그 사람 김대중이가 힘을 세게 썼지.}

10201 @ 그런 사라미 이써야 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일:하는 사라미. {일하는 사람이.}

10201 # 게 즐, 즈:아덜래드리구 즈:씨구 훈추내서 훈춘시: 쪼구루 일똥 가라면 설 섭:게 살:싸라미여 그 다. {그래 자기 자기 아들들이고 자기 식구 훈춘에서 훈춘시 죽으로 일똥 가라면 서럽게 살 사람이야 그제 다.}

10201 # 두번째 가라면 다 설개 살: 싸라미여. {두번째 가라면 다 서럽게 살 사람이야.}

10201 # 대학생덜 대학뚜 공부 다: 씨겨찌. {대학생들 대학도 공부 다 시켰지.}

10201 # 우리두 투쟁이 마:너때써. 하:연... {우리도 투쟁이 많았었어, 하여튼...}

10201 @ 따룽 거뚜 또 이써서요? {다른 것도 또 있었어요?}

10201 # 예? {예?}

10201 @ 다른 투쟁도 또 해썬요? {다른 투쟁도 또 했어요?}

10201 # 다른 투쟁은 머 아'내썬요 다:. {다른 투쟁은 뭐 안 했어요 다.}

파일 번호: 40

CJL_DM_40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청주 MBC에서 정암촌 취재한 이야기, 판로군에 입대한 계기와 활동, 문화혁명, 큰아들 화상입은 이야기, 벌치기 등 이야기

조사자: 박경래

주제보자: 이용안(남, 1928년생)

보조제보자: 신명옥 (제보자 이용안 할아버지의 부인)

제보자 주소: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철북 1조(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에서 2001년에 이사)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 일시: 2011년 7월 21일

전사자: 박용희, 박경래

시간: 1시간 32분 00초

1.4. 생업활동

10324 # 아:: 저저 청주방송국 청주방송국 국장. {응, 저저 청주방송국 청주방송국 국장.}

10324 @ 예.{예.}

10324 # 김oo. {김oo.}

10324 # 이'oo이 아니구? {이oo이 나니고?}

10324 @ 김oo이요.{김oo이요.}

10324 # 거기 이썬 때 뭘: 아러. {거기 있을 때 뭘 알아.}

10324 @ 그때 와서 어트개 행는지. {그때 와서 어떻게 했는지.}

10324 # 그때 와서 설 때::에:: 설 무루배 설 쇄구 항구개서 설 쇄구 와썬요.{그때 와서 설 때 에 설 무렵에 설 쇄고 한국에서 설 쇄고 왔어요.}

10324 @ 몇 명이나 와썬요? {몇 명이나 왔어요?}

10324 # 그때:: 임 교수두 오고: 또 그 세: 명인지 네:명 다썬 명인지 그때. {그때 임 교수도 오고 또 그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그때.}

10324 # 다서싱가 와때찌. {다섯인가 왔었지.}

10324 # 그르키 와 거주구서 처:매 뭘행능가 하니까 그 정아매 이쁜 박차농이 박차농이하구 낭그를 가 해 오라 그래썬요, 발구 끌구 가서. {그렇게 와 가지고 처음에 뭘 했느냐 하면 그 정암에 있던 박찬용이 박찬용이하고 나무를 가 해 오라고 그랬어요, 발구 끌고 가서.}

10324 # 낭구를 가서 해 오라구. {나무를 가서 해 오라고.}

10324 # 게 발구 끌구 가서 낭구덜 토부루 비능 거, 낭구 올려보구 내려보구 하능 거 다:

찌거찌 머. [그래 발구 끌고 가서 나무를 톱으로 베는 거, 나무 올려보고 내려보고 하는 거 다 찍었지 뭐.]

10324 # 찌꾸서 낭구 저:: 옥씨기짱처럼 저 이르키 선능 거 낭구르 토부루 비:지. {찍고서 나무 저 옥수숫대처럼 저 이렇게 서있는 거 나무를 톱으로 베지.}

10324 # 비능 거 다: 찌꾸 도끼지래서 아:치르 따구. {베는 거 다 찍고, 도끼질해서 가지를 따고.}

10324 # 아치르 따능 거까지 다: 하구. {가지를 따는 것까지 다 하고.}

10324 # 그 다매 인재 발구다 이르키 단다 말입니다, 이르키. {그 다음에 이제 발구에서 이렇게 단단 말입니다, 이렇게.}

10324 # 이르키 낭글 달지 이제 이르기. {이렇게 나무를 달지 이제 이렇게.}

10324 # 달구 가주구 인재 발구에 소로 메워씨니까 그 두:리 간는데 두:리에 발구 하나 가주구 사람 두:리 가찌. {달구 가지고 이제 발구에 소를로 메웠으니까 그 둘이 갔는데 둘이 발구 하나 가지고 사람 둘이 갔지.}

10324 # 기래 그때: 동사매 와서 누:니 이씨찌 거지. {그래 그때 동삼에 와서 눈이 있었지 거기.}

10324 # 그래 누루다 눈 우이([uy])루다 발구르 끄서 가주구 내려오지. {그래 눈으로 눈 위로 발구를 끌어 가지고 내려오지.}

10324 # 내려오는데 또 우리는 그 낭구 마이 안 찌꾸 형시그루 그르케 하다나니까 함바리 꿀떡되게 신찌 아내찌. {내려오는데 또 우리는 그 나무 많이 안 찍고 형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 바리 가득되게 신찌 않았지.}

10324 # 그저 한 대여서께 찌거 가주구서는 그 다매 달구 내려오지. {그저 한 대여섯 개 찍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달고 내려오지.}

10324 # 그런데 그 발구 우에서 노래부루라 그랜다 마리어. {그런데 그 발구 위에서 노래부루라 그런단 말이야.}

10324 # 노래부루라구. {노래 부르라고.}

10324 # 게 발구 우에서 노래 부루는데 그 노래 다: 이르키 노그마구. {그래 발구 위에서 노래 부르는데 그 놀 다 이렇게 녹음하고.}

10324 # 노그마구 그 다매 거기서 이제 노래부루며 지비까지 와찌. {녹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노래부르면서 집에까지 왔지.}

10324 # 게 그 노래를 아리랑을 불러찌. {그래 그 노래를 아리랑을 부렀지.}

10324 # 게 아리랑 부르 가주구서 내리오민서 그 다매 지비까지 와찌. {그래 아리랑 불러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집에까지 왔지.}

10324 @ 지금 부를 수 이씨요? {지금 부를 수 있어요?}

10324 # 부를 쑈 이찌요. {부를 수 있지요.}

10324 @ 함 번 해보실래요? {한 번 해보실래요?}

10324 # 그 아리랑이란 건 조선싸라미 다: 알기 때매 뭐: 조선싸라미 전반 다: 아:니까 알기 아리랑이라능 건. {그 아리랑이라는 건 조선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뭐 조선사람이 전반 다 아니까 알기(를) 아리랑이라는 건.}

10324 @ 청주아리랑. {청주아리랑.}

10324 # 게 청주아리랑이나 머 아무데나 아리랑 아리랑은 항가지 충청북도 아리랑. {그래 청주아리랑이나 뭐 아무데나 아리랑 아리랑은 한가지지 충청북도 아리랑.}

10324 #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오 아리랑 꼬개를 너머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니므~은 심니도 모까서 발뺌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뺌난다.}

10324 # 이기 향 구절 구절루 그러치 그저 구절루 그르케 아리랑은 그르케 불러. {이게 한
구절 구절로 그렇지 그저 구절로 그렇게 아리랑은 그렇게 불러.}

10324 # 그 다매 인저 거기서 지비 와서 낭구렐 다: 부러 노코 점슨 머꾸 오후에 예:: 아우
지 인는데 산소렐 가자능 기지, 내 우리 아버지 인는데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서 집에 와서 나무를 다 부러 놓고 점심 먹고 오후에 예 아버지 있는데 산소를 가
자는 거지, 내 우리 아버지 있는데를.}

10324 # 게 산소렐 가낭 거 가::능 거 다: 찌꾸 사진 다: 찌꾸 오녕 거 다: 녹쌍 다: 해따
마리여. {그래 산소를 가는 거 가는 거 다 찍고 사진 다 찍고 오는 거 다 녹화 다
했단 말이야.}

10324 # 헨:는데 틀러따구 틀러따구 다시 가서 지 지내보:라능 기지. {했는데 틀렀다고 틀
렀다고 다시 가서 지내고 오라는 거지.}

10324 # 그르니 거: 가서 술 한 수란잔하구 자:나구 가주 가찌 머. {그러니 거기에 가서 술
한(잔) 술 한잔하고 잔하고 가지고 갔지 뭐.}

10324 # 거기다 뭐 노쿠서 그 다맨 아버지 인는데 가 제:사 지내면서, 그 아버지 인는데 가
제:사 지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하는데 녹쌍 다 하지. {거
기에다 부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있는데 가 제사 지내면서 그 아버지 있는
데 가 제사 지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놀화 다 하
지.}

10324 # 그 다매 거기서 이제 우':러라능 기지.{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올라는 거지.}

10324 # 근데 눅무리 나와야 올지. {그런데 눈물이 나와야 올지.}

10324 # 예 이거 안 되개따구 감정얼 살귀 가주구 그 다매 헨:날 그 고상하던 생각 이걸 살
귀 가주구 그 다매 아버지가 이르키 서 섭서파개 도러가셔따. {예 이거 안 되겠다
고 감정을 살려 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고생하던 생각 이걸 살려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섭섭하게 돌아가셨다.}

10324 # 이 생각글 끄내 가주구 감정얼 살귀 가주구 눅물 정말 빼:써요. {이 생각을 꺼니
가지고 감정을 사려 가지고 눈물을 정말 뺏어요.}

10324 # 그때 사진 사진 노금 다: 해찌 머. 이마:낭 걸루 그저 노금 다: 해 가주 그래구선
내려와찌. {그때 사진 사진 녹음 다 했지 뭐. 이만한 걸로 그저 녹은 다 해 가지고
그러고는 내려왔지.}

10324 #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또 어: 틀러따능 기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또 틀렀다
는 거지.}

10324 # 다시 올라가따 다시 내려가구 세: 버인지 네: 버인지 그 가 올라가다 또 내려오구
올라가다 또 내려오구.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세 번인지 네 번인지 그 가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10324 # 지팡이 지꾸 아이구: 아이구 하면서 내려오라능 기지 또.{지팡이 짚고 아이고 아이
고 하면서 내려오라는 거지 또.}

10324 # 그래 인재 그래 가주서 그 다매는 그걸 거기서 세: 버닝가 올라가 야:중애는 사:라
미 싱경지리 나대 막 그냥. {그래 이제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거 거기서 세

번인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신경질이 나더라고 막 그냥.}

10324 # 거 틀려따구 또 다시 올라가따 오라지 다시 올라가따 오라지. {그 틀렸다고 또 다시 올라갔다 오라지 다시 올라갔다 오라지.}

10324 @ 출짜나요, 또 그때는? {출잖아요, 또 그때는?}

10324 # 출썸요. {출지요.}

10324 # 누:니 여:가지 빠지는데. {눈이 여기까지 빠지는데.}

10324 # 그 다매 그르캐 가주 그 다매는 에이 게 돼:따 그라등군. {그 다음에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에이 그래 되었다고 그러더구먼.}

10324 # 그래 지비까지 또 내려와쥬. {그래 집에까지 또 내려왔지.}

10324 # 추워쥬 그땐. {추웠지 썸때는.}

10324 # 그래 그르카구 지비 와서 다: 하구서는 그 다매는 지비 와서 저녁 머꾸 게 그러구서는 그 이튼나래 그이튼나래 간다 그라등군. {그래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래 그러고는 그 이튼날에 그이튼날 간다 간다 그러더구먼.}

10324 # 그래 보내노쿠서는 마러쥬. 그라매 설: 쇠구 그이트 사밀마내 간능가? {그래 보내놓고는 말았지. 그 다음에 설 쇠고 그이틀 삼일만에 갔는가?}

10324 # 게 그래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10324 # 그러구 연변대학 - 하구 또 항국 싸라마구 가치 와따 마려. {그리고 연변대학하고 또 한국사람하고 같이 왔단 말이야.}

10324 # 그래 가주구 그때 콩끼물 매:면서 콩끼물 매머서 옴::나래 그: 어:: 노인더리 서:깨 부르든 설개 부르든 이걸 줌 해: 보라능 기지. {그래 가지고 그때 콩김을 매면서 콩김을 매면서 옛날에 그 에 노인들이 서럽게 부르던 서럽게 부르던 이걸 줌 해 보라는 거지.}

10324 # 그 다매 거기서 인재 예:: 옴:나래 그 안싸람드리 이거 부루능 기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에 옛날에 그 안사람들이 이거 부르는 거지.}

10324 # 그: 시집사리 하면서 그:: 사라나온 그 걸 이미해 가주구. {그 시집살이 하면서 그 살아나온 그걸 의미해 가지고.}

10324 # 그래 그 다매 거기서 뭘 부른나 콩바튼 인저 호미릴 쥬:구 여:서싱가 여:서시 인저 죽:: 바고랑을 타구서 이제 그 다매 예: 여:서싱가 그래 가주구서는 인재 거기서 호미루 매머 나가지. {그래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불렀나 (하면) 콩밭은 이제 호미를 쥐고 여섯인가 여섯이 이제 죽 밭고랑을 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 여섯인가 그래 가지고는 이제 거기에서 호미로 매면서 나가지.}

10324 # 매는 시늬얼 하며 나가지. {매는 시늬를 하면서 나가지.}

10324 # 진짜 매 푸리 우:꺼덩. {진짜매, 풀이 없거던.}

10324 # 그래서 그 다매 거기서 이제 또 뭘 부르라능가 하йка 그 노래를 또 부루라 그란다 마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뭘 부르라능나 하면 그 노래를 또 부루라 그런단 말이야.}

10324 # 기래 거기서 이제 불려쥬. {그래 거기서 이제 불렸지.}

10324 # 그게 무슨 노랑개 되면 거: 예나래 그:: 시아버지르 원망하던 게 시어머이를 원망하던 그런 노래지 머.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하면 그 옛날에 그 시아버지를 원망하던 그래 시어머니를 원망하던 그런 노래지 뭘.}

10324 @ 그 함 번 해보세요, 그럼. {그거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10324 # [노래]시아버지 주거따고 조태떠니 왕골자리 떠러지니 또 생강난다. {시아버지 죽었다고 좋됐더니 왕골자리 떨어지니 또 생각난다.}

10324 # [노래] 시어머니 주거따고 조태떠니 보리방아 물 뵈노니 또 생강난다. {시어머니 죽었다고 좋됐더니 보리방아 물 뵈놓으니 또 생각난다.}

10324 # 이게 우개다 우겨주는 사라미 어:꺼덩, 그래서 또 생강나는... {이게 다 우겨 넣어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또 생강나는...}

10324 # [노래] 시동생 주거따고 조태떠니 나무까리 쳐다보니 또 생강난다. {시동생 죽었다고 좋됐더니 나뭇가리 쳐다보니 또 생각난다.}

10324 # 게 나무까리 다: 때구 업따 마리여. {그래 나뭇가리 다 때고 이제 없단 말이야.}

10324 @ 예. {예.}

10324 # 거 시동생이 낭구 해완는대. {그 시동생이 나무 해왔는데.}

10324 # 그 다매, {그 다음에,}

10324 # [노래] 시누이가 주거따고 조태떠니 망내딸 라코보니 또 생강난다. {시누이가 죽었다고 좋됐더니 막내딸 낳고 보니 또 생각난다.}

10324 #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어버달 어버줄 싸라미 업따 마리지.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업어달(라) 업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지.}

10324 # 그래서 그르키 그르케 불러썬니다, 이거 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거 다.}

10324 # 그라구 거기다가 이제 뭘 또 연능가 하개 되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엇을 또 넣었느냐 하면,}

10324 # [노래] 시아버지 골란 대는 술바더 주구 시어머니 골란 대는 이자버 주세. {시아버지 골란 대는 술받아 주고 시어머니 골란 대는 이 자아 주세.}

10324 # 머리-이 딱딱 주기면 시워:나다구 한다 마리여. {머릿이 딱딱 죽이면 시원하다고 한단 말이야.}

10324 # 이 그르케 그래서 그 다매, {이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10324 # [노래] 시동생 골란 대는 사탕 싸 주구 시누이가 골란 대는 몽당이 뜬질. {시동생 골란 대는 사탕 사 주고 시누이가 골란 대는 몽동이 뜬질.}

10324 # 이르케 하면서 그건 저: 시어머니한테 일러바친다구. {이렇게 하면서 그건 저 시어머니한테 일러바친다고.}

10324 # 그르키 하능 기라구. {그렇게 하는 거라고.}

10324 # 그게 다: 인저 그르키 나가서 그저내 과:거애 어:: 충청북도에서 그르키 산 여자드리 이따능 기지. {그게 다 이제 그렇게 나가서 그전에 과거에 예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산 여자들이 있다는 거지.}

10324 #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와찌.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왔지.}

10324 # 그 후애는 그걸 로금 다: 해 가주구 노래 부루넝 거 보구서 연벼내 올라가더니면 연벼내서 노래채걸 내기다 보내줘스. {그 후애는 그걸 녹음 다 해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보고서 연변에 올라가더니만 연변에서 노래책을 나한테 보내줬어.}

10324 # 게 보내줘 그 채기 지금두 인는대. {그래 보내줘서 그 책이 지금도 있는데.}

10324 # 게 노래채걸 가주구선 그 하라곤 아마 두꺼기가 이 이마니 두꺼워 담배 마리두. {그래 노래책을 가지고는 그 하라고는 아마 두껍기가 이 이만큼 두꺼워 담배 말이도.}

10324 # 두꺼웁 거 마:너요. {두거운 거 많아요.}

10324 # 두꺼워서 그 다매 그르키 해: 줘:찌. {두꺼워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 줬지.}

10324 @ 청주아리랑은 그거는 하실 수 이짜너요, 그거뚜. {청주아리랑은 그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10324 # 청주아리랑은 으: 강안도 아리랑 청주아리랑 그 다매 이짜개 거 어:: 무여 여끄마 리랑이라능 개 이꺼등. 게 다:. {청주아리랑은 에 강원도 리랑 청주아리랑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에 뭐야 엮음아리랑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다.}

10324 @ 그거또 함 번 해 보세요, 청주아리랑하구. {그것도 한 번 해 보세요, 청주아리랑하구.}

10324 # 모르지 뭐 그 다: 저, 다: 알쭈야 읍찌 머, {모르지 뭐 그 다 저, 다 알 수야 없지 뭐.}

10324 # 강안도 아리랑 하나 해보지. {강원도 아리랑 하나 해보지.}

10324 @ 청주아리랑 하시고. {청주아리랑하시고.}

10324 # 청주아리랑 해:짜나 아까. {청주아리랑 했잖아 아까.}

10324 @ 아까 그거 그건 아:내짜나요, 머 세천땅 무슨 낭개 이거 하셔야 되자나요. {아까 그거 그건 안 했잖아요, 뭐 세천땅 무슨 나무에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10324 # 아:, 그걸 언제 아러써요? {아, 그걸 언제 알았어요?}

10324 @ 함 번 드러 본 적 이찌요. {한 번 들어 본 적 있지요.}

10324 # 원:제. {언제.}

10324 # 근 노:래까라기지 머. {그건 노래가락이지 뭐.}

10324 @ 그거 그개 청주아리랑이라 그러던데. {그거 그개 청주아리랑이라 그러던데.}

10324 # 아:니, 노래까라기여. {아니, 노래가락이야.}

10324 @ 노래까라기요? {노래가락이요?}

10324 # 응:. {응.}

10324 @ 함 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10324 # 세천땅 세 어 세천당 세모진 낭 아니여 이르키 음뽕가 나오능 게 아니라. {세천땅 세 어 세천땅 세모진 나무, 아니야 이렇게 음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324 # 근 노래가라기기 때미 이르키 음뽕가 나오능 기 아니여.{그건 노래가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보가 나오는 게 아니야.}

10324 # 그거 으미 어티기 나오는지 그걸 잘 모르개따 마리여, 지그문 다: 이저머거서. {그거 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은 다 잊어버려서.}

10324 @ 강원도아리랑 해 보세요. {가원도아리랑 해 보세요.}

10324 @ 이따 생강나시면 하시고. {이따가 생각나시면 하시고.}

10324 #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오 아리랑 꼬개를 너머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10324 # 그 다매 인재 진자개 하자니까 이저머궁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즉 하려니까 잊어버린 거...}

10324 # 인재 정시니 다: 이저머거저서 곰만 생강나따 이저멍는다 마리여. {이제 정신이 다 잊어버려서 금방 생각났다 잊어버린단 말이야.}

10324 # {노래} 청산읍내 물레방아는 사고삼십륙 서른여서칸 캥카니 물릴 앙꼬 배배뱅뱅뱅 돌지만 은~ 우리지배 저 낭구는 날만 앙꼬 도네~. {청산읍내 물레방아는 사고삼십

육 서른여섯 칸 칸칸이 물을 안고 배배뽕뽕 돌지만 우리집의 저 낭군은 날만 안고 도네.}

10324 # [노래] 강안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삼천구암자애다가 산지불공얼 말고~오. {강안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삼천구암자애다가 산지불공을 말고.}

10324 # [노래] 아닌 밤중 오신 손님 팔세를 마오~. {아닌 밤중 오신 손님 팔세를 마오.}

10324 # 이르기 되지, 나와서 강원도아리랑이여. {이렇게 되지, 강원도아리랑이야.}

10103 @ 아까 그 저기 김oo 기자 와쓸 때 그 산소에 가서 우르라구 해따 그래짜나요? {아까 그 저기 김oo 기자 왔을 때 산소에 가서 올라고 했다 그러셨잖아요? 10103 # 예에에. {예에에.}}

10103 @ 그때 옛날 생가카구 우셔따면서요? {그때 옛날 생각하고 우셨다면서요?}

10103 # 예:. {예.}

10103 @ 그거 어떤 생가카셔썬요? 어떤 이리 이썬는지. {그거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103 # 이 만주 드러올 때 이 온송파리 근닐 때 그때 일곱 시꾸가 영:: 추워서 그 아:주 기가매키개 추위에 손바리 다 언 어:는 정도루 게우 해서 근너와찌 머. {이 만주 들어올 때 이 온성 다리 건닐 때 그때 일곱 식구가 아주 추워서 그 아주 기가막히게 추워서 손바바리 다 언 어는 정도로 겨우 해서 건너왔지 뭐.}

10103 # 그런데 그때 다리털 근너는데 으: 추워서 거:찌털 모타니까 일변애드리 그 빨리가라구 막 끄냥 때리던 그때 생각파 와:서 그:: 삼년 똥아늘 공출 읍씨 지어먹따가 공추를 다:: 사양시글 끄러간다 마리어. {그런데 그때 다리를 건너는데 응, 추워서 걷지를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빠리 가라고 막 그냥 때리던 그때 생각과 와서 그 삼년 동안을 공출 없이 지어 먹다가 공출을 다 양식을 끌어 간단 말이야.}

10103 # 끄러가니까 그 다매 싸리 업썬서 머글개 업썬서 질깁이폴 이거 머꾸 전 시꾸가 부왕이 나서 어: 부왕이 나서 아주 똥똥 부순 사람처럼 이르기 그저 살:던 그런 생각. {끌어가니까 그 다음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질깁이폴 이거 먹고 전 식구가 부왕이 나서 예 부왕이 나서 아주 똥똥 부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저 살던 그런 생각.}

10103 # 그 다매 아버지가 와서 나랑 가치 그: 목또럴 하면 목또해서 돌멩이럴 이 아패: 큰 돌 가툼 거 그렁 거 목또르 해:서 다: 저내서 바틀 일궁 거. {그 아음에 아버지가 와서 나랑 같이 그 목도를 하면 목또해서 돌멩이를 이 앞에 큰 돌 같은 거 그런 거 목도를 해서 다 저내서 밭을 일군 것.}

10103 # 게 바틀 일귀 가주 거기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또 공추럴 바치야지. {그래 밭을 일귀 가지고 거기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또 공출을 바쳐야지.}

10103 #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까 그대 고상만 해따.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고생만 했다.}

10103 # 게 이런 생각-해:서 비:가미 나서 우러찌 머. {그래 이런 생각해서 비감이 나서 울었지 뭐.}

10103 # 허허. {허허.}

10103 @ 그러면 언제 도라가셔썬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어요?}

10103 # 으::. {예.}

10103 # 오:십, 그러니까 사시 사십 팔련도에 도련대 구년도에 도러가셔는지. {오십, 그러니

까 사시 사십 팔년도에 돌아가셨는지 구년도에 돌아가셨는지.}

10103 @ 그러면 하라부지 군인 가:, 가시기 저니요? {그러면 할아버지 군인 가(시기), 가시기 전이요?}

10103 @ 거 간 가서 쓸 때요? {거 가셨을 때요?}

10103 # 가따 와서. {갔다 와서.}

10103 @ 가따 와서. {갔다 와서.}

10103 # 응::. {응.}

10103 # 그래 오:십 오십팔년도나 오식꾸년도나 그때 주거써. {그래 오십 오십팔년도나 오십구년도나 그때 죽었어.}

10103 @ 그럼 한 삼십 쌀 정도 돼 쓸 때내요 하라부지? {그럼 한 서른 살 정도 되었을 때내요, 할아버지?}

10103 @ 서 른살. {서른 살.}

10103 # "왜" 서른살만 되써, 팔십 팔십 냥겨 사러써. {'왜' 서른 살만 됐어, 팔십 팔십 냥겨 살았어.}}

10103 # 사망되는데. {사망되는데.}

10103 @ 아니요 하라부지. {아니요 할아버지.}

10103 # 내가 그때 삼십 삼십쌀. {내가 그때 삼십 삼십 살.}

10103 @ 그 정 그 정도 돼찌요? {그 정(도) 그정도 되었지요?} 10103 # 어 그 정도지. {응, 그 정도지.}

10103 # 삼십 쌀 너머찌. {서른 살 넘었지.}

1.5. 일생 의례

10201 @ 아까 며 저기 이제 얘기하던대 군: 구녕가쓸 때에:. {아까 뭐 저기 의재 얘기하던데 군 군인 갔을 때. 10201 # 응. {응.} 10201 @ 얘기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10201 @ 그때 전투 엄청 썰개 하셔쓰꺼 아니요, 사람두 마니 주꾸? {그때 전투 엄청나게 세게 하셨을 거 아니요, 사람도 많이 죽고?}

10201 # 전투야 한 삼십여 차 해:찌. {전투야 한 삼십여 차 했지.}

10201 # 전투명령은 전쟁은 한 삼십비차 저버드러 해:찌. {전투명령은 전쟁은 한 삼십이차 접어들어 했지.}

10201 # 그 쉽쓰 십싸 년 똥안 항 개 그개 전투 안해개써요? {그 십사 십사년 동안 한 개 그개 전투 안 했겠어요?}

10201 # 전투한, 일러내 일러내 즈:거두 사십칠련 사십육년 사십칠려내만 해두 벌써 그때마 내두 이 어:: 열 메개르 해는데. {전투한, 일년에 일년에 적어도 사십칠년 사십육년 사십칠년에만 해도 벌써 그대만 해도 에 열 몇 개를 했는데.}

10201 @ 그때 전쟁할 때 머: 어떤 때는 싸워서 이 이기기두 하구 어떤 때는 또 {그때 전쟁할 때 뭐 어떤 때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10201 # 후퇴하구. {후퇴하고.} 10201 @ 저서 후퇴하기두 하구 그래자나요? {저서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0201 # 으:. {응.}

10201 @ 그럴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억나는 거? {그럴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억나는 거?}

10201 # 게 요 먼저 해:짜너요? {그 요 먼저 했잖아요?}

10201 # 전쟁 애긴 다: 해짜너. {전쟁 얘기는 다 했잖아.}

10201 # 다: 해찌 머. {다 했지 뭐.}

10201 # 건 다 해서 다 노금되 이씨끼란 마리여 그건. {그건 다 해서 다 녹음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건.}

10201 # 그런데 지금 옴:날 얘기 하나 하자면 우리 호:니 드짜능 거 하나 저 든 저릉 개 하나 이씨. {그런데 지금 옛날 얘기 하나 하자면 우리가 흔히 듣지 않은 거 하나 저 듣(지 않은) 저런 게 하나 있어.}

1.6. 전설과 설화

10810 # 저 호니 쓰는 마르 그 저: 사라미 지성이면 감chner이다. {저 흔히 쓰는 말을 그 저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10810 # 이른 마르 쓴다 마리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10810 # 기개 어디서 나온 마렁가 하니까, 이르키: 압찌배는 저: 지성이가 살:구 뒤찌배는 감chner가 사러꺼덩. {그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나 하면 이렇게 앞집에는 저 지성이가 살고 뒷집에는 감천이가 살았거든.}

10810 # 근디 그 두리 사이애 영:: 동무가 아주 치::난 동무가 되따 마리여. {그런데 그 둘이 사이에 아주 동무가 아주 친한 동무가 되었던 말이야.}

10810 # 그래 이 뒤찌배 사는 지성이가 예: 압찌배 사는 감chner가 뒤찌배 사는 예:: 지성이 뽀고 지성내 지부럴 잘: 놀러 땡기지. {그래 이 뒷집에 사는 지성이가 예 앞집에 사는 감천이가 뒷집에 사는 예 지성에게 지성내 집을 잘 놀러 다니지.}

10810 # 그래 가주구서넌 지성이가 메커리릴 삼:넌다 마리여, 이 메커리. {그래 가지고는 지성이가 메커리를 삼는단 말이야, 이 메커리.}

10810 # 나리 네: 개 아니여. {날이 네 개 아니야.}

10810 # 메커리는 삼짜면 집씨널 산자면 나리 산내끼루 파:서 네: 개라 마리여. {메커리는 삼으려면 싹신을 삼으려면 날이 새끼로 파서 네 개란 말이야.}

10810 # 게 다: 다: 해: 가주구 총으 다: 맨드러 놔꺼등 시 저: 신총. {그래 다 다해 가지고 총을 다 만들어 놔거든, 저 신총을}

10810 # 그개 신 신초 요리개 올러웅 개 그 신총이거덩. {그개 신, 신총 요렇게 올라온 게 그개 신총이거든.}

10810 # 신총얼 다: 맨드러 노쿠 거 다매 인재, 여기 어가내는 요마니 뜨지. {신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간에는 요만큼 뜨지.}

10810 # 뜨지 신 어가내. {뜨지 신 어간에.}

10810 # 게 요그 여끌 때 요기 야:가 감chner가 지스 지성이가 삼:넌 걸 보구서넌 여 나르 두: 개르 똑 꼬너 놔:따 마리여. {그래 요거 엮을 때 요게 애가 감천이가 지성, 지성이가 삼는 것을 보고는 여기 날을 두 개를 똑 끊어 놔단 말이야.}

10810 # 똑 꼬너이까 영: 다 해난누무거 날: 꼬너 놔씨이 지성이가 싱경지르 날:개 아니여.

{뚝 끊으니까 아주 다 해논 걸 날을 끊어 났으니 지성이가 신경질이 날 거 아니야.}

10810 # 그 다때 지성이가 머라구 행능가 하이까 이리 너 이거 꼬너쓰면 이서 가주구 또 하지. {그 다음에 지성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이 너 이것 끊었으면 이어 가지고 또 하지.}

10810 # 다시 파: 가주구 하지. {다시 파 가지고 하지.}

10810 # 그래 또 다시 과: 가주구 해:다 마리어. {그래 또 다시 파 가지고 했던 말이야.}

10810 # 그레이까 그:: 감쳐니가 지성이 마:물 떠보능 기라 마리어. {그러니까 그 감천이가 지성이 마음을 떠보는 거란 말이야.}

10810 # 기래서 그 다때 그 그나른 그르케 지내구, 그 이튼나른 그 이튼날 오늘 놀러가자 해 노쿠는 그 집신 사머 새: 집썬 새: 집씨늘 어가늘 나르 뚝 꼬너 놔쓰미 꺼껴서 시늘 쭈가 이씨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그날은 그렇게 지나고, 그 이튼날은 그 이튼날 오늘 놀러가지 해 놓고는 그 쥘신 삼아 새 쥘신, 새 시쥘신을 어간을 날을 뚝 끊어 났으니 꺾여서 신을 수가 있어야지.}

10810 # 게이까 인재 자기는 상:꾸 감쳐이는 상:꾸 지성이는 시늘깨 업뎡 마리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신고 감천이는 친구 지성이는 신을 게 없단 말이야.}

10810 # 야 내거 싱꾸 가라 이러키두 실타 그라저덩. {야 내 것 신고 가라, 이렇게 해도 싫다 그러거든.}

10810 # 그래서 그 다맨 다시 예:: 한 뒤: 시간 사머 가주구서 지씨늘 시머 싱꾸서 놀러가 따 마리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예 한 두어 시간 삼아 가지고서 쥘신을 신어 신고서 놀러갔단 말이야.}

10810 # 놀러 가서는 가치 놀다 놀다 애기르 하구 이르카구 놀다 지베 드루와찌. {놀러 가서는 같이 놀다가 놀다가 애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지.}

10810 # 게: 한 한:: 그러잉까 한 일러늘 지성이루 가한테 왜 이르케 행능가 하게 되면 감쳐니 어머니가 알릴다 마리어. {그래 한 한 그러니까 한 일년을 지성이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감천이 어머니가 앓는단 말이야.}

10810 # 아르니 만날 지성이가 무나니 무난 오구 그저 어머니 좀 어떠니 하구서 무나노구 이래두 머 난는가? {앓으니까 만날 지성이가 문안 문안 오고 그저 어머니 좀 어떠니 하고 문안 오고 이래도 뭐 낫는가?}

10810 # 아이 나치. {안 낫지.}

10810 # 오래두룩 알치. {오래도록 앓지.}

10810 # 거 어머니가 알쿠 이씨니까 정말 영:: 감쳐이는 소:기 아프구 어디 야겔 쓸래 맘대루 약겔 쓰젠능가. {그래 어머니가 앓고 있으니까 정말 아주 감천이는 속이 아프고 어떻게 어디 약을 쓰려 해도 마음대로 약을 쓰겠는가.}

10810 # 그른대 어느 무당한테 무러보니까 그: 무르바 저멀 처찌. {그런데 어느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 물어봐 점을 쳤지.}

10810 # 저멀 치니까 이 야기 인는데 인는데 느가 가서 구해올 거 가찌 안타 니가 가서. {점을 치니까 이 약이 있는데 있는데 너희가 가서 구해올 것 같지 않다, 네가 가서.}

10810 # 그래니까 알:지두 모타는 사내 그냥 가서 그를 구해올 쭈 구해올 쭈가 읍쓸티니 그래다 머글깨 업씨 아::무 거뚜 머글깨 업는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산에 그냥

가서 그걸 구해올 수 구해올 수가 없을테니 그러다 먹을 게 없이 아무 것도 먹을 게 없는데.}

10810 # 지성이쁘구 그래찌. {지성이보고 그랬지.}

10810 # 그러면 우리 혼자 모까먼 두:리 가서 우리 어머니 야걸 좀 구해 보겠는가? {그러면 우리 혼자 못가면 둘이 가서 우리 어머니 야글 좀 구해 보겠는가?}

10810 # 게 야걸 구해 야걸 구해는대 사누루 무조건 땡기머 야걸 구하니 야걸 구할 쭈가 이씨야지. {그래 약을 구해, 약을 구하는데 산으로 무조건 다니며 약을 구하니 약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

10810 # 게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저: 근너 싸널 쳐다보니까 그 고라내 샘치무리 내리오거덩. {그래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저 건너 산을 쳐다보니까 그 골안에 샘물이 내려오거든.}

10810 # 샘치무리 내리오는데 샘치물, 하 고: 끝 샘치물 내리오는 그 물 라오는 궁개 여파래 아 머 빠 뽕짜:뽕짜간다 마리어. {샘치물이 내려오는데 {샘물이 내려오는데 샘물, 고 /글 샘물 내려오는 그 물 나오는 구멍에 옆에 아 뭐가 반짝반짝한단 말이야.}

10810 # 게 인재 이러서서 척 보면 아 뽕짜:뽕짜가지. {그래 이제 일어서서 척 보면 아 반짝반짝하지.}

10810 # 게 거기릴 쳐다보면서 그 다맨 두:리 가찌. {그래 거기를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는 둘이 갔지.}

10810 # 가니까 아무 거뚜 업땀 마리어. {가니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10810 # 진짜 가니까 아무 거뚜 업따 마리어. {진짜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10810 # 그래 또 지부루 와찌. {그래서 또 집으로 왔지.}

10810 # 게 이튼날 꾸메 머라구 한능가 하니까 그 이튼날 거 가서 꾸메 저 꾸메 오기릴 돌멩이 하나릴 지버 오너라. {그래 이튼날 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튼날 거기 가서 꿈에 저 꿈에 오기를 돌멩이 하나를 집어 오너라.}

10810 # 그래 거기 보니까 샘치물 여파래 돌멩이 이씨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샘물 옆에 돌멩이가 있어요.}

10810 # 그 돌멩이를 지꾸, 진짜 그개 돌멩이루 보여써두 돌멩이가 아니라 마리어. {그 돌멩이를 집고, 진짜 그개 돌멩이로 보였어도 돌멩이가 아니란 말이야.}

10810 # 그개 떡 저 가주구선 주먼지다 역 저: 저: 자루에다가 여쿠서는 그저 뽕뽕 싸서 그 다매는 지부루 와따 마리어. {그개 딱 쥐어 가지고는 주머니에다 넣(고) 저 저 자루에다 넣고는 그저 뽕뽕 싸서 그 다음에는 집으로 왔단 말이야.}

10810 # 와서 그걸 어트가능가 하(먼) 그걸 어: 살머서 살머서 그 다매 그 무를 메기니까 그대 어머니가 나:꺼덩. {와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걸 에 삶아서 삶아서 그 다음에 그 물을 먹이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왔거든.}

10810 # 그래서 일련 내지 삼너늘 그르카구 땡겨서 요행 야걸 구해 가주서년 저 저 어머니가 나서따 마리어. {그래서 일련 내지 삼년을 그렇게 하고 다녀서 요행 약을 구해 가지고는 저 저 어머니가 나왔단 말이야.}

10810 # 그래구선 너 뭐 무슨 야걸 가주 와쥔래 나는 나서따 어머가 말하기를 이래... {그러고는 너 뭐 무슨 약을 가지고 왔기에 나는 나왔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래...}

10810 # 그래 그 다매는 거기서 마:라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말했지.}

10810 # 지성이하구 가치 가서 이러캐 다 해:따. {지성이하구 같이 가서 이렇게 다 했다.}

10810 # 어: 니가 참 효자다. {어 네가 참 효자다.}

10810 # 이래 가주구서넌 그 다매 그 마:리 어트개 퍼전능가 하먼 예:: 효자답게 항 그시
에: 지성끝 하개 되먼 성과가 이따. {이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말이 어떻게 퍼
졌느냐 하먼, 예 효자답게 한 것이, 예 지성껏 하개 되먼 성과가 있다.}

10810 # 이 뜨설 리용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뜻을 이용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10810 # 이 마리 나옹 거십니다.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10810 @ 예:. {예.}

10810 # 이게. {이게.}

10810 # 이게 그게 거기서버터 나옹 거여. {이게 그게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야.}

10201 @ 그런 얘기 만치요? {그런 얘기 많지요?}

10201 # 망:키야 머 망:캐써 메 깨가 안 되지. {많기야 뭐 많겠어 몇 개가 안 되지.}

10201 # 아:: 중국부터실 찌개 꿈:짱 모해쌌다:. {아 중국부터 있을 적에 꿈작 못했습니다.}

10201 # 삼대 규율과 파랑주기 대매. {삼대 규율과 파랑주의 때문에.}

10201 # [노래] 꺼넌질리 꺼거 올러지 찐다질리 빠상지주이. {

10201 # 이르키 나오능 긴데 이기 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게 저, 예
그러니까...}

10201 @ 구내서 부르든 노래요? {군에서 부르던 노래요?}

10201 # 예: 구내서 부르던 노래요. {예 군에서 부르던 노래요.}

10201 # 그래서 거기서 인미드레 지비 가서 바노라나 시:라나 가찌를 말라. {그래서 거기에
서 인민들의 집에 가서 바늘 하나 실 하나 갖지를 마라.}

10201 # 그대 인미들개 유이칸 이:른 해두 해한나 이:른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민들에게
유익한 일은 해도 해하는 일은 하지 말라.}

10201 # 게 이르키 노래가 좡: 나옹 게, 그래서 모주서기 삼대규율과 파랑주이를 내놔찌.
{그래 이렇게 노래가 죽 나온 게, 그래서 모 주석이 삼대규율과 파랑주의를 내놔
지.}

10201 # 게 그래 가주서부터 기우리 삼대기울 삼대기우릴 위반하넌 자넌 건 대:다난 처:벌
바찌. {그래 그래서 규율이 삼대규율을 위하느는 자는 그건 대단한 처벌을 받지.}

10201 # 게서 물 기러다 주구 낭그 패 주구 그 저: 마당 쓰러 주구 변소간 처 주구 그저 마
마오깁 처 주구 그저 다 이르키 하면서 형명해씀니다, 그저내. {그래서 물 길어다
주고 나무 패 주고 그 저 마당 쓸어 주고 변소 처 주고 그저 마구, 마구깁 처 주고
그저 다 이렇게 하면서 혁명해씀니다, 그전에.}

1.5. 일생 의례

10216 @ 그저내 그 문화혁명 때 얘기 함 번 해줘 바요. {그전에 그 문화혁명 때 얘기 한
번 해줘 바요.}

10216 @ 그 연남미 아버지 저기 다칠 때 그때 얘기로. {그 연남미 아버지 저기 다칠 때 그
때 얘기로.}

10216 # 예: 그건 얻... {예, 그건 어떻게...} 10216 @ 그땐 집채 때지요? {그땐 집채 때지요?}

10216 # 집채 때. {집채 때.}

10216 @ 예. {예.}

10216 # 그때너: 어트리 된능가, 가:을.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가을.}

10216 @ 그 문화혁명 때지요? 그 문화혁명할... {그 문화혁명 때지요? 그 문화혁명할...}

10216 # 에 문항, 문화혁명 할 때. {예 문화혁명, 문화혁명할 때.}

10216 @ 홍군백꾼 머 이럴 때. {홍군 백군 뭐 이럴 때.}

10216 @ 예. {예.}

10216 # 흥 어: 흥색: 예: 흥색 빠울치. {호, 어 흥색 에 흥색 빠울치.}

10216 # 그 다매 거기 이리미 흥새가구 빠울치하구 어: 발란대. {그 다음에 에 거기 이름이 흥색하고 빠울치하고 에 발란대.}

10216 # 그 다매 머 이리미 마:나써요, 거거: 흥색 가운데. {그 다음에 뭐 이름이 많았어요, 그 흥색 가운데.}

10216 @ 마:나요? {많아요?}

10216 # 예: 흥새 가운데두. {예 흥색 가운데도.}

10216 # 그런데 이글 어트개 되능가 하니까 류소기가 모 주석 우이 저: 주이가 따:서 류소기가 개방하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류소기가 모 주석 위 저, 주의가 달라서 류소기가 개방하자.}

10216 # 이르기 돼찌, 그때. {으렇게 되었지, 그때.}

10216 # 그런데 모: 주서근 '안 된다' 이르게 돼:찌. {그런데 모 주석은 '안 된다' 이렇게 되었지.}

10216 # 그래 안 된다구 해서 그 다매는 모타구 마라찌. {그래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못하고 말았지.}

10216 # 게 류소기를 나쁜누미라구 스 잘 써주지두 아날라구 해써. 게 류 소기를. {그래 류소기를 나쁜 놈이라고 잘 써주지도 안하려고 했어. 그 류소기를.}

10216 # 그러다가 이걸루 이내서 류소기를 때려 어푸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일켜야 되게 따 마리여. {그러다가 이걸로 인해서 류소기를 때려 엇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말이야.}

10216 # 당 내애 당 내애 그 어: 중 거 머 어: 중 중요항 감부덜, 게서 이걸 때려 때리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해야지 문화혁명을 안 하면 안 되개따. {당 내의, 당 내의 그 에 중 그 머 중요한 간부들, 그래서 이걸 때려 때리기 위해서는 문화혁명을 해야지 문화혁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10216 # 그래 가주구서넌 문화혁명 일쿵 거시지. {그래 가지고는 문화혁명을 일으킨 것이지.}

10216 # 게 일쿵는데 주을래 동지두 그때 비팜바꾸 마:니 그러치. {그래일으키는데 주을래 동지도 그때 비판받고 많이 그렇지.}

10216 # 그 다매 모 주석 모 주석뚜 비팜바꾸 이: 유소기두 비팜바꾸 게 등소평두 비팜바꾸 이래찌. {그 다음에 모 주석 모 주석도 비판받고 이 류소기도 비판받고 그랬지.}

10216 # 그래서 그 다매 모 주서근 이쓰면서두 그래 모 주서기 내리기를 한::참 막 총열 들구 어: 캉다하구 흥색-하구 싸:미 부구 총질해 가며 싸:미 부꾸 망 내부에서 막: 그릴 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모주석은 있으면서도 그래서 모 주석이 내리기를 한참 막 총을 들고 에 캉다하고 흥색하고 싸움이 붙고 총질해 가면서 싸움이 붙고 막 내

부에서 막 그럴 때지.}

10216 # 그래 통해서 영길루 보꾸 막 그저: 영길까지 다: 내려와따 마리어. 정구기 다: 이러 난는데 머. {그래서 통해서 연길로 뿔고 막 그저 연길까지 다 내려왔단 말이야. 전국이 다 일어났는데 뿔.}

10216 # 그래서 이: 여기 지금 그 사라미 사러 이찌만 여기가 오지공장에두 도무내서 와 가 주구서는 어: 막: 그저 총지래 가주구 여기 코: 타나리 코가 마저썩요. {그래서 이 여기 지금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여기가 오지공장에두 도문에서 와 가지고는 에 막 그저 총질을 해 가지고 여기 코, 탄알이 코가 맞아서.}

10216 # 그때 벤나카리 올라가 썩는데 썩는데 어쁜나가 거: 빠얼(치) 흥새간지 가:가 썩 가 주구서는 이 코애 이미 마자쓰면 주저썩길데 코가 마저서 이게 깨저빠리구 마저썩. {그때 뱃가리를 올라가 썩는데 썩는데 어떤 애가 그 빠울치(인지) 흥색 애인지 개 가 썩 가지고는 이 코애, 이미 맞았으면 죽었을 것인데 코를 맞아서 이게 깨저버리고 말았지.}

10216 # 게 이개 이개 숭이 강 개 이썩요 지금두. {그래 이게 이게 흥이 간 게 있어요 지금 두.}

10216 # 그사람 사라썩, 아죽. {그 사람 살았어, 아직.}

10216 # 여기 여기 이썩 아주 오지공장에. {여기 여기 있어, 아직 오지공장에.}

10216 # 게 나카리 싸타가 그랜는데. {그래 난가리 썩다가 그랜는데.}

10216 # 그러구서는 그 다맨 그르키 황경이 긴장할 썩 긴장할 때 아니나 나는 집채 때기 때무내 콩타자 해 가주구 콩을 이 열정체애다 처썩.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환경이 긴장할 때 긴장할 때 아니 나는 집채 때기 때문에 콩타작을 해 가지고 콩을 이 열게미애다 쳤어.}

10216 # 문지가 빠:지구 콩아른 구부러 가구. {먼지가 빠지고 콩알은 굴러가고.}

10216 # 이르캐서 그걸 치는데 갑짜기 아이 사:람드리 빨리 지비 가보라구 그란다 마리어. {이렇게 해서 그걸 치는데 갑짜기 아이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보라고 그런단 말이야.}

10216 # 게 어'썩 그라나? {그래 어썩서 그라나?}

10216 # 아 덕썩랑 다 데:따 그란다 마리어. {아 덕썩랑 다 데었다 그런단 말이야.}

10216 # 거기썩 이랜데 그때 왜서 텐:능가 하게 되면 그 캥도저니라는 항도전 그 이르키 에: 구:를 파구 드르가서 그 다맨 그저 뿔뿔뿔 나오며 싸:마는 이른 이른 장나지 라다 그 다매는 이런 그 고라내 썩썩만 고라내 무리 떠러지면서 이러키 흥: 패인디 가 이썩. {거기서 이랜데 그때 왜 데었는가 하면 그 캥도전이라는 항도전, 그 이렇게 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그저 불뿔뿔 나오면서 싸움하는 이런 이런 장난질하다 그 다음에는 이런 그 골안에 조그만 골안에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폴 패인데가 있어.}

10216 # 썩엔데 이르키 방 안마냥 홀: 패인 디가 인는데 거기는 무:리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물루 파녕 거지 사라미 팡 건 아이지. {그런데 이렇게 방 안마냥 움푹 패인 데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물로 파는 거지 사람이 판 것은 아니 지.}

10216 # 근데 거기를 얻 리용해 가주구 그 다매 생산대 마당애 마당애 와 가주구 그 낭구 이런 거기 낭기 만차니야. {그런데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대 마당애

마당에 와 가지고 그 나무 이런 (거), 거기는 나무가 많잖아.}

10216 # 낭그럴 주서다가 이르키 그 우애다 서까래를 이르키 거러서. {나무를 주어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 서까래를 이렇게 걸어서.}

10216 # 걸구서는 이짜가구 이짜가구 이르케 해서 여기 붙 여 부뜨리 매:구 이르카구선 땅 애다 이르키 놔매시. {걸고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붙, 여기 붙들 어 매고 이렇게 하고는 땅애다 이렇게 놓았었지.}

10216 # 그랜는데 그 우애다가 또 멀 해능가 생산대애 와서 지푸 지푸 가따가 이 우애다 여 놔따 마리어. {그랬는데 그 위에다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생산대애 와서 쥘, 쥘을 가져다 이 위에다 이어 놓았던 말이야.}

10216 # 그랜대 그 다매는 그: 이: 미티는 안저 보니까 자기가 땅애 안증개 안 차가울 태기 이써 차급찌.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 밑에는 앉아 보니까 자기가 땅애 앉으 니까 안 차가울 턱이 있어 차잡지.}

10216 # 차구우닝개 생산대 뽕띠기를 가따가 여기다 가따 놔:따 마리어. {차가우니까 생산 대 북더기를 가져다 여기다 가져다 놓았던 말이야.}

10216 # 아:내 까러따 마리어. {안에 깔았던 말이야.}

10216 # 그래잉까 드르가는 무는 쪼끄마치.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은 조그만하지.}

10216 # 하나 드르가구 하나 나오구 그저 이런 디를 맨드러따 마리어.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그저 이런 데를 만들었던 말이야.}

10216 # 그랜대 거기 미치 드르가능가 일고빈지 야들비 드르가 이써찌. {그런데 거기에 몇 이 들어갔는가 하면 일곱인데 여덟이 들어가 있었지.}

10216 # 겐데 야:는 덕재는 큰지비서 노러찌. {그런데 애는 덕재는 큰집에서 놀았지.}

10216 # 형님내 집배서 마당애서. {형님네 집에서 마당애서.}

10216 # 노런넌대 장무니라는 아가 놀러가자 하니까 애이 실타 양가게따 이르케 돼:찌. {놀 았는데 장문이라는 애가 놀러가자 그러니까 애이 싫다 안 가겠다 이렇게 되었지.}

10216 # 할머니만 이써두 아이 보내지. {할머니만 있었어도 안 보내지.}

10216 # 게 할머니두 그때 어꾸 마당애서 가 혼자 노는데 산내끼루다가 여기털 무꺼가 허 리털 무꺼 가주구 끄서 가주 가땀 마리어. {그래 할머니도 그때 없고 마당애서 개 혼자 노는데 새끼로 여기를 묶어 가 허리를 묶어 가지고 끌어 가지고 갔단 말이 야.}

10216 # 가자. {가자.}

10216 # 가:는 가:는 열:싸리구 야:는 일곱싸리람 마리어, 세:살 더 머거찌. {개는 개는 열 살이고 애는 일곱살이란 말이야, 세 살 더 먹었지.}

10216 # 그래서 그 다맨 어떠케 끌려 가서 거 가 노러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끌려가서 거기에 가 놀았자.}

10216 # 이누마가 가마니 차구부니까 칸 북띠기애다가 부'릴 놔:땀 마리어. {이놈이 가만히 차가우니까 칸 북띠기애다가 불을 놓았던 말이야.}

10216 # 거 저: 정위이라는 아가. {그 저 정원이라는 애가.}

10216 # 부릴 놔:찌, 성냥얼 키 가주구 부릴 놔:따 마리어. {불을 뿜지, 성냥을 켜 가지고 불을 뿜단 말이야.}

10216 # 부릴 놔잉개 그 뽕띠기가 북 타면서 병기자너요 이러케. {불을 놓으니까 그 북더기 가 타면서 번지잖아요 이렇게.}

10216 # 번지 병기개 되면 지 아패꺼 이러키 끄러 연는다 마리여. {번지 번지게 되면 자기 앞의 것을 이렇게 끌어 넣는단 말이야.}

10216 # 내 아푸루 오지 말라(구) 부리 내 아푸루 오지 말라구. {내 앞으로 오지 말라(고) 불이 내 앞으로 오지 말라고.}

10216 # 그럼 자:두 끄러여쿠 야:두 끄러여쿠 하니까 뽕띠기가 점점 마:느니까 불꼬시 너퍼 땀 마리여. {그러면 채도 끌어 넣고 애도 끌어 넣고 하니까 북더기가 점점 많으니까 불꽃이 높았던 말이야.}

10216 # 너푸니까 지병애 베찌베 달려꺼덩. {높으니까 지붕에 벧짚에 (불이) 달렸거든.}

10216 # 게 베지베 다려이까 아 그다맨 쳐다보구서 야 이거 안 되개따구 힘 센: 눅더런 다 밀:구 나오구 그 요만한 궁개루 밀구 나오구. {그래 벧짚에 달리니까 아 그 다음에는 쳐다보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고 힘 센 놈들은 다 밀고 나오고 그 요만한 구멍으로 밀고 나오고.}

10216 # 그래 인재 거기서 밀키구 밀키구 하다나이가 몬 나오는 놈 너:이서 데:따 마리여. {그래 이제 거기서 밀리고 밀리고 하다보니까 못 나오는 놈 넷이서 데었던 말이야.}

10216 # 너이서 거기서 아애:더리 너이 데:찌. {네이서 거기에서 애들이 넷이 데었지.}

10216 # 게 인지 저:: 그러니까 더좌니 덕째, 더좌니는 즈 형이 이씨니까 인차 끄슬 이 턴 더구애 서서 손 지버가주구 끄:내따 마리여. {그래 이제 저 그러니까 덕환이 덕째, 덕환이는 자기 형이 있으니까 바로 끌어 이 둔덕 위에 서서 손 잡어 가지고 꺼냈단 말이야.}

10216 # 그 다매 덕째는 누가 끄낼 싸라미 이씨야지. {그 다음에 덕째는 누가 꺼낼 사람이 있어야지.}

10216 # 그 다매 저: 또 하난 두이 두아니 아더리라구 또 개 하나 인넌데 그거하구 덕째하구 쥔: 크게 데:찌. {그 다음에 저 또 하나는 두안 두안이 아들이라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덕재하고 제일 크게 데었지.}

10216 # 그 위애는 경하개 좀 데:따 마리여. {그 위애는 경하개 좀 데었던 말이야.}

10216 # 게 경하개 텅 건 저 이러꾸. {그래 경하개 텅 것은 저 괜찮고.}

10216 # 그때 덕째는 가보니까 여기가 그냥 시::카마치 머 그냥. {그때 덕째는 가보니까 여기가 그냥 시커멓지 뭐 그냥.}

10216 # 거 저 새:카마쿠 눈썹뚜 다: 타구 이런 머리두 다: 타구 이르카구 이 가슴 게 다:: 이라다 나니까 손두 여기 다 이러키 데:서 그르키 되구 이 배 배 이이 가슴 이 그 두 막 데구 이래따 마리여. {그 저 새까맣고 눈썹도 다 타고 이런 머리도 다 타고 이렇게 하고 이 가슴 게 다 이러니까 손도 여기 다 이렇게 데어서 그렇게 되고 이 배 배 이 가슴 이 거기도 막 데고 이랬단 말이야.}

10216 # 기래두 이누마가 의지할 때가 업씨니까 그냥 제 혼자 그: 시망구기라구 그 으:사 거기 가땀 마리여. {그래도 이놈 애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제 혼자 그 심안 국이라고 그 의사 거기에 갔단 말이야.}

10216 # 가서 보니까 어뜨키야.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

10216 # 시망구기가 떡 보니까 기가 매키지. {심안국이 떡 보니까 기가 막히지.}

10216 # 안:댄다 빨리 양수 병위내 내려가라구. {안된다 빨리 양수 병원에 내려가라고.}

10216 # 그래서 박차놓이하구 나하구 당가를 드러 가주서는 그거다 노쿠서는 석뚜루 손은

디두루 내리 뛰찌. {그래서 박찬용이하고 나하고 담가를 들어 가지고는 거기에다 놓고는 석두로 술문데로 내려 뛰었지.}

10216 # 그대 대대에서는 오지공장에다 저나를 걸구. {그대 대대에서는 오지공장에다 전화를 걸고.}

10216 # 차 좀 빨리 올라오게 하라구 올라오라구. {차 좀 빨리 올라오게 하라고 올라오라고.}

10216 # 게 석두까지 거이 내려오니까 차가 와때. {그대 석두까지 거의 내려오니가 차가 왔데.}

10216 # 거기서 돌려 가주구 그 차에 시꾸서 양수 병원내 가찌. {거기서 돌려 가지고 그 차에 싣고서 양수 병원에 갔지.}

10216 # 양수 병이 저 하동에 이쨌넌데 거기릴 띄 가니까 아이 모:타거따능 기지. {양수 병원이 저 하동에 있었는데 거기릴 띄 가니까 아니 못 하겠다는 거지.}

10216 # 인젠 이: 화:상은 이: 시마기 때때 여기서 모타개따능 기지. {이젠 이 화상은 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겠다는 거지.}

10216 # 그대 어뜨캐, 가스래 도무내 가는 차를 탈라니 탈 쭈가 이쨌야지. {그대 어떻게 해, 가을에 도문으로 가는 차를 탈려니 탈 수가 있어야지.}

10216 # 빠쭈두 빠쭈두 업찌, 바매. {버스도 버스도 없지, 밤에.}

10216 # 그 양수 병워내서 실개이 하다 빠쭈두 업찌. {그대 양수 병원에서 승강이하다 버스도 없지.}

10216 # 그 다맨 배:차시 오지공장 배:차시꾸 드러오는 차가 이따 마리어. {그 다음에 배추신, 오지공장 배추 싣고 들어오는 차가 있단 말이야.}

10216 # 게 배차를 거기서 부려가 달라 그래서 배차를 다 부려노쿠, 그 다매 사람 사람 두:릴 실꾸 두:릴 실:꾸서는 그 다매 도문 뺑워내 가찌. {그대 배추를 거기서 불러 달라고 해서 배추를 다 부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람 둘을 싣고 둘을 싣고는 그 다음에 도문 병원에 갔지.}

10216 # 도문 뺑워내가 으:사 으:사가 띄 진찰해보더니면 화상이 시:만데 빨리 수:혈해여 대거따구. {도문 병원에 가 의사 의사가 띄 진찰해 보더니만 화상이 심한데 빨리 수혈을 해야 되겠다고.}

10216 # 게 수혈해가 되개따구. {그대 술혈해야 되겠다고.}

10216 # 그대 인저 내가 거그 따러가서 그대 수혈하자니까 머 수 문하형명 때 수혈꼬가 다 마사져서 업따능 기지. {그대 인저 내가 거기 따라가서 그 다음에 수혈하자니까 뭐 수 문화혁명 때 수혈 창고가 다 부서져서 없다는 거거지.}

10216 # 문화형명이 마사져서 업따능 기지. {문화혁명에 부서져서 없다는 거지.}

10216 # 야, 그러문 영길 가서 가조지요. {야, 그러면 연길 가서 가져오지요.}

10216 # 게 이 영길루 갈라구 역찌내 막: 뛰: 가니까 그 다매는 한 사라미 그러더면, 동무 동무 그랜다구 왜' 그러능가? {그대 이 연길로 가려고 역전에 막 뛰어 가니까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그러더구면, 동무 동무 그런다고 왜 그러는가?}

10216 # 나넌 뛰어가구 그 사람 따루 뛰어 내려 저: 그: 광장으로 뛰어나오구. {나는 뛰어가고 그 사람은 따로 뛰어 내려 저 그 광장으로 뛰어 나오고.}

10216 # 게 동무 동무 왜 그대, 왜' 그러능가 하구 그러이까. {그대 동무 동무 왜 그대, 왜 그러는가 하고 그러니까.}

10216 # 그 다맨 자기 말하더구먼.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말하더구먼.}

10216 # 여기 병위니 어딤니까? {여기 병원이 어디입니까?}

10216 # 어'째 그람니까? {왜 그럽니까?}

10216 # 그래잉까 내 지금 피를 파려야 살지 지금 주깨다 구란다 마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를 팔아야 살지 지금 죽겠다 그런단 말이야.}

10216 # 게 무슨 형입니까? {그래 (피가) 무슨 형입니까?}

10216 # 오:형입니다, 이라거덩:. {오형입니다, 이러거든.}

10216 # 그래서 그 다매 데리다가 뉘퍼노크 덕째애게 사배고시꾸라무를 여치. {그래서 그 다음에 데려가서 눅혀놓고 덕재에게 사백오십 그램을 넣었지.}

10216 # 삼백 꾸람 저: 양백 꾸라무럴 팔개따 구라대. {삼백 그램 저 이백 그램을 팔겠다고 그러더라고.}

10216 # 그런데 아: 삼백꾸람 팔개따 구라대. {그런데 삼백 그램을 팔겠다고 그러더라고.}

10216 # 그래 거기 어째튼 이— 라구. {그래 어쩔든 넣으라고.}

10216 # 그래 양배고시꾸라무 연는데 이 사라미 눈만 히:하구 뜨구선 누버서 이꺼던. {그래 이백옅십 그램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눈문 허영게 뜨고 누워 있거든.}

10216 # 그러잉까 호:사가 참 누나를 보니까 조치 안타 마리어 또. {그러니까 간호사가 참 눈알을 보니까 좋지 않단 말이야 또.}

10216 # 게 피 무슨 소누루 피 인지 수혈하다나니까 피가 무더찌. {그래 피 묻은 손으로, 피 이제 수혈하다보니까 피가 묻었지.}

10216 # 피 무슨 소느루 나를 톡 터지지덤 호사가, 톡 타치 저 사람 고만하자구.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톡 치더니만 호사가, 톡 치더니만 저 사람 그만하지고.}

10216 # 게 고만하라구. {그래 그만하라고.}

10216 # 그러면 빨리 가서 아뿌 저녁개 바매 어두운데 무넌 다: 다단넌데 빨리 가서 사탕가루 두: 근만 사오라능 기지. {그러면 빨리 가서, 아 저녁에 밤이 어두운데 묻은 다 닫았는데 빨리 가서 설탕 두 근만 사오라는 거지.}

10216 # 게 사탕가루 두: 그늘 싸러 나가니까 문 다:: 다더찌. {그래 설탕 두 근을 사러 나가니까 문을 다 닫았지.}

10216 # 그저 다: 채워찌 머 어디나 도무내. {그저 (자물쇠를) 다 채웠지 뭐 어딘 도문에.}

10216 # 그 상저매 가두 다: 채워꾸. {그 상점에 가도 다 채웠고.}

10216 # 기:래 바개서 이런 토다무 토다무 뛰어 너머찌. {그래 밖에서 이런 토담을 토담을 뛰어 넘었지.}

10216 # 토다무 떠 너머서 지기시래 가서 무누 꾸디리리카 누궁가 하구 감:짱 놀래서 나오 덩군. {토담을 뛰어 넘어서 지기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궁가 하고 깜짝 놀라서 나오더구먼.}

10216 # 아 내 병위내서 완는데 지금 사탕가루 두: 그니 읍써서 야글 모 싸개는데 사탕가루 두: 근만 싸 파려 줍쏘. {아 내 병원에서 왔는데 지금 설탕 두 근이 없어서 약을 못 사겠는데 설탕 두 근만 사 팔아 주시오.}

10216 # 이러니까 그 다매 사탕가루 두 근 주데. {이러니까 그 다음에 설탕 두 근 주더라고.}

10216 # 그래 주구 도널 주구서넌 인차 나와서넌 사탕가루럴 뜨근무르 한: 사발 담떠니면 사탕가루 항 그넌 거기다 다: 뿌리. {그래 주고 돈을 주고는 바로 나와서는 설탕을 뜨거운 물을 한 사발 담더니만 설탕 한 근을 거기에 다 풀어.}

10216 # 그라더니만 그 다:맨 그 사람뽀구 마시라구란 마시라구 한다 마리어.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마시라그런, 마시라고 한단 말이야.}

10216 # 게 한 대저불 마셔찌 그 사라미. {그래 한 대접으르 마셨지 그 사람이.}

10216 # 그라구서는 그냥 누버 이뎡구먼. {그리고는 그냥 누워 있더구먼.}

10216 # 누워이까 한 대접 더마시라 구라니까. {누워 있으니까 한 대접 더 마시라고 하니까.}

10216 # 한: 대저배 반: 대접 먹떠니 그 다매 아'이 머꺼따 그런다 마리어. {한 대접의 반 대접 먹떠니 그 다음에 안 먹겠다 그런단 말이야.}

10216 # 몸: 머깨따구. {못 먹겠다고.}

10216 # 그라구서 인넌데 이: 갑쓸 그때 갑쓰 어쨌가 한: 오: 항 구라무애: 항 그러잉까:: 항 배꾸라무애 시버니던두 그때. {그리고는 있는데 이 값을 그때 값은 어떤가 한, 에 일 그램에 일 그러니까 한 백그램에 십원이든지 그때.}

10216 # 그래서 그 다매 배꾸라에 시번서 삼시보위를 삼시보원 어: 이시버늘 떡 쥐:찌, 이시보위를. {그래서 그 다음에 백그램에 십원 해서 삼십오원을 삼십오원 에 이십원을 떡 주었지, 이십오원을.}

10216 # 이시버늘 떡 주는 디서 내가 뭘: 반능가 하니까 삼시버늘 쥐:찌. {이시원을 떡 주는데서 내가 뭘 봤느냐 하면 삼십원을 주었지.}

10216 # 가서 영양보통 오:원 더 부쳐서 영양보충 하라구. {가서 영양보충 오원 더 붙여서 영양보충 하라고.}

10216 # 아 호:사가 또 모:'쭈개 하오. {아 간호사가 또 못 주게 하오.}

10216 # 피 갑쓸 노퍼 노면 이따가 어트가겐능가? {피 값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10216 # 게 오:원 자버떼구서는 이시보원만 줍데. {그래 오원 잡아떼고는 이십오원만 주데.}

10216 # 그라구 오:위는 내기 돌려주덩구(먼). {그리고 오원은 나한테 돌려주더구먼.}

10216 # 그애 그래가 주서는 그 다매 오는데 에 그거뚜 작따구 또 더 하라네.{그래 그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오는데 에 그것도 적다고 또 더 하라네.}

10216 # 그래 인재 더 아내서 에이 씨 도문 주둔부대 사령부루 드러가 보자구. {그래 이제 더 안해서 에이 씨 도문 주둔부대 사령부로 들어가 보자고.}

10216 # 그애 도문 주둔부대 사령부루 드러가지. {그래 도문 주둔부대 사령부로 들어가지.}

10216 # 주둔부대 사령부에 드러가서 (보)잉까 전하기 한 통하구 그 다매 책쌍하구-망 이찌 그 다매 아::무두 업따 마리어. {주둔부대 사령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화기 한 통하고 그 다음에 책상하고만 있지 그 다음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10216 # 게: 사령관 동 사령관한테 한종말루 마:래찌. {그래 사령관 동지 사령관한테 한종말로 말했지.}

10216 # 우리 아드리 일곱싸린대 지금 부래 타서 저래한대 수혀래야 된다는데 어트개 군대 내애 수여 수혈줌 해줄 쭈 엄능가? {우리 아들이 일곱살인데 지금 불에 타서 저런데 수혈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군대 내애 수혈, 수혈 좀 해줄 수 없는가?}

10216 # 그 살구기 위해서 그란다구. {그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10216 # 그라니까 그 다매는 장부기 마능개 가주 오더니 막:: 들춰 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장부가 많은걸 가져 오더니 막 들춰 보더라고.}

10216 # 들쳐 보더니만 열락뽕이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오더니만 떡 들춰 보데 들쳐 보더니만 누가 이썸. {들춰 보더니만 열락뽕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더니만 떡 들춰보데 들쳐 보더니만 누가 있어.}

10216 # 군대서 피 잘 빼줄라구 아난다 마리여. {군대서 피 잘 빼줄려고 안한단 말이야.}

10216 # 그래서 어디 두맴가, 중해꼬 중해꼬 대 왜서 저나 거러 가주구. {그래서 어디 두메인가, 중학교 중학교 왜 전화 걸어가지고.}

10216 # 주:내꼬에서 예: 하 피를 뽑뽕 한: 사라매개 오:십꾸람 이상 더 뽑찌 말라구 이르기 내리딩구먼. {중학교에서 예 피를 뽑뽕 한 사람에게 오십 그램 이상 더 뽑지말라고 이렇게 내리딩구먼.}

10216 # 그래서 학생덜 두:르 뽕버찌. {그래서 학생들 둘을 뽑았지.}

10216 # 학생덜 오:형짜리 두:르 뽕버찌, 오:형배끼 암 바꺼등 피가. {학생들 오형짜리 둘을 뽑았지, 오형밖에 안 받거든 피가.}

10216 # 그 다맨 또 저: 도문시 예: 저 도문시 시: 서기 인는데 그 여자가 하나가 오:형이람 마리여. {그 다음에는 또 저 도문시 예 저 도문시 시 서기 있는데 그 여자 하나가 오형이란 말이야.}

10216 # 그래서 거기서 뽕꾸 아이미 뽕꾸 그래 덕째 어머니 꺼 뽕꾸 이래서 그래서 그 다매는 피르 수혀래서 살귀썸. {그래서 거기에서 뽑고 아이 에미 뽑고 그래 덕재 어머니 것 뽑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피를 수혈해서 살렸어.}

10216 # 그래 가주구서넌 그 다매 도리와 가주구 도리와서 게:속 약 쓰면서 어: 바벌 잘 메겨찌. {그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돌아와서 계속 약을 쓰면서 예 밥을 잘 먹었지.}

10216 # 영양보충하느라구 좀 잘 메겨찌. {영양보충하느라고 좀 잘 먹었지.}

10216 # 그래이 그: 도:늘 거기서 쓰는 도늘 어: 시비월딸 시비월 찌 시비월 정월딸까지 속: 딸 똥안 거기 인는데: 병워내 인는데 생:: 애르 머거찌 뽕. {그러니 그 돈을 거기에 쓰는 돈을 예 십일월달 십이월 저 십이월 정월달까지 석달 동안 거기에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생 애를 먹었지 뽕.}

10216 # 만날 여기서 도문 땡겨야지 바불만 싸먹짜두 도니 적찌. {만날 여기에서 도문 다녀야지, 밥만 사먹자고 해도 돈이 적지.}

10216 # 그래 그러는 그러구 인는 기가내 어떤 아주머이가 도문 시:애 장보러 와서. {그래 그러는 그러고 있는 기간에 어떤 아주머이가 도문 시에 장보러 왔어.}

10216 # 장보러 와 나재 장보러 완는데 거기 인저 나는 뭐하러 나간능가 하개 되면 덕째 그 머글 꺼썸 싸가 싸르러 나가느라구 또 나가찌. {장 보러 와, 낮에 장보러 왔는데 거기 이제 나는 뭐하러 나갔느냐 하면 덕재 그 먹을 것 좀 사가 사러 나가느라고 또 나갔지.}

10216 # 게 나간는데 그: 장마당에서 텔텔텔 구불면서 배 배를 끄러양꾸 막:: 도러친다 마리여, 이 여자가. {그래 나갔는데 그 장마당에서 데굴데굴데굴 구르면서 배 배를 끌어안고 막 돌아친단 말이야 이 여자가.}

10216 # 그러니까 그때 한 사:십쌀 되:쥔능가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때 한 사십살 되었겠는가 그 여자가.}

10216 # 그런데 아 그 다매는 사라미 까::뽕 모여찌 머. {그런데 아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가득 모였지 뽕.}

10216 # 게 멀리서 이르키 쳐다보지 그 여자는 주꺼따구 구부넌데 막 그저 사람만 모여서 쳐다보지 하나 구원할라구 하는 사라미 업뎌 마리어. {그래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지 그 여자는 죽겠다고 구르는데 막 그저 사람만 모여서 쳐다보지 하나 구원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10216 # 그래서 어째 사람더리 이르키 마는데 사람덜 살구구 봐여지 이래능가 하구 그 다매 가 그 여자를 대번 그냥 에퍼 달라구, 병워내 간다구. {그래서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이러는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여자를 대번에 그냥 업혀 달라고, 병원에 간다고.}

10216 # 그래 그 여잔 그스 그: 에퍼주넌 사라미 거기 인넌 사라몬 나를 그 여자 남잔줄 아려따 마리어. {그래 그 여자는 그 그 업혀주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은 나를 그 여자 남자인줄 알았단 말이야.}

10216 # 그래서 그 다맨 에퍼주덩구(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업혀주더구먼.}

10216 # 에퍼취 가주구 병워느루 달려오자니까 영 바뿌지. {업혀취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오려니까 아주 힘들지.}

10216 # 바빠서 병원 삼짜기는데까지 와 가주구 호사:호사 불러찌. {힘들어서 병원 문있는 데까지 와 가지고 간호사 간호사 하고 불렀지.}

10216 # 게 부르니까 호사가 나오등구먼. {그래 부르니까 간호사가 나오더구먼.}

10216 # 게 나와서 이 깍찌거리 해 가주구 두:리 이르키 병워내 드르가서 대:번 수수래찌. {그래 나와서 이 깍찌걸이 해 가지고 둘이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수술했지.}

10216 # 급성맹장이기라능 기지. {급성맹장이라는 거지.}

10216 # 급성맹장. {급성맹장.}

10216 # 게 수술해 노니까 보따리 저: 무래 빠진 사람 볼 건저주먼 보따리 내:라는 시기루 그 여자 오줌 다: 뉘겨 뉘켜찌. {그래 수술해 노니까 보따리 저 물에 빠진 사람 건저주먼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 여자 오줌 다 뉘였 뉘였지.}

10216 # 그 다매 그 여자 까:쓰 통할 때까지 방귀 누쿨 때까지 그 다매 그거 다: 감시해찌. {그 다음에 그 여자 가스 통할 때까지 방귀 똬 때까지 그 다음에 그거 다 감시했지.}

10216 # 그래대 호사는 제 호:사시래 드러가 이꾸. {그런데 간호사는 자기 간호사실에 들어가 있고.}

10216 # 그 다매 그러케 한데 양표가 인나 도:니 인나 인저 그 여자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양표가 있나 돈이 있나 인저 그 여자가.}

10216 # 그러다나니까 거기서 이제 머:라능가 하니까 훈추내 소해표:: 뒤찌미면 우리지비라능 기지.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훈춘의 소학교 뒷집이 우리집이라는 거지.}

10216 # 그 여자 지비라능 기지. {그 여자 집이라는 거지.}

10216 # 거기 좀 가따 와 달라능 기지. {거기 좀 갔다 와 달라는 거지.}

10216 # 그래서 거기를 가:서 또 가보니까 아덜하구 저 머여 그 나그내 이평구먼. {그래서 거기를 가서 또 가보니까 아들하고 저 뭐야 그 남편 있더구먼.}

10216 # 그래서 얘:기르 해 가주구 그릉가: 하구 게 다: 데리구 오자네썬? {그래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가 하고 그래 다 데리고 오지않았어?}

10216 # 그라구선 썩 물려주구 마려찌 머. {그리고는 썩 물려주고 말았지 뭐.}

10216 # 그래 나 아니면 주거찌 머. {그래 나 아니면 죽었지 뭐.}

10216 # 그래 그르케 가주구 하나 사람 살귀 노쿠서넌 그래 우리 아덜두 사려찌.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사람 살려 놓고는 그래 우리 아들도 살았지.}

10216 # 그래 사려 가주구 후:애 가서 야글 써... {그래 살아 가지고 후에 가서 약을 써...}

10216 # 후:애 이제 그 후:애 야:가 이제 점점 해교를 땡기구 치 하는데 그: 얼굴 때미 아가 함푸리 탁: 중는다 마려여. {후에 이제 그 후에 애가 이제 점점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그 얼굴 때문에 애가 한풀이 탁 죽는단 말이야.}

10216 # 나미 보겐대 어트가냐 에 이거 안되개따 이거 어트리 지 얼굴루 맨들 쭈 어쨌능가 데리구 장춘닐 가써. {남이 보는데 어떻게 하나 에 이거 안되겠다 이거 어떻게 제 얼굴로 만들 수 없겠는가 하고 데리고 장춘으로 갔어.}

10216 # 장춘 가서 이 배까주걸 빼져 가주구 열구래다 부치구 그 얼굴 꺾 빼져 디디구 게 여기는 다시 에: 저 치료해서 나께금 이르케 하구 게 그라구 도려와찌. {장춘 가서 이 뱃가죽을 벗겨 가지고 얼굴에다 붙이고 그 얼굴 것은 벗겨 버리고 그래 여기는 다시 에: 저 치료해서 낮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돌아왔지.}

10216 # 그라구두 손뚱언 모태써. {그리고도 손등은 못 했어.}

10216 # 그저 배까죽 떼:서 얼굴만 해찌. {그저 뱃가죽 떼서 얼굴만 했지.}

10216 # 그 열구래서 꼬맨 실:짜우그 실:짜구기 그: 덴:자국과 그저 비드마지. {그 얼굴에서 꿰맨 실 자국이 실 자국이 그 덴 자국과 그저 비슷하지.}

10216 # 그르키 돼: 돼:써, 다:스 그래 살과써. {그렇게 돼 되었어, 다 그래서 살렸어.}

10216 # 어: 애르 머거써. {아, 애를 먹었어.}

10216 # 자시가나 살굴라구 영 석달 녀달 똥안 거기 기냥 아주... {자식 하나 살리려고 아주 석달 녀달 동안 거기 그냥 아주...}

10216 # 그래 도:넌 어트개 행능가 거기 장후니:: 어 니' 애더리 그래썩까 영보진:데, 영보가! 나가 동개비여. {그래 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 장후이 에 네 애들이 그렸으니까 영복이인데, 영복아! 나와 동갑이야.}

10216 # 니 어이쁜 네 자시기 그래씨니까 어: 치료빌 대:겐냐 안 대겐냐. {너 어쨌든 내 자식이 그렸으니까 치료비를 대겠느냐 안 대겠느냐.}

10216 # 이르키 돼 가주 치료비 치료비를 절반 대찌 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치료비 치료비를 절반 대었지 뭐.}

10216 # 절반 대구 내가 절반 대구. {절반 대고 내가 절반 대고.}

10216 # 그르케 해서 살귀논 사라미여.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사람이야.}

10216 # 덕재가 그르케 사라써. {덕재가 그렇게 살았어.}

10216 # 그래 지금두 지금까지두 그 얼굴 때때 어디가 대면해기 실쿠 시러하구. {그래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 얼굴 때문에 어디가 대면하기 싫고 싫어하고.}

10216 # 누구하구 대면하기 시러하구. {누구하고 대면하기 싫어하고.}

10216 # 자꾸 무슨 이리 이썩두 항구개 가서두 나쁘구 범무부애 가 보라지 지가 갈라구는 아나지. {자꾸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가서도 나보고 범무부애 가 보라지 자기가 가려고는 안 하지.}

10216 # 그래 그래서 지금두. {그래 그래서 지금도.}

10216 @ 갠차는대 머. {괜찮은데 뭐.}

10216 # 괜:찬너? {괜찬어?}

10216 # 나미 보 나미 보겐데 보기엔 별써... {남이 보 남이 보는데 보기에 별써...}

10216 @ 그러케 그러케 보기실치 안튼대요 머 그냥. {그렇게 그렇게 보기싫지 않던데요 뭐 그냥.}

10216 # 어:려썰 때 고:와썬 아가. {어렸을 때 예뻐어 애가.}

10216 # 어려썰 때는 그: 데지리 데기 전까장은 고:와썬 머. {어렸을 때는 그 데지 데기 전까지는 예뻐지 뭐.}

10216 # 게 그런 애기럴 하나 해썬 머 또 이제. {그래 그런 애기를 하나 했지 뭐 또 이제.}

10216 # 아주 자식 키우기가 험치 아이요. {아주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1.5. 일생 의례

10201 @ 그때 그: 문화혁명할 때 동네 싸람들-끼리두 사이가 안 조쿠 그러지두 아나썬요?
{그때 그 문화혁명할 때 동네 사람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그렇지 않았어요?}

10201 @ 그렇 거 이썬 아나썬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10201 # 이썬. {있어.}

10201 @ 그럴 때 어트개 해썬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10201 # 그 때는 한 조지기거덩 다:. {그때는 한 조직이거든 다.}

10201 # 한 조지기지만 거기에서 나쁜 사람더리 이썬썬. {한 조직이지만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있었지.}

10201 # 제정 때 이르키 부라개 이쓰민서 어: 팔로구내 드러오거나 그때 빨:썬사니 드러오거나 이래개 되문 그걸 알:구서넌 양수 결청썬애다 보고한 사람들 이썬. {제정 때 이렇게 부락에 있으면서 에 관로군이 들어오거나 그때 빨지산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걸 알고는 양수 경찰서에다 보고한 사람들이 있지.}

10201 # 보고해 가주구 인:차 이 사라물 부뜨러다가 가따 가주구 심:사하지. {보고해 가지고 바로 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심사하지.}

10201 # 게 이런 사라물 으:: 님성그니 형니미라구 하는 사라물 때:려 주기썬 머 거기서.
{그래 이런 사람을 에 임성근이 형님이라는 사람을 때려 죽였지 거기서.}

10201 # 그냥 청녀드리 때려 주기따 마리어 무나혁명 때. {그냥 청년들이 때려 죽였던 말이야 문화혁명 때.}

10201 @ 어트개요? {어떻게요?}

10201 # 그: 고:바래따구, 제정 때 그 고:바래따구. {그 고발했다고, 제정 때 그 고발했다고.}

10201 # 하:: 나쁜누미라구 이거 다: 해서 게 조선사라미 여기는 젤: 형명에 조선싸라미 혼자 다 하능 거처럼 아주 그르키 강해썬 머. {아주 나쁜놈이라고 이거 다 해서 그래 조선사람이 여기는 제일 혁명에 조선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강했지 뭐.}

10201 # 그래서 때려 주겨썬 그런 사람. {그래서 때려 죽였어 그런 사람.}

10201 # 그래서 하나 때리 쥐기구. {그래서 하나 때려 죽이고.}

10201 # 그 다매 서영가미라는 사라미 문하:-수주니 녀다구 아내썬, 정아미라구 이름 진 사

람. {그 다음에 서영감이라는 사람이 문화수준이 높다고 안했어, 정암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10201 # 그 사람두 그저내 머 헨능가 하니까 그: 해: 머웅 건 크:개 움넌데 그 지시기 망:쿠 이저는 크개 해 머꺼따구 으:시멸 자꾸서넌 또 조사럴 하기 시자개찌. {그 사람도 그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해 먹은 건 크개 없는데 그 지식이 많고 이전에 크개 해 먹었다고 의심을 잡고는 또 조사를 하기 시작했지.}

10201 # 게 나이 이써, 그 사라미. {게 나이가 있어, 그 사람이.}

10201 # 근데: 한 칠십가기 돼:는데 아이야 느:더란테 이러키 조:사바꾸 이쨌냐 난 주깨따 그래 저: 사내 올라가서 몽매다려 주거빠려찌. {그런데 한 칠십가기 되었는데 아이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조사받고 있겠느냐 난 죽겠다, 그래 저 산에 올라가서 목 매달아 죽어버렸지.}

10201 # 그: 그래서 무나형명이 간: 썰썰. {그 그래서 문화혁명이 아주 심했어.}

10201 # 그래 여기 자동차 땡기는 거뚜 짐차애 자동차 짐차애 으: 아이미가 아:'르 양구 그대 자동차애 타구서 도문 나가지. {그래 여기 자동차 다니는 것도 짐차애 에 아이에미가 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자동차애 타고 도문으로 나가지.}

10201 # 나가능 건 발란대가 그저 대:구 총으 쏘서 아: 그저 대:번 주거찌, 아:가 마저서. {나가는 걸 발란대가 그저 대고 총을 쏘서 아이 그저 대번 죽었지, 아이가 맞아서.}

10201 # 아이미두 주꾸. {아이 에미도 죽고.}

10201 @ 아이 왜 쏘요? {아니, 왜 쏘요?} 10201 # 아:두 주꾸. {아이도 죽고.}

10201 # 저기 흥: 저: 빠얼치라구. {저기 흥(색) 저 빠얼치라고.}

10201 # 빠얼치 다룬 조지기라구. {빵얼치 다른 조직이라고.}

10201 # 다룬 조지기라구 하구 쏘:찌. {다른 조직이라고 하고 쏘지.}

10201 # 다른 조직 싸라면 가서 부터서 애기두 모태쓰. {다른 조직 사람은 가서 붙어서 애기도 못 했어.}

10201 # 흥색 빠얼치 강다, 그 다매 이르키 다: 조지기 따:지 머. {흥색 빵얼치 강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조직이 다르지 뭐.}

10201 @ 서루서루 그래썰요? {서로서로 그랬어요?}

10201 # 그럼 서루서루 그러치 머. {그럼 서로서로 그렇지 뭐.}

10201 @ 거 어디두 모:따니깁내요? {거 어디에도 못 다니니겠네요?}

10201 # 어디두 모:땡기구 막 그저 자버 주기는데 뭐 어떠개 할: 쏘가 이써야지. {어디도 못 다니고 막 그저 잡아 죽이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10201 # 게 으:심항 건 그냥 대번 총 쏘 버리구. {그래 으심스러운 건 그냥 대번 총을 쏘 버리고.}

10201 # 머 아 아라? 그래 그래서 모 주서기 예: 운:'두루 하주말구 언:'더로 하라 그래찌. {머 알아? 그래 그래서 모 주석이 예 운두루 하지말고 언더로 하라 그랬지.}

10201 # 언더로 하라능 건 머잉가 말:루 하라 총이랑 이릉 거 쓰지 말라. {언더로 하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말로 하라 총이랑 이런 거 쓰지 마라.}

10201 # 이르키 또 내려찌 머, 그 후에. {이렇게 또 내렸지 뭐, 그 후에.}

10201 # 그때 등소평이 가치우때찌. {그때 등소평이 갖혔었지.}

10201 # 게 등소평이 가치원는데 예: 이 가모개 가치원는데 가모개서 그 다매 등소평이 머

행능가 하나까 공상당 대회릴 할 쩌개 등소평이 아:내서 그럴 썬 가주구 편지릴 썬
 가주구 그 내: 보내서 거: 대회하는 데 디리 보내따 마리어. {그래 등소평이 간헛는
 데 에 이 감옥에 간헛는데 감옥에서 그 다음에 등소평이 무얼 했느냐 하면 공산당
 대회를 할 적에 등소평이 안에서 글을 썬 가지고 편지를 썬 가지고 그걸 내 보내서
 그 대회하는 데 들여보냈단 말이야.}

10201 # 기 디리보내서 대회 대회장에서 그 편지릴 일거찌 머. {그래 들여보내서 대회 대회
 장에서 그 편지를 읽었지 뭐.}

10201 # 일거 가주구 사실 이마난 개조할 마난 사라미다. {읽어 가지고 사실 이만한 개조할
 만한 사람이다.}

10201 # 이커카구 또 꼬:내 봐다 마리어. {이렇게 하고 또 꺼내 났단 말이야.}

10201 # 게 드르가썬 쩌개 훈추내서 따:또: 등소평:: 할 쩌개는 머여 아주 등소평일 타거카
 라. {그래 들어갔을 적에 훈춘에서 '타도 등소평' 할 적에는 뭐야 아주 등소평을 타
 격하라.}

10201 # 이르키 소리칠 때는 으: 군중드리 막: 이르나서 그르키 소리칠 치지 모여서. {이렇
 게 소리칠 때는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그렇게 소리를 치지 모여서.}

10201 # 그러면 한 사라미 이따가서 에: 등소평 나순 사라미다 하구 소리칠 때 한 사라미
 등소평언 조은 사라미다 하구 또 반대저그루 이르키 소리쳐다 마:리어. {그러면 한
 사람이 이따가 에 등소평 나쁜 사람이다 하고 소리칠 때 한 사람이 등소평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소리쳤단 말이야.}

10201 # 사시시니까 이 조은 사라미다 할 때 그 사라미 가따 가뒀찌. {소리치니까 이 좋은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을 갖다 가뒀지.}

10201 # 훈추내서. {훈춘에서.}

10201 # 가따 가두니까 그 다맨 훈추내섬 머 어트개 한 일런 가뒀찌 머, 그 사라미. {갖다
 가두니까 그 다음에는 훈춘에서는 뭐 어떻게 한 일런 가뒀지 뭐, 그 사람을.}

10201 # 그 어가내 등소평은 나와찌. 가모개서 나와찌. {그 어간에 등소평은 나왔지, 감옥
 에서 나왔지.}

10201 # 나오서는 나와서는 이제 머 하능가 부주서깁가? 이걸 하게 되지. {나와서는 나와서
 는 이제 뭐 했느냐 하면 부주석인가 이걸 하게 되었지.}

10201 # 그래서 그 다매 그 사라문 내:봐찌 머.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내왔지 뭐.}

10201 # 훈추내 개깁 사라무 내:봐찌. {훈춘에 갇힌 사람은 내왔지.}

10201 # 게 내는 내는데 머라구 행능가 하나까 난 몬 나가개따. {그래 내놓는 내놓는데 뭐
 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못 나가겠다.}

10201 # 너 나가라구 해두 난 나가서 뭘: 해머꾸 살:겐나. {네가 나가라고 해도 나는 나가
 서 뭘 해먹고 살겠다.}

10201 # 자: 에편내드라구 애:드라구 나 때무내 얼마 고상한지 아능가 또: 이적찌 버러씨면
 썬:태 버러젠는데 에 애덜두 궁기구 여편내두 궁기구 나두 굴머따. {자 여편네들하
 고 애들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능가, 또 지금까지 벌었으면 숫하게
 벌었을 텐데 에 애들도 굶기고 여편네도 굶기고 나도 굶었다.}

10201 # 게: 내 그냥 나갈 꺼 가통가 보증 다 해달라. {그래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은가 보
 상 다 해달라.}

10201 # 막: 그래서 산 일런 가쳐썬는데 삼:년치를 해원능가? {막 그래서 삼, 일년 간헛었

는데 삼년치를 해줬는가?)

10201 # 그래서 그 다매 내: 보내지 아내씨? {그래서 그 다음에 내보내지 않았어?}

10201 # 예: 그래서 막 끄냥 그 사라미 땔:래에서 그저 막: 그: 마:리 올치 며. {예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람이 떼를써서 그저 막 그 말이 옳지 뭐.}

10201 # 그래서 그 내 그러면 양: 그러면 등소평한테 내 이거 가개따. {그래서 그 내가 그 러면 안 그러면 등소평한테 내가 이거 가겠다.}

10201 # 허허 막: 그냥 그래 가주구... {허허 막 그냥 그래 가지고...}

10201 # 이대 자:래 줘:서 내보내씨. {대우 잘 해줘서 내보냈어.}

10201 # 게: 그 사람 생가개는 나면 다: 등 등소평언 나쁘노미다: 하구 소리칠 때 이 사라 문 등소평은 조은 사라미다:: 할 켜 어째 무슨 생가기 드러가 그랜는지. {그래 그 사람 생각에는 남은 다 등소평은 나쁜 놈이다 하고 소리칠 때 이 사람은 등소평은 좋은 사람이다 할 때 어찌 무슨 생각이 들어가 그랬는지.}

10201 # 허허허허 그게 다:... {허허허허 그게 다...}

10201 @ 강청:두 거기 과 과녀되지 아나씨요, 무냐형명애? {강청도 거기 관여되지 않았어 요, 문화혁명애?}

10201 # 과녀 땔:지. {관여 되었지.}

10201 # 강청, 강청 립표 그 다매 이썩 저: 예 또 하나 또 하나 무이 뚜꾸등가, 그 스: 노회 요. {강청, 강청 립표 그 다음에 이썩 저 예 또 하나 또 하나 누구던가, 그 노회 요.}

10201 # 사린방이라구 사린방이라구 따루 이썩지. {사인방이라고 사인방이라고 따로 있었 지.}

10201 @ 사임방. {사인방.}

10201 # 사 사임방. {사 사인방.}

10201 @ 예. {예.}

10201 # 그게 이썩 가주구 그때 그때, 한참 그래치. {그게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한참 그 랐지.}

10201 # 기 님표는 님폰 그 후에 사해정군 군장이지 머. {그 립표는 립표는 그 후에 사해정 군 군장이지 뭐.}

10201 # 근데 예: 중앙애 이쓰면서 자기가 우때가리 모 주석 우애 올리슬라구 하다가 아이 될꺼 가트라니까 그 다맨 비행기 타구 쏘련 간다구. {그런데 예 중앙애 있으면서 자기가 옷대라기 모 주석 위에 올라서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소련 간다고.}

10201 # 가다가 주을래 동지가 알:구서 대분 그냥 썩:라 그룽궁 비행기 가년 누무걸 썩 가 주구서던 몽고 경내에까지 드르간는데 거 가 떠러져찌. {가다가 주을래 동지가 알 고서 대번 그냥 썩라 그러곤 비행기 가는 놈의 걸 썩 가지고는 몽고 경내에까지 들 어갔는데 거기 가서 떨어졌지.}

10201 # 여기서 쏙:게 거 가서 거 가서 마저 떠러져찌. {여기서 쏙 게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맞아 떨어졌지.}

10201 @ 그: 문화혁명하기 전내 대:약찌눈동은 어트개 대씨요? {그 문화혁명하기 전에 대약 진운동은 어떻게 되었어요?}

10201 # 대:약찌눈동은 그때는 어트기 썩:능가 하니까 그:: 관내 그르닝까 산서성이구 그 다

매 무슨 관내-서 하는 그런 시절 논 논 저저 바트 이러키 떠글 매면서 떠글 매면서 저기 흘걸 여가따 채워 가주구 그 다매 또 하구 저짜개 또 그르케 해노쿠 이르켜서 대저늘 어: 대저늘 맨든다. {대약진운동은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관내 그러니까 산서성이고 그 다음에 무슨 관내에서 하는 식을 논 논 저 저 밭을 이렇게 떡을 매면서 떡을 매면서 저기 흙을 여기 가갖다 채워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저쪽에 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대전을 에 대전을 만든다.}

10201 # 이래 신: 싱:경을 하자. {이렇게 심, 심경을 하자.}

10201 # 소:개 이는 땅을 훌떡 두지버서 거티 노코 거티 땅을 미티다 지버 여라. {속에 있는 땅을 훌떡 뒤집어서 곁에 놓고 곁에 땅을 밑에다 집어 넣어라.}

10201 # 이르개 돼. 게: 거티 땅은 우리 생가개는 태양얼 바꼬 다: 거머저서 근대 새: 흐글 끄내노 가주 새: 흐글 끄내서 노니까 생전 곡씨기 돼야지. {이렇게 됐어. 그래 곁에 땅은 우리 생각에는 태양을 받고 다 검어져서 그러데 새 흙을 꺼내 놔 가지고 새 흙을 꺼내서 놓으니까 생전 곡씨가 되어야지.}

10201 # 게 이르키 하는데 수::탄 바미구 나재구 등뿔 키노쿠 초롱뿔 키노쿠 막 끄냥 증(어/으 간음)기를 내다 가까운데년 증(어/으 간음)기를 내다 걸구 먼: 데년 저: 머여 초롱뿔 가따 커노쿠 막: 끄냥 땅을 파기 시자개:찌. 그래찌. {그래 이렇게 하는데 술한 밤이고 낮이고 등불 켜놓고 초롱불 켜놓고 막 그냥 전기를 내다가 가까운데는 전기를 내다 걸고 먼 데는 저 뭐야 초롱불 갖다 켜놓고 막 그냥 땅을 파기 시작했지. 그랬지.}

10201 @ 땅 뒤집느라구. {땅 뒤집느라고.}

10201 # 어: 뒤집느라구. {응, 뒤집느라고.}

10201 # 게 그르케 하지. {그래 그렇게 하지.}

10201 # 그래 우리야 영: 소화 안 되지. {그래 우리야 영 소화가 안 되지.}

10201 # 소화 안 되두 명녕이지 머. {소화 안 되어도 명녕이지 뭐.}

10201 # 어터개 그 다매년 가서 하는치가다가 그 다매 또 오고 오고 그러지. {어떻게 그 다음에는 가서 하는 척하다가 그 다매에 또 오고 오고 그러지.}

10201 # 그래 가주서년 그 다매 대약진 때 저: 옥씨기짱 콩깍찌 이렇 거 머저 가면서 그걸 하자니까 어뜨개 이 양표 쓸 땐데 양표가 읍쓰 읍씨 어디가 쌀릴 싸. {그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대약진 때 저 옥수숫대 콩까지 이런 거 먹어 가면서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 이 양표 쓸 땐데 양표가 없어 없이 어디가서 쌀을 사.}

10201 # 그래서 그 다매 먹기 그대 노인더리 거인 다: 주거간 다: 주거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먹기 그대 노인들이 거의 다 죽어갔, 다 죽었지.}

10201 # 그저 먹찌 모태서 저건... {그저 먹지 못해서 저건...}

10201 @ 아 그때가 젤... {아그때가 제일...}

10201 # 예:. {예.} 10201 @ 굴머씨요? {끓었어요?} 10201 # 그 다매 젤: 굴머찌 그때. {그 다음에 제일 끓었지 그때.}

10201 # 그때 저: 머여 노인드른 손자 생각 그 다매 애:덜 생각 이렇 거 해서 한 사발씩 그 룡 거 퍼다 줘:두 너 머저라 너 머저라 하구 너 마이 머저 너 마이 머저 하다나니까 먹찌 모태서 주근 노인드리 마:나찌 머. {그때 저 뭐야 노인들은 손자 생각 그 다음에는 아이들 생각 이런 거 ㅎ서 한 사발씩 그런 거 퍼다 줘도 너 먹어라 너 먹어라 하고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 하니까 먹지 못해서 죽은 노인들이 많았지 뭐.}

10201 # 그래서 문화혁명 끝나구 끝나구 그 다때 좀 이따 사: 오십육년도 오십칠년도 이러
치. {그래서 문화혁명 끝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사, 오십육년도 오십칠
년도 이러지.}

10201 # 그래서 모 주서기 주근 다:때 주을래 동지 인차 죽꾸 따라서 인차 주꾸. {그래서
모 주석이 죽은 다음에 주은래 동지가 바로 죽고 따라서 바로 죽고.}

10201 # 그래 주을래 동지는 태워서 비행기애다 해 가주구 정구그 땡기며 뿌리구. {그래 주
은래 동지는 태워서 비행기에 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뿌리고.

10201 # 그대 모 주서건 그: 머여 보:과나느 데 그: 썩썩 양개 보관하는 데 그런 무래다 가
따 지버여찌. {그 다음에 모 주석은 그 머여 보관하는 데 그 썩지 않게 보관하는
데 그런 물애다 갖다 집어넣었지.}

10201 # 지버 여가주구 그 지금두 이써. {집여넣어 가지고 그 지금도 있어.}

10201 # 지금두 그때 싸람덜 지금두 모 주서걸 여래하지 머 아주 여래하지. {지금도 그때
사람들 지금도 모 주석을 열애하지 뭐 아주 열애하지.}

10201 # 관내 싸람덜두 다: 지금 머 모 모주 모 주서걸 인민터런 다: 여래하지. {관내 사람
들도 다 지금 뭐 모 모 주석을 인민들은 다 열애하지.}

10201 # 게 군대래두 인민덜 썩배 와서 물 기러다 쥐 낭그 패주구 머 마고칸 터주구 다: 해
서 불 때주구 다: 이르키 하년 사람더리 어디써, 군대가. {그래 군대라도 인민들 집
에 와서 물 길어다 쥐 나무 패주고 뭐 마구간 터쳐주고 다 해서 불 때주고 다 이렇
게 하는 사람드리 어디있어, 군대가.}

10201 # 막:: 이르게 해서 군 인미드르 시니물 으:더 가주구 이임드리 예: 와우 우리 아덜두
군대 보내개따구 우리 아덜두 군대 보내개따구 하구 막: 그냥 서드러쉴 땐데 그때.
{막 이렇게 해서 군 인민들을 신임을 얻어 가지고 이놈들이 에 아유 우리 아들도
군대 보내겠다, 우리 아들도 군대보내겠다고 하고 막 그냥 서들렀을 땐데 그때.}

10201 # 그래서 정비가 확: 뿌러찌. {그래서 정비가 확 부러었지.}

10201 # 그저 군대 병너지 착: 뿌러찌. {그저 군대 병력이 확 붙었지.}

10201 # 그래 가주서 이르게 돼:지 머.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지 뭐.}

10201 # 농초누루 드루와서부터... 농촌으로 들어와서부터.}

10201 # 맨: 처매 장개석 궈대가 동부개 드러올 때 뱅마이 군느 드루와거등. {맨 처음에 장
개석 군대가 동북에 들어올 때 백만 군이 들어왔거든.}

10201 # 그디 어디 차지헿능가 하니까 장춘: 길림: 이 심냥 무슨 이른 디 다: 점녕해찌. {그
런데 어디를 차지했느냐 하면 장춘 길림 에 심양 무슨 이런 데 다 점령했지.}

10201 # 이 썩 부구루는 아정 모: 뜨르가따 마리어. {이 썩 북으로는 아직 못 들어갔단 말
이야.}

10201 # 게 거기년 팔로구년 어디애 이썩녕가 하니까 가목싸 목땅강 그 다때 저 활빈 지지
할 이른디루 이르가구 이써찌. {그래 거기는 팔로군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가목
사 목땅가 그 다음에 저 활빈 치치할 이런데로 이리로 가고 있었지.}

10201 # 추:운데 거 가 이써찌 다:. {추운데 거기에 가 있었지, 다.}

10201 # 그래서 농민 농민드르 파겨내서 농민들 에 선저나구 그래서 그 다때 고인터란테
선저나구 다: 이래서 병너지 콧: 부러찌. {그래서 농민 농민들을 파견해서 농민들
에 선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인들한테 선전하고 다 이래서 병력이 확 붙었지.}

10201 @ 그러면 집채:는 언제부터 항 거예요? {그러면 집채는 언제부터 한 거요?}

10201 # 집채: 집채년 사십육년, {집채 집채는 사십육년,}

10201 # 그르니까 오:십 오:십년 오:십팔년 오:십팔년도 오십팔년도 오십년도에 해찌.
 {그러니까 오십 오십육년 오십팔년 오십팔년도 오십팔년도 오십육년도에 했지.}

10201 # 오십칠 칠년 오십년 고기 고때 해찌 머. {오십칠-칠년 오십육년 고기 고때 했지
 뭐.}

10201 @ 아 그러면 대:약전운동할 고때. {그러면 대학전운동할 고때,} 10201 # 어: 고때.
 {응, 고때.} 10201 @ 고때 헐 항 거내요? {고때 한 거네요?}

10201 # 어: 은하 드루와서 드루와서 그때 드러오니까 대:약전 한다구 하딩구먼. {응, 나 들
 어와서 들어와서 그대 들어오니까 대약전 한다고 하더구먼.}

10201 @ 그때 머 이르캐 반 매구 이러면서 공수 주구... {그때 뭐 이렇게 발 매고 이러면서
 공수 주고...}

10201 # 공수:. {공수.}

10201 @ 그러타면서요? {그렇다면서요?}

10201 # 예: 근데 그게 집채루 하능 게 영:: 소와 안 되지 머. {응, 그런데 그게 집채로 하
 는 게 영 소화 안 되지 뭐.}

10201 # 새:아가 한 열여덟살이나 머근 새:아가 머 하거, 머 하개썸. {처녀 한 열여덟살이나
 먹은 처녀가 뭐 하겠, 뭐 하겠어.}

10201 # 이: 옥씨기 뿌리를 캐는데: 내가 나:하구 남자 둘:하구 여자 한나 하구 이르키 해서
 옥씨기 뿌릴 캐는데 하루가리를 캐여 된다 마리어. {이 옥수수 뿌리를 캐는데 내가
 나하고 남자 둘하고 여자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옥수수 뿌리를 캐는데 하루같이
 캐야 된단 말이야.}

10201 # 캐여 되는데 그저 우리년 두: 고랑얼 자버 가지, 팽이루. 이쪽 탁 찌꾸 이쪽 탁 찌
 꾸 자버 땡기구 이쪽 탁 찌꾸 자버 땡기구 이러캐 수: 캐:, 캐: 나가지. {캐야 되
 는데 그저 우리는 두 고랑을 잡아 가지, 팽이로. 이쪽 탁 찌고 이쪽 탁 찌고 잡아 당
 기고 이쪽 탁 찌고 잡아 당기고 이렇게 캐, 캐 나가지.}

10201 # 그 여자년 항: 고랑 자주구서두 우리 모 따라오지. {그 여자는 한 고랑 가지고도
 우리를 못 따라오지.}

10201 # 그러나 공수 바들 찌개는 그 여자두 항 공 나 우리두 남자덜두 항 공, 에 이거 모
 태 명는다 아난다구. {그러나 공수 받을 찌개는 그 여자도 한 공 나 우리도 남자들
 도 한 공, 에 이거 못해 먹는다 안 한다고.}

10201 # 게 자꾸: 쪼꼬마:지, 마니 할 꺼뚜 쪼꼬마:지. {그래 자꾸 조금 하지, 많이 할 것도
 조금 하지.}

10201 # 그래선 집채루 하능 게 틀려따구. {그래서 집채로 하는 게 틀렸다고.}

10201 #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유소기가 하다 만 꼬털 등소평이가 후떡 뒤져 놔:찌. {그
 래서 왜 그러냐 하면 류소기가 하다가 만 끝을 등소평이가 훌떡 뒤집어 놔지.}

10201 # 그래서 이근 개방하자. {그래서 이근 개방하자.}

10201 # 이르캐 자주서 몽땅 그냥 다: 등소평 올라 안저쓸 찌개 몽땅 개방해따 마리어. {이
 렇게 해 가지고 몽땅 그냥 다 등소평이 올라 앉았을 적에 몽땅 개방했단 말이야.}

10201 # 어: 개이 개이누루 땅얼 노나 조라. {에 개인, 개인으로 땅을 나눠 줘라.}

10201 # 개:이누루 그 다매 저: 머여 집채루 하지 말구 개:이누루 노나 조라. {기인으로 그
 다음에 저 뭐야 집채로 하지 말고 개인으로 나눠 줘라.}

10201 # 그 다매 저:저 쏘폴캐운두 쏘폴캐황이라능 개 머 하니까 저기 가서 사내 가서 네
 맘:대루 일귀서 해: 머거라. {그 다음에 저 저 쏘폴캐황도 쏘폴캐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기 가서 산에 가서 네 마음대로 일귀서 해 먹어라.}

10201 # 이걸 내구. {이걸 내고.}

10201 # 그 다매 그: 머여 장사두 할 룬 이쓰면 네 맘대루 장사해라. {그 다음에 그 뭐야
 장사도 할 놈 있으면 네 마음대로 장사해라.}

10201 # 기능 이쓰면 기능 인능 거만치 해라. {기능 있으면 기능 있는 것만큼 해라.}

10201 # 이르케 해 가주구서 그 다매 확 푸러놔: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확 풀어
 났지.}

10201 # 그래서버터 좀 나:지기 시자가기... {그래서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하기...}

10201 # 멍능 기 좀 나: 지기 시자가구 공출 바치능 게 여기 저: 군대두 양자내다 곡씩 바
 치능 거두 맘대루 할 쥬 이꾸... {먹는 게 좀 나아지기 시작하고 공출 바치는 게 여
 기 저 군대도 양잔에다 곡식 바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10201 # 그래 녀 만:타 적따 이르키 하 해: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 커저라. {그래 너무 많다
 적다 이렇게 하, 해서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가져라.}

10201 # 백뿐지 삼만 바쳐라. {백분의 삼만 바쳐라.}

10201 # 배:개서 치:른 느가 머꾸 삼만 바쳐라. {백에서 칠은 너희가 먹고 삼만 바쳐라.}

10201 # 그저 이르키 돼:찌. {그저 이렇게 되었지.}

10201 @ 그 밤중에 아까 후 저기 뒤지버따 그러짜나요? {그 밤중에 아가 훌 뒤집었다 그랬
 잤아요?}

10201 # 예:. {예.}

10201 @ 그때:가 밤중에 가서두 일:하구 이러면서 논뚜렁 미태서 머 일:하는 처카구 그래따
 능 개 그때요? {그때가 밤중에 가서도 일하고 이러면서 논뚜렁 밑에서 일하는 척하
 고 그랬다는 게 그때요?}

10201 # 예: 그때지 머. {응, 그때지 뭐.}

10201 # 게 거기 감시워니 이: 지금 양수향이라구 하그등 향애 캄부더리 누가 와서 어: 따:
 정아멸 따:아:: 마라자면 저아멸 마터꺼덩. {그래 거기 감시원이 이 지금 양수향이
 라고 하거든 향의 간부들이 누가 와서 따, 정암을 따, 말하자면 정암을 맡았거든.}

10201 # 마트먼 따보 마터 가주구 그 정아멸 마터 가주구 여기에서 자라개끔 하라. {말으면
 따보 맡아 가지고 그 정암을 맡아 가지고 여기에서 잘 하게끔 하라.}

10201 # 이르케 한 게 누가 하. {이렇게 한, 그래 누가 해.}

10201 # 그래 향 정부엔 그때 누가 이썬능가 하니까 어:: 바강형이라구 이썬썬 하나 바강
 장. {그래 향정부에는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 박향장이라고 있었어 하나 박향
 장.}

10201 # 기런데 정아매 올라와서 서기네 지비 떠기찌. {그런데 정암에 올라와서 서기네 집
 에 떡 있지.}

10201 # 게 서기네 지비 떠기는데, 그래 춘: 서기, 초:내 서기. {그래 서기네 집에 떡 있는
 데, 그래 춘 서기, 춘의 서기.}

10201 # 게 서기네 지비 떠기쓰면서 그 다매 거기서 오지. {그래 서기네 집에 떡 있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지.}

10201 # 그른데 한 여자가 대:약쩐 찌개 한 여자가 이 누군가 하니까 저: 동표 아버지라구

그:: 성주경이 성주경이 처지 머. {그런데 한 여자가 대약진 저게 한 여자가 이 누구냐 하면 저 동표 아버지라고 그 성주경이 성주경이 처지 뭐.}

10201 # 성주경이 처가 키가 혈씩 큼 개 사:라미 좀 든드나개 생겨찌. {성주경이 처가 키가 흰칠하게 큰 게 사람이 좀 든든하게 생겼지.}

10201 # 근대 쪽찌개루 베 베쪽찌개루 그걸 메 따닐 저편지 한 짐 잔뜩 저따 마리어. {그런데 지게로 베 베 지게로 그걸 몇 단을 졌는지 한 짐 잔뜩 졌단 말이야.}

10201 # 게 노년 가:우리 되니까 노니 질퍽질퍽 빠지면서 잘 가지 모타개찌. {그래 논은 가을이 되니까 논이 질퍽질퍽 빠지면서 잘 가지 못하겠지.}

10201 # 게 쪼곰 가다가 이 논뚜렁에다 쪽찌개 바릴 바치구 쉬:어찌. {그래 조금 가다가 이 노뚜렁에다 지게 밭을 받치고 쉬었지.}

10201 # 게 쉬:니까 이 바강장이 보구선 10201 # 아이 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내라는데 어째 에 그라구 인능가 하구... {그래 쉬니까 보고는 아이 지(고) 빨리빨리 저내라는데 어째 에 그라고 있는가 하고...}

10201 # 아: 지금 바빠서 조금 쉰다구. {아 지금 힘들어서 조금 쉰다고.}

10201 # 그래 작대기를 작대기를 이르키 저: 쪽찌개에다 바쳐 가주구 이르키 노쿠션 나와서 쉬어찌. {그래 작대기를 작대기를 이렇게 저 지게에다 받쳐 가지고 이렇게 놓고는 나와서 쉬었지.}}

10201 # 그런데 그담: 빨리 가래두 이: 여자가 눈치만 보구 앙 가지. {그런데 그 다음에 빨리 가래두 이 여자가 눈치만 보고 안 가지.}

10201 # 그래 저 앙: 가니까 내가 지구 가지. {그래 저 안 가니까 내가 지고 가지.}

10201 # 게 저 봐써야지 그거뚜 쪽찌개질 향건대 표령얼 모르구 할 쑈 이쓰야지. {그래 저 봤어야지 그것도 지게질 하는 건데 요령을 모르고 할 수 있어야지.}

10201 # 이르케 지구 작대기릴 쪽 뽀버 가주구 이 지구 이르 날라다 이르나지 모타구 아푸루 폭 꼬러저따 마리어. {이렇게 지고 작대기를 쪽 뽀아 가지고 지고 일어나려다 일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폭 꼬라졌단 말이야.}

10201 # 아푸루 폭 꼬러지니까 여기 막 흠기 무더쓸 끼 아니여. {앞으로 폭 꼬라지니까 여기 막 흠이 묻었을 거 아니야.}

10201 # 내버려 두라. {내버려 뒤라.}

10201 # 누구두 이러나꾸지 마. {누구도 일으키지 마.}

10201 # 내비뒤. 게 한참 버르저기다 혼자 이러나때. {내버려 뒤, 그래 한참 버르적거리다 혼자 일어났더라고.}

10201 # 혼자 이런는데 여기 흠 투성이가 돼:찌 머. {혼자 일어났는데 여기 흠 투성이가 되었지 뭐.}

10201 # 허허허 그라구서년 안 지구 가따구 되때 요걸 한다 마리어. {허허허 그러고는 안 지고 갔다고 도리어 욕을 한단 말이야.}

10201 # 요가니 먼 드러, 누가 드러? {욕하니 뭐 들어, 누가 들어?}

10201 # 그 요가걸거냐구 내:비려 두지. {그 욕할거냐고 내비려 두지.}

10201 # 그러구 또 그런 차우가 하나 이꾸.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10201 # 그 다매 또 머 하능가 이경개:, 장마가 저 가주구 한 해 장마가 저 가주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장마가 저 가지고 한 해 장마가 저 가지고.}

10201 # 내가 양수에 양수 칠 때에 이쓸 때:, 양수 칠 때. {내가 양수에 양수 칠대에 있을 때.}

10201 # 기르데 장마 여기 고란 무리 탁:: 터져서 저: 머여 두망강이 부러 가주구 막 무리 쟁겨 가주구 여 하동에 무리 막 쟁겨 양식 이:: 양 양잔 이 양자나라면 곡시글 마:: 니 가따 논넌 데여. {그런데 장마가 여기 골안 물이 탁 터져서 저 뭐야 두만강이 불어 가지고 막 물이 잠겨 가지고 여기 하동에 물이 막 잠겨서 양식 이 양 양잔 이 양잔이라면 곡식을 많이 가자 놓는 데야.}

10201 # 근데 거기는 망 물리 드려오거덩. {그런데 거기는 막 물이 들어오거든.}

10201 # 드려오낭께 그 어터개 그 다:. 물 드려오지 모타개 밀까루 포대 곡씩 포대 머 막 이걸 가따 망는담 마리어, 무렐. {들어오니까 그 어떻게 해 그걸 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까루 포대 곡식 포대 뭐 막 이걸 갖다 막는단 말이야, 물을.}

10201 # 망는데 마꾸 거기 인민드런 피난가느라구 이 노푼 드루 이기 당방이여 당방 인는 디루 올라오지. {막는데 막고 거기 인민들은 피난가느라고 이 율은 데로 이기 당방 이야 당방 있는 데로 올라오지.}

10201 # 그 인재 무래 빠져 주그먼 안 되거덩. {그 인재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거든.}

10201 # 그르잉까 아:르 보따리릴 지구 아:를 등애다가 보따리 우애다 느쿠 여기루 모두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이를 보따리를 지고 아이를 등애다가 보따리 위에다 넣고 여기로 모두 올라오지.}

10201 # 근데 바강장은 머랜능가 하니까 사리마다만 이 요마냥 거 이꾸서넌 그: 무투 저 낭 그 무투 떠내려 웅 거 떠내려 웅 걸 끄서다가 다시 육찌애다가 다: 내논다 마리어. {그런데 박향장은 뭘 했느냐 하면 팬티만 이 요만한 거 입고는 그 무투 저 나무 무투 떠내려 온 거 떠내려 온 걸 끌어다가 다시 육지에다가 다 내놓는단 말이야.}

10201 # 자기 쓸라구 이따 쓸라구. {자기 쓸라고 이따 쓸라고.}

10201 @ 무투가 머요? {무투가 뭐요?}

10201 # 낭그. {나무.}

10201 # 저런 낭그 패자니여. {저런 나무 패잖아.}

10201 @ 예. {예.}

10201 # 낭 무투라능게 저 중궁: 중궁마리지 머 낭구통. {나무 무투라는 게 저 중국 중국말 이지 뭐, 통나무.}

10201 # 큰:: 낭구통. {큰 통나무.}

10201 @ 예, 쿵 거. {예, 큰 거.}

10201 # 으 으:. {응 응.}

10201 # 이러 이마:니 굴근 낭구통 가통 거 점보때 가통 거. {이러 이만큼 굵은 통나무 같은 거 전봇대 같은 거.}

10201 @ 예. {예.}

10201 # 이렇 거 그저 막 기가 어디서 떠러 떠내려 완능가 하니까 저: 뒤잉구에서 떠내려 와찌. {이런 거 그저 막 그제 어디에서 떠내려 왔느냐 하면 저 뒤징구에서 떠내려 왔지.}

10201 # 뒤잉구에서 저 십니평 강으루 해서 그 다매 여기루 내루와따 두망강으루 내루와따 마리어. {뒤잉구에서 저 십리평 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왔다 두만강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10201 # 그걸 다:: 주서 주서다가 메 깨릴 주서다 놔편지 하이튼 반:쳐널 주서다 봐: 나찌. {그걸 다 주어 주어다가 몇 개를 주어다 났던지 하여튼 반천을 주어다 모아 놓았지.}

10201 # 그래서 그 다맨 그때 대분 내가 배:리 나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때 대번 내가 배알이 나더라고.}

10201 # 나년 인민느 위에서 봉무해찌만 너년 지비서 으: 인민느 위에서 봉무하랴구 정부에 안치 봐:뜨니 저르 네 사요기 사요건 네만 살랴구 저리카능가 하는 생가니 나서 싸미 부터찌, 내가. {나는 인민을 위해서 복무했지만 너는 집에서 어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랴구 정부에 앉혀 놓았더니 저렇게 네 사육이 사육은 너만 살려고 저렇게 하는 생각이 나서 싸움이 붙었지, 내가.}

10201 # 켜데 허향장이 척 뽀구선 허 서기가 턱 뽀구서년 머랑가 아: 말리등 구려, 그러지 말랴구, 말리등구먼. {그런데 허향장이 척 보고는 허 서기가 턱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아 말리든구려, 그러지 말라고, 말리등구먼.}

10201 # 게 허허 허허 허 서기 때미 물러 서찌, 물러 스구 싸멸 아나구선 마려찌. {게 허향(장) 허향(장) 허 서기 때문에 물러 섰지, 물러 서고 싸움을 안 하고 말았지.}

10201 # 그 후에 허 서기가 아려따 마려여. {그 후에 허 서기가 알았단 말이야.}

10201 # 그 다맨 나르: 어쨌가 하니까 승질 알구서년 수양 보내대 정아무루, 수양얼 래가 하랴구. {그 다음에는 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질 알고는 수양 보내더라고 정암으로, 수양을 내가 하라고.}

10201 # 게 정암에 올라가서 그냥 그대루 이써찌 머 지금. {그래 정암에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있었지 뭐 지금.}

10201 # 그래 그 사라문 메따리따가 거기 아니꾸 저: 훈춘 훈춘 어디 조동에 가쎄, 조동에 가빠리쎄, 여기 아니꾸. {그래 그 사람은 몇 달 있다가 거기 안 있고 저 훈춘 훈춘 어디 조동에 갔어, 조동에 가버렸어, 여기 안 있고.}

10201 # 그래 그 다매 그 다매 인재 나르 내 승질 알구. {그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재 나를 내 성질을 알고.}

10201 # 내가 아파쎄 찌개 바강장언 허향장한티 가 얘기럴 해:찌. {내가 아팠을 적에 박향장은 저 허향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지.}

10201 # 얘기럴 해니까 대번 장춘 뽕위루 가라 그러덩구먼. {얘기를 하니까 대번 장춘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권.}

10201 # 그래 여 박뽕치리 땡기지 아니여 여기. {그래 여기 박병철이 다니지 않아 여기.}

10201 # 손 이러케 된 사람. {손이 이렇게 된 사람.}

10201 @ 예. {예.}

10201 # 여 동옥 아부지. {여 동옥이 아버지.}

10201 @ 예. {예.}

10201 # 그: 사라미 나럴 데리구 암페해서 이 향에서 암페해서 그 사라미 나럴 데리구 장춘까지 가때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안페해서 이 향에서 안페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장춘까지 갔었지.}

10201 # 그때는 부상처가 도:저 가주구 그때 아플 때. {그때는 부상처가 도저 가지고 그때 아플 때.}

10201 # 그르케 돼:때찌 머, 그때. {그렇게 되었었지 뭐, 그때.}

10201 # 그래 가주서 장춘 뽕위내 가서 치:로 하구, 그 다매 치 여기 도리와 치로하구선 사라서 지금까지 살:지. 호호호호. {그래 가지고 장춘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치료 여기 돌아와서 치료하고는 살아서 지금까지 살지. 호호호호.}

10201 # 아이튼 고상 마니 해써 나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 나도.}

10201 # 목짜파내두 안 땡견나 무슨 머:, 농사르 안 지언나 무슨... {목재판에도 안 다녔나 무슨 땀, 농사를 안 지었나 무슨...}

10201 @ 목재판내::는 어디 저:기... {목재판에는 어디 저기...}

10201 # 이고란 동꼴루 이라는 술바째 그쪽 꼬랑 이기 시 심니평 가녕 고랑. {이 꼴안 동꼴로 이려는 술발재 그쪽 꼴안 이게 십 십리평 가는 꼴안.}

10201 # 거기서 거기서 무투: 발기다리 하는데 한 니빵씩 그저 시러 내리오구 소루다 그저 한 시빵 시러내자구 그러치. {거기서 거기서 무투 발기다리 하는데 한 입방씩 그저 실어 내려오고 소로 그저 한 입방씩 실어내려오고 그렇지.}

10201 # 게서 한달리이라구 오문 한달리라고 오문 그저 한 그저 한 육씩공 육씩공씩 볼 때지 머. {그래서 한달리라고 오면 한달리라고 오면 그저 한 그저 한 육씩공 육씩공씩 볼 때지 뭘.}

10201 # 그냥: {그나무.}

10201 @ 항 공이라능 게 머요? {한 공이라는 게 뭘요?} 10201 # 그 낭근... {그 나무는...}

10201 # 한 공이라능개 공쭈루 해 가주구 한 공 두: 공 세: 공 네: 공 해서 열공이 되개서 삼십공이 돼:서 자꾸 뿌러 일러내 뿌러 뿔찌 머. {한 공이라는 게 공수로 해 가지고 한 공 두 공 세 공 네 공 해서 열공이 되어서 삼십공이 되어서 자꾸 불어 일년에 불지 뭘.}

10201 @ 예. {예.}

10201 # 일러내 보루매 이 사라미 하 아:: 한 일러내 에 삼백 메공얼 번다. {일년에 보름에 이 사람이 하 아 한 일년에 삼백 몇 공을 번다.}

10201 # 어: 삼백 메공얼 번다. {에 삼백 몇 공을 번다.}

10201 # 이러캐 하개 되면 최고지 머. {이렇게 하면 최고지 뭘.}

10201 # 게 삼백 메공 벌 쭈가 업찌. {그래 삼백 몇 공 벌 수가 없지.}

10201 # 그르키 이:를 할 쭈가 업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지.}

10201 # 그래 공썰 해 가주구 항 공애 한: 공애 칠십전 팔십전 육십전두 갈 때 이꾸. {그래 공수를 해 가지고 한 공애 한 공애 칠십전 팔십전 육십전도 갈 때가 있고.}

10201 # 송년 송년 세워런 으: 오십전두 가: 사:십전두 갈 수 이꾸. {흥년 흥년 세월에는 오십 전도 가 사십 전도 갈 수 있고.}

10201 # 풍년 세워런 그저 이룬 이룬 이십전씩 갈 쭈 이꾸 항 공애. {풍년 세월은 그저 일원 이십전씩 갈 수 있고 한 공애.}

10201 # 이거 해:서 양식 타 머거찌 머, 그걸루 해:서. {이거 해서 양식 타 먹었지 뭘, 그걸로 해서.}

10201 @ 한 공이면 양시글 얼마나 줘요? {한 공이면 양식을 얼마나 줘요?}

10201 # 예? {응?}

10201 # 한 공이면 양시글 얼마나 줘요. {한 공이면 양식을 얼마나 줘요?}

10201 # 한 공이면 그: 저 머여 공 쭈루 해 가주구 공쭈루 해: 가주구 양시글 또: 타 먹찌. 이: 사라미 삼겹 삼백공 버러따면 삼배끄널 주구. {한 공이면 그 저 뭘야 공수로 해 가지고 공수로 해 가지고 양식을 또 타 먹지. 이 사람이 삼백 삼백공 벌었다면 삼백근을 주고.}

10201 # 그러치. {그렇지.}

10201 @ 농토:는 면:저글 어트개 해요? {농토는 면적을 어떻게 해요?}

10201 @ 게사내요? {계산해요?}

10201 # 면:적? {면적?}

10201 # 논토? {농토?} 10201 @ 예, 이...{예, 이...}

10201 # 논뚜 논두 여기, {논도 논도 여기,} 10201 @ 노니나 밭, {논이나 밭,}

10201 @ 바치나 이르게 팔라면 팔구 사구 그러자나요? 그 면저기 이짜나요. {밭이나 이렇게 팔려면 팔고 사고 그러잖아요? 그 면적이 있잖아요?} 10201 # 어:. {응.}

10201 @ 어떠케 다:늬를 어떠케 파랴요? {어떻게 단위를 어떻게 팔아요?}

10201 # 아 여기 지금 저: 그 한 한 푼, 한 한 푼 한 짐 하루가리 이거 이짜니여. {아 여기 지금 저 그 한 푼, 한 푼 한 짐 하루같이 이거 있잖아.}

10201 @ 예. {예.}

10201 # 게 그걸루 하지 머 지금. {그래 그걸로 하지 뭐 지금.}

10201 @ 한 푸니만 어느 정도요? {한 푼이면 어느 정도요?}

10201 # 한 푸니면 여기서 여기서: 배 예:: 한 지매 백뿐지 이리지 머. {한 푼이면 여기서 여기서 예 한 짐의 백분지 일이지 뭐.}

10201 @ 한 지미 얼마크민대요? {한 지미 얼마큼 한테요?}

10201 # 한 지 한 지민 한 지미라면 예: 뱅 메다 거리에 열 미다개 되면 한 지미지 머. {한 짐, 한 지미 한 짐이라면 예 백 미터 거리에 십 미터가 되면 한 짐이지 뭐.}

10201 @ 한 쪼그루 뱅 메타 한 쪼그루 열 메다. {한 쪽으로 백 미터 한 쪽으로 십 미터.}

10201 # 으:. {응.}

10201 # 이 광:이 열메타 이 기럭찌가 뱅 메다개 되면 한 지미람 마리여. {이 광이 십 미터 이 길이가 백 미터가 되면 한 짐이란 말이야.}

10201 # 게 요게 요게 우리 마당이 요게 예:: 이기 두 푼 두 푸니나 될까 그르치 머, 우리 마당이 요기. {그래 요게 요게 우리 마당이 요게 애 이게 두 푼 두 푸니나 될까 그렇지 뭐, 우리 마당이 요게.}

10201 @ 그러면 한 지미 그러쿠 그러면 한 하루가리는? {그러면 한 짐이 그렇고 그러면 하루같이는?}

10201 # 하루가리는 지:미 열 개래야 하루가리지. {하루같이는 짐이 열 개라야 하루같이 지.}

10201 @ 지미 열 개면 하루가리. {짐이 열 개면 하루같이.}

10201 # 으: 으:. {응, 응.}

10201 @ 그럼 하루가리가 열 개면? {그러면 하루같이가 열 개면?}

10201 # 하루가리가 하루가리에 열 개? {하루같이가 하루같이가 열 개?}

10201 # 하루가리 열 개면 상으루 나가지. {하루같이 열 개면 상이 되지.}

10201 @ 상. {상.}

10201 # 으:. {응.}

10201 # 그: 상으루 열 쌍이다, 백 쌍이다, 수무 상이다, 이르키 나가지. {그 상으로 열 쌍이다, 백 쌍이다, 스무 상이다, 이렇게 나가지.}

10201 @ 그러면 농 저:기 등소평이: 농-토를 나눠취짜나요? {그러면 농(토) 저기 등소평이 농토를 나눠줬잖아요?}

10201 # 나눠취찌. {나눠줬지.}

10201 @ 그때: 어티개 나눠줘써요? {그때 어떻게 나눠줬어요?}

10201 # 다: 노너서 지무루 나눠줘찌 머. {다 나눠서 짐으로 나눠줬지.}

10201 # 한 짐 한 짐 한 지배... 10201 @ 그러니까 또까치 나눠줘써요? {한 짐 한 짐 한 집에.}

10201 @ 짐마다 아니면 시꾸쭈루 나눠... {집마다 아니면 식구 수로 나눠...}

10201 # 시::꾸 수루 나눠주지. {식구 수로 나눠주지.}

10201 # 노동넉 수애 따라서. {노동력 수에 따라서.}

10201 # 노동넉 수애 따라서 나눠줘찌. {노동력 수에 따라서 나눠줬지.}

10201 @ 그럼 한 사라마페 어느 정도 줘써요? {그럼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줬어요?}

10201 # 하나 한 사람 압-아페: 한 짐. {하나 한 사람 앞에 한 짐.}

10201 # 어: 한 산 사라마페 한 짐, 두 사 두 사라마페 두 사라매 아페 두: 짐 이르키 가는 수두 이꾸. {응, 한 한 사람 앞에 한 짐, 두 사람 앞에 두 사람 앞에 두 짐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10201 # 두: 바치 망:꾸 사라미 즈:그먼 더 도러갈 수두 이꾸. {두 밭이 많고 사람이 적으면 더 돌아갈 수도 있고.}

10201 @ 또까치 중 기 아니구요? {똑같이 준 게 아니구요?}

10201 # 아:니 또까치 아니지 그거두 어: 그대서 노동넉 능넉만치 줘:찌 머 다:. {아니 똑같이 아니지 그것도 그래서 노동력 능넉만큼 줬지 뭐 다.}

10201 # 서이 이썬면 서이 모거치, 너이 이썬면 너이 모거치. {셋이 있으면 셋 뭉, 넷이 있으면 네 뭉.}

10201 # 시꾸가 마:느면 더 주구. {식구가 많으면 더 주고.}

10201 @ 그러케 하면서 금방 양시기 마:나저찌요? {그렇게 하면서 금방 양식이 많아졌지요?}

10201 # 마:나지지 양꾸. {많아지지 않고.}

10201 # 이제 제 땅이니까 제건-마니 하니까 가진 방버불 다 하거덩 거기에. {이제 제 땅이니까 제것만 하니까 갖은 방법을 다 하거든 거기에.}

10201 # 김:두 잘: 땀 쭈두 이꾸. {김도 잘 땀 수도 있고.}

10201 # 널러리 매 가주구 에이 씨 공수나 따 먹짜 하등 거보다두 자기 땅이니까 인재 자기가 저서 자기가 머그니까 그 다매는 아이 한 지매서 한 지매서 열 푸대 거들 꺼 수무 푸대럴 거들 쭈두 이꾸, 그러치 머. {널러리 매 가지고 에이 씨 공수나 따 먹자 하던 것보다 자기 땅이니까 이제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 한 집에서 한 집에서 열 포대 거들 걸 스무 포대도 거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10201 # 그 다: 개방하니망까 그러치 머. {그 다 개방하니까 그렇지 뭐.}

1.2.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0105 @ 개방하구 나서 하구 개방하기 저나구 마:니 바껴짜나요 또? {개방하고 나서 하고 개방하기 전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10105 # 아::이구 마:이 바끼지 양꾸:. {아이고 많이 바뀌지 않고.}

10105 # 그제네는 농사지어두 머글 꺼뚜 업써서 길:기라든 사람들이 집채루 할 때 길:기래 아아더니면 지그문 뭐 다: 양식 밀리 가며 명는데 머. {그전에는 농사지어도 먹을 것도 없어서 길길하던 사람들이 집채로 할 때 길길하더니만 지금은 뭐 다 양식 밀려 가면서 먹는데 뭐.}

10105 # 그러나 조선사람들 지금 정아매 농사짓는 사람 한:나배끼는 업써. {그러나 조선사람들 지금 정암에 농사짓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10105 # 그담 다: 안 지여 지그면. {그 다음에 다 안 지어 지금은.}

10105 # 다: 항구까구 그저 다: 무슨 다른 닐하구 그저: 버러머꾸 지 농사 안 지어. {다 한 국 가고 그저 다 무슨 다른 일하고 그저 벌어 먹고 농사 안 지어.}

10105 @ 거기 그럼 땅은 누가 부쳐요? {거기 그러면 땅은 누가 부쳐요?}

10105 # 왕청 한:조개더리 와서 사시미 사시미장 하는데 거가 하지 머. {왕청 한족 애들이 와서 사슴 사슴목장 하는데 거기서 하지 뭐.}

10105 # 땅은 사시미장 하는데 싸다 하지. {땅은 사슴목장 하는데서 사다가 하지.}

10105 @ 사시미장? {사슴목장?}

10105 # 으: 사시미장 사시미지 사시미 키우는 데. {응, 사슴목장 사슴이지 사슴 키우는 데.}

10105 @ 예, 거기서 어트개 해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10105 # 거기서 거기서 한족떨 데리다가 농사, 정암 땅 가주구 농사지치. {거기서 거기서 한족떨 데리다가 농사, 정암 땅 가지고 농사짓지.}

10105 @ 사시미장에 거기 여러시 이쉴 쭈 이썰요? {사슴목장이 거기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10105 # 예: 거긴 마:너요 이:라는 사람두. 농사짓는 사라미꾸. {예, 거기는 많아요, 일하는 사람도. 농사짓는 사람 있고.}

10105 # 그래 거기 한조기 한조기 처:매 두: 부부 가니 두: 부부 가니 돈 배권 가주구 여기 이사와 가주구 정아매 이사와 가주구 어: 지금 삼사 년 똥아내 어영 그 대:부자 똥:는데. {그래 거기 한족이 한족이 처음에 두 부부 간이 두 부부 간이 돈 백원 가지고 여기 이사와 가지고 정암에 이사와 가지고 여기 이사와 가지고 어 지금 삼사 년 동안에 그 대부자 되었는데.}

10105 # 게 새복 새복 발써 네 시면 다가서 나그네 투라지 몰지 양까이 투라지 몰지 두:리 서루 몰구 지비 가추 가지. {그래 새벽 새벽 벌써 네 시면 나가서 남편 경운기 몰지 아내 경운기 몰지 둘이 서로 몰고 집에 같이 가지.}

10105 # 이래 가주구서 그 다매 당 미기지 돼:지 미기지 뭐: 소 미기지 그래 투라지 가주구 하지 뭐: 그래 가주구 하능 게 대:부자 돼:써 지금.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닭 먹이지 돼지 먹이지 뭐 소 먹이지 그래 경운기 가지고 하지 뭐 그래 가지고 하는 게 대부자 되었어 지금.}

10105 # 아치미 저녁 저녁기두: 달빠미면 그 저 기개 가주구 받 홀치질 가는데 머. {아침에 저녁 저녁에도 달밤이면 그저 기계 가지고 밭 홀치질 가는데 뭐.}

10105 # 안 머 저녁기두 그래서 달빡 다리 너머가면 밭새 지베 드루와 자구 그 이튿날 새 보기면 또 가구... {아 뭐 저녁에도 그래서 달밤 달이 넘어가면 밭새 집에 들어와 자고 그 이튿날 새벽이면 또 가고...}

10917 @ 거기 정암 그쪼개 산애: 버서시나 나물가통 거뚜 마:니 나자나요? {거기 정암 그쪽

에 산에 버섯이나 나물같은 것도 많이 나잖아요?}

10917 # 마:이 나요. {많이 나요.}

10917 @ 어떻 거뜨리 이썬요? 거기 사내서 나능 거. {어떤 것드리 있어요? 거기 산에서 나
는거.}

10917 # 사내 나 정아매서 나니까 고사리 머: 산내 가서 뽑자면 만:치 머. {산에 나(는) 정
암에서 나니까 고사리 뭐 산에 가서 뽑자면 많지 뭐.}

10917 # 버서시느 가:진 버섯 다: 이썬 머. {버섯은 갖은 버섯 다 있지 뭐.}

10917 # 여러 가지 버서시 다 군대버섯뚜 이꾸 뭐 참나무 저 귀버섯뚜 이꾸 머 그 다맨 이
썬 예: 저 송이버섯뚜 이썬 머. {여러 가지 버섯이 다 분대벗도 있고 뭐, 참나무 저
귀버섯도 있고 뭐 그 다음에는 이 저 예 저 송이버섯도 있지 뭐.}

10917 # 그래 버섯뚜 그러꾸 이짜개 거기서 주로 저 게 사내 인는 사라면 산 뜨더 머구 살
구 바다 끼구 인는 사람 바다 뜨더 머꾸 산:다 그러자내여. {그래 버섯도 그렇고
이쪽에 거기서 주로 저 그래 산에 있는 사람은 산 뜯어 먹고 살고 바다 끼고 있는
사람은 바다 뜯어 먹고 산다 그러잖아.}

10917 # 그기 다: 그래 사내 인는 사라면 산 뜨더 머꾸. {그게 다 그래 산에 있는 사람은
산 뜯어 먹고.}

10911 @ 약초두 이썬 안나요? {약초도 있지 않아요?}

10911 # 예? {예?}

10911 @ 약초. {약초.}

10911 # 약초두 마:너요. 거가 어디구. {약초도 많아요. 거기가 어디고.}

10911 @ 어떻 거뜨리 이썬요, 약초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약초예?}

10911 # 여기 저: 천마라능 거 이짜너? {여기 저 천마라는 거 있잖아?}

10911 # 그렇 거뚜 이꾸. {그런 것도 있고.}

10911 # 그 다매 저 저: 행개두 이꾸 도라지두 이꾸 더덕뚜 이꾸 머: 그 다매 저 저: 그 저:
야기르물 다 몰라 그러치. {그 다음에 저 저 황기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더덕도 있
고 뭐 그 다음에 저 저 그 저 약 이름을 다 몰라 그렇지.}

10911 # 청궁이랑 거뚜 이꾸 세시니라능 거뚜 이꾸, 머 만:너요, 거기. {천구이라는 것도 있
고 세신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아요, 거기.}

10911 @ 그때 여기 여기 양수에 사시느 부닝가 누가 거기 산삼두 캐구 그래따면서요? {그
때 여기 여기 양수에 사시느 분인가 누가 거기 산삼도 캐고 그랬다면서요?} 10911
예:, 산삼두 캐구. {예, 산삼도 캐고.}

10911 # 저기 저 바귀눔이 산삼 캐서 머꾸서 코까 빨개져서 홍코라 그래자네요. {저기 저
박원용이 산삼 캐서 먹고서 코가 빨개져서 홍코라 그러잖아요.}

10911 # 자기가 자기가 캐다 머꾸. {자기가 자기가 캐다 먹고.}

10911 @ 요새:두 이썬요? {요새도 있어요?}

10911 # 업:썬요 전 썬이 저: 삼 삼매하년 사람더리 몰:래 땡기지 공개 아내요. {없어요 이
젠 저 저 삼 삼매하는 사람들이 몰래 다니지 공개 안해요.}

10911 # 공개하구 땡기는 데 업썬요. {공개하고 다니는 데 없어요.}

10911 # 다: 몰:래 땡기지. {다 몰래 다니지.}

10911 @ 근대 그분 사라썬요? {그런데 그분 살았어요?}

10911 # 사라썬 이썬. 지금 뭉구 치러 땡기년데. {살았어 있어. 지금 뭉구치러 다니는데.}

10911 @ 요새두 그거 캐러 다녀요? {요새도 그거 캐러 다녀요?}

10911 # 예? {예?}

10911 @ 요새두 캐러 다녀? {요새도 캐러 다녀요?}

10911 # 아이 요새는 가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몰라요 요새는. {아이 요새는 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요새는.}

10911 # 가망가만 땡기는 기 누기 알:면 안 된다 마리어. {몰래몰래 다니는 게 누가 알면 안 된단 말이야.}

10911 # 그래서 그 다매... {그래서 그 다음에...}

10911 @ 아니. {아니.}

10911 # 어느 지저멀 지저멀 알:개 되면 지 혼자 땡기지. {어느 지점을 지점을 알게 되면 자기 혼자 다니지.}

10911 @ 그래두 캐 오면 머 팔 꺼 아니요? {그래도 캐 오면 뭐 팔 것 아니예요?}

10911 # 암 파려요. {안 팔아요.}

10911 # 즈 친척뜰개 해서 그냥 즈 친척드래서 어디 통해서 그저 이르게 해서 마르구 그냥 어트가년지 어티기 소모하년지 그건 모르지 머. {자기 친척들한테 해서 그냥 자기 친척들 어디 통해서 그저 이렇게 해서 말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소모하는지 그건 모르지 뭐.}

1.2.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0104 # 정아매 꾸:라는 사람드리 마:나요. {정암에 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104 @ 그저넌 업써똥 거 가튼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0104 # 꿀? {꿀?}

10104 @ 예. {예.}

10104 # 그저내두 이써써요, 인는데. {그저에도 있었어요, 있는데.}

10104 # 그거뚜 하자면 힘드려요, 그뚜:. {그것도 하자면 힘들어요, 그것도.}

10104 # 정신상 노 정신 노동이 영: 쎄:요. {정신상 노 정신 노동이 아주 세요.}

10104 # 힘든 노동언 움는대. {힘든 노동은 없는데.}

10104 # 정신 노동이 쎄:지. {정신 노동이 세지}

10104 # 그 보:(오/어 간음)리 날러가따 드리와따 하구 그거 병이 병 그(오/어 간음) 어티기 개 돼:서 병이 걸리능가. {그 벌이 날아갔다 들어왔다 하고 그 병이 병이 어떻게 돼서 병이 걸리는가.}

10104 # 그 다매 그렇 거 다: 장아개야 되구 그 다매 저: 보:리 무승 꾸리 지금 드려오능가.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장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벌이 무슨 꿀이 지금 들어오는가.}

10104 # 그래 요거 다: 장아가구 그거 다: 아려야지 하지. {그거 요거 다 장악하고 그거 다 알아야지 하지.}

10104 # 이 자 날개 미티 날개 미티 여기 거 후루루루루 나르는 날개 미티 요런 디 진드기 끼게 되면 거 어'트기 돼서 날개를 저러게 나능가. {이 저 날개 밑에 날개 밑에 여기 거 후루루루루 나는 날개 밑에 요런 데 진드기가 끼게 되면 그 어떻게 돼서 날개를 저렇게 나는가.}

10104 # 이 드르가능 거 디다보구 다: 아려야지 그 다:, 호호호호. {이 들어가는 거 들여다 보고 다 알아야지 그 다, 호호호호.}

10104 # 진디기가 끼면 별써 버런 소멸되니까. {진드기가 끼면 별써 별은 소멸되니까.}

10104 # 그래서 그서 무슨 야질 탁 쳐주면 그 다매 진디기만 딱 주꾸서 일:웁쎄.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약을 탁 쳐주면 그 다음에 진드기만 딱 죽고서 괜찮지.}

10104 # 군대시기여 군대식. {군대식이야 군대식.}

10104 # 보:리가 딱 군대시기지. {별이 딱 군대식이지.}

10104 @ 어어:. {아아.}

10104 # 거 꿀 무려 가주구 드려오능 건 보초병이 디리보내두 빙: 결루 드르가능 건 안 디려보내요. {그 꿀 물어 가지고 들어노는 건 보초병이 들여보내도 빈 결로 들어가는 건 안 들여보내요.}

10104 # 안 디려보내요. {안 들여보내요.}

10104 # 그냥 난 물구 주 자부댕기 가주구 그 다매 싸멸 하개 되면 저버드러서 왁: 저버드러서 그누멸 주겨빠리지. {그냥 물고 잡아당겨 가지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면 접어들어서 왁 접어들어서 그놈을 죽여버리지.}

10104 # 그냥 그개 군대시기지. {그냥 그래 군대식이지.}

10104 @ 별두 그래요? {별도 그래요?}

10104 # 어:. {예.}

10104 # 게 별:두 새끼치기 하능 게: 한나지 한나 왕: 왕: 한나지. {그래 별도 새끼치기 하는 게 하나지 하나 왕 왕 하나지.}

10104 # 왕 한나가 여기다가 새끼 왕을 하나 키워땀 마리며. {왕 하나가 여기다가 새끼 왕을 하나 키웠단 말이야.}

10104 # 이 새끼 왕이 다: 커서 나오면 새 왕보다 노왕이 노왕이 이 새끼 왕에 미리주구 나오지. {이 새끼 왕이 다 커서 나오면 새 왕보다 노왕이 노왕이 이 새기 왕에 밀어주고 나오지.}

10104 # 나와서 딴 디 살리물 나간다 마리며. {나와서 딴 데 살림을 나간단 말이야.}

10104 @ 노왕이 나와요? {노왕이 나와요?}

10104 # 으:, 노왕이. {응, 노왕이.}

10104 # 나오문 그게 어디 가 안능가: 해서는 그 다매 확:: 별:드리 그냥 막 그 왕얼 둘러싸고 뭉치를 이르키 지어 가주구 망 날러가지. {나오면 그게 어디에 가 앓는가 해서는 그 다음에 확 별들이 그냥 막 그 왕을 둘러싸고 무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막 날아가지.}

10104 # 게:: 무슨 무슨 어 비하문 줄까. {그래 무슨 무엇에 어 비하면 좋을까.}

10104 # 이: 항 개 그 버리가 쌍::쌍 돌면서 돌면서 그 뭉치렐 해 가주구선 가다가 어디 낭기나 양꺼나 그 다매 이러지무니 그 다매 가서 그: 자버 오지. {이 한 개 그 별이 쌍쌍 돌면서 돌면서 그 무리를 해 가지고는 가다가 어디 나무나 앓거나 그 담에 이러면 그 다음에 가서 그 잡아 오지.}

10104 # 자버 와서넌 사까시나 머 가따가 이르키 대구 그 둥지를 딱 다오면 왕은 그 아내 이꺼딩. {잡아 와서는 샷갯이나 뭐 가져다 이렇게 대고 그 둥지를 딱 담으면 왕은 그 안에 있거든.}

10104 # 그래잉까 왕 따라서 또 다: 오지. {그러니까 왕 따라서 또 다 오지.}

10104 # 그럼 별:통얼 새 별통얼 하나 가따 떡 차려노쿠 거기다 지버여쿠 보, 섭 소:처벌 여주먼 거기 다: 이찌. {그럼 별통을 새 별통을 하나 가져다 떡 차려놓고 거기에다 집어넣고 섭, 소초를 넣어주면 거기에 다 있지.}

10104 # 그걸 로치게 되면 한 삼십니씩 가능 게 이썬요, 함 번 나르먼. {그걸 농지게 되면 한 삼십리씩 가능 게 있어요, 한 번 날면.}

10104 # 그래 그걸 모차즈먼 그냥 말구. {그래 그건 못 찾으면 그냥 말고.}

10104 # 그 다매 이: 새:: 왕이 인재 아래서 나와 가주구 교배할 때는 까::마캐 올라가지. {그 다음에 이 새 왕이 이제 알에서 나와 가지고 교배할 때는 까망게 올라가지.}

10104 # 올라가다가 순 수꺼뜨리 또 막:: 따러 올라간다 마리어. {올라가다가 숯 수컷들이 또 막 따라올라간단 말이야.}

10104 # 막: 따러 올라가서 까::마캐 올라가서 웬: 힘 생 게 교배럴 하지. {막 따라올라가서 까망게 올라가서 제일 힘이 센 게 교배를 하지.}

10104 # 그 다매 함 번 교배하구 드리오면 일쌍이지 그저. {그 다음에 한 번 교배하고 들어 오면 일쌍이지 그저.}

10104 # 일쌍동안 아릴 까지. {일쌍동안 알을 까지.}

10104 # 그저 이릉 기여. {그저 이런 거야.}

10104 # 그래 그래서 그 다매 알: 여기다 미공지루 똥 니 요 소초 요 요망크망 공개 인는 쪼고망 공개 담배 공개망크망 거 요런 공개애다가 아릴 하나씩 똑똑 떨어지.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알 여기에다 밑에 꼭 이 요 소초 요 요만큼한 구멍 있는 조그만 구멍 담배 구멍만큼한 거 요런 구멍에다 알을 하나씩 똑똑 떨어뜨리지.}

10104 # 그라만 그게 노동빠리 새끼칭기라 마리어. {그러면 그게 노동별이 새끼친 거란 말 이야.}

10104 # 그래 그르키 나오능 기지 노동빠리가 새끼 치능 게 아니여.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지 노동별이 새끼 치는 게 아니야.}

10104 # 그래 거 또 수빠리가 수빠리가 지내 마:느면 꾸리 마니 업썬진다 마리어. {그래 그 또 수별이 수별이 너무 많으면 꿀이 많이 없어진단 말이야.}

10104 # 그럼 노동빠리가 수빠리럴 공격개서 주겨빠리지 머. {그러면 노동별이 수별을 공격 해서 죽여버리지 뭐.}

10104 # 이건 이건 꿀 무려 드리오능 긴 아니거덩, 수빠리넌. {이건 이건 꿀 물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수별은.}

10104 # 그 다매 인능 거만 파명능 기람 마리어 그건. {그 다음에 있는 것만 파먹는 거란 말이야 그건.}

10104 # 나두 메 통 가주구 해: 보다가 그래 형니미 형니미 꾸래 꾸루 잘하지 머. {나도 몇 통 가지고 해 보다가 그래 형님이 형님이 꿀에 꿀을 잘하지 뭐.}

10104 # 게 메 태 메 통 가주구 너 이거 가주구 한 통 가주구 해: 봐라. {그래 몇 통 몇 통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한 통 가지고 해 봐라.}

10104 # 게: 그거 가주구 일:'런 험능가 일런 해따가서 내 꿀리 마이 드러와찌. {그래 그거 가지고 일년 했는가 일년 했다가 내 꿀이 많이 들어왔지.}

10104 # 겐데 형님 꾸리 한 여나무 통 된다 마리어. {그런데 형님 꿀이 한 여나무 통 된단 말이야.}

10104 # 근데 형님 꾸리 예: 꾸리 읍써서 그 다매 내: 소초릴 뽀버서 거기다 가따 여야지.

{그런데 형님 꿀이 에 꿀이 없어서 그 다음에 내 소초를 뽑아서 거기에다 가져다 넣어야지.}

10104 # 그래 다: 줘 빠리구 마러찌 머. {그래 다 줘 버리고 말았지 뭐.}

10104 # 게 거거 칼루 까꺼줄 때 까꺼주구 소초 가리 여줄 때 가리 여주구 그다맨 다: 손질 해여 손질 마니 해여 돼. {그래 거기 칼로 깎아줄 때 깎아주고 소초 갈아 넣어줄 때 갈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다 손질해야 손질 많이 해야 돼.}

10104 # 그래 드문드문 여러 보지 별통. {그래 드문드문 열어 보지 별통.}

10104 # 뚜개르 열:구 거기 더푼 보:루 보루 열:구 그래할 쟈 버리 확: 저버들지. {뚜껑을 열고 거기 덮은 보를 보를 열고 그렇게 할 때 벌이 확 접어들지.}

10104 # 그래 먼 면망얼 쓰구서 쓰구서 하지. 그래 버:리가 자기 주이널 냄새럴 알:지. {그 래 먼 면망을 쓰고서 쓰고서 하지. 그래 벌이 자기 주인을 냄새를 알지.}

10104 # 그래먼 하:나두 안 쏘지 머. {그러면 하나도 안 쏘지 뭐.}

10104 @ 아려요? {알아요?}

10104 # 아려요. {알아요.}

10104 @ 어::. {아.}

10104 # 게: 주:이니 마낙쎄 주거쎄 때 해: 해쎄 쟈개 뷔:리가 몽땅 상보걸 이버요. {그래 주인이 만약에 죽었을 때 했을 적에 벌이 몽땅 상복을 입어요.}

10104 # 새타야캐. {새하양게.}

10104 # 여 허리에다 허리에다 새타야캐. {여기 허리에다 허리에다 새하양게.}

10104 # 이: 벌: 미기던 사라미 주구먼 버리가 몽::땅 새타야캐 여: 저: 노 노동빠리가 요 허리띠 인는 디 고기다 새타얀 점 하낙씩 다:: 이찌. {이 벌 먹이던 사람이 죽으면 벌이 몽땅 새하양게 여 저 노 노동벌이 요 허리띠 있는 데 고기에다 새하얀 점 하 낙씩 다 있지.}

10104 # 헤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

10104 @ 그걸 어트개 아려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10104 # 어이구 자:라려요, 주구먼. {아이고 잘 알아요, 죽으면.}

10104 # 상보걸 입는다 마리어. {상복을 입는단 말이야.}

10104 # 벌:배끼 군대시기 업쎄요, 군대. {벌밖에 군대식이 없어요, 근대.}

10104 # 지금까지 그뚜 기우리엔 다다난데... {지금까지 그것도 규율이 대단한데...}

10104 # 그라구 한 마리가 어디 도러맹기다가 꾸르 조:은 디럴 만내따 마리어. {그리고 한 마리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꿀을 좋은 데를 만났단 말이야.}

10104 # 게 저:르 만나게 되면 그대 즈:덜끼리두 소리한다 마리어. {그래 저르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소리한단 말이야.}

10104 # 즈덜끼리 소리내능 거 안다 마리어, 서루가. {자기들끼리 소리내는 거 안단 말이 야, 서로가.}

10104 # 그래 가주구서 데르구 가. {그래 가지고 데리고.}

10104 # 데리구 가서넌 거 가서 다: 무러 오지, 꾸럴 무러 오지. {데리고 가서는 거기 가서 다 물어 오지, 꿀을 물어 오지.}

10104 # 게 여기서 한 십니 되는 데두 가:서 무러 오구 그 그래지. {그래 여기서 한 십리 되는 데도 가서 물어 오고 그 그러지.}

10104 @ 여기서는 무슨 꾸:리 마:니 나요? {여기서는 무슨 꿀이 많이 나요?}

10104 # 싸리꼬타구 피나무꼴. {싸리꽃하고 피나무꽃.}

10104 # 이게 마:이 나지. {이게 많이 나지.}

10104 # 그 다매 이: 보매 드러와서 잡 잡채꿀 잡꿀 작꿀 이 잡채꼴-세서 디리오닝 거 이게 게 제일 야:구루 쓰능 건 제일 중 건 이 잡채꾸리 제:일 조:치. {그 다음에 이 봄에 들어와서 잡 잡채꿀 잡꿀 잡꿀 이 잡채꽃에서 들어오는 거 이게 그래 제일 약으로 쓰는 건 제일 좋은 건 이 잡채꿀이 제일 좋지.}

10104 # 잡채꾸리 여::러 가지 여러 백 까지 꼬시라 마리어 그게. {잡채꿀이 여러 가지 여러 백 가지 꽃이란 말이야 그게.}

10104 # 그 꼬테 나오넌 수부넌 따 오지. {그 꽃에 나오는 수분을 따 오지.}

10104 # 그래서 꾸리 요: 구녀개 구녀개 꼬리 다: 차따 하쓸 찌개는 이걸 봉해 빠린다 마리어, 즈:덜끼리 다: 이르키. {그래서 꿀이 요 구멍에 구멍에 꿀이 다 찻다 했을 적에는 이걸 봉해 버린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10104 # 거기서 그 다매 다른 통에 꺼 야카게 되면 다른 통에 꺼 도둑질해 오지 또. {거기에서 그 다음에 다른 통에 거 약하게 되면 다른 통에 거 도둑질 해 오지 또.}

10104 @ 그르캐두 해요? {그렇게 도 해요?}

10104 # 예: 다르 드러올 꺼 도둑씨래 온다 마리어. {예, 다른 통에 거 도둑질해 온단 말이야.}

10104 # 드르가서 즈 자치 즈가 가서 그 꾸릴 다: 흠쳐 오지. {들어가서 자 자기 자기들이 가서 그 꿀을 다 흠쳐 오지.}

10104 # 게 모:둠쳐 가게 하느라구 또 싸:미 버러지지 거기서. {그래 못 흠쳐 가게 하는라고 또 싸움이 벌어지지 거기서.}

10104 # 그: 서루 물구 자부자부댕기구 저기 할 찌개 아: 아: 도둑 보미 도둑 보리 드러꾸나. {그 서로 물고 잡아당기고 저기 할 적에 아 아 도둑 벌이 도둑 벌이 들었구나.}

10104 # 대번 주이니 아려야지 게 알:구선 방비한다 마리어 별써. {대번 주인이 알아야지 그래 알고는 방비한단 말이야 별써.}

10104 # 버:리라능 게 그래요. {별이라는 게 그래요.}

10104 @ 그거뚜 마:니 아려야 되젠내요? {그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10104 # 마:니 아려야 되지요. {많이 알아야 되지요.}

10104 # 거 한다구 거저 꾸리라구 해서 거저 뜨능 게 아니요. {그 한다고 그저 꿀이라고 해서 거저 뜨는 게 아니요.}

10104 # 그 다:: 살굴 쫄 알:구 신봉어 새루 온 노동빠리털 마:니 널 쫄 알구 수짜가 망:키 때매 메 천 군사털 가 데리구 와 이씨여지, 뎡망 군사털. {그 다 살릴 쫄 알고 신봉을 새로 온 노동벌을 많이 널 쫄 알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 천 군사를 가 데리고 와 있어야지, 몇 만 군사를.}

10104 # 그 군사기 때매 메즈망 군사를 데리구 와 저: 널 쫄 이씨야지. {그 군사기 때문에 몇 십만 군사를 데리고 와 저 널 쫄 수 있어야지.}

10104 # 그애 노동빠리털 번식걸 마:니 씨길 때는 만:니 씨기구 그 다매 또 가으래 가서는 쫄구구. {그래 노동벌 번식을 많이 시킬 때는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가서는 줄이고.}

10104 # 게 보매 가서는 통얼 늘'구지. {그래 봄에 가서는 가서는 통을 늘리지.}

10104 @ 어트개 졸구구 늘귀요? {어떻게 줄이고 늘려요?}

10104 @ 왕:별 하나에 한 통일 꺼 아니요? {왕별 하나에 한 통일 거 아니에요?}

10104 # 왕:별 하나에 한 통 아니여. {왕별 하나에 한 통 아니야.}

10104 @ 예. {예.}

10104 # 그대 한: 통에서 한 통에서 세: 통까지는 뿔군다 마리여. {그 다음에 한 통에서 한 통에서 세 통까지는 불린단 말이야.}

10104 @ 한 해애? {한 해에?}

10104 # 으:, 한 해. {응, 한 해에.}

10104 # 게 어터: 그러능가 하닝까 세 통 아니라 세: 통아 아나라 네다섯 통두 뿔굴 쑤 이 따 마리여. {그래 어떻게 그러능가 하면 세 통 아니라 세 통 아니라 네다섯 통도 불릴 수 있단 말이야.}

10104 # 이 한 통에서 이 한 버:리가 한 통얼 가주구 이썬넌데 수짜가 망::크덩, 노동빠리가. {이 한 통에서 이 한 벌을 한 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숫자가 많거든, 노동별이.}

10104 # 그래 그 그런 그러면 노동빠리만 따루 가두지. {그래 그 그런 그러면 노동별만 따로 가두지.}

10104 # 따두 다루 소초털 줘서 따루 하지. {따로 따로 소초를 줘서 따로 하지.}

10104 # 머 그거: 거기는 왕:이 업따 마리여. {뭐 그거 거기는 왕이 없단 말이야.}

10104 # 그래대면 노동빠리가 제 머글 꺼 하구 이쓰면서 왕:이 읍따능 거 설버서. {그렇게 되면 노동별이 제 먹을 거 하고 있으면서 왕이 없다는 것이 서러워서.}

10104 # 그 다맨 거기다 가따 여:주면, 왕얼 자버서 요리캐 자버서 저까치루 요리캐 또 살러:리 지버 가주구 그: 병사리한테 여:서 거기 가따 주지, 쏘더 여치. {그 다음에는 거기다 가져다 넣어주면, 왕을 잡아서 요렇게 잡아서 젓가락으로 요렇게 또 살며시 집어 가지고 그 병에 넣어서 거기 가져다 주지, 쏟아 넣지.}

10104 # 그래덩 거 가서 아르 쿼: 쓴다 마리여. {그런 다음에는 거기에 가서 알을 콕 쏘는단 말이야.}

10104 # 노동빠리는 만:치 새끼는 업찌 아니까 아르 짹:: 부지러니 쓸지. {노동별은 많지 새끼는 없지 하니까 알을 짹 부지러니 쓸지.}

10104 # 그래 소초애만 쓰러따 할 썩개 디다 보면 딱 저: 바늘귀 바늘귀보다 더 자근 고런 거 가따 새타양 걸 푹푹푹 푹푹 떨귀 노치. {그래 소초애만 쏘었다 할 적에 들여다 보면 딱 저 바늘귀 바늘귀보다 더 작은 그은 걸 갖다 새하얀 걸 푹푹푹 푹푹 떨어뜨려 놓지.}

10104 # 게 떨귀 노면 그 다맨 거기서 아: 살란 다: 해꾸나. {그래 떨어뜨려 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아 산란 다 했구나.}

10104 # 그 다매는 거기다가 왕대를 하나 다라 주지.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 왕대를 하나 달아 주지.}

10104 # 왕대라능 게 왕으루 될 쑤 인는 그: 아:'르 거기다 거기다 가따 푹 띠어서 딱 부쳐 주지. {왕대라는 게 왕으로 될 수 있는 그 알을 거기에다 거기에다 가져다 푹 떼어서 딱 붙여 주지.}

10104 # 그럼 노동빠리가 그: 왕버르 그냥 메겨 살린다 마리여. {그러면 노동별이 그 왕벌을 그냥 먹여 살린단 말이야.}

10104 # 게 보위해서 살구지. {그래 보위해서 살리지.}

10104 # 그담 이기 인재 왕이 되면 거기 그냥 또 해서 하나 또 불귀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왕이 되면 거기 그냥 또 해서 하나 또 불렸지?}

10104 # 게 빨군 데서 또 빨군다 마리어. {그래 불린 데서 또 불린단 말이야.}

10104 # 게 또 그르케 자주 다서여서 통 빨굴 쭈 이찌, 잘: 되게 되면 머걸 게 마:느면. {그래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섯여섯 통 불릴 수 있지, 잘 되면 먹을 게 많으면.}

10104 # 게 한 통애 지금 팔구 싸능 게 보통 머 한 통애 오:배권 그저 처닌 이르케 하지 지금 한 통애. {그래 한 통애 지금 받고 사는 게 보통 뭐 한 통애 오백원 그저 천원 이렇게 하지 지금 한 통애.}

10104 @ 별: 한 통애요? {별 한 통애요?}

10104 # 으: 불:(불/별 간음) 한 통애. {응, 별 한 통애.}

10104 @ 비싸네요? {비싸네요?}

10104 # 비싸장쿠. {비싸지 않고.}

10104 # 그게 한 통애서 나:서 살림 나서 그 다매 분가하게 되면 그 가부치 다: 나오능 기여. {그게 한 통애서 나서 살림 나서 그 다음에 분가하게 되면 그 값어치 다 나오는 거야.}

10104 # 꿀: 항그내 시보원썰만 해두 배 끄니면 얼마여 일빠고시번 아니여 별써. {꿀 한 근에 십오원씩만 해도 백 근이면 얼마야 일백오십원 아니야 별써.}

10104 # 세: 통애서 뽀부면 얼마여. {세 통애서 뽀으면 얼마야.}

10104 # 게 다 계사내서 하능 건데. {그래 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10104 # 네: 통 다서 통애서 뽀부면 별써 얼마 꾸러 꾸릴 세: 번 어:: 그러이까 이:: 잡채꾸래서 두세 번 쓴다 마리어. {네 통 다섯 통애서 뽀으면 별써 얼마, 꿀을 꿀을 세 번 에 그러니까 이 잡채꿀에서 두세 번 뜯단 말이야.}

10104 # 잡채꾸래서 두세 버늘 뜨지 일쭈이래 함 번씩 뜯다 마리어. {잡채꿀에서 두세 번을 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뜯단 말이야.}

10104 @ 자주 뜨내요? {자주 뜨네요.}

10104 # 자주 떠, 자주 마:이 무러 오니까 자주 떠야지. {자주 떠, 자주 만히 물어 오니까 자주 떠야지.}

10104 # 그 다맨 아:: 피나무 꼬새서 또 그르케 서너너더 뽀 뜯다 마리어. {그 다음에는 에 피나무 꽃에서 또 그렇게 서너너댓 번 뜯단 말이야.}

10104 # 그 다맨 이 싸:리꼬새서 또 뜨지. {그 다음에는 이 싸리꽃에서 또 뜨지.}

10104 # 그 다매는 업썰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10104 # 그 다매는 인재 드문:드문 무러오능 게 이찌. {그 다음에는 이제 드문드문 물어오는데 게 있지.}

10104 # 그 다매 제: 양시기나 델까 말까 그저 이르키 버러 디리오지. {그 다음에 제 양식이나 될까 말까 그저 이렇게 벌어 들여오지.}

10104 # 인제 마:이 싸: 노면 양시기 마:느면 안 무러와여. {이제 많이 쌓아 놓으면 양식이 많으면 안 물어와요.}

10104 # 드르안저 쉬시가구 먹찌. {들어앉아 휴식하고 먹지.}

10104 #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10104 # 그렁 기여. {그런 거야.}

10104 @ 겨우래는 어트개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10104 # 겨우래 과:동 씨기지. {겨울에 과동시키지.}

10104 # चुष지 아는 데다 가따, 영도 영도 좌오. {츄지 았은 데다 가져다, 영도 영도 좌우.}

10104 # 땅 쏘개다 구털 파구 과:동씨킨다거나 호근 지바내다 온도털 온도기털 거러 노쿠
그 다매 지바내다 창고털 지꾸 지바내다 한다거나 게 이르키 과동 씨기지. {땅 속
에다 굴을 파고 과동시킨다거나 혹은 집 안에다 온도를 온도계를 걸어 놓고 그 다
음에 집 안에다 창고를 짓고 집 안에다 한다거나 그래 이렇게 과동시키지.}

10104 @ 겨우래는 그럼 머 머구 사려요? {겨울에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10104 # 겨우래 이제 꿀 머꾸 살:지 그: 별:드른. {겨울에 이제 꿀 먹고 살지 그 별들은.}

10104 @ 그러잉까 꿀 사:라미 다 뜨면... {그러니가 꿀을 사람이 다 뜨면...}

10104 # 떠써두 양시근 조:야지. {떴어도 양식은 줘야지.}

10104 # 머꾸 살 양시근 조:야지 다: 드능 기 아니라 썉: 뜨능 기 아니라. {먹고 살 양식은
줘야지 다 뜨는 게 아니라 썉 뜨는 게 아니라.}

10104 # 게 메 쏘초면 동삼 나개따. {그래 몇 소초면 동삼 나쥔다.}

10104 # 꾸르 등 게 메 쏘초면 동삼 나개따 이게 다: 아려야지. {꿀이 든 게 몇 소초면 동
삼 나쥔다 이걸 다 알아야지.}

10104 # 그래 보매 가서 다: 머꾸 동사매 추우면 꿀만 파머꺼덩, 추우면. {그래 봄에 가서
다 먹고 동삼에 추우면 꿀만 파먹거든, 추우면.}

10104 # 더우면 줌 들: 파머꾸. {더우면 줌 덜 파먹고.}

10104 # 그래서 끄러지 양시기 모:지라면 또 머 어트가능가 하겐 사탕가루 무털 타라 타서
거기다 주지. {그래서 끄렇게 양식이 모자라며 또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탕가루
물을 타서 타서 거기에다 주지.}

10104 @ 겨우래요? {겨울예요?}

10104 # 으: 으:, 양시기 모:지래면. {응 응, 양식이 모자라면.}

10104 # 모지라지 양개 해야지 머. {모자라지 않게 해야지 뭐.}

10104 # 아이구 고만 해요. {아이고 그만 해요.}

파일 번호: 43

CJL_DM_43

파일 내용: 제1편 구술발화: 발농사,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소 기르기, 의생활(목화, 삼), 누
에치기

조사자: 박경래

주제보자: 이용안(남, 1928년생)

보조제보자: 신명옥 (제보자 이용안 할아버지의 부인)

제보자 주소: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철북 1조(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에서
2001년에 이사)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 일시: 2011년 7월 22일

전사자: 박용희, 박경래

시간: 1시간 52분 40초

1.4. 생업 활동

10307 # 농사진능 건... {농사짓는 건...}

10307 @ 어뜨케 지어요? {어떻게 지어요?}

10307 # 가:대기루 콩바까리르 하지. {가대기로 콩밭갈이를 하지.}

10307 @ 예:. {예.}

10307 # 콩빠까리르 할 때 예:: 웬: 처:매 달구지나 술기에다가 가대기 시:꾸 종자 시:꾸 그 다매 소 두 바리 끌구 그 다매 에 저 머여 사람 두:리 가지. {콩밭갈이를 할 때 에 맨 처음에 달구지나 술기에다가 가대기 싣고 종자 싣고 그 다음에 소 두 바리 끌고 그 다음에 에 저 뭐야 사람 둘이 가지.}

10307 # 그러면 인저 그 바태 가:서 반머리에서 소릴 다 메우지 가대기르, 으: 가대기애다. {그러면 이제 그 밭에 가서 밭머리에서 소를 다 메우지 가대기를, 응 가대기애다.}

10307 # 다: 메운 다매 그 다맨 간다 마리어. {다 메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간단 말이야.}

10307 # 갈:면 질따물 지구 떡 갈 때 흑빠비 착착착 너머가면서 가자너? {갈면 길담을 지고 떡 갈 때 흙밥이 착착착 넘어가면서 가잖아?}

10307 # 게 뒤 따러 오년 사라미 혼자: 거르면 잡 저:: 뽕뽕뽕뽕라개 자빠질 쑈 이찌. {그래 뒤 다라 오는 사람이 혼자 걸으면 잡 저 뽕뽕뽕뽕하게 넘어질 수 있지.}

10307 # 그렇 거 자오걸 쳐서 간다 마리어. {그런 거 자국을 쳐서 간단 말이야.}

10307 # 지팡이르 하나 지꾸. 종자 따래끼는 여기다 들구 한짜근 지팡이를 지꾸. {지팡이를 하나 집고. 종다 다래끼는 여기다 들고 한쪽은 지팡이를 집고.}

10307 # 그래서 자옥걸 툅툅툅툅 치구 나가지. {그래서 자국을 툅툅툅툅 치고 나가지.}

10307 # 콩 함 포기 어가내 예:: 에 십센찌 그래니까 오:센찌나 십센찌 게 그거 노쿠서 십센찌면 요거 하나거덩. {콩 한 포기 어간에 에 에 십센티미터 그러니까 오센티미터 나 십센티미터 게 그거 놓고 십센티미터면 요거 하나거든.}

10307 # 그래 이거 하나 어가늘 척척척척 지지지. 그래 밭 꼬테서 이 바리 이 밭 꼬트머리 서버터 디디구 이 바리 이 밭 꼬트머리서 코코코코 찌머 소 가는대루 따러 가지 그 바꼬랑. {그래 이거 하나 어간을 척척척척 디디지. 그래 밭 끝에서 이 밭이 이 밭 꼬트머리에서부터 디디고 이 밭이 이 밭 꼬트머리에서 쿡쿡쿡쿡 찌면서 소 가는 대로 따라 가지 그 밭고랑.}

10307 # 자옥걸 툅 이르키 쳐 놔따 마리어. {자국을 툅 이렇게 쳐 놔단 말이야.}

10307 # 그담 반머리 가서 소: 도:러와야 된다 마리어. {그다음에는 밭머리에 가서 소가 돌아와 된단 말이야.}

10307 # 도러울 때 그 다매 이 사라면 지팡이를 여기다 탁 직 지꾸서 이 소는 놀리여 되거덩. {돌아올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팡이르 여기다 탁 짚 짚고서 이 손은 놀려야 되거든.}

10307 # 그 다매 인재 다래치에서 콩얼 한 주먹 저 자주구 자기 자옥치구 간 자리털 툅툅 툅툅툅툅툅 툅구지. {그 다음에 이제 다래끼에서 콩을 한 주먹 쥐어 가지고 자기가 자옥치고 간 자리에 툅툅툅툅툅툅 툅어뜨리지.}

10307 # 다서 알 내지 다서 알 내지 네 알, 네 알 내지 여서 알 고대루 툅툅툅툅툅 두드려. 그래 소가 더푸민서 가대기루 더푸민서 나오지, 따러오지. {다섯 알 내지 다섯 알 내지 네 알, 네 알 내지 여섯 알 고대로 툅툅툅툅툅 두드려. 그래 소가 덮으면서

가대기로 덮으면서 나오지, 다라오지.}

10307 # 따라와서 다: 들미 이짜개서 또 호끄하구 그래서 항 고랑 두 고랑 가러 가주구.
 {따라와서 다 들면 이쪽에서 또 호끄하고 그래서 한 고랑 두 고랑 갈아 자기고.}

10307 # 할 하루에 하루에 녀찌덜 가느냐 게: 석찌덜 가느냐 게 보:통 표주니 그러치. {할
 하루에 하루에 녀 짐을 가느냐 그래 석 짐을 가느냐 그래 보통 표준이 그렇지.}

10307 # 그래서 파끼두 그라구 그 다매 다: 일채 다: 그라지, 옥씨기두 그라구. {그래서 팔
 도 그러고 그 다음에 다 일채 다 그러지, 옥수수도 그러고.}

10307 # 그래구서넌 그 다매 다:- 한 다매 이제 옥씨가 올라올 찌개 홀'치지라지. {그러
 고는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이제 옥수수가 올라올 적에 홀치질하지.}

10307 # 게 두 바리루 또 홀치:-라는 보:서비 또 따지. {그래 두 바리로 또 홀치라는 보습
 이 또 다르지.}

10307 # 가대기루 번지는 보서바구 홀치 보서비 또 따다 마리어. {가대기로 번지는 보습하
 고 홀치 보습이 또 다르단 말이야.}

10307 # 게 인재...{그래 이제...} 10307 @ 어떠케 생겨써요 그개. {어떻게 생겼어요, 그
 개?}

10307 # 게 보서비 아:시 보서비 이르키 생겨찌. {그래 소습이 아이 보습이 이렇게 생겼
 지.}

10307 @ 후칭이는 이르케 편 똑빠루 이러케 넘찌카내요, 그쵸? {후칭이는 이렇게 편 똑바
 로 이렇게 넓적하네요, 그렇지요?} 10307 # 이르키 이룩 이룩카개...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게...}

10307 # 여기 뽀조가지 뽀조간데... {여기 뽀쪽하지 뽀쪽한데...} 10307 @ 가대기는? {가대
 기는?}

10307 # 뽀조간데 소가 이르키 끝구 가개 되머넌 흘기 파지면서 양짜그루 다...{뽀쪽한데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흙이 파지면서 양쪽으로 다...} 10307 @ 양짜그루 흐기 가
 구. {양쪽으로 흙이 가고.}

10307 # 어: 양짜그루 가지. {어, 양쪽으로 가지.}

10307 # 게서 옥씨가 요마:니 클 때 다: 키 노쿠서넌 그 다매는 이쓰면 푸리 또 옥씨기
 꼬랑에 가득 난다 마리어 콩 꼬랑애나. {그래서 옥수수가 요만큼 클 때 다 켜 놓고
 는 그 다음에 있으면 풀이 또 옥수수 고랑에 가득 난단 말이야 콩 고랑애나.}

10307 # 그때 호미 가주구 매:지 함 별. {그때 호미 가지고 매지 한 별.}

10307 # 두: 별채 가서넌 보:서별 줌 큼 거 맞추지. 쪼끔 더 커 중뽀서별 맞추지. {두 별채
 가서느 보습을 줌 큰 거 맞추지. 조금 더 큰 중보습을 맞추지.}

10307 # 중뽀서별 맞추게 되면 흘기 팍: 올라가니까 콩 미티 콩이 이러:개 이씨면 그저 콩
 미태 짹: 췌우지 요러키 흘기. {중보습을 맞추면 흙이 팍 올라가니까 콩 밑에 콩이
 이렇게 있으면 그저 콩 밑에 짹 췌지 요렇게 흙이.}

10307 # 그래 콩 꼬랑만 이찌 여기는 다: 함 불 매:능 기라 마리어 그거뚜. {그래 콩 고랑
 만 있지 여기는 다 한 별 매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10307 # 풀라오능 거 다:: 더퍼노치 거기다. {풀 나오는 것 다 덮어 놓지 거기에다.}

10307 # 게서 이: 미티 풀 더퍼논 건 그대루 췌찌 예: 올라오지 모타지. {그래서 이 밑에
 풀 덮어 놓은 건 그래도 췌찌 예 올라오지 못하지.}

10307 # 게 이르개서 홀치지러 하던데 홀치지:는 할라내 하루거리 정도 하지. {그래 이렇게

해서 흘치질을 하는데 흘치질은 하루에 하루같이 정도 하지.}

10307 # 항 고랑씩 땡기니까 두 번 안 땡기구. {한 고랑씩 다니니까 두 번 안 다니고.}

10307 # 게서 하루거리 정도 할랄. {그래서 하루같이 정도 하루에.}

10307 # 하루가리 하: 하루가리 바:닐 하거나 이르케 한다 마리어. {하루같이 하거나 하루 같이 반을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10307 # 그래서 인재 그 다매 마::즈마개 세: 별채 가서넌 게 매:능 개 드, 사라매 노려그루 매:능 개 드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별째 가서는 그 매는 게 드, 사람의 노력으로 매는 게 드물지.}

10307 # 그 다매넌 거기다 보:서배다가 저: 쑥대나 이렇 거 가따 이르키 댄다 마리어.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 보습에다가 저 쑥대나 이런 것 가져다 이렇게 댄단 말이야.}

10307 # 대:문 콩 미티루 이 쑥때:-가 콩 미티루 죽: 까지. {대면 콩 밑으로 이 쑥대가 콩 밑으로 죽 가지.}

10307 #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넌 흘:기 콩 미트루 죽:: 드르간다 마리어.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흘이 콩 밑으로 죽 들어간단 말이야.}

10307 # 그라면 또 함 별 매: 그 다맨 마금 그레노구 세 별 그른 다맨 인재 가:으라기 시자 가지. {그러면 또 한 번 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레놓고 세 별 그런 다음에는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지.}

10307 # 가으라는데 여기서넌 콩알 어티가녕가 하니까 다: 업떠려서 꺾찌. {추수하는데 여기에서는 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옆드려서 꺾지.}

10307 # 꺾찌 가주구, {꺾어 가지고,}

10307 @ 나스루 소느루? {낮으로 손으로?}

10307 # 어: 소느루. {어 손으로.}

10307 # 날 날 나타구 소누루. 게 이르키 나슨 이르키 비:자 콩알 비:자면 비:자면 그개 힘 드지. {낮 낮 낮하고 손으로. 그래 이렇게 낮은 이렇게 비려(면) 콩을 비려면 비려면 그개 힘들지.}

10307 # 너설 턱 대구 혹: 떠대밀면 거 뚜두둑 뚜두둑 다 꺾꺼지지. {낮을 턱 대고 혹 떠밀면 그 두두둑 두두둑 다 꺾어지지.}

10307 # 기래서넌 이러케 노쿠 또 한 주먹 떠면 이르케 노쿠 그다에 쫑: 나오지. {그래서는 이렇게 놓고 또 한 주먹 되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쫑 나오지.}

10307 # 게 바꼬랑이 이르케 이쉴 찌개 이 예:: 이거 먼저 꺾꺼서 여기다 논는다 마리어, 이 고랑애다. {그래 밭 고랑이 이렇ㄴ 있을 적에 이 예 이거 먼저 꺾어서 여기에다 놓는단 말이야, 이 고랑이다.}

10307 @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서.}

10307 # 으:. {응.}

10307 @ 예:. {예.}

10307 # 이거털 여노면 이거 꺾꺼 꺾꺼서 또 여기다 노키 혈치. {이거를 여기 놓으면 이거 꺾어 꺾어서 또 여기에다 놓게가 수월하지.}

10307 @ 예:. {예.}

10307 # 게 이거 꺾꺼서 여기다 노키가 혈치. {그래 이거 꺾어서 여기다 놓기가 수월하지.}

10307 @ 그럼 세: 고랑을 항 군데다 논농 거내요? {그럼 세 고랑을 한 군데다 놓는 거내요?}

10307 # 그래서 네: 고랑얼 향 군데다 놀 쏘두 이꾸 세: 고랑얼 향 군데 놀 쏘 이꾸. {그래서 네 고랑을 한 군데 놓을 수도 있고 세 고랑을 한 군데 놓을 수도 있고.}

10307 # 그럼 쫓: 나가면 이걸 묵찌. {그럼 쫓 나가면 이걸 묵지.}

10307 # 인재 다: 해 논 다매 다: 꺼꺼 논 다매 하루 식찌내 잘 쟁년 사라면 예: 녀 찌덜 꺼끌 쏘 이썬요, 석 찼 녀 찼. {이제 다 해 놓은 다음에 다 겹어 놓은 다음에 하루 식전에 잘 꺾는 사람은 예 녀 짐을 꺾을 수 있어요, 석 짐 녀 짐.}

10307 # 게: 그르키 꺼꺼서 다: 거저 그를 업떠리서 타가서 탕 노쿠 탕 노쿠 꺼꺼서 탕 노쿠 하니까. {그레 그렇게 꺾어서 다 그저 그러면 옆드려서 탁 해서 탁 놓고 탁 놓고 꺾어서 탁 놓고 하니까.}

10307 # 그 다매 이근 저 어트리 쟁, 어트가능가 하게 되면 인저 그 다매는 저:널 친다 그라지 전:. {그 다음에 이근 저 어떻게 꺾,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전을 친다 그러지 전.}

10307 @ 저:널 처요? {전을 처요?}

10307 # 으: 저:널 친다, 한 다발: 한다발 이르키 해: 노는다 마리어. {응, 전을 친다, 한 다발 한 다발 이렇게 해 놓는다 말야.}

10307 # 다바리 한 다발씩 되게. {다발이 한 다발씩 되게.}

10307 @ 무꺼 논능 거요 아니면 그냥 모아 논능 거요? {묶어 놓는 거요 아니면 그냥 모아 놓는 거요?}

10307 # 모아 노치 지금. {모아 놓지 지금.}

10307 @ 예:. {예.}

10307 # 모아 노쿠서 호니 이른 저: 몰(몰/덜 간음)루 할 쏘가 이썬야지 그레 버드나무 버드나무덜 고랑애다가 콩 인는디다 폭: 쥘러 가주구 텍: 쥐구서넌 자버댕겨서 후를 가면서 딱지마너면 되지. {모아 놓고서 흔히 이런 저 뭇루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버드나무 버드나무를 고랑애다가 콩 있는데다가 폭 질러 가지고 텍 쥐고는 잡아당겨서 훌훌 감아서 땃 묶으면 되지.}

10307 # 그래서 내리 노쿠서 또 가서 또 그라구 그쪼개서 이짜개서 또 미리노쿠 저짜개서 또 그라구 게:속 그라개 되면 할라래 하루가리 예:: 다바릴 다: 묵찌, 콩얼. {그래서 내려 놓고서 또 가서 또 그러고 그쪽에서 이쪽에서 또 말어놓고 저쪽에서 또 그러고 계속 그러게 되면 하루에 하루같이 예 다발을 다 묶지, 콩을.}

10307 # 그: 다매 이저 따:처가 여기 배:쓰니까 이 고랑 꺼꾸 이 여기다 노쿠 이 고랑 꺼꾸 여기다 노쿠 해씨니까 이: 논 자리는 다 비자니여. {그 다음에 이제 따처가 여기 배었으니까 이 고랑 꺾고 이 여기에다 놓고 이 고랑 꺾고 여기에다 놓고 했으니까 이 놓은 자리는 다 비잖아.}

10307 # 술기가 여기루 드르가지. {수레가 여기로 들어가지.}

10307 # 그라면 한 사라면 술기 타:구 한 사라면 여기서 차:재 차재루다 콩 따늘 폭 쥘러서 술기 우애 텍 올려주지. {그럼 한 사람을 수레 타고 한 사람은 여기에서 차제 차제로 콩 단을 폭 쥘러서 수레 위에 텍 올려주지.}

10307 # 술기에서 싸치 고:개 싸치, 너머가지 안트룩. {수레에서 쌓지 곱게 쌓지, 넘어가지 않도록.}

10307 # 그레 싸 가주구 바릴 바릴 여기다 해서 이르기 해서넌 거:: 우애 쿡 빠저 가주구 이누물 바릴 여기다 결:구 뵙뵙 돌리지:. {그레 사하아 가지고 바를 바를 여기에

해서 이렇게 해서는 그 위에 쿡 박아 가지고 이놈을 바를 여기에다 걸고 비비 돌리지.}

10307 # 그라먼 바리 바가 짹:: 졸려들지. {그러면 바가 바가 짹 조여들지.}

10307 # 여기 갱기면서 그래 가주서 지비 와서 푸리 가주구 푸리 가주구 콩 나가리덜두 싸:치. {여기 감기면서 그래 가지고서 집에 와서 풀어 가지고 풀어 가지고 콩 난가리를 또 쌓지.}

10307 # 게 콩 나리덜 싹 다매는 콩으 또 에:: 콩 탈곡기애다 지버 여치. {그래 콩 난가리를 싹은 다음에는 콩을 또 에 콩 탈곡기애다 집어 넣지.}

10307 # 지버 털:면 콩언 콩언 우르르르 하구 콩대루 나오구 그 다매 그: 풍성기에서 콩깍찌는 저쪽그루 다: 나가지. {집어(넣고) 털면 콩은 콩은 우르르르 하고 콩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풍성기에서 콩깍지는 저쪽으로 다 나가지.}

10307 # 게 콩언 이짜그루 떠러지구 그 다매 그래 콩얼 처서 또 떠러지능 개 이 미티 또 얼정체가 이따 마리어. {그래 콩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 콩을 처서 또 떨어지는 게 이 밑에 또 어레미가 있단 말이야.}

10307 # 그래서 그 다맨 근 누::러캐 콩이 이리 나오면 다머서 마:대애다 다머서 결보개 내떠리구 내떠리구 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건 누렇게 콩이 이리 나오면 담아서 마대애다 담아서 묶어서 내놓고 내놓고 하지.}

10307 # 게서 글 그걸 가따가서 한:전농사 진넌 묘:하지. {그래서 그걸 그걸 가지고 한전농사 짓는다고 하지.}

10307 # 한전. {한전.}

10307 @ 아까 따:처라 그랭 검 머요, 따:처? {아까 다처라고 그런 건 뭐요, 따처?}

10307 # 따처라능 건 다야차. {따처라능 건 다야차.}

10307 @ 아 다야차. {아 다야차.}

10307 # 한중말루 따:처, 다야차 {한중말로 따처, 다야차.}

10307 # 게 그거 가따... {그래 그거 가져다...}

10307 @ 그저내는 저:기 저기 도리깨루 하지 아나씨요, 콩타작? {그전에는 저기 저기 도리깨로 하지 않았어요, 콩타작?}

10307 # 그저 옌나래는 옌나래 기계가 나오지 아내썬 찌개는 도루깨루 다: 해찌. {그전 옛날에는 옛날에 기계가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도리깨로 다 했지.}

10307 # 게 도루깨루 하넌데 도루깨질두 상도루개가 이꾸 그 다매 일반 도루깨지라는 사라미 이찌. {그래 도리깨로 하는데 도리깨질도 상도리깨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도리깨질하는 사람이 있지.}

10307 # 도루깨지라는 사람 일반 도루깨지라는 사라미 그냥: 때리지. 게 하 아시 벌 때리고 두: 벌채 때리구 할 찌개는 이: 상도루깨지라는 사라미 도루깨 나럴 창 누퍼서 탁 태서 훌딱훌딱 번저 노치. {도리깨질하는 사람 일반 도리깨질하는 사람은 그냥 때리지 그래 아이벌 때리고 두 벌채 때리고 할 적에는 이 상도리깨질하는 사람이 두리깨 날을 착 누여서 탁 때려서 훌랑훌랑 두집어 놓지.}

10307 # 그라먼 이짜 사람더런 그저 두드리기만 하다 마리어.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그저 두드리기만 한단 말이야.}

10307 # 게 이르키: 이르키 해찌 옌나런. {그래 이렇게 이렇게 했지 옛날에는.}

10307 # 게 히:미 들지 할랄 한 시간 한 시가늘 모:태, 그냥: 도루깨지를 바빠서.{그래 힘이 들지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못 해, 구냥 도리깨질을 힘들어서.}

10307 # 따:미 나지 막 따미. 그래 그르키 항 거슨 인재 그: 머여 풍구가 우꾸 이르케 할 찌개는 증 머여 저:: 부채 다: 콩 빼구 문지 빼구 다:. {땀이 나지 막 땀이. 그래 그렇게 한 것은 이제 그 뭐야 풍구가 없고 이렇게 할 적에는 즉 뭐야 저 부채 다 콩 빼고 먼지 빼고 다.}

10309 @ 보:리 농사는 어티개 해써요? {보리 농사는 어떻게 했어요?}

10309 # 으:~ {응?}

10309 @ 보리농사는? {보리농사는?}

10309 # 버리농-농사는 여기는 처음에 일찌기 청명 청명 시구서 인차 그뚜 가르면서 버리 씨를 뿌리지. {보리농사는 여기는 처음에 일찍이 청명 청명 쇠고서 바로 그것도 갈면서 보리씨를 뿌리지.}

10309 # 게 후에 도리오면서 또 그 고랑에 그냥 도로오면서 보리씨르 가대가 덮찌. {그래 후에 돌아오면서 또 그 고랑에 그냥 돌아오면서 보리씨를 가대기가 덮지.}

10309 # 이르케구... [이렇게 하고...] 10309 @ 가면서 뿌리구? {가면서 뿌리고?}

10309 # 갈 때 갈 때 뿌리지. {갈 때 갈 때 뿌리지.}

10309 @ 두:리 하능 거요 그럼? 한 사라른 갈구 하난 뒤따라가구. {둘이 하는 거요 그럼? 한 사람은 갈고 하난 뒤따라가고.} 10309 # 으: 둘: 두:리 하지, 그거뚜 으: 그거 뚜 그르치. {응, 둘 둘이 하지, 그것도 으 그것도 그렇지.}

10309 # 그래서 그대에 그거뚜 그:: 가대기::루 더꾸 가대기::루 갈:구 게 종자 뿌리는 사라미 그 사람 뒤따라 가는 사라미 종자 뿌리지. {구-래서 그 다음에 그것도 그 가대기로 덮고 가대기로 갈고 그래 종자 뿌리는 사람이 그 사람 뒤따라 가는 사람이 종자 뿌리지.}

10309 # 이르캐서 버리릴 사머노먼 마지막개 버리가 여기 땅이 조아서 어떤 대는 버리가 잘:: 되어. {이렇게 해서 보리 심어놓으면 마지막에 보리가 여기 땅이 좋아서 어떤 대는 보리가 잘 돼.}

10309 # 그래서 그 다맨 버리농사 한 다매 가따 털:지. {구래서 그 다음에는 보리농사 한 다음에 가져다 털지.}

10309 # 터:는데 그거뚜 대부분 다: 도리깨루 두드리지. {터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도리깨로 두드리지.}

10309 # 다: 바썽 말라쓰니께 도루깨루 두드리지. {다 바썽 말랐으니까 도리깨로 두드리지.}

10309 # 게 보리찌별 가려내구 그 다매 비짜루지르 자꾸 하면서 보리찌불 다: 갈키루 끌꾸 그다: 비짜루질 하구 그 다매 털:채 버리채 시엄채 도리채 다 한디 끄러 마:따가 양창지라지. {그래 보릿짚을 가려내고 그 다음에 비질을 자꾸 하면서 보릿짚을 자꾸 하면서 보릿짚을 다 갈키로 끌고 그 다음에 비질을 하고 그 다음에 털째 보리찌 수염째 돌째 다 한데 끌어 모았다가 양창질 하지.}

10309 # 게: 양창지라게 되면 시엄 마 바사징 거 그대 보리 보리지: 이퍼리 떠러징 거 이롱개 다: 날라가구 보리만 남찌. {그래 양창질 하게 되면 수염 부(쉬) 부쉬진 거 그 담에 보리 보릿짚 이파리 떨어진 거 이런 게 다 날라가고 보리만 남지.}

10309 # 그래서 그거: 그래서 다음면 또 농사 다: 징 기구. {그래서 그거 그래서 담으면 또 농사 다 지은 것이고.}

10309 # 말:루 하개 되면 하내 농사 다: 지찌. 호호. {말로 하개 되면 한 해 농사 다 지었지. 호호.}

10308 @ 조:이는 어트케 해요, 조이. {조는 어떻게 해요, 조?}

10308 @ 조:이는 그게 다른 농사보다두 더 까다롭다 그러든대. {조는 그게 다른 농사보다 더 까다롭다고 하던데.}

10308 # 까다루어요. {가다로워요.}

10308 # 조이 농사가 품 마니 머겨요. {조 농사가 품이 많이 먹어요.}

10308 # 게 어트개 되능가 하니까 그건 인재 콩 가러면 디털 조이털 심는다 할 찌개, {그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건 이제 콩 심었던 데를 조를 심는다고 할 적에,}

10308 @ 콩 가러면대 콩 뿌구 나서. {콩 심었던데 콩 봄고 나서?} 10308 # 으:, 콩, {응, 콩,}

10308 # 콩 꼬리 이꺼던. {콩 꼬들이 있거든.}

10308 # 콩 꼬리 바태 이르케 고랑에 이러케 꺼꺼쓰니까 그 콩 꼬리 이꺼던. {콩 꼬들이 밭에 이렇게 고랑에 이렇게 꺾었으니까 그 콩 꼬들이 있거든.}

10308 # 고거를 그: 쪼꼬만 아시: 홀치:: 아시 홀치 보서부루 소 두: 바리 매 가주구 아시 홀치 보서부루 이 여기를 쫓:: 짜깁다 미리여. {그거를 쪼그만 아이 홀치 아이 홀치 보습으로 소 두 바리를 매 가지고 아이 홀치 보습으로 이 여기를 쫓 탄단 말이야.}

10308 # 게 짜가면 뒤에서 인재 가넌 사라미 머 하능가 하녕까 으: 어 종자 되박 마라자면 바가지를 바가지를 똥그랑 거 가따가 여기다 여쿠서 그다 지:드만 이런 통얼 여기다 땡: 노치. {그래 타면 뒤에서 이제 가는 사람이 무얼 하느냐 하면 에 종자 되박 말하자면 바가지를 바가지를 똥그랑 거 가져다 여기다 넣고서 그 다음에 기다란 이런 통을 여기다 땡 놓지.}

10308 # 마주지 마주구 여기는 여기는 저: 머여 여기는 대가리구 대가리에다가 저 다복때라구 이써 다복때 다복때라는 쭈글 그: 말롱 걸 가따가 여기다 이르키 곱찌. {맞추지 맞추고 여기는 여기는 저 뭐야 여기는 대가리고 대가리에다가 저 다복대라고 있어 다복대 다복대라는 쭈글 그 마른 것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꼴지.}

10308 # 게 이제 종자 종 종자 뿌리는 대라문 대라문 여기다 이제 쫓: 올라와서 여기가 이마::내 거: 잘그 잘그 여튼지. {그래 이제 종자 종 종자 뿌리는 대라면 여기다 이제 쫓 올라와서 여기가 이만한 그 자루 자루를 넣든지.}

10308 # 게 조이털 여기다 다머꺼등. {그래 조를 여기다 담았거든.}

10308 # 게 이:리 통으루 하나 채우게 되면 어: 채우게 되면 근 항 고랑: 두 고랑쌍 나간다 마리어. {그래 이리 통으로 하나 채우게 되면 에 채우게 되면 거의 한 고랑 두 고랑씩 나간단 말이야.}

10308 # 게 이: 거슬 툅툅툅툅 툅디리머 툅디리머 가지 그 고:랑으루. {그래 이것을 툅툅툅 툅 두드리면서 두드리면서 가지 그 고랑으로.}

10308 # 이 따깁 고랑으루 툅디리머 가지. {이 탄 고랑으로 두드리면서 가지.}

10308 # 그럼 조씨가 후루루루루루 나오면서 그 다복때에 걸려서 후루루루루루 빠져져 떠러진다 마리어. {그러면 조씨가 후루루루루루 나오면서 그 다복대에 걸려서 후루루루루루 훌어져 떨어진단 말이야.}

10308 # 떠러져서 그기 나가개 되면 그 다매넌 인저 어째녕가 하니까 그:: 발루 덩찌. {덜어져서 그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찌느냐 하면 에 발로 덮지.}

10308 # 발루 발루 흘글 쓱:쓱 끝면서 덩찌. {발로 발로 흘을 쓱쓱 끝면서 덮지.}

10308 # 그 다맨, {그 다음에는,}

10308 @ 요로케 생깁 거 그거 씨 다몽 거 그거 이르미 머요? {요렇게 생긴 거 그거 씨 담은 거 그거 이름이 뭐요?}

10308 # 어:: 종: 그: 조이종자 통? {에 종, 그 조씨 통?}

10308 # 조이종자 통 그: 그래. {조시 통 그 그래.}

10308 # 종자통 그래서 그다애 그거 가주구 그 다매 나가지. {종자 통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지.}

10308 # 그래서 마지막애 나오게 되면 씨가 만:타 마리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씨가 많단 말이야.}

10308 # 인재 조이가 자니까 씨가 만:치. {이제 조가 자니까 씨가 많지.}

10308 # 내: 사라미 항 고랑씩 안서저 씨러 속찌. {네 사람이 한 고랑씩 앉아서 씨를 숨지.}

10308 @ 씨긴 씨기 난 다으매. {삭이 삭이 난 다음에.}

10308 # 씨기 나서 요마:니 커쉴 찌개. {삭이 나서 요만큼 컸을 적에.}

10308 @ 예. {예.}

10308 # 요마니 커쉴 찌개 인재 씨 고:랑을 타구 씨럴 속찌. {요만큼 컸을 적에 씨 고랑을 타고 씨를 숨지.}

10308 # 고랑을 타구 안저서 씨럴 속찌. {고랑을 타고 앉아서 씨를 숨지.}

10308 # 소끔 나무면 강겨기 열망가 하니까 보:통 어: 송꼬락 두진 널비에서 한 지반 널비. {숨고 남으면 간격이 얼마나 하면 보통 손가락이 두 지 너비에서 한 지 반 너비.}

10308 @ 예. {예.}

10308 # 그러키: 간겨글 두구서 이: 손툽눈 망:큼 널개 강 이르키 널개 강겨글 두구서 다: 소꺼지면 쥐어뿌리지. {그렇게 간격을 두고서 이 손툽눈 만큼 넓게 간 이렇게 넓게 간격을 두고서 다 숨아지면 내버리지.}

10308 @ 하나 하나가 이만큼 널비로? {하나 하나가 이만큼 너비로?}

10308 # 어:. {어.}

10308 # 요:기 조이가 한 대 서씨면 요:기 또 조이가 한 대 서꾸 요 어가내 손툽 널비지. {요기 조가 한 대 섰으면 요기 또 조가 한 대 서 있고 요기 어간에 손툽 너비지.}

10308 # 게 요로케서 다: 푸리구 머구 다: 뿌버서 다: 소꺼 노쿠 조이만 냉구지. {그래 뇨렇게 해서 다 풀이고 뭐고 다 뽑아서 다 숨아 놓고 조만 남기지.}

10308 # 조이만 나무만 함 번 조이만 소꺼 놔따 해쉴 찌개넌 다: 머거따 하능 기여. {조만 남으면 한 번 조만 숨아 났다고 했을 적에는 다 먹었다고 하는 거야.}

10308 # 조이 바턴. {조 발은.}

10308 # 개 조이 소끼가 젤:: 더디지. {그래 조 숨기가 제일 더디지.}

10308 @ 그러캐내요 하나하나 다:: 이르케... {그렇겠네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10308 # 어: 요로키 요로키 쪼골떠리구 안저서 그대 쪼골떠리구 바릴 거러가면서 요거 다: 하기 때::(매), 그래 할랄 조이씨를 소꾸 나면 이 바지 엉치가 다: 떠러져. {어 요렇게 요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다음에 쪼그리고 발을 걸어가면서 요거 다 하기 때 문에, 그래 하루 조씨를 숨고 나면 이 바지 엉치가 다 떨어져.}

10308 # 흘기 인지 무더 가주구. {흘이 이제 묻어 가지고.}

10308 # 그 저 그래서 그 다맨 소꺼 논 다매넌 그 다매 다: 머거따구 그러지. {그 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숙아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 먹었다고 그러지.}

10308 # 조이바튼 다: 머거따지. {조발은 다 먹었다고 하지.}

10308 # 그래서 그 다매 홀치루다가 인재 조이럴 잡찌. {그래서 그 다음에 홀치로 이제 조를 잡지.}

10308 # 피:두 푸릴 잡찌. {피도 풀을 잡지.}

10308 # 푸릴 자버 가주구서 그 다:매 인젠 가으리 되면 착:: 되서 존 이퍼리 조이 이퍼리가 처:매 꼬꼬지 올러오지. {풀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되면 착 되어서 조 앞이 조 앞이 처음에 깨끗하게 올라오지.}

10308 # 그 다매 꼬꼬지 올러오다가 이기 인재 으: 올러오면서 꼬트머리서버터 아:리 들기 시자가지, 사막 바다 가주구. {그 다음에 깨끗이 올라오다가 이게 이제 에 올라오면서 꼬트머리부터 알이 들기 시작하지, 삼학 받아 가지고.}

10308 # 아리 들게... 이르키 꼬:부러 들게 되지. {알이 들게 되면 이렇게 꼬부라지게 되지.}

10308 # 이러 서지. {이러서지.} 10308 @ 머: 바더서요? {뭐 받아서요?}

10308 # 사마글 바더 가주구 {삼학을 받아 가지고.}

10308 @ 사막? {삼학?}

10308 # 예:. {예.}

10308 @ 사마기 머요? {삼학이 뭐요?}

10308 # 사마기: 이 벼농사 끝 끝 교배씨기는 그런 자공하능 걸 사막 뺀느다구 하지. {삼학이 이 벼농사 꽃 꽃 교배시키는 그런 작용하는 걸 삼학받느고 하지.}

10308 # 그래서 그다애 그르키 나 가주구 그기서 이제 예: 조이때가 수 이 수구러지면서 자꾸 올러오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 조 대공이 수 이 수구러지면서 자꾸 올라오지.}

10308 # 올러와서는 팔따지 망:캐 이마나캐 쓱: 고러서 이르키 조이때가 우루 누::러캐 돼솔 찌개 조이럴 가서 본다 마리어. {올러와서는 팔뚝만하게 이만하게 쓱 고러서 이렇게 조 대공이 위로 누렇게 되었을 적에 조를 가서 본단 말이야.}

10308 # 게 이제 조 이삭 하나를 떡 뜨더 가주구 비벼 보지, 아리 다: 드러따. {그래 이제 조 이삭 하를 딱 뜨어 가지고 비벼 보지, 알이 다 들었다.}

10308 # 이럴 찌개는 인재 가:으라지, 조이 비지. {이럴 적에는 이제 추수하지, 조 배지.}

10308 @ 조이 가으른 어트개요? {조 추수는 어떻게 해요?}

10308 @ 미테 비:능 거 가찌 안턴대? {밑에 베는 것 같지 않던데.}

10308 # 어: 미테 비지, 다: 미테 비지 머. {어 밑에 배지, 다 밑에 배지 뭐.}

10308 @ 그래요? {그래요?}

10308 # 어: 미테 비머서 다발루 묵찌 이망:쿰. {어 밑을 베서 베서 다발로 묶지 이만큼.}

10308 # 이망:쿰 다발루 묵찌. {이만큼 다발로 묶지.}

10308 # 게 비어서 쪽:: 뉘퍼 고랑마다 다:: 이러캐 뉘어서 콩 콩판 봐: 노덜 이르키 봐: 노면서 나가지. {그래 베어서 죽 뉘어 고랑마다 다 이렇게 뉘어서 콩 콩단 모아 놓듯 이렇게 모아 놓으면서 나가지.}

10308 # 그 다매 조이찌별 거기서 드러 가주구 모가지 조이찜 모가지 인넌디럴 뻐 빠트러 가주구서넌 조이찌부루다 다:널 묵찌. {그 다음에 조 짚을 거기서 들어 가지고 모

- 가지 조 짚 모가지 있는데를 뺄 비틀어 가지고는 조 짚으로 단을 묶찌.}
- 10308 # 그래 가주서넌 내뜨루 내뜨루 가다 마지막개 다: 지비 드루와면 조이 나가리가 싸 따 그란다(마리여). {그래 가지고는 내놓고 내놓고 하다 마지막에 다 집에 들어오면 조 남가리를 쌓았다 그런단 말이야.}
- 10308 # 게 조이 수: 달구:: 그: 다야차 다야차가 시러 디리워서 그 다매넌 조이 나까리가 까:마캐 **. {그래 조 수 달구 그 다야차 다야차로 실어 들여와서 그 다음에는 조 남가리가 까맣게 쌓지.}
- 10308 # 그러문 할라래 할라래 삼십 탄 내지 예:: 오:십 탄 육십 다늘 찢러여 된다 마리여. {그러면 하루에 하루에 삼십 탄 내지 예 오십 탄 육십 탄을 잘라야 된단 말이야.}
- 10308 # 어디를 찢르능가 하닝까 조이 이사기 이러:키 돼씨면 이러:키 돼씨면 요기럴 가서 나무 나무루 카럴 맨들지. {어디를 자르느냐 하면 조 이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기를 가서 나무로 칼을 만들지.}
- 10308 # 여 참대 가통 기나 그 다애 참나무 가통 기나 가따가 카럴 땡 만들지. {여기 참대 같은 것이나 그 다음에 참나무 같은 것이나 가져다 칼을 땡 만들지.}
- 10308 # 그래구선 그 다매 이러:키 들구서넌 처:징 거 툽툽 치게 되면 조 이상만 여기 다:: 러지지.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는 처진 걸 툽툽 치게 되면 조 이삭만 여기 다 떨어지지.}
- 10308 # 그 다매 뺄찌면 한 단 다: 터러씨면 한 단 조이지풀 무껴서 내띠리구 그 다매 또: 가따 노쿠 하구 또: 가따 노쿠.{그 다음에는 벗짚은 한 단 다 털었으면 한 단 조 짚을 묶어서 내놓고 그 다음에 또 가져다 놓고 하고 또 가져다 놓고.}
- 10308 # 그래서 할라래 예: 삼십 탄 내지 육십 탄까지 이르키 짜른다 마리여. {그래서 하루에 예 삼십 탄 내지 육십 탄까지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 10308 # 찢라노문 조 이상 무저지가 이마:니 크지. {잘라 놓으면 조 이삭 무더기가 이만큼 크지.}
- 10308 # 크:먼 그거럴 이재: 그: 성매뿔 성매뿔-리다 그:: 소럴 메워 가주구서 막 도러치지, 마당애다 까러 노쿠. {크먼 거그를 이제 그 석맷돌 석맷돌애다 그 소를 메워 가지고 막 돌아치지, 마당애다 깔아 놓고.}
- 10308 # 도라치면 다: 부서지지. {돌아치면 다 부서지지.}
- 10308 # 게 모두 조이만 그래서, 그래 예:: 깔:키나 그 다애 차:재루 척척척척 추:러 가주구서넌 꼬러 내구 그 조이럴 인저: 양창지라지. {그래 모두 조만 그래서, 그래 예 깔퀴나 그 다음에 차제로 척척척척 추려 가지고는 끌어 내고 그 조를 이제 양창질하지.}
- 10308 # 양창지런 그 조이 껌푸리 다:: 나가게. {양창질은 그 조이 검불이 다 나가게.}
- 10308 # 칼루 처씨잉개 조이 이푸리 툽 꼬너징 개 이꾸 그 속: 저:: 조이 송이 송이두 그거다: 엉그:라캐 인재 다: 알 빠지구 엉그라캐. {칼로 쳤으니가 조 윗이 툽 끊어진 게 있고 그 속 저 조 송이 송이도 그거다 엉그렇게 이제 다 알 빠지고 엉그렇게.}
- 10308 # 그래카 그래 꼬러 내:구 그대 추려 가주구선 이짜개 미러내구 조이만 한대루 쓰러모:지. {그렇게 하고 그래 끌어 내고 그 다음에 추려 가지고는 이쪽으로 밀어내고 조만 한테로 쓸어 모으지.}
- 10308 # 그래 가주서 그걸 인재: 양창지라거나 그 다매 이렇 걸루 하거나 대번 이렇 거 아니야, 대부분 다: 양창지리지.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양창질하거나 그 다음에 이

런 걸로 하거나 대번 이런 거 안해, 대부분 다 양창질이지.}

10308 # 게 그르케 해: 가주구서 농사진능 기여.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농사짓는 거야.}

10308 @ 조이 농사는 수하기 마:는 퍼니개써요. {조 농사는 수하냐~이 많은 편이겠어요.}

10308 @ 하나: 시머서 그룩 마:니 달리자나요. {하나 심어서 그렇게 많이 달리잖아요.}

10308 # 하낙쎄 조:이 하나가 어 베 아리 베 아리 한 이사에 한 이사개 이 예:: 백 깨두 달리능 개 이꾸 배기시 깨두 달리능 개 이꾸. {하나씩 조 하나가 예 벼 알이 벼 알이 한 이사에 한 이사에 예 백 개도 달리는 게 있고 백이십 개도 달리는 게 있고.}

10308 # 그래 육씨 깨두 달리능 기 이꾸 그러치. {그래 육십 개도 달리는 게 있구 그렇지.}

10308 # 한 이사개 뎌 뿌 나오냥가이. {한 이사에 뎌 분 나오느냐...}

10308 # 베는 아:치릴 쳐서 나오자너. {벼는 가지를 쳐서 나오잖아.}

10308 # 조이는 아:치라능 기 업따 마리어. {조는 가지라는 게 없단 말이야.}

10308 # 이: 새끼 아치라능 개 업따 마리어. {이 새끼 가지라는 게 없단 말이야.}

10308 # 베는 아:치라능 개 나서 거기서 또 이상 나오지. {벼는 가지라는 게 나서 거기에서 또 이삭 나오지.}

10308 # 그래구 산냥이 산냥은 베가 더 망쿠. {그리고 산양이 산양은 벼가 더 많고.}

10308 # 그래 조:이가 줌 적찌. {그래 조가 줌 적지.}

10308 # 게 조:이두 여기서 양수지구에서 이 하동 이: 이짜 순 저: 하서 이짜그루 조:이 시문 데는 하루거리 쌍당애 어떻 건 망 근 나와요. {그래 조도 여기서 양수 지구에서 이 하동 이 이쪽 저 하서 이쪽으로 조 심은 데는 하루같이 상당애 어떤 건 만 근 나와요.}

10308 # 망 근. {만 근.}

10308 # 망 근 나오는데. {만 근 나오는데.}

10308 # 그래서 여이가 더 덩찌요. {그래서 여기가 더 덩찌요.}

10308 # 저: 정암보다 여기아구 기후 차이가 영 만:치. {저 정암보다 여기하고 기후 차이가 아주 많지.}

10308 # 거기 서리 와두 와써두 여기는 서리 아놔따 마리어. {거기 서리 와도 왔어도 여기는 서리가 안 왔단 말이야.}

10308 @ 고로케 차이가 마나요?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10308 # 마:너. {많아.}

10308 # 거긴 새::타야케 서리가 와서 인제 풀드리 마서 마저 가구주 다: 중넌다 해:두 여기는 서리 아놔따 마리어. {거긴 새하얇게 서리가 와서 이제 풀들이 마서 맞아 가지고 다 죽는다고 해도 여기는 서리 안 왔단 말이야.}

10308 # 게 정아마구 여기아구 차이가. {그래 정암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10308 # 그르키 되지. {그렇게 되지.}

10308 @ 쭈수 농사는 어때요? 수수농사. {수수농사는 어대요, 수수농사?}

10308 # 꼬:랑. {고랑.}

10308 @ 예: 꼬랑. {예, 고랑.}

10308 # 예:. {예.}

10308 # 꼬랑두 그러치 머. {고랑도 그렇지 뭐.}

10308 # 꼬랑두 조이처럼 이르키 키우는데 그거뚜 소꺼 조야지. {고랑도 조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그것도 숨아 줘야지.}

10308 @ 그거뚜 소꺼요? {그것도 속아요?}

10308 # 예:, 소꺼요. {예, 속아요.}

10308 # 그건 항 그루에 요기 이꾸: 요기 이꾸 하는데 그건 항 구루에 삼세치 널비 두지.
{그건 한 그루에 요기 있고 요기 있고 한테 그건 한 그루에 삼센티미터 너비 두지.}

10308 @ 조이보다 더 널개. {조보다 더 넓게.}

10308 # 송꼬락 세:지 널비 둔다 마리여. {손가락 세 지 너비 둔단 말이야 그건.}

10308 # 꼬량은 그래 그거뚜 조이처럼 소꺼 주구 그거뚜 후치지라구 다: 그러지. {고량은 그래 그것도 초처럼 속아 주고 그것도 후치질하고 다 그러지.}

10308 @ 그건 타:자근 어트개해요? {그건 타작은 어떻게 해요?}

10308 @ 조이하구 다르게 하자나요? {조하고 다르게 하잖아요?} 10308 # 타:자근 그 어: 그거뚜 그거뚜 수수루, {타작은 그 어 그것도 그것도 수수로,}

10308 # 모가지 찢러야 대요. {모가지 잘라야 돼요.}

10308 # 모가지 찢러서 수 타:자하지. {모가지 잘라서 타작하지.}

10308 # 여기서는 수수라구 아나구 대략 꼬:랑이라구라지 꼬:랑. {여기서는 수수라고 안 하고 대략 고랑이라 그러지 고랑.}

10308 @ 꼬랑. {고랑.}

10308 # 으: 꼬랑. {응, 고랑.}

10308 @ 그저내 저: 밀:서리 콩서리 이렇 거뚜 마니 해써요? {그전에 저 밀서리 콩서리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10308 # 마니 해:찌 그릉 건. {많이 했지 그런 건.}

10308 @ 그건 어트개 하능 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308 # 히히 그건 즈 저: 콩바태 인재 거이 돼:따 하쓸 찌개는 콩바시 콩이 거이 한 절반 이상 사부내: 삼부내 이': 이상 이거 가주구 다: 이르키 여무러따 마리여. {히히 그건 저 콩밭이 이제 거의 되었다 했을 적에는 콩밭이 콩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삼부내 삼분의 이 이상 익어 가지고 다 이렇게 여물었던 말이야.}

10308 # 여무러쓸 저개 그대 불로코 콩얼 꺾거다가 거기다 노쿠넌 그 다매는 다: 곱찌. {여물었을 적에 그 다음에 불놓고 콩을 꺾어다가 거기에다 놓고는 그 다음에는 다 곱지.}

10308 # 그러면 콩꼬투리가 다: 떠러진다 마리여, 타서. {그러면 콩고투리가 다 떨어진단 말이야, 타서.}

10308 # 콩꼬투리가 그 모가지 타 가주구 모가지가 빨리 타지. {콩고투리가 그 모가지 타 가지고 모가지가 빨리 타지.}

10308 # 그랭개 다: 떠러지지 거이. {그러니가 다 떨어지지 거의.}

10308 # 그러면 들:들 구부 작때루 이르키 꼬쟁이 꼬쟁이 마라자면 낭구 꼬쟁이루 이르키 술:술 자꾸 구불리지. {그러면 들들 굴리 작대기로 이렇게 꼬쟁이 꼬쟁이 말하자면 나무 꼬쟁이로 이렇게 스슬슬 자꾸 굴리지.}

10308 # 그 콩: 꼬투리 떠러징 거. {그 콩 꼬투리 떨어진 거.}

10308 # 그래민 그 부레서 다: 잉는다 마리여. {그러면 그 불에서 다 익는단 말이야.}

10308 # 게 어떻 건 타구 어떻 건 이꾸 어떻 건 안 니꾸 그저 이렇 거뜨리 이찌. {그래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익고 어떤 건 안 익고 그저 이런 것들이 있지.}

10308 # 그래먼 인재 부릴 다:: 헤져거려서 인재 부릴 다 업쌔거덩. {그러면 이제 불을 다 헤적거려서 이제 불을 다 없애거든.}

10308 # 여기 재 이꾸 재::가 이꾸 문지 이꾸 거기 다: 이따 마리어. {여기 재 있고 재가 있고 먼지 있고 거기 다 있단 말이야.}

10308 # 그 다매는 우아기를 척 버서 가주구 그 다매 머리서버터 후:후 내틀르면 재 다: 날러간다 마리어. {그 다음에는 윗옷을 척 벗어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후후 내두르면 재가 다 날아간단 말이야.}

10308 # 게 콩꼬터리만 오소소:: 하개 남찌. {래 콩 꼬투리만 오소소 하개 남지.}

10308 # 그래먼 그거 주서 까 먹찌 머. {그러면 그거 주어서 까 먹지 뭐.}

10308 # 그게 그 콩서리구. {그게 그 콩서리고.}

10308 # 호호 그 다매 옥씨기 가통거 따서 구버 머꾸, 그저 그러지. {호호,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거 따서 구워 먹고, 그저 그러지.}

10308 # 그 다매 인저:: 물-꼬기 자부러 가서 물꼬기럴 자버 가주구 구버 멍느면 또 따지. {그다음에 이제 물고리 잡으러 가서 물고리를 잡아 가지고 구워 먹는 건 또 다르지.}

10308 @ 그건 또 어트개 해요? {그건 또 어떻게 해요?}

10308 # 근 어트개 하개 되면 부릴 로치.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을 놓지.}

10308 # 논: 다매 부리 다: 타따 마리어 인저. {노은 다음에 불이 다 났단 말이야 이제.}

10308 # 그 불 그 수빨츠름 돼:쓸 때 그때 이제 고기를 가서 꼬창이다 게 가주구서 홀: 돌린다 마리어. {그 불 그 숯불처럼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고기를 가지고 꼬챙이에다 꿰 가지고 홀 돌린단 말이야.}

10308 # 여기 저: 어: 켈:: 그대: 고기 꾸버 멍는 시그루. {여기 저 에 켈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는 식으로.}

10308 @ 양고 양고기 켈 멍는... {양고기 켈 먹는...}

10308 # 예: 양고기 켈:서 구버 멍는 시구루. {예, 양고기 켈서 구워 먹는 식으로.}

10308 # 요리카개 되면 노린노리::하개 거 썩: 이거따 마리어. {요렇게 하개 되면 노릇노릇 하개 그게 썩 익었단 말이야.}

10308 # 그저기 빼끼 가주구 수란잔 노구 부꾸선 쫑 마시면 모꾸머근 참:: 마시시요, 구버 멍능 게 더 마시썩. {그 저기 벗겨 가지고 술 한 잔 놓고 붓고는 죽 마시면 목구멍은 참 맛있어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어.}

10308 # 게: 저: 머여 예:: 살머 멍능 거보더 구버 멍능 고기가 더 마시따 이래지. {그래 저 뭐야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다 이러지.}

10308 @ 주로 무슨 고기 자바머거요? {주로 무슨 고기 잡아 먹어요?}

10308 # 지금 여기서 다: 저: 잠능 개 버들개 뚝치 그 다매 저: 어:: 두망강에 야::리 그 다매 저: 송어 이렇 거 다: 잡찌 머.{지금 여기서 다 잡는 게 버들개, 뚝치 그 다음에 저 에 두만강에 야리 그 다음에 저 송어 이런 거 다 잡지 뭐.}

10308 # 게 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송어. {그래 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송어.}

10308 # 근데 여기: 바다애께 여기가 송어 열두 근 찌리 열스 근 찌리 이릉 기 올라오개 되면 그거 자개 되면 밍무리 올라오기 때머내 에 등때기가 가르르버서 자꾸 어디가 도:래다 문대기 때때 이:: 비누리 다 빼꺼징 기 이썩요 어떻 건. {그런데 여기 바다에 사는 게 여기가 송어 열두 근 찌리 열서 근찌리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그거 잡

- 으면 민물에 올라오기 때문에 에 등이 가려워서 어디에 가서 돌에다 문지르기 때문
에 에 비늘이 다 벗겨진 것이 있으요 어떤 건.}
- 10308 # 그: 그뚜 바다에서 여기루 두망강으루 올라오능 기. {그 그것도 바다에서 여기로
두망강으로 올라오는 게.}
- 10308 # 기래 여기 저너개 황어 화어르 항까리에 어트개 자번능가 하이까 보:매 저: 여기루
와서넌 무리 이쓸 찌개는 보매 여길루 올리 가주구 이 깨끄탄 무래 저버드느라구
골루다 여기루 올라오지. {그래 여기 저녁에 황어 황어를 한 까리에 어떻게 잡았는
가 하면 봄에 저 여기로 와서는 물이 있을 적에는 봄에 여기로 올라와 가지고 이
깨끗한 물에 접어드느라고 골로다 여기로 올라오지.}
- 10308 # 올라가질 때 가래치느라구 쎄::개 올라오지. {오라올 대 가리치느라고 세개 올라오
지.}
- 10308 # 한 무리가 올라오징 쟈니다. {한 무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 10308 # 한 그저 한 뱅 마리 그저 양뱅 마리 이르키 올라온다 마립니다. {한 그저 한 뱅 마
리 그저 이뱅 마리 이렇게 올란온단 말입니다.}
- 10308 # 올라와서는 자자::난 무래서 서루 모멸 비대서 그 다매 보 보면 고기 잔자:난 무래
가서넌 그거뜨리 그랑개 되면 무리 보::야치 머. {올라와서는 잔잔한 물에서 서로
몸을 비벼서 그 다음에 보면 고기 잔잔한 물에 가서 그것들이 그렇게 되면 물이 뽀
얇지 뭐.}
- 10308 # 무리 흥탕물두 안 나구 보:아튼 마리여. {물이 흥탕물도 안 나고 뽀얇단 말이야.}
- 10308 # 그래 고:기에서 란자가 나오지. {그래 고기에서 난자가 나오지.}
- 10308 # 나오지 인제 자기끼리 교배하능 거. {나오지 이제 자기들끼리 교배하는 거.}
- 10308 # 그게 그르키 보아치. {그게 그렇게 뽀얇지.}
- 10308 # 그 다맨 그때까리에 한 여자가 빨래하러 일찍 나가더라. {그 다음에는 그 때쯤에
한 여자가 빨래하러 일찍 나가더라.}
- 10308 # 아 보니까 고마이가 막: 그저 떼루 저 이따 마리여. {아 보니까 고만이가 막 그저
떼로 저 있단 말이야.}
- 10308 # 게 무런 내려가지. {그래 물은 내려가지.}
- 10308 # 건드리면:: 다: 노치 꺼 가꾸 그 다맨 드르가서 여자가 다리털 떡: 빨리구 이르키
마거 안저찌, 물리리가넌 데털 여기서 네리오면. {건드리면 다 놓칠 것 같고 그 다
음에는 들어가서 여자가 다리를 떡 벌리고 이렇게 막고 앉았지, 물 내려가는 데를
여기서 내려오면.}
- 10308 # 이르캉 개 여기 드러간 놈 막: 육찌에다가 막: 주서 데딩게 에 삼뱅 마리: 그저 양
뱅 마리 막 이르키 쥐어빠리찌. {이렇게 한 게 여기 들어간 놈 막 육지에다가 막
주어 던진 게 에 삼뱅 마리 그저 이뱅 마리 막 이렇게 집어던졌지.}
- 10308 # 그래선 그 다매 육:지 가서는 꿈장 모탄다 마리여. {그래서는 그 다음에 육지에 가
서는 꿈쩍 못한단 말이야.}
- 10308 # 그래서 자분 일두 이꾸 여기 이쎄요, 그저내. {그래서 잡은 일도 있고 여기 있어
요, 그전에.}
- 10308 # 그래 지그문 그르키 아놀러와요, 저: 아래. {그래 지금은 그렇게 안 올라와요, 저
아래.}
- 10308 @ 황어가 머요? {황어가 뭐요?}

10308 # 마 안스. {마 안스.}

10308 @ 황어가 어트개 생겨썬요? {황어가 어떻게 생겼어요?}

10308 # 황어뚜 고마이처름 생겨썬 머. {황어도 고마니처럼 생겼지 뭐.}

10308 @ 송어가치? {송어같이?}

10308 # 송어가치 생겨썬 머 그기. {송어같이 생겼지 뭐 그게.}

10308 # 그룽 기 항 그내, 고건 또:까지 거(어/으 간음)저. {그런 게 한 근에, 그건 똑 고르지 그저.}

10308 # 더 크구 자:깨 불가 차이 안 나게 그저 또::까썬 그냥 고기가. {더 크고 작게 불과 차이 안 나게 그저 똑같이 그냥 고기가.}

10308 # 그래 가주서 그르 거 자분 일두 이꾸.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잡은 일도 있고.}

10308 # 그 여기서 자분 자분대 메 뻔 그래썬요. {그 여기서 잡은 잡았는데 몇 번 그랬어요.}

10308 # 여기 메태 진 한 한 이십 년 저내 그르키두 해서. {여기 몇 해 전 한 한 이십 년 전에 그렇게도 했어.}

10308 @ 요새는 안 올라와요? {요사이는 안 올라와요?}

10308 # 업썬요. {없어요.}

10308 # 저: 아래다가 두망강 저: 아래다가 그무럴 처나서 올라오지를 모태요. {저 아래에 다 두만강 저 아래에다가 그물을 쳐나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10308 @ 그:무를 처썬요? {그물을 쳤어요?}

10308 # 그무럴 처와서 모:돌러가개 즈무럴 처와서. {그물을 쳐와서 못 올라가게 그물을 쳐와서.}

10308 @ 감자는 어트개 심어요? {감자는 어떻게 심어요?}

10308 # 감자는 그:: 소느루 시머요 그건. {감자는 그 손으로 심어요 그건.}

10308 # 그거뚜:: 가:대기루 해 가주구서는 똑똑똑똑 인재 감자씨르 똑똑똑똑 나는데. {그것도 가대기로 해 가지고는 똑똑똑똑 이제 감자씨를 똑똑똑똑 나는데.}

10308 @ 감자 씨는 어트개 생겨썬요? {감자 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10308 # 감자씨는 이 감자: 농까리꺼덩 고걸 칼루다 다: 오린다 마리며, 농까릴. {감자씨는 감자 눈이 있거든, 고걸 칼로 다 오린단 말이야, 눈을.}

10308 # 그래 가주서년 그 다매 감자 가리 한다 할 썬개는 사:라미 마나야 돼요. {그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감자 같이 한다고 할 적에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10308 # 소가 함 번 지나면 소년 빠르거덩. {소가 한 번 지나면 소는 빠르거든.}

10308 # 감자씨 그가 마:이 쥐구서 똑똑 떨어구면 빠르데 이누면 한나 한나 이르케 쥐구서두 한나 한나 쥐: 놔야 된다 마리며. {감자씨 그거 많이 쥐고서 똑똑 떨어뜨리면 빠르데 이놈은 하나 하나 이렇게 쥐고서도 하나 하나 쥐어 놔야 된단 말이야.}

10308 # 그래서 사라미 여래, 여래 하지. {그래서 사람이 여럿, 여럿이 하지.}

10308 # 그래서 가대기루 덮썬. {그래서 가대기로 덮지.}

10308 @ 더풀 때는 가대기루 더퍼요? {덮을 때는 가대기로 덮어요?}

10308 # 예, 그애 그러치. {예, 그래 그렇지.}

10308 # 기래 마:니 하능 거 그르키 하지. {그래 많이 하는 건 그렇게 하지.}

10308 # 게 저개 하능 건 소느루 다: 싱꾸 소느루 더꾸 그저 다 이르치. {그래 적게 하는 건 손으로 다 심고 손으로 덮고 그저 다 그렇지.}

10308 @ 그러면 그건 함 번 시머 노먼 켈 때까지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건 한 번 심어
놓으면 켈 때까지 그냥 놔둬요?}

10308 # 켈 때까지 매:애지 감자바트 매:애지. {켈 때까지 매야지 감자 받을 매야지.}

10308 # 스누루 매:애지. {손으로 매야지.}

10308 # 게 인저 아시벌 땀: 때는 그저 풀먼 다: 자버내구 두벌채 가서는 감자르 부끼루 줘
야지. {그래 이제 아시벌 땀: 때는 그저 풀만 다 잡아내고 두벌채 가서는 감자를 북
을 줘야지.}

10308 # 감자 미태 홀그 이르키 부끼르 이르키 준다 마리어. [감자 밑에 흙을 이렇게 북을
이렇게 준다 말이야.}

10308 # 그라먼 이 흑 이: 감자가 크면서 뿌리루 여기 나가면서 감자가 달리지. {그러면 이
흙 감자가 크면서 뿌리로 여기 나가면서 감자가 달리지.}

10308 # 그래서 부끼르 줘야 된다, 감자는 부끼르 마:이 준다구. {그래서 북을 줘야 된다,
감자는 북을 많이 준다고.}

10308 # 제:일 조키는 머: 하게 되문 어: 쇠똥 거름 이글 마:이 내가구 감자를 로케 되면 그
대 감자가 크:지. {제일 좋기는 뭐 하느냐 하면 에 쇠똥 거름 이걸 많이 내가고 감
자를 놓게 되면 그 다음에 감자가 크지.}

10308 @ 켈 때는 어트개 캐요? {켈 때는 어떻게 캐요?}

10308 # 켈 때는 켈 땀 마:능 감자는 어: 가대기루 캐:지. {켈 때는 켈 때는 많은 감자는 에
가대기로 캐지.}

10308 # 가대기루 또 가라 뻘지다 마리어. {가대기로 또 갈아 엮는단 말이야.}

10308 # 그 감잔 꼬랑 미출. {그 감자는 고랑 밑을.}

10308 # 게서 홀 러머가면서 감자가 툭툭툭툭 빠주머 나오지. {그래서 흙떡 넘어가면서 감
자가 툭툭툭툭 빠지면서 나오지.}

10308 # 그라먼 주: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줍기만 하면 되지.}

10308 # 그르케 마:능 감잔. {그렇게 많은 감자는.}

10308 # 여기는 쪼끄마 요:롱 건 호:미루 캔담 마리어. {여기는 조그만 요런 건 호미로 캔
단 말이야.}

10308 # 다: 호미루 캐구, 쪼구망쿠망. {다 호미로 캐고, 쪼그만큼한 것은.}

10308 @ 고구마:는 멀루 시머요? {고구마는 뭘로 심어요?}

10308 # 고구마는 이미전 에: 하우스나 지배서 싸걸 티우지. {고구마는 이미전 에 하우스나
집에서 싹을 틔우지.}

10308 # 싸거 고구마르 통태루 가따 노쿠 그 온더루 보장해서 싸르 티우 싸글 티우지. {싹
을 고구마를 통째로 가져다 놓고 그 온도를 유지해서 싹을 틔우 싹을 틔우지.}

10308 @ 그냥 나두만 싸기 터요? {그냥 놔두면 싹이 터요?}

10308 # 어: 그냥 나:두만, {어, 그냥 놔두면,} 10308 @ 그냥 고구마 이런대 이르캐, {그냥
고구마 이런데 이렇게.} 10308 #어:. {어.}

10308 @ 따뜨타개? {따뜻하게?} 10308 # 어: 어, 그냥 놔:두면 싸기 트지. {어 어, 그냥
놔두면 싹이 트지.}

10308 # 그래 야중에 싸기 이만:치 커서 에: 이마니 한 뽀미 커쓰때 헬 썩개는 여기서 자기
절루 뿌'리가 나오지. {그래 나중에 싹이 이만큼 커서 에 이만큼 한 뽀미 컸다 할
적에 여기서 저절로 뿌리가 나오지.}

10308 # 그러면 요거 요거 똑 떼서 싸:그 한 다발씩 꼬꽁 묵찌. {그러면 요거 요거 똑 떼서 싸:를 한 다발씩 꼭꼭 묵지.}

10308 # 무꺼 자주구 그 다매 무래다 당귀 노치, 뿌리 이는 쪼그루. {묵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다 담귀 놓지, 뿌리 있는 쪽으로.}

10308 # 게 무래다 당귀 노쿠 이따가 다: 된 다매는 그 뿌리를 가따 여기다 가따 죽: 하나씩 심:찌. {그래 물에다 담귀놓고 있다가 다 된 다음에는 그 뿌리를 가져다 여기다 가져다 죽 하나씩 심지.}

10308 # 이글 가따 고구마 심너논다 이르께 하지. {이걸 가지고 고구마 심는다 이렇게 하지.}

10308 @ 그거는 골: 안 타요? {그거는 골 안 타요?}

10308 # 골: 안 타요. {골 안 타요.}

10308 @ 그냥 평지에다 시머요? {그냥 평지에다 심어요?}

10308 # 어:, 평지에다 심:찌. {어, 평지에다 심지.}

10308 # 그러구서 그 다매는 흘치지르 해:주면 부끼가 축: 올라간다 마리어.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흘치질을 해 주면 북이 쑥 올라간단 말이야.}

10308 @ 아: 평지에다가 줄 마취 싱꾸. {아 평지에다가 줄을 맞춰 심고.}

10308 # 으:. {응.}

10308 @ 흘치질 해서 호글 번지면... {흘치질 해서 흙을 번지면...} 10308 # 으: 그러치. {응 그렇지.}

10308 @ 부끼가 저절루 생긴다구. {북이 저절로 생긴다고.}

10308 # 저절루 다: 되지, 마:니 하능 건. {저절로 다 되지, 많이 하는 건.}

10308 @ 그러면 쪼곰 싸기 큰 다매 해야 되겠네요? 바루 하나요? {그러면 조금 싸이 큰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바로 하나요?}

10308 @ 후치지라능 거. {후치질 하는 거.}

10308 # 후치지랑 모사리 다: 하면 하능 기지. {후치질은 모사리 다 하면 하는 거지.}

10308 # 그 다매는 모사리 다: 한 다매 흘치질 해:주구 고구마 녁꾸리 마이 범는다 마리어. {그 다음에는 모살이 다 한 다음에 흘치질 해주고 고구마 녁쿨이 많이 번는단 말이야.}

10308 # 그러면 이: 녁쿨 빠드며서 매:디 매디 또 땅애 뿌리를 바그면서 또 나가지. {그러면 이 녁쿨 번으면서 마디마디 또 땅이 뿌리를 박으면서 또 나가지.}

10308 # 그르키 모:타개 이 작대기루다 이글 고구마 녁꾸리 이르키 돼:쓰면 이글 드러서 번저주지 이짜그루 자꾸. {그렇게 못하게 이 작대기로 이걸 고구마 녁쿨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걸 들어서 뒤집어 주지 이쪽으로 자꾸.}

10308 # 그 다매 또 이짜개서 메칠 된 다 한 일주일 너머따 뿌리 바글 때 돼:따 하면 또: 번지.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며칠 된 다음에 한 일주일 넘었다 뿌리 박을 때 되었다 하면 또 뒤집어 주지.}

10308 @ 뿌리 모빠개. {뿌리 못 박게.}

10308 # 으: 뿌리 모: 바개. {응, 뿌리 못 박게.}

10308 # 그러면 뿌리를 모: 빠겨야 이쪽 원 시문대서 고구마가 크다 마리어. {그러면 뿌리를 못 박아야 이쪽 원래 심은 데서 고구마가 큰단 말이야.}

10308 @ 그래서 요 아패두 뒤지버 나꾸나. {그래서 요 앞에도 뒤집어 왔구나.}

10308 @ 난 저 왜 저러케 난나 그래쥬요. {난 저 왜 저렇게 낯는가 그랬쥬요.}

10308 # 헤헤헤헤헤 그르치유. {헤헤헤헤헤 그렇쥬요.}

10308 @ 그거는 그러케 하구 인재 나:중에 켈 때는 어트게 캐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켈 때는 어떻게 캐요?}

10308 # 켈 때 ** -하품- 마:느면 마:느면 가대기루 캐구. {켈 때 그 많으면 많으면 가대기로 캐고.}

10308 # 그 다매 기개루 커 캐거나 가대기루 캐구. {그 다음에 기계로 캐 캐거나 가대기로 캐고.}

10308 # 쪼끄마면 호미루 캐구. {조그만하면 호미로 캐고.}

10308 # 그저 그러치. {그저 그렇지.}

10318 @ 예:전내 가시랄 때하구 요새 가시랄 때하구는 다르쥬요? {예전에 추수할 때하고 요새 추수할 때하고는 다르쥬요?}

10318 # 다:르지 양: 마:이 다르지. {다르지 않고, 많이 다르지.}

10318 # 지그문 다: 베두 기개루 비:구 기개루 베서 노내서 다: 터러서 베루 바더 오농 거 뚜 이꾸 지그면 허:라지. {지금은 다 벼도 기계로 베고 기계로 베서 논에서 다 털어서 벼로 받아 오는 것도 있고 지금은 수월하지.}

10318 @ 엔나래는 머:루 가슬해요? {옛날에는 무엇으로 추수해요?}

10318 # 엔:나래는 다: 집베 시러다가, 시러다가 마당애다 싸:나 벤나가리 싸:따가 그 다매 기개루 털구. {옛날에는 다 집에 실어다가, 실어다가 마당에 쌓아 낫 벧가리 쌓았다가 그 다음에 기계로 털고.}

10318 # 발루 밭:는 기개루 털:거나 호건 어: 모다 노쿠 그걸 돌려서 그냥 털거나 그다 이르케 해:쥬. {발로 밟는 기계로 털거나 혹은 에 모터 놓고 그걸 돌려서 그냥 털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

10318 # 그래 기개 아패 선 사람드리 영: 바뿌지. {그래 기계 앞에 선 사람들이 아주 힘들지.}

10318 # 여기다가 이러::키 쓰구 안:경을 쓰구 그라구서는 더워두 할 쑈 업쥬.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안경을 쓰고 그러고는 더워도 할 수 없지.}

10318 # 그르케 쓰 쓰구서는 기개 아패서 저: 머여 깔키질한다 마리여. {그렇게 쓰고는 기계 앞에서 저 뭐야 깔키질한단 말이야.}

10318 # 검 북띠기 떠러징 거. {거 북더기 떨어진 거.}

10318 # 그래서 그르키 아나개 되문 누내 까시래기 드르가지 베아리 때리지 그 다매 기개에서 탕 마저 가주구 나오면서 때리능 개 만:치. {그래서 그렇게 안하게 되면 눈에 가시랭이 들어가지 벼알이 때리지 그 다음에 기계에서 탁 맞아 가지고 나오면서 때리는 게 많지.}

10318 # 그러케 대면 예:: 그 모가지루 이냥 까스래기가 막: 드르가구 그 다매 북 저: 이파리 떠러징 개 막 그저 그러가 꺼끌꺼끌해 이:를 하지 모타지. {그렇게 되면 에 그 목으로 그냥 가시랭이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더기) 저 이파리 떨어진 게 막 그저 그래서 까끌까끌해서 일을 하지 못하지.}

10318 # 그래 여기서부터 모자르 이르키 다: 이르키 쓰지. {그래 여기서부터 모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쓰지.}

10318 # 게 더워두 그거 써야지 하지 모: 탄... {그래 더워도 그걸 써야지 하지 못 한단...}

10319 @ 그르케 하:면 나중애 인제 방아두 찌야 되자나요? {그렇게 하면 나중애 이제 방아도 찢어야 되잖아요.}

10319 # 게 방아 찌치. {그래 방아 찢지.} 10319 @ 방아는 어트개 찌어썩요? {방아는 어떻게 찢었어요?}

10319 # 방아는 기개빵아애 가서 찌찌 머 다:. {방아는 기계방아애 가서 찢지 뭐 다.}

10319 @ 예저내는? {예전에는?}

10319 # 예:저내는 성매뿔루 찌코. {예전에는 석맷돌로 찢고.}

10319 # 질구통 물방아루 찌코. {질구통 물방아로 찢고.}

10319 @ 국싱마다 방아 찢능 개 다를 꺼 아니요? {곡식마다 방아 찢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10319 # 다르지. {다르지.}

10319 # 버:리는 버:리는 물부꾸 찌꾸:. {보리는 보리는 물 붓고 찢고.}

10319 @ 어디다가. {어디에다가.}

10319 # 화:개다가. {확에다가.}

10319 # 보리철 거기 이룬 이르키 찢는 어 물방아 이르키 찢는 화:개다가 무를 여꾸 보리 보리를 여치. {보리철 거기 이룬 이렇게 찢는 물방아 이렇게 찢는 확에다가 물을 넣고 보리 보리를 넣지.}

10319 # 게 여서 이: 찢는 기가내 보면서 무리 마:능가 즈궁가. {그래 넣어서 이 찢는 동안에 보면서 물이 많은가 적은가.}

10319 # 이거 조저래 가면서 무를 부:면 그 다매 보리방아넌 그냥: 짜꾸 찌치. {이거 조절해 가면서 물을 부으면 그 다음에 보리방아는 그냥 자꾸 찢지.}

10319 # 단빠내 암 빠지지 이개. {단번에 안 빠지지 이개.}

10319 # 게서 이글 찌어다가 또 말리워야지. {그래서 이걸 찢어다가 또 말려야지.}

10319 # 말리워서 다시: 두:별채 가서 이누멸 쓴다 마리어 또 방아애다. {말려서 다시 두별채 가서 이눔을 쓴단 말이야 또 방아애다가.}

10319 # 그래 이르케 할 때 그때 물두 또 마초 여야지. {그래 이렇게 할 때 그때 물도 또 맞춰 넣어야지.}

10319 # 그래서 썩: 쓰러야 보리싸래 새타케 돼지. {그래서 썩 쏘어야 보리쌀이 새하얗게 되지.}

10319 @ 그러면 그거는 어떤 방아애다 찢 썩요? {그러면 그건 어떤 방아애다 찢 찢어요?}

10319 # 응? {응?}

10319 @ 그럼-, 보리방아는 어떤 방아애다 해요? {그럼, 보리방아는 어떤 방아애다 해요?}

10319 # 디딜빵아:다 하거나 이 성매방아애다 하거나 다:. {디딜빵아애다 하거나 이 석매방아애다 하거나 다.}

10319 @ 성매애두요? {석매에도요?}

10319 # 어: 성매두 되구 그 다매 디딜빵아두 되구 그 다매 물 물방아애두 되구 호바개서 따부찌머 그건. {어 석매도 되고 그 다음에 디딜방아도 되고 그 다음에 물 물방아애도 되고 확에서 다르지 뭐 그건.}

10319 # 우리두 여:: 솔바째다 물방아 나와때썩. {우리도 여 솔밭재애다 물방아 나왔었어요.}

10319 # 물방아 무릎 이르기 내려와서 물루 물루 이르게 다며 가주구 이걸 무 묵씨루 돌리게 되면 여기 도러가는데 이기 함파내 저 카니 이짜너요 여기. {물방아 물을 이렇게 내려와서 물로 물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걸 무 묵씨로 돌리게 되며 ㄴ여기 돌아가는데 이게 한 판에 저 칸이 있잖아요 여기.} 10319 @ 예. {예.} 10319 # 물방아. {물방아.}

10319 # 카내 무를 바그먼 여기 시: 심:도가 이꺼덩. {칸에 물을 받으면 여기 시 심도가 있거든.}

10319 # 개 심:보가 이써 가주구 그 다매 이개 도러, 이기 함 파내 떠서 물 물방아 사리 이르기 거기 다:끼 대매 그 다매는 인재 도러 물 다며서 도러가는 바라매 도러가는데: 여기다가 그:: 심보애다가 가:루 요러캐 하나 매: 두지. {그래 심보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 이게 한 판에 떠서 물 물방아 살이 이렇게 거기 닿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 물 담아서 돌아가는 바람에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그 심보애다가 가로 요렇게 매 두지.}

10319 # 끝' 꾸녀글 파서 그 다매 여기 가:르아구 이짜건 이짜건 세째르 가따 바거 노치. {끝 구멍을 파서 그 다음에 여기 가로 하고 이쪽은 이쪽은 쇠를 가져다 박아 놓지.}

10319 # 그라구 이르기 가따 거러 논다 마리여. {그리고 이렇게 가져다 걸어 놓는단 말이야.}

10319 # 그라먼 이기 도러가면서 도러가면서 예:: 이:: 시:: 끝 꾸녀 파서 저: 머여 여기다 바거 논 나무까 요만하면 요개: 도러가면서 이: 발디디개 그 발 물방아 발디디개 그: 어: 이르기:: 발방아 발디디개처럼 이르게 놀:러 주지.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예 이 시 끝 구멍 파서 저 뭐야 여기에다 박아 놓은 나무가 요만하면 요개 돌아가면서 이 발디디개 그 발 발방아 발디디개 그 이렇게 발방아 발디디개처럼 이렇게 놀러주지.}

10319 # 놀러주문 저기서는 들린다 마리여. {놀러주면 저기서는 들린단 말이야.}

10319 # 들려따가 탕: 내려간 다매 다시 다시 이짜개 또 이짜개 또: 누르지. {드렸다가 탁 내려간 다음에 다시 다시 이쪽에 것이 이쪽에 것이 또 누르지.}

10319 # 그라먼 또: 들리지 또 쿵더쿵더쿵더쿵더 이르게 돼지. {그러면 또 들리지 또 쿵덕 쿵덕쿵덕쿵덕 이렇게 되지.}

10319 @ 규칙찌그루 하겐내요? {규칙적으로 하겠네요?}

10319 # 예:, 규칙찌그루 가요. {예, 규칙적으로 가요.}

10319 @ 방아애두 이르미 다: 이찌요? 부 부 부속 부분마다 이르미 따:루 이찌요? {방아에도 이름이 다 있지요? 부 부속 부분마다 이름이 따로 있지요?}

10319 # 이르미 다: 이는데 그건 내: 어려서 보아씨끼 때무내: 다: 이름 모르오. {이름이 다 있는데 그건 내 어려서 봤기 때문에 다 이름 모르오.}

10319 # 근 머: 물바지 무슨 머:... {그건 뭐 물받이 무슨 뭐...}

10319 # 그래 저 물방아 물방아는 대:부분 서른여섯 카이지. {그래 저 물방아 물방아는 대 부분 서른여섯 칸이지.}

10319 @ 예? {예?}

10319 # 서른여섯 칸. {서른여섯 칸.}

10319 @ 서른여섯 칸? {서른여섯 칸?}

10319 # 물바던 이르키 물 바더 가주구, {발받은 이렇게 물 받아 가지고,} 10319 @ 물 받는대가? {물 받는데가?} 10319 # 이게 서른여섯 칸. {이게 서른여섯 칸.}

10319 # 게서 물방아 노래두 이짜니여? {그래서 물방아 노래도 있잖아?}

10319 # 물방아 노래. {물방아 노래.}

10319 @ 물방아 노래? {물방아 노래?}

10319 # 예:, 그기 저:... {예, 그제 저...}

10319 # 청산읍내 물레방아는 사구삼십육 서른여섯 칸 카카니 무털 양꼬 배배뱅뱅뱅 요리 조리 도넛에 그 다매 예 우리집 낭구는 날만 앙고 돈다 이러가 그거 해:능 개 이짜너. 10319 @ 아: 그개 그래서... {청산읍내 물레방아는 사구삼십육 서른여섯 칸 칸 칸이 물을 안고 배배뱅뱅뱅 요리조리 도넛에 그 다음에 예 우리집 낭군은 나만 안고 돈다 이래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

10319 @ 그래서. [그래서.] 10319 # 예:. {예.}

10319 @ 서른... {서른...}

10319 # 서른여섯 칸. {서른여섯 칸.}

10319 @ 여서 카니 돈다. {여섯 칸이 돈다.}

10319 # 어:. {예.}

10319 @ 밀:까루는 어디에서 빠서요? {밀가루는 어디에서 뺐았어요?}

10319 # 밀가루는 그건: 머 기개애다 다: 하닝개. {밀가루는 그건 뭐 기개애다 다 하니까.}

10319 @ 기개애. {기개애.}

10319 # 예:. {예.}

10319 @ 이 이 이렇 걸루 저:... {이 이런 걸로 저...}

10319 # 밀가루 내:능 거 그걸루 빠차만 가이 힘드지. {밀가루 내는 거 그걸로 뺐려면 아주 힘들지.}

10319 # 아:주 느찌. {아주 늦지.} 10319 @ 이 콩가루는 머:애다 써요 이... {이 콩가루는 무엇애다가 써요 이.}

10319 # 절구통애다 절구통 정구때애라. {절구통애다 절구통 절굿대애다.}

10319 @ 그거는 머요? {그것은 뭐요?} 10319 # 미:를 빠차만 그기 대:다이 힘들지. {밀을 뺐으려면 그개 대단히 힘들지.}

10319 # 절구통 절구때지 머 그기. {절구통 절굿대지 뭐 그제.}

10319 @ 그거는 거기다가는 머: 해요? {그거는 거기애다가는 뭐 해요?}

10319 # 거기다가는 주:로 주로 쪼꾸망크망 거 이렇 거 다: 하지 머. {거기애다가는 주로 주로 조금만큼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지 뭐.}

10319 # 마:니 하능 거 거기다 모타지 매:기 드러서. {많이 하는 거 거기다 못하지 맥이 들어서.}

10319 # 그저: 보리쌀 가통 거 때껴 멍는다. {그저 보리쌀 같은 것 닭여 먹는다.}

10319 # 그 다매 이짜개 저:: 떠'까통 거 거기다 찢는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저 떡 같은 것 거기애다 찢는다.}

10319 # 그 다매: 무슨 쪼그망 건 떠'까루 가통 거 빨: 찌개 고른대 뺐는다. {그 다음에 무슨 쪼그만큼 하는 거 떡가루 같은 거 빨 적에 그런데 뺐는다.}

10319 # 으: 절구통애다 빠난다. {으, 절구통애다 뺐는다.}

10321 @ 그렇 거 베나: 보리나: 밀: 가통 거 이르게 찌'차나요. {그런 거 베나 보리나 밀 같은 거 이렇게 찜작하나요?}

10321 # 으:. {응.}

10321 @ 방아 찌차나요? {방아 찜작하나요?}

10321 # 으:. {응.}

10321 @ 껌질 라오지요? {껌질 나오지요?}

10321 # 으:. {응.}

10321 @ 그 이르미 다: 다르지요? {그 이름이 다 다르지요?}

10321 # 다르지. {다르지.} 10321 @ 베: 보리 밀: 이렇 거. {벼 보리 밀 이런 것.}

10321 # 다: 다르지 머, 그래 거기: 예:: 곡썩 명칭에 따라서 그:: 게가 다: 따르지. {다 다르지 뭐, 그래 거기 예 곡식 명칭에 따라서 그 거가 다 다르지.}

10321 @ 어트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0321 # 보리깨-, 베깨-, 보리깨 베깨 밀: 예: 밀껌따기 이르기 다: 다르지. {보릿겨 벗겨, 보릿겨 벗겨 밀 예 밀껌따기 이렇게 다 다르지.}

10321 @ 보리 베깨두 두 개 두: 가지가 이짜나요? {보리 벗겨도 두 개 두 가지가 있잖아요?}

10321 # 이썩요. {있어요.} 10321 @ 거태꺼 이꾸 또 소개 꺼 허영 거뚜 이꾸. {겉에 것 있고 또 속에 것 하얀 것도 있고.}

10321 @ 가루 가통 거. {가루 같은 거.}

10321 # 거태 건 썩개라구 하구 게: 두: 번채 건 공:기라구 하구. {겉에 건 왕겨라고 하고 그래 두번째 건 고운겨라고 하고.}

10321 # 쓰:르매 나오능 건 곤:게라 구라지. {썰으면서 나오는 건 고운겨라고 하지.}

10321 # 두:버벌찌넨: 찌서. {두벌찌는 찜어서.}

10321 @ 미:른 그거 빨:정 거 머요? {밀은 그거 빨건 거 뭐요?}

10321 # 밀: 빨강 개 어디썩. {밀 빨건 게 어디있어.}

10321 @ 밀: 빠:꾸 나면 밀가루 빠:꾸 나면 빨강 거 나오자나요. {밀 빨고 나면 밀가루 빨고 나면 빨건 거 나오잖아요.}

10321 # 그 기우:리라구 하던지 기울:. {그 기울이라고 하든가 기울.}

10321 @ 기울? {기울?}

10321 # 어:, 밀-기울. {어, 밀기울.}

10321 @ 그걸루 저:기 누룩-카능 경가요? {그걸로 저기 누룩하는 건가요?}

10321 # 누룩뚜 하:구. {누룩도 하고.}

10321 @ 그걸루? {그걸로?}

10321 # 어:. {어.}

10321 # 누룩뚜 하:구 그: 기울떡뚜 해: 머꾸. {누룩도 하고 그 기울떡도 해 먹고.}

10321 # 그러구 다: 그러지. {그러고 다 그렇지.}

10322 @ 그러캐 해서 인재 타:자카자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작하잖아요?}

10322 @ 그: 가을 하자나요? {그 가을하잖아요?}

10322 # 으:. {응.}

10322 @ 그러면 인젠 그거뚜 는는대가 또 다: 다르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넣는 데가 또 다 다르지요?}

10322 # 그럼. {그럼.}

10322 @ 베: 는는 대 보리 는는 대 이렇 개 다:... {벼 넣는 데 보리 넣는 데 이런 게 다...}

10322 # 예: 다르지. {예 다르지.}

10322 @ 어디다가 너요? 그 는는... {어디에다가 넣어요? 그 넣는...}

10322 # 두지애다 쏘더 여서. {뒤주에다 쏟아 넣어서.}

10322 # 싸: 베 뚜지 예:: 밀: 두지 버리 두지 이 두지애다 다: 여치. {쌀 벼 뒤주 에 밀 뒤주 보리 뒤주 이 뒤주에다 다 넣지.}

10322 # 게 그저내 엔:나래 두지가 업쓸 때는 창꼬애다 그냥 카':느 마꾸서 거기 따루따루 여 느치. {그래 그전에 옛날에 뒤주가 없을 때는 창고애다 그냥 칸을 막고서 거기 따로따로 넣어 두지.}

10322 @ 가 가마쓰애두 느차나요, 그거? {가 가마니에도 넣잖아요, 그거?}

10322 # 가마쓰애다 연능 건 여: 가주구 거 창고애 느따 쟁이 쟁이 열: 쭈두 이꾸. {가마니애다 넣는 건 넣어 가지고 거기 창고에 넣었다 쟁여 쟁여서 넣을 수도 있고.}

10322 # 아 사슬루 열: 쭈두 이꾸. {아 사슬로 넣을 수도 있고.}

10322 # 자래노면 사슬루 여꾸, 그래 저:... {잘해 놓으면 사슬로 넣고, 그래 저...}

10322 @ 사슬루 연능 개 머요? {사슬로 넣는 게 뭐요?}

10322 # 사스리라능 건 홀 어: 가마쓰두 읍:구 아무 거뚜 가따 폭: 퍼다가 가따 연능 거 가따 사슬루 연는다. {사슬이라는 건 홀 에 가마니도 없고 아무 것도 갖다 폭 퍼다가 갖다 넣은 걸 갖다 사슬로 넣는다.}

10322 @ 지푸루 이리:캐 똥그러캐 여꺼서 하지두 아나씨요? {짚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엮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10322 # 어 그거는 섬:. {어 그진 섬.}

10322 @ 섬:? {섬.}

10322 # 으:, 지푸루 여꺼서 서:매다 가따 여꾸, 그러치. {응, 짚으로 엮어서 섬에다 갖다 넣고, 그렇지.}

10322 @ 그거는 주로 밀: 너씨요, 서:매는?{그것은 주로 밀 넣었어요, 섬에는?}

10322 # 서:매는 그그 가정 곡씩 다: 여치, 베 여두 되구 밀 러두 되구. {섬에는 그거 가진 곡식 다 넣지, 벼 넣어도 되고 밀 넣어도 되고.}

10322 # 예: 근 보리 여두 되구 근 아무 기나 다: 여치. {예 그건 보리 넣어도 되고 그건 아무 것이나 다 넣지.}

10322 @ 통가리라능 거 이씨요? {통가리라는 것 있어요?}

10322 # 예, 이씨요? {예, 있어요.}

10322 @ 어떻 거 어트개 하능 거요?{어떤 것 어떻게 하는 거요?}

10322 @ 머: 는능 거요? {뭐 넣는 거요?}

10322 # 그거는 이 저기 지그미 지금두 이찌 머, 그 양자내 양자내 그: 통가리 해 가주구 거기다가 그냥 막:: 가따 분능 거여. {그것은 이 저기 지금 이 지금도 있지 뭐, 그 양잔에 양잔에 그 통가리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막 갖다 붓는 거야.}

10322 @ 통가리는 밀:루 맨드러요? {통가리는 밀로 만들어요?}

10322 # 통가리는 주로: 예: 깔:때, 깔:때루 깔:때루 해서 딱: 저루 가주구 쪼보::타개 작 자리 저뤄 나가능 거처름 길::개 저루지. {통가리는 주로 예 갈대, 갈대로 갈대로 해서 딱 걸어 가지고 조בות하게 작 자리 걸어 나가는 것처럼 길게 걸지.}

10322 # 그냥 꼬티 읍씨 그저 길개 자:꾸 저뤄 나가면 되거덩, 요마:이 널붕 거. {그냥 끝이 없이 그저 길게 자꾸 걸어 나가면 되거든, 요만큼 넓은 거.}

10322 # 게 요골 어:: 요짜 요짜 삼부내 일' 까랑 두구 삼부내 이' 까랑 또 올라가지. {그래 요걸 에 이짜 이짜 삼분의 일 가랑 두고 삼분의 이 가랑 또 올라가지.}

10322 # 그럼 요기 올라가는 중애다 여다 그러면 요기다 어:: 도러가는 대루 자::꾸 대:지. {그럼 요기 올라가는 중애다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다 돌아가는 대로 자꾸 대지.}

10322 # 게 참대루 올려 대:지. {그래 참대로 올려 대지.}

10322 # 올려 대면 뽕:뽕 드러가서 이기 사 상 큰:: 데 상처럼 도러가지 이르키 톱구라캐. {올려 대면 빙빙 들어가서 이게 상 상 큰 데 상처럼 돌아가지 이렇게 둥그랗게.}

10322 @ 이르캐 위루 이르캐. {이렇게 위로 이렇게.} 10322 # 에 에 이르캐. {에 에 이렇게.}

10322 # 그르 그개 그개 멍가 하니까 그저 통가리. {그렇 그개 그개 무엇인가 하면 그저 통가리.}

10322 @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 가통 거는 어트개 보관늘 해요, 겨우래 어디다가.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을 해요, 겨울에 어디에다가.}

10322 # 그른 디다 아:니씨요. {그런 데가 안 있지요.}

10322 # 감자 고구마:는 고구마는 이르캐: 서:무르 담:꺼나 이르캐 아나지. {감자 고구마는 고구마는 이렇게 섬으로 담거나 이렇게 안 하지.}

10322 # 자:꾸 만지면 뼈꺼지구 주물러지구 써꾸 한다 마리어. {자꾸 만지면 벗겨지고 주물러지고 썩고 한단 말이야.}

10322 # 기래서 그 상처가 가개 되면 근 니런 썩는다 마리어.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면 그건 이런 썩는단 말이야.}

10322 # 그래기 때매 고:애개 가서 그 따 다: 캐:서 가따 척 뷔 노면 다:지 머 그대. {그렇기 때문에 고애기 가서 그 다 캐서 가져다 척 부어 놓으면 다지 뭐 그 다음에.}

10322 @ 얼마가 뷔:요? {어디다가 뷔요?} 10322 # 그냥. {그냥.} 10322 @ 겨울 겨우래 얼:자나요? {겨울 겨울에 얼잖아요?} 10322 # 창꼬애다가 창 창꼬애다가 가따 뷔:노면. {창고애다가 창 창고애다가 가져다 부어 놓으면.}

10322 # 에 저: 저 항국까튼대는 아:너러요 근. {에 저 저 한국 같은 데는 안 얼어요.}

10322 @ 여기서는 어트개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10322 # 여기는 어:러요. {여기는 얼어요.}

10322 # 여기서는 우:매다 여치. {여기서는 움에다 넣다.}

10322 # 거저 이제: 짐치움 거기다 다: 여치. {그저 이제 김치움 거기에다 다 넣지.}

10322 @ 고구마두? {고구마도?}

10322 # 노:배두 여꾸 고구마두 여꾸 거기 배:차두 드르가구 거기 무끼두 드르가구 다: 드르가지, 구라내. {무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거기 배추도 들어가고 거기 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굴 안에.}

10322 @ 그럼 겨울랄 꺼는 다: 우:매다 는나요? {그러면 겨울 날 것은 다 움에다 넣나요?}

10322 # 우:매다 여요. {움에다 넣어요.}

10322 # 그르자느면 다: 얼지 머. {그렇지 않으면 다 얼지 뭐.}

10322 # 그래두: 그 우매다 여:두 어떻 건 어:러요. {그래도 그 움에다 넣어도 어떤 것은 얼어요.}

10322 # 꼭: 더퍼서 요기다 해: 가주 마:개루 꼬:개 가주구 꼭: 더퍼 노먼 어 땅이 어러드르
가면서 요기 성애가 가::뜩 지지. {꼭 덮어서 요기에다 해 가지고 마개로 꼭 해 가
지고 꼭 덮어 놓으면 에 땅이 얼어들어가면서 요기 성애가 가득 끼지.}

10322 # 문 여기 여기 더퍼 논 여기가 여기가 우:애가 끼능 개 아니라... {문 여기 여기 덮
어 놓은 여기가 여기가 위가 끼는 게 아니라...} 10322 @ 우애, 뚜껑. {위에 뚜
껑.}

10322 @ 예 뚜껑 미태. {예 뚜껑 밑에.}

10322 # 예: 뚜껑 미태 여기가 다: 이래. {예 뚜껑 밑에 여기가 다 이래.}

10322 # 그래 가주서 어:러 어러 드르간다 마리어 자꾸. {그래 가지고 얼어 얼어 들어간단
말이야 자꾸.}

10322 # 그래서 이걸 동사매 꼬:내다 머글라면 꼬:내다 머글라면 이 뚜개를 여기 드르가따
나와서 다시 잘:: 더퍼야지 또. {그래서 이걸 동삼매 꺼내다 먹으려면 꺼내다 먹으
려면 이 뚜껑을 여기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잘 덮어야지 또.}

10322 @ 으응:. {으응.}

10322 # 젤: 아너능 개 머라게 되면 감자꿀:: 움: 우애다가 콩태 콩태라능 개 그거 콩을 가
스라 그: 탈고걸 하면 머:가 나오능가 하나까 콩애 콩 그:: 꼬투리, 꼬투리나 콩 대
공에서 거 솜털 가통 개 이:찌. {제일 안 어는 게 뭐냐 하면 감자 꿀 움 위에다가
콩태 콩태라는 게 그거 콩을 타작하 그 탈곡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콩에 콩
그 꼬투리, 꼬투리나 콩 대에서 그 솜털 같은 게 있지.}

10322 # 그 솜털 가통 개 떠러져서 다져징 기 이따 마리어 그. {그 솜털 같은 게 떨어져서
다져진 게 있단 말이야.}

10322 # 저절루 다져지지 머 거서. {저절로 다져지지 뭐 거기서.}

10322 # 아주 떠까루 가통 개 창 놀리니까 그 다매 다져지지. {아주 떡가루 같은게 창 놀리
니까 그 다음에 다져지지.}

10322 # 그 콩태를 가따 감자꾸루애다 착:: 더퍼 노먼 아:너러요. {그 콩태를 가져다 감자
꿀 위에다 착 덮어 놓으면 안 얼어요.}

10322 # 그 다매 여 별 과:동하는데두 그거 가따 구:래다 여쿠 그거 가따 덩찌. {그다음에
별 과동하는 데도 그거 가져다 굴에다 넣고 그거 가져다 덮지.}

10322 # 그래 그 아:내 어:: 그: 저: 감자꿀 짐치움: 아:내 가따 온도기르 거러 노먼 영도 좌
우가 돼야지 그저 영도 자우. {그래 그 안에 에 그 저 감자 꿀 김치 움 안에 갖다
온도계를 걸어 놓으면 영도 좌우가 되어야지 그저 영도 좌우.}

10322 # 고래 저 온도개르 딱 거러노쿠 별 가:동하지. {그래 저 온도계를 걸어 놓고 별을
과동하지.}

10322 # 게 드르가서 척 보게 되면 온도가 메또다. {그래 들어가 척 보게 되면 온도가 몇
도다.}

10322 # 그러면 돼:따 그래 놔두구. {그러면 되었다 그래 놔두고.}

10322 # 그래 좀 취:서 영하루 내리갈 썩개는 빨:리 단소를 해야지 보리가 어러 주끼 때매.
{그래 좀 추워서 영하로 내려갈 적에는 빨리 단속을 해야지 벌이 얼어 죽기 때문
에.}

10322 @ 보리요? {보리요?}

10322 # 으: 뷔리 과:동할 때. {으응 별 과동할 때.}

10322 @ 아: 보리두 거기다 과:동해요? {아 보리도 거기에다 과동해요?}

10322 # 예: 음: 파구 과:동하지. {어 음 파고 과동하지.}

10322 # 그 다매 지:바내다가 아:주 아이 추께 저런 창꼬 가튼데다가 마:니 하는 사라먼 저 창꼬 가튼디다 바:라만점 드러오는 데 어꼬 그 다매 그: 온도릴 보:장할 썬 인는 이런 조치를 다: 맨드러 노쿠서 그 다애 저 허 허더가내다 하지. {그 다음에 집 안에 다가 아주 안 춥게 저런 창고 같은데다가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창고 같은데다 바람 한 점 들어오는 데 없고 그 다음에 그 온도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다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저 허 헛간에다 하지.}

10322 @ 아 보리. {아 별이지.}

10322 # 과:동하지. {과중하지.}

10322 @ 보리는 어:러요 그냥 나두면? {보리는 얼어요, 그냥 놔두면?}

10322 # 어:러 주꾸 업찌 머 하나두. {얼어 죽고 없지 뭐 하나도.}

10322 @ 그거 보매 심짜나요? {그거 봄에 심잖아요?}

10322 # 뷔:리 꿀 뜨는 뷔:리. {별 꿀 뜨는 별.}

10322 @ 버:리:. {별이.}

10322 # 버:리하구 보:리하구 따:지. {별하고 보리하고 다르지.}

10322 @ 아: 예:. {아, 예.}

10322 @ 저는 지금 보:리 보:리구 하는 줄 아려써요? {저는 지금 보리 보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10322 @ 으응. {으으.} 10322 # 헤헤헤헤. {헤헤헤헤.}

10322 # 다: 따:요 그기. {다 달라요 그게.}

10323 @ 그러면 저:기. {그러면 저기.}

10323 @ 가스 가:슬 하구서요: 지피나 나무가통 결루 머 맨드러서 까능 거뚜 만들구 머 그 저기 그르뚜 만들구 머 여러 가지 담능 거뚜 만들구 그르자나요. {추수 추수하고서요 쟁이나 나무 같은 걸로 뭐 만들어서 까는 것도 만들고 뭐 그 저기 그릇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담는 것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10323 # 그러지.

10323 @ 그 지피나 머 이렇 결루 머머 만드려요? {그 쟁이나 뭐 이런 걸로 뭐뭐 만드려요?}

10323 # 명성 맨들구 둥구멍 맨들구 그 다매 저:: 어:: 종다래끼 맨들구 그 다맨 그대 산테 미'두 맨들구. {명석 만들고 둥구미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에 종다래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삼태미도 만들고.}

10323 # 그저 맨드능 개 만:치 지푸루 하능 개 도렁이두 맨들구. {그저 만드는 게 많지 쟁으로 하는 게 도롱이도 만들고.}

10323 @ 등어리에 저 저 미:구댕기능 거. {등허리에 저 메고 다니는 것.} 10323 # 도렁이. {도롱이.}

10323 # 어: 도렁이두 맨들구. {어 도롱이도 만들고.}

10323 # 만:치 머 지푸라. {많지 뭐 쟁으로 하(는 게).}

10323 @ 망태. {망태.}

10323 @ 신:두 맨들지요, 망태, 지푸루. {신도 만들지요, 망태 쟁으로.}

10323 # 응:? {응?}

10323 @ 지푸루 여기 등에 지능 거뚜 만들구. {짚으로 여기 등에 지는 것도 만들고.}

10323 # 어 망태기두 만들구. {어 망태기도 만들고.}

10323 # 산내끼 째: 가주구 집썬두 삼:꾸. {새끼 째 가지고 짚신도 삼고.}

10323 @ 예:. {예.}

10323 # 메커리두 상:꾸, 머: 마:나애. {메커리도 삼고, 뭐 많아요.}

10323 @ 메커리하구 집씨나구는 어트개... {메커리하고 짚신하고는 어떻게...}

10323 # 항가지지 머. {항가지지 뭐.}

10323 @ 가통 거요? {같은 거요?}

10323 @ 집 둘다 지푸루 하능 거요? {짚 둘다 짚으로 하는 거요?}

10323 # 여기서는 메커리라 그라구. {여기서는 메커리라고 그러고.}

10323 # 우리 저: 항구개서는 집씨기라 그라구. {우리 저 한국에서는 짚신이라고 그러고.}

10324 @ 그럼 겨우래: 겨울 되면 불 때야 대자나요? {그럼 겨울에 겨울 되면 불 때야 되잖아요?}

10324 # 응:. {응.}

10324 @ 불 땔라만 땔: 준비해요? {불 때려면 땔 준비해요?}

10324 @ 어떻 거뜰. {어떤 것들.}

10324 # 나:무르 준비해든지 예:: 석타느 준비하든지 준비해야 돼요. {나무를 준비하든지 에 석탄을 준비하든지 준비해야 돼요.}

10324 @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마:니 해요?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많이 해요?}

10324 # 장 정정나무르 하: 해:노튼지. {장 장작나무를 해 놓든지.}

10324 # 그 다매 참나무 가통 거 베:다가 잘라서 뽕개 노튼지 그게 장저기 되지. {그 다음에 참나무 같은 거 베다가 잘라서 꽤 놓든지, 그제 장작이 되지.}

10324 @ 예. {예.}

10324 # 그 다매 그거 힘:들문 석탄 싸 때구. {그 다음에 그거 힘들면 석탄 사 때고.}

10324 @ 장장만 해요? {장작만 해요?}

10324 # 장적뚜 장정만 하지 다렁 거 머: 업서 그 불시스개두 해서 해 노꾸, 불소시개:. {장작도 장작만 하지 다른 거 뭐 없어, 그 불쏘시개도 해서 해 놓고, 불쏘시개.}

10324 @ 불소시개는 주로 땔:루 해요? {불쏘시개는 주로 땔로 해요?}

10324 # 솔라루 이퍼리두 조:꾸 머 씨리나무두 조:꾸 머. {솔나무 이파리도 좋고 땔 씨리나무도 좋고 땔.}

10324 # 그 다매 이썬 저: 썬때두 조:꾸 머 다: 그룽 걸루. {그 다음에 이썬 저 썬대도 좋고 땔 다 그런 걸로.}

10324 # 가능 걸루. {가는 걸로.}

10324 @ 솔라루 이퍼리 이르개 글, 글거서 해: 논능 거 마리아요? {솔나무 이파리 이렇게 굵, 굵어서 해 놓는 거 말이에요?}

10324 # 예:? {예?}

10324 @ 솔라루 이퍼리 이르개 깔끼루 글궁 거 마리오? {솔나무 이파리 이렇게 깔퀴로 굵은 거 말이에요?}

10324 # 아:니여. {아니야.}

10324 @ 그럼뇨? {그럼요?}

10324 # 솔라루 아:치 솔라루 아치를 베:다가 노면 이게 이파리가 빨::가캐 마르지. {솔나무 가지 솔나무 가지를 베다가 놓으면 이게 이파리가 빨갛게 마르지.}

10324 # 게 마룽 거 그거 뚜꺼 하나 뚜꺼꺼서 부수개다나 확::확확확파파팍 부리 부터서 딱 성냥뿔 퍼:지능 거처럼 그르키 나가지. {그래 마른 거 그거 똑 꺾(어) 하나 똑 꺾어서 아궁이에다 확확확확확 확 불이 붙어서 ㄸ꼭 성냥불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

10324 # 그래 그거 가따 불쏘시개 하기두 하구. {그래 그거 가져다 불쏘시개 하기도 하고.}

10324 # 그 다매 여기서는 배겨 저: 그: 머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백양 저 그 뭐야...}

10324 # 짹짹기: 짹짹기: 꺾기:를 가다가 저: 빼껴다가 벌 번나무 번나무 꺾기:를 비끼다가 말리워서 그 다맨 그걸루 불수개해두 대. {짝짝이 나무 짹짝이 나무 꺾기:를 가져다가 저 벗겨다가 벗 벗나무 벗나무 꺾기:를 벗겨다가 말려서 그 다음에는 그걸로 불쏘시개해도 돼.}

10324 @ 그 짹짹 나무가 그 하:야캐 꺾기:, {그 짹짝이 나무가 그 하얗게 꺾기:,

10324 # 예:. {예.} 10324 @ 벗겨지능 거 그거지요? {벗겨지는 거 그거지요?}

10324 # 예:. {예.}

10324 # 잘:: 타요, 기르민데 머 그개. {잘 타요, 기름인데 뭐 그개.}

10324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24 # 예:. {예.}

10325 @ 겨우래 머글: 그: 채소나 채나 머 과:일 가통 거: 그럼 거는 어트개: 보관을 해요?

{겨울에 먹을 그 채소나 채나 뭐 과일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떻게 보관을 해요?}

10325 @ 겨우래 머글라면 인재 찬두 해 머꾸 그래야 대자나요? {겨울에 먹으려면 이제 찬도 해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10325 # 사과는 사과두 다: 과:동씨기능 개 그러캐 씨기:지, 온도 노코선 그르캐 하지. {사과는 사과도 다 과동시키는 게 그렇게 시키지, 온도 높고서 그렇게 하지.}

10325 @ 구:래다? {굴에다?}

10325 # 으: 사과두에: 지하시를 파구서 지하시래다 가따 과:동 씨겨서 그 다매 배:나 사과 그 다매 저 이런 저: 어:: 이른 저저저 머여 빠나나 무슨 다: 그룽 거 그르캐 드르가:지. {응, 사과도 지하시를 파고서 지하실에다 갖다 과동 시켜서 그 다음에 배나 사과 그 다음에 저 이런 저 어 이런 저저저 뭐야 바나나 무슨 다 그런 거 그렇게 들어가지.}

10325 # 게서 온도조려내서 땅 노면 과:동 되능 기:지. {그래서 온도 조절해내서 딱 놓으면 과동 되는 거지.}

10325 # 열지만 아:느면 되니까 근. {열지만 얇으면 되니까 그건.}

10326 @ 요새는 저: 전기가 드려와 가주구 부리 발근대 예저내는 전기 안 드려올 때는 멀:루 마니 켜썰요? {요새는 저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불이 밝은데 예전에는 전기 안 들어올 때는 뭘로 많이 켜어요?}

10326 @ 에 어떻 거뜰루. {에 어떤 것들로.}

10326 @ 그뚜 여러 가지 이쨌요? {그것도 여러 가지 있지요?}

10326 # 그거뚜 어: 여러 가지, 인재 처으때는 이 일반 보:통 때 조:이께 마라자면 조이께,
조이께하구 그 다매 예: 조이께 베께, 그 다매 저저 무래다 버무려서 예: 왜: 저:
질쌔 삼:는 삼때 이짜니여, {그것도 어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는 이 이반 보통 때
는 조 껌질 말하자면 조 껌질, 조 껌질하고 그 다음에 예 조 껌질 벼 껌질, 그 다
음에 저저 물이대 버무려서 예 왜 저 길쌔 삶는 삼대 있잖아,}

10326 @ 예:. {예.}

10326 # 삼때 가따가 등얼 잡찌. 삼대 가져다가 등을 잡지.}

10326 # 이러키 꼬꼬꼬꼬꼬 이겨서 이겨서 질개두 아나구 그저 누찌:가개 해: 가주구 여기
대애다 이르키 탁:탁 가머 쥘:다 마리어. {이렇게 꺾꺾꺾꺾꺾 이겨서 이겨서 질지
않게 하고 그저 눅게 해 가지고 여기 대애다 이렇게 탁탁 감아 쥘단 말이야.}

10326 # 그러는 그저 한대 서꺼서 이르캐서 딱:: 해서 바쌔: 말리우지. {그러는 그저 한테
섞어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바쌔 말리지.}

10326 # 바쌔 말리우게 되면 그 다매 여 삼대 꼬쟁이 길:거덩. {바쌔 말리게 되면 그 다음
에 요 삼대 꼬챙이가 길거든.}

10326 @ 예:. {예.}

10326 # 차: 거 삼대 꼬쟁이가 길:다 마리어. {차 그 삼대 꼬챙이가 길단 말이야.}

10326 @ 예:. {예.}

10326 # 게 거기다가 이제 딱: 해 노:서는 상애다 노쿠 불 달려서 이르키 노치. {그래 거기
다가 이제 딱 해 놓고서는 상애다 놓고 불 붙여서 이렇게 놓지.}

10326 # 노면 화::나치 머. {놓으면 환하지 뭐.}

10326 # 그르키 해지. {그렇게 하지.}

10326 # 그 다매... {그 다음에...}

10326 @ 그 이르미 머요? {그 이름이 뭐예요?}

10326 # 등. {등.}

10326 @ 그냥 등이요? {그냥 등이요?}

10326 # 어:. {어.}

10326 # 등. {등.}

10326 @ 예:. {예.}

10326 # 그 다매 저: 그거뚜 업쓰면 사내 소쟁이 소쟁이애다 코코리털 맨들지. {그 다음에
저 그것도 없으면 산에 관솔 관솔로 코콜을 만들지.}

10326 @ 코코리는 또 어트개 해요? {코콜은 또 어떻게 해요?}

10326 # 코코리 벼걸 이르키 라는데 벼걸 뜯버따 마리어 여기. {코콜은 벽을 이렇게 하는데
벽을 뚫었다 말이야 여기.}

10326 # 벼걸 뚜꾸 벼걸 뚜꾸 이러:케 저:: 여기다가 이르키 바치개털 하나 해 주지. {벽을
뚫고 벽을 뚫고 이렇게 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침을 하나 해 주지.}

10326 # 그래구 여기다가 이르키: 그: 연기:: 더깨털 이르키 해 논다 마리어. {그러고 여기
에다가 이렇게 그 연기 덮개를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야.}

10326 # 그러문 부리 요기서 털 소쟁이가 타면 이 영기는 바까트루 나가지. {그러면 불이
요기에서 관솔이 타면 이 연기를 밖으로 나가지.}

10326 # 바가티루 그라문 여기는 지바는 화::나타 마리어, 불타능 개. {바깥으로 그러면 여
기는 집 안은 환하단 말이야, 불타는 게.}

10326 @ 여기를 뚫어서 하능 개 코코리요? {여기를 뚫어서 하는 게 코콜이요?}

10326 # 어: 코코리여. {어 코콜이야.}

10326 # 게 그래: 하능 개 코코리구. {그래 그래 하는 게 코콜이고.}

10326 # 그 다매 이짜개 또: 또 등잠빨.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또 등잔불.}

10326 @ 예. {예.}

10326 # 호야. {호야.}

10326 # 호야라능 거 알지? {호야라는 거 알지?}

10326 @ 예. {예.}

10326 # 등잠빨 알:구. {등잔불 알고.}

10326 @ 예. {예.}

10326 # 서규키는 등 등잠빨. 그거 알:구 호야 알:구. {석유 켜는 등잔불 그거 알고 호야 알고.}

10326 @ 호롱 그거 마리지요? {호롱 그거 말이지요?}

10326 # 호롱. {호롱.}

10326 # 호롱얼 가주서 등잔뿌리라구 덜 여기서넌 그래서 호롱이라 그라구. {호로를 가지고 등잔빨이라고들 여기서는 그래서 호롱이라고 그러고.}

10326 # 호롱얼 등잔빨루 맨드러서 또 등잔 바치개루 맨드러서 까:마케 해 노쿠 대공에 이따가 바:릴 여기다 맨드러 노쿠 이 우에다 등자널 올려 노치. {호롱을 등잔불로 만들어서 또 등잔 받침으로 만들어서 까맣게 해 놓고 대공에 있다가바를 여기에다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 등잔을 올려 놓지.}

10326 # 그러면 등잔뿌래 달려서 이르게 쪼:개서 긴 등잔뿌리 크게 할라면 크게 하구 저:개 할라면 저개 심지를 더 올리게 되면 등잔뿌리 크'구, 심지:: 자:개 하면 시: 등잔뿌리 자:꾸. {그러면 등잔불에 붙여서 이렇게 쪼개서 긴 등잔불을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적게 하려면 적게, 심지를 더 올리면 등잔불이 크고, 심지를 작게 하면 시 등잔불이 작고.}

10326 # 기름을 절라개 쓰자면 등잔뿌리 가 자:개 해서 써야지. {기름을 절약해서 쓰려면 등잔불이 작게 해서 써야지.}

10326 # 게 서규 싸기두 그때는 힘드러쓰니까. {그래 석유 사기도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10326 @ 그런데 그 저:기 접시 가통 거애, {그런데 그 저기 접시 같은 것에,}

10326 # 으:. {응.}

10326 @ 무슨. {무슨.}

10326 # 콩 기름이나 오:소리 기름이나 그: 오:소리 기름이나 이런 저: 어:: 돼:지 기름이나 그 다매 고:미 기름이나 이렇 거 노쿠서 심:지를 해: 노쿠 거: 심:지애개 부리 저: 어 기리미 다: 무깨꿈 해 노쿠 끄트머리다 불 달려 노치. {콩 기름이나 오소리 기름이나 그 오소리 기름이나 이런 저 에 돼지 기름이나 그 다음에 곰 기름이나 이런 거 놓고서 심지를 해 놓고 거 심지에서 불이 저 에 기름이 다 묻게꿈 해 놓고 끄트머리에다 불 붙여 놓지.}

10326 # 게 접씨애다 이르기 노개 되면, 접씨 인는 디까지 애서 기름을 빠:러 들지 여까지 병개 드르가질 안는다 마리여. {그래 접씨애다 이렇게 놓게 되면, 접시 있는 데까지 해서 기름을 빨아들이지 여기까지 번져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야.}

10326 # 그래서 그대 그거: 접씨뿌리다 구라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접시 불이다 그러지.}

10326 @ 그건 접씨뿌리라 그래요. {그건 접시 불이라 그래요?}

10326 # 응: 접씨다 놔:씨니. {응, 접시 다 났으니까.}

10326 @ 심지:는 멀루 해요 그럼. {심지는 뭘로 해요 그러면.}

10326 # 심지 소캐루 해요. {심지 숨으로 해요.}

10326 @ 소캐? {소캐?}

10326 # 예: 소캐 소캐루 해, 소:무루 하지. {예 소캐 소캐로 해, 숨으로 하지.}

10326 @ 불 키능 거뚜 여러 가지내요? {불 켜는 것도 여러 가지내요?}

10326 # 만:치 머, 처:매 그르케... {많지 뭐, 처음에 그렇게...}

10326 # 그래 이제 발찌내 자주구 이전 머가 나와니까 까:쓰 그: 까쓰등을 키기루 해찌.
{그래 이제 발전해 가지고 이젠 뭐가 나왔느냐 하면 가스 그 가스등을 켜기로 했지.}

10326 # 가스등이라능 건 이런 통애다 다머 노쿠 그 다매 이 우:에서 트러 자주구 트러 자주구 무를 똑똑 떨구개 되면 부::어캐 까쓰가 이러나지. {가스등이라는 건 이런 통애다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틀어 가지고 틀어 가지고 물을 똑똑 떨어뜨리면 부엌게 가스가 일어나지.}

10326 # 그 지:미 여기다 나오게 되면 여기 예: 빨꼬딘는 심지애다 요기다 부리 쯡:: 나가 지. {그 김이 여기에다 나오게 되면 여기 예 빨꽃 있는 심지에다 요기에다 불이 쭉 나가지.}

10326 # 그래먼 그때 그 불 자주구 키기두 하구. {그러면 그때 그 불 가지고 켜기도 하고.}

10326 @ 고건 냄:새나구 그... {그건 냄새나고 그(렁지요).}

10326 # 냄:새나녕 거. {냄새나는 거.}

10326 # 게 까스지. {그래 가스지.}

10326 # 그래 그거. {그래 그거.} 10326 @ 그거 저기. {그거 저기.}

10326 @ 예:저내 일 일뽐말루 간대라:... {예전에 일 일뽐말로 간대라...}

10326 # 간:드레. {간드레.}

10326 @ 간드레라 그랜나요? {간드레라 그랬나요?}

10326 # 예:, 간드레. {예, 간드레.}

10326 # 게: 요 요기서는 까쓰라구 하구. {그래 여 여기서는 가스라고 하고.}

10326 @ 예예:. {예예.}

10326 # 까쓰등이라구 하구. {가스등이라고 하고.}

10326 # 그 다매 인재 정:기가 나와서 정기루 키개 돼:찌.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나와서 전기를 켜게 되었지.}

10326 # 게 이르키 이르키 사라나웅 기지 엔:날부툼 사라나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살아 나온 거지 옛날부터 살아나온...}

10326 @ 하라부지는 그걸 다:: 적 겨끄성 거내요, 그럼. {할아버지는 그걸 다 꺾 꺾으신 거네요, 그럼?}

10326 # 그 다: 겨겨찌. {그 다 꺾었지.}

10326 @ 저는 저:기 등잔하구 호야하구 이거 전기하구 세: 개 받는데. {저는 저기 등잔하고 호야하고 이거 전기하고 세 개 봤는데.}

10326 # 그거배끼 모빠써요? {그것밖에 못 봤어요?}

10326 @ 예:. {예.}

10326 # 그러면 그대대 삼때니 뭐 삼때등이니 그 다때 술갱이니 뭐 이릉 건 다: 모르능구
 먼. {그러면 그 다음에 삼대니 뭐 삼대등이나 그 다음에 술잎이니 뭐 이런 건 다
 모르는구먼.}

10326 @ 예:. {예.}

10326 #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10326 # 그래니까.. {그러니까...} 10326 @ 코쿠리는 아징 모:빠서요. {코콜은 아직 못 봤
 어요.}

10326 # 코코리 헤헤. {코콜 헤헤.}

10326 @ 예. {예.}

10326 # 모:빨 쭈 모:빨 수 이찌요. {못 볼 수 못 볼 수 있지요.} 10326 @ 마:른 드러반는
 대 모빠서요. {말은 들어봤는데 못 봤어요.}

10326 # 게 그 옌:나랜 다: 그르키 사라와서. {그래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

10326 # 그래 얌:만 그래두 코코리 키구 나면 자구 이러마면 코가 썩카마지지. {그래 아무
 리 그래도 코콜 겨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코가 새카맣게 되지.}

10326 # 아:들 영기 안: 난다구 해두. {아이들 연기 안 난다고 해도.}

10326 @ 그러캔내요. {그렇겠네요.}

10326 # 헤헤헤헤헤헤 헤. {헤헤헤헤헤헤 헤.}

10326 # 숨: 시구 나는데 거기 두리 여기따 코가 썩카매지지. {숨 쉬고 나는데 거기 둘이
 여기있다 코가 새카매지지.}

10326 # 게 가:래치덜 함 번 탁: 배트먼 시커머쿠. {그래 가래침을 한 번 탁 벨으면 시커멓고.}

10326 # 그저 그르키 이러나지. {그저 그렇게 일어나지.}

10327 @ 옌나래 소는 어트개 길러써요? {옛날에 소는 어떻게 길렀어요?}

10327 # 옌나래 소:두 그르캐 길러져 머, 소: 지그 지금 기르던. {옛날에 소도 그렇게 길렀
 지 뭐, 소 지금 지금 기르듯.}

10327 # 메기구 그저:. {먹이고 그저.}

10327 @ 여기:는 보니까 겨우래 머 소 저:기 집뚜 업구 머 아무 겨두 아내 주능 거 들파내
 그냥 다니던데? {여기는 보니까 겨울에 뭐 소 저기 집도 없고 뭐 아무 것도 안해
 주는 거 들판에 그냥 다니던데?}

10327 # 예:. {예.}

10327 @ 그저넌 그르캐 아내짜나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10327 # 동사매 바태 곡시기 하나두 우끼 때메: 그:: 동사매는 다: 내: 노치. {동삼에 밭에
 곡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동삼에는 다 내 놓지.}

10327 # 동사매. {동삼에.}

10327 @ 앙 굴머주거요, 그럼? {안 굶어 죽어요, 그럼?}

10327 # 누:노구 그럼 머글 꺼 업짜나요? {눈 오고 그러면 먹을 것 없잖아요?}

10327 # 거기 인저 바태서 이 하서가튼대 이른대 대:서 간 옥씨기짱이 얼마 마나요. {거기
 이제 밭에서 이 하서같은데 이런데 대서 옥수숫대가 얼마나 많아요.}

10327 # 그:(그/거 간음) 바태 옥씨기짱 그저 다: 대궁채 가뚜 업쓰면 이 대궁두 쏘:러 멍는
 대 이부루. {그 밭에 옥수숫대 그저 다 대궁채 가서 없으면 이 대궁도 쏴아 먹는데
 입으로.}

10327 # 그 다매 이 저: 옥씨기 이퍼리 다: 따 머꾸. {그 다음에 이 저 옥수숫잎 다 따 먹고.}

10327 # 그저 그르카구 살:지 머. {그저 그렇게 하고 살지 뭐.}

10327 # 그 다매 정 정 업:쓴먼 무곤 풀 거: 한해 커따가 거 자기 명는 푸리 인저 다: 말려 써: 자빠저따 마리어. {그 다음에 정 정 없으면 묵은 풀, 그 한해 컷다가 거 자기 먹는 풀이 이제 다 말라서 넘어졌단 말이야.}

10327 # 그렇 거 주서 머꾸. {그런 거 주어 먹고.}

10327 # 거: 다: 그러치. {그 다 그렇지.}

10327 # 그런데 동사매 동사매 소가 인재 배가 고푸 배가푸니 배고푸니까 메:나리 메나리: 커서 거 동사매 자빠저서 어룽 거 이룽 거 명는 소년 중도기 걸려서 죽찌 머. {그런데 동삼에 동삼에 소가 이제 배가 고푸 배고푸니 배고푸니까 미나리 미나리 커서 그 동삼에 넘어져서 언 것 이런 것 먹는 소는 중독이 되어서 죽지 뭐.}

10327 @ 아 그래요? 메나리 머그먼 주거요? {아 그래요? 미나리 먹으면 죽어요?}

10327 # 으: 메나리 소가 메나리 그 마:이 머그먼 주거요. {응, 미나리 소가 미나리 그 많이 먹으면 죽어요.}

10327 # 그 다매 여기 저: 옥:새라구 이씨. {그 다음에 여기 저 억새라고 있어.}

10327 # 워:쌔라구 인는데 근 깔:개 그저 말룽 거 그저 뜨더 머꾸. {억새라고 있는데 그건 깔개 그저 마른 거 그저 뜯어 먹고.}

10327 # 거저 그러치. {그저 그렇지.}

10327 @ 그저내는 어트개 키워서요? {그전에는 어떻게 키워어요?}

10327 @ 지배서 다: 저기 여물두 쓸:구 머 이래 가주구 집 지어서 키우지 아나씨요? {집에서 다 저기 여물도 썰고 뭐 이래 가지고 집 지어서 키우지 않았어요?}

10327 # 오양까니라능 개 그 그옐 자기 부릴 쏘만 가주구 마:라능 기지. {외양간이라는 게 그 그건 자기 부릴 소만 가지고 말하는 거지.}

10327 # 부리넨 소. {부리는 소.}

10327 # 오양가내다 부리넨 소릴 너:서 잘: 메기야 농사진는다. {외양간에다 부리는 소를 넣어서 잘 먹여야 농사짓는다.}

10327 # 그걸 기계루 써찌 머 아주 소릴. {그걸 기계로 썰지 뭐 아주 소를.}

10327 # 그르기두 사:라미 모타는 니를 어: 소루 한다 마리어. {그렇게도 사람이 못하는 일을 에 소로 한단 말이야.}

10327 # 그래기 때매 잘: 메기야지. {그렇기 때문에 잘 먹여야지.}

10327 # 잘: 메기기 위에서넨 어: 지필 작뚜애다 쓸:지. [잘 먹이기 위해서는 에 짚을 작뚜애다 썰지.}

10327 # 쓰:러 가주구서는 그 다매 가:마애다 여서 삼:지. {썰어 가지고는 그 다음에 가마에다 넣어서 삶지.}

10327 # 살물 짜 거기 인저 쌀 이르 쌀 이른 뜸물 거 사:라미 바패 머그먼 떨루. {삶을 때 저기 이제 쌀 인 쌀 인 뜸물 그 사람이 밥 해 먹으면 뜸물.}

10327 # 꾸정무리라능 걸 바더서 거: 집 썸, 집 삼:는데 거기다 가따 부치. {꾸정무리라는 걸 받아서 그 짚 삶, 짚 삶는데 거기에다 가져다 붓지.}

10327 # 부 가주구서 가마애다 막: 지미 나개 끌치. {뭘 가지고서 가마애다 막 김이 나게 끓지.}

10327 # 거기 인저 거기다가 사료르 인는 사라먼 사료르 조금 준다 마리어. {거기 이제 거기에다가 사료를 있는 사람은 사료를 조금 준단 말이야.}

10327 # 옥씨기르 연는다덩가 콩 너 콩얼 연는다덩가 이르게 살머서 한:대 해선... {옥수수를 넣는다든가 콩을 넣 콩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삶아서 한테 해서는...}

10327 # 그 다매 마른 여무털 한참 메기구 그 베짖 썬: 그 여무르 한참 메기구 그 후에 더 배불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매 이거 퍼다가 가매에서 퍼다가 그저매 마른 여무래개 또 버무리준다 마리어 막:. {그 다음에 마른 여물을 한참 먹이고, 그 벗짚 썬 그 여물을 한참 먹이고 그 후에 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 퍼다가 가매에서 퍼다가 그 다음에 마른 여물에 버무리 준단 말이야 막.}

10327 # 그저 이런 갈끼 가통 거 이렇 거 맨든 철싸 쇠줄루 맨등 걸루 이러키 이러키 서꺼서 거기다 타지. {그저 이런 갈퀴 같은 거 이런 거 만든 철사 쇠줄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거기다 타지.}

10327 # 잘: 먹찌 머. {잘 먹지 뭐.}

10327 #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소가 보무서 무털 메기지.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소를 보면서 물을 먹이지.}

10327 @ 무리요? {물이요?}

10327 # 으:, 무털 또 메긴다 마리어. {응, 물을 또 먹인단 마리아.}

10327 # 게 무털 마:이 메기면 그 다매 배가 버떡 이러나지. {그래 물을 많이 먹이면 그 다음에 배가 불똥 일어나지.}

10327 # 그 다매 끌:구 나가서 부러먹찌. {그 다음에 끌고 나가서 부러먹지.}

10327 # 그 소: 그르케 미기여. {그 소 그렇게 먹여.}

10327 # 그래 소 하나 메길라먼 소애 종이 돼야 되 된다능 기지. {그래 소 하나 먹이려면 소의 종이 되어야 된 된다는 거지.}

10327 # 소 하나 미기면 소개 종이 돼야 된다능 기지. {소 하나 먹이려면 소한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10327 # 게 거기 시발 다: 해줘야지. {그래 거기 시발 다 해줘야지.}

10327 # 머길 꺼 다: 메기구 똥두 마:구까내 똥두 다:: 쳐내구 깨끄타개 해 줘야 그 다매 저... {먹일 것 다 먹이고 똥도 마굿간에 똥도 다 쳐내고 깨끗하게 해 줘야 그 다음에 저...}

10327 # 아:내주개 되면 이 똥짙- 누버따 이러나면 이 터러구에 똥이 무더서 이제 나가따 오면 또 똥이 무더. {안 해주게 되면 이 똥짙 누웠다가 일어나면 이 털에 똥이 묻어서 이제 나갔다 오면 또 똥이 묻어.}

10327 # 그 다매 인재 오양두 안 치내구 이라면 또 나가따 오양애 오줌 싸서 지절지저:라개 이르게 되면 나가따 오면 또 거기 멍 머꾸서 저녁 머꾸 고다나니가 또 거기 잔다 마리어. {그 다음에 이제 오양도 안 쳐내고 이러면 또 나갔다 외양애 오줌을 싸서 지절지절하게 이렇게 되면 나갔다 오면 또 거기 먹 먹고서 저녁 먹고 고단하니까 또 거기에 잔단 말이야.}

10327 # 자만 야:중애 인재 자꾸 무꾸 무꾸 하면 인재 터러구에 이만큼 무찌 머 이러케, 이 망:쿰. {자면 나중에 이제 자꾸 묻고 묻고 하면 이제 털에 이만큼 묻지 뭐 이렇게, 이만큼.}

10327 # 그럼 그걸 또 따: 조야지. {그러면 그걸 또 따 줘야지.}

10327 # 게 어이 때 따능가. {그레 어느 때 따능가.}

10327 # 또 보매 가 인재 털버시하면 그개 다: 이제 터라구 다: 떠러진다 마리어. {또 봄에
가 이제 털갈이하면 그개 다 이제 털하고 다 떨어진단 말이야.}

10327 # 예:, 털버시하면. {예, 털갈이하면.}

10327 # 해해 그르키 땡깅거여 그기. {해해 크렇게 되는 거야 그개.}

10327 # 그래서 깨뜨타개 해: 주구 소가 사리 찌구 더: 조:치. {그래서 깨끗하게 해 주고 소
가 살이 찌고 더 좋지.}

10327 @ 소애두 머 여러 가지가 피료하내요 그럼? {소애도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네요, 그
럼?}

10327 # 아:이 여러 가지 피료하지요, 소 하나 메기자면. {아이 여러 가지 필요하지요, 소
하나 먹이려면.}

10327 # 별써: 내가 생가개 소 하나 메기자면 동삼 메길 쫘비릴 해:여 되구 춤찌 양개 거:
둘만한 소마길 지어야 대구 그 다매 소: 또 초털 싱기야 된다 마리어. {별써 내가
생각에 소 하나 먹이려면 동삼 먹일 준비를 해야 되고, 춤찌 양개 거둘만한 소 막
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 또 철을 신겨야 된단 말이야.}

10327 # 미끄러운 대 땡길 쭈 움따 마리어. {미끄러운데 다닐 수 없단 말이야.}

10327 # 쇠쳐르 또 가서 싱겨여 대. {쇠철을 또 가서 신겨야 돼.}

10327 # (기침) 쇠철 함 번 싱기는데 여기서 지그면 한 삼시번씨개요, 함 번 싱기는데. {쇠
철 한 번 신기는데 여기서 지금은 한 삼십원식 해요, 한 번 신기는데.}

10327 # 함 번 싱기면 쇠철 함 번 싱기면 한 삼시버닌데 이기 기끈 씨야 한 달 쓰거든. {한
번 신기면 쇠철 한 번 신기면 한 삼십원인데 이게 기껏 씨야 한 달 쓰거든.}

10327 @ 그거바께 모써요? {그것밖에 못 써요?}

10327 # 예. {예.}

10327 # 자:꾸 거러땡기니까 다:슬지 머 이개. {자꾸 걸어다니니까 닳지 뭐 이개.}

10327 # 이 쇠철 꼭찌가 다: 슬지. {이 쇠철 꼭지가 닳지.}

10327 # 그러면 또 미끄러지지, 다:스러면. {그러면 또 미끌어지지, 닳으면.}

10327 # 게 꼭찌는 여기 나와땡 개 다: 다서러면 쇠철판만 이따 마리어. {게 꼭지는 여기
나왔던 게 다 닳으면 쇠철판만 있단 말이야.}

10327 # 쇠철 쇠철 철판만 이씨 가주구 디디면 쪽:쫘 나가지. {쇠철 쇠철 철판만 있어 가지
고 디디면 쪽쪽 나가지.}

10327 # 그레 미끄러져 부러 머 이 히:멜 씨두 미끄러져 히:멜 쓰지 모탄다 마리어. {그레
미끄러져 부러 먹 이 힘을 씨도 미끄러져서 힘을 쓰지 못한단 말이야.}

10327 # 그레길래 그 그거 자꾸 한 달만큼 가려야지. {그러기에 그 그걸 자꾸 한 달만큼 갈
아야지.}

10328 @ 그거뚜 해야 대구 또 머 밥 쫘능 거뚜 해야 대구.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뭐 밥 주
는 것도 해야 되고.}

10328 # 그러. {그럼.}

10328 @ 밥 쫘는 거 그거 머라 그래요? {밥 주는 거 그건 뭐라고 해요?}

10328 # 구수:. {구유.}

10328 @ 구수? {구유?}

10328 # 응:, 쇠:구수. {응, 쇠구유.}

10328 # 쇠:구수. {쇠구유.}

10328 @ 그래구 또 머 코두 끼구 머 여기두 이르케 묵꾸 머 다: 해야 대자나요? {그리고 또 뭐 코두 꿰고 뭐 여기도 이렇게 묵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10328 # 다: 해야지 손지리 손질- 마:니 가지 머. {다 해야지 손질이 손질- 많이 가지 뭐.}

10328 # 자꾸 와 손지래 줘야지. {자꾸 와 손질해 줘야지.}

10328 @ 그렇 건 머요 여기 얼 머리에 하능 거. {그런 건 뭐요, 여기 얼(굴) 머리에 하는 거.}

10328 # 게 요로케 와서 요거 요기 요로키 깁: 거 가따 코꾼두리라구 하구. {그래 요로케 와서 요거 요기 요렇게 켜 것 갖다 코뚜레라고 하고.}

10328 # 예:. {이.} 10328 @ 코꾼두리. {코뚜레.}

10328 # 어: 코꾼두리에서 요기서 인저 매: 가주구 요 뿔따구까지 너머가능 걸 정방노리라구 하구. {어, 코뚜레에서 요기에서 이제 매 가지고 요 뿔까지 넘어가는 걸 정방노리라고 하고.}

10328 @ 정방노리. {정방노리.}

10328 # 정방노리 그뚜레 도:래릴 다려 가주구 이: 저: 머여 꼬빠가 창창 갱기 가주구 꼬너 지지 양:케 하느라구 여기다 도래릴 다려찌. {정방노리 그뚜레 도래를 달어 가주구 이 저 뭐야 꼬빠가 창창 감겨 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여기에다 도래를 달았지.}

10328 # 게 꼬빠가 이르케 도러가면 도래가 이르키 도러간다 마리어. {그래 꼬빠가 이렇게 돌아가면 도래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10328 # 그래이까 꼬빠가 건디지. {그러니까 꼬빠가 건디지.}

10328 # 게 이개 읍쓰면 이러키 뱅:뱅 트러따 또 이러키 트러저따 하면 꼬빠가 건디지 모타지. {그래 이개 없으면 이렇게 뱅뱅 틀었다 또 이렇게 틀어졌다 하면 꼬빠가 건디지 못하지.}

10328 # 인:차 판나지, 꼬너지구. {금방 망가지지, 끊어지고.}

10328 # 다:새루 꼬러 항 가달 항 가달 꼬너저꺼나 두 가달 꼬너저꺼나 자꾸 이러케 된다 마리어. {다새로 끊어 한 가달 한 가달 끊어졌거나 두 가달 끊어졌거나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야.}

10328 # 그래서 이 도:래를 여기다 가따 이르케 도래 돌리능 거 여기 도래 대능 기 이르키 돼:써두 돼:써두 이건 이르키 돼:써두 요기 와서 또 꼬빠 다능 이마:낭 개 또 고락찌 이찌. {그래서 이 도래를 여기에다 갖다 이렇게 도래 도리는 거 여기 도래 대는 게 이렇게 됐어도 됐어도 이건 이렇게 됐어도 요기 와서 또 꼬빠 다는 이만한 게 또 고리 있지.}

10328 # 게 요기다 고락찌릴 달지. {그래 여기다가 고리를 달지.}

10328 # 그라면 여기 인저: 이마:낭 개 이씨니까 여기 이마:낭 개 이꾸 여기 저: 머여 저 게 여기는 이 꼬트머리는 저:: 나사 뭉치가통 개 이끼 때매 고래가 빠'지지 안치. {그러면 여기 이제 이만한 게 있으니까 여기 이만한 게 있고 여기 저 뭐야 저 그래 여기는 이 꼬트머리는 저 나사 뭉치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고리가 빠지지 않지.}

10328 # 게 그르키 하능 기여.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10328 @ 그러면 요거만 냉겨 노만 여푸루 다: 베껴지지 아나요? {그러면 요것만 남겨 놓으

면 옆으로 다 벗겨지지 않아요?}

10328 # 굴:래 씨우능 건 또 따:지요. {굴래 씨우는 건 또 다르지요.}

10328 # 암 빼겨저요. {안 벗겨저요.}

10328 # 자 이: 뿌래다 가따 빨갱기를 가며주거덩. {이 빨애다 갖다 빨감기를 감아주거든.}

10328 # 그래잉까 이 꼬빠가 이 빨 너머루 너머오지 모타지 이짜그루. {그러니까 이 꼬빠가 이 빨 넘어로 넘어오지 못하지 이쪽으로.}

10328 @ 아아:. {아아.}

10328 @ 그개 그기 굴래요, 굴래 씨우능 거요? {그개 그개 굴래요, 굴래 씨우는 거요?}

10328 # 아: 굴:래 씨우능 기 아니라 게 굴래가 아니라 자파뿌래다가 이르캐 끄늘 매 준다 마립니다. {아 굴래 씨우는 게 아니라 그 굴래가 아니라 잡화빨애다가 이렇게 끈을 매 준단 말입니다.}

10328 # 빨 어가늘 이기 뿌리먼 여기다 이르키 매 주지. {빨 어간을 이게 빨이면 여기에다 이렇게 매 주지.}

10328 # 꼬빠는 이리 너머 가꺼덩. {꼬빠는 이리 넘어갔거든.}

10328 # 그래잉까 곤두뿌리나 자파뿌리나 아무 기나 여기 저 빨갱기를 가며 주지. {그러니까 곤디빨이나 잡화빨이나 아무 거나 여기 저 빨감기를 감아 주지.}

10328 # 그래서 빨갱기 미트루 꼬빠가 나갔, 저: 정방노리가 나가지. {그래서 빨감기 밑으로 꼬빠가 나갔, 저 정방노리가 나가지.}

10328 # 게 정방노리는 보:통 이: 하나루 하게 되면 이: 사리 자꾸 패인다 마리여. {그래 정방노리는 보통 이 하나로 하게 되면 이 살이 자꾸 팬단 말이야.}

10328 # 그래서 정방노리는 세:지 널비 피대 가통 기나 그: 도러가는 피대 가통 기나 그저: 어: 피대가 읍쓰문 삼 농끄늘 짜: 가주구 이르키 세:지 널비루 저루 저루 저루지. {그래서 정방노리는 세지 너비 피대 같은 것이나 그 돌아가는 피대 같은 것이나 그 저 에 피대가 없으면 삼 노끈을 짜 가지고 이렇게 세지 너비로 결 결 결지.}

10328 # 그래 가주구 이르캐 하구.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10328 # 거저 이르치. {그저 이렇지.}

10328 @ 굴:래는 그럼 다롱 거내요? {굴래는 그럼 다는 거내요?}

10328 # 굴:래는 또 다르지요. {굴래는 또 다르지요?}

10328 # 굴:래는 이: 주둥아리가 쇠 주둥아리가 이러캐 이쓰면 이르키 턱 씨우지. {굴래는 이 주둥아리가 소 주둥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턱 씨우지.}

10328 # 이러키, 이분 여기꾸 그 다매 이르키 딱 씨우지. {이렇게, 입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씨우지.}

10328 # 씨워 가주 굴:래는 굴:랜 어트가능가 하니까 이: 귀미트루 하난 나가구 그 다매 이 아픈 놔: 두구 어: 귀미트루 이르키 하나 나가서 모가지애다 다려 매지. {씨워 가지고 굴래는 굴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귀밑으로 하나는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앞은 놔 두고 에 귀밑으로 이렇게 하나 나가서 모가지애다 달아 매지.}

10328 # 그래서 그: 꼬빠는 어따 매:능가 하니까 이 굴: 굴래 씨운 요기다가 꼬빠를 매지 요기다가. {그래서 그 꼬빠는 어디애다 매느냐 하면 이 굴 굴래 씨운 요기애다가 꼬빠를 매지 요기애다가.}

10328 # 그래서 그 다매 이 주덩이럴 자버덩기먼 따라오게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주둥이를 잡아당기면 따라오게끔.}

10328 # 굴래는 코 앙 꺾 걸 앙 꺾 거 송아지를 하는 그르 그 그릉 걸 굴래 씨운다구 하지.
 {굴래는 코 안 펜 것을 안 펜 것을 송아지를 하는 그런 거 그런 것을 굴래 씨운다
 고 하지.}

10328 @ 아:. {아아.}

10328 # 말도 말도 쪼끄마쉴 때는 다: 굴래 씨 마른 커두 굴래 씨우지. {말도 말도 조그만
 할 때는 다 굴래 씨우 마른 커도 굴래 씨우지.}

10328 # 그래기 다: 굴래 씨우능 기지. {그렇게 다 굴래 씨우는 거지.}

10328 @ 아: 그래잉까. {아 그러니까.}

10328 @ 코꾼드리 아:낭 거:... {코뚜레 안한 거...}

10328 # 예:. {예.}

10328 @ 굴래 씨워서... {굴래 씨워서...}

10328 # 예:. {예.}

10328 @ 다룰 다루능 거내요? {다룰 다루는 거네요?}

10328 # 예:, 그러치요 머.{예, 그렇지요 뭐.}

10328 @ 으응:. {으응.}

10328 # 흐헤헤. {흐헤헤.}

10328 @ 나는 코꾼드리두 하고 굴래두 씨우구 그래는 주 아런는대요. {나는 코뚜레도 하고
 굴래도 씨우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10328 @ 그개 다룸 거내요. {그개 다른 거네요.}

10328 # 다르지 머, 다: 다르지 머. {다르지 뭐, 다 다르지 뭐.}

10329 @ 소 키울 때 머 나매 집 소: 가따 키우-기두 하구 그르자나요. {소 키울 대 뭐 남
 의 집 소 가져다 키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0329 # 그래:. {그럼.}

10329 @ 그러면 또 어떤 조거느루 키우구 머 그렁 거 이짜나요. {그러면 또 어떤 조건으로
 키오고 뭐 그런 것 있잖아요.}

10329 # 너:, 그냥 주 친척덜 가내는 그냥 주지 머. {너, 그냥 친척들 간에는 그냥 주지
 뭐.}

10329 # 주구서 너 이거 가주구 농사저 머저라, 그래지. {주고서 너 이거 가지고 농사지어
 먹어라, 그러지.}

10329 # 그 이듬해 그날 그 해 또 사:나 새끼 나커덩. {그 이듬해 그 해에 또 하나 새끼 낳
 거든.}

10329 # 새끼 나면 그 다매 또: 키워서 그 다매 또 단대 주구. {새끼 낳으면 그 다음에 또
 키워서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주고.}

10329 # 이리 이르키 하지 머. {이리 이렇게 하지 뭐.}

10329 # 그래 그렁 거를 어:: 야:중에는 인저 머가 나완능가 하니까 변쏘, 똥쏘라능 개 나와
 켜. {그래 그런 것을 에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왔느냐 하면 변소, 변소라는 게 나
 왔지.}

10329 @ 변쏘요? {변소요?}

10329 # 어:, 변쏘. {어, 변소.}

10329 # 일러널 부리개 되면 부려서 니가 농사지라게 되면 가:으래 가서 얼마 달라. {일년

을 부리면 부려서 네가 농사지으면 가을에 가서 얼마 달라.}

10329 # 소가 노동 까부치를 얼마 달라. 이런 변쏘라능 개 이찌. {소가 노동 값어치를 얼마 달라.}

10329 # 기래서 그대 그렇 거 또 노쿠. {구래서 그 다음에 그런 거 도 놓고.}

10329 @ 소 사주구 남 나만태 소 사주구 기 길르라구두 하자나요? {소 사주고 남 남한테 소 사주고 기르 기르라고도 하잖아요?}

10329 # 예:. {예.}

10329 # 그거: 그거뚜 사주구 길르라구 하능 거뚜, 너 이거 키워서 이 다매 니가 부려 머거라, 이르키: 이르키 주녕 거뚜 이꾸. {그거 그것도 사주고 기르라고 하는 것도, 너 이거 키워서 이 다음에 네가 부려 먹어라,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10329 # 그 다맨 부릴 마난 소릴 싸:서 주면 벼:늘 로코.{그 다음에는 부릴 만한 소를 사서 주면 벼을 놓고.}

10329 # 일러내 번: 도니 소가 얼마고 바까리 향 개 얼마고 다: 이래서 일련 부려뜯 그 노동까치를 얼마만큼 달라. {일년에 번 돈이 소가 얼마고 밭갈이 한 게 얼마고 다 이래서 일년 부렸던 그 노동가치를 얼마만큼 달라.}

10329 # 소가 노 소가 노동한 노동까치를 얼마마이 달라, 이기 변:쏘지. {소가 노동 소가 노동한 노동가치를 얼마만큼 달라, 이게 변소지.}

10329 @ 근대 송아지를 사 줘서: 키워 가주구 또 송아지 나자나요? {그런데 송아지를 사 줘서 키워 가지고 또 송아지 낳잖아요?}

10329 # 예:. {예.}

10329 @ 그러면 그거 나눠 가꾸 그러지는 아나요? {그러면 그거 나눠 가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10329 # 아내요. {안 해요.}

10329 # 건 쥐애니 가찌. {그건 주인이 갖지.}

10329 # 송아지 준, 소릴 준 사람개 가찌. {송아지를 준, 소를 준 사람이 갖지.}

10329 @ 송아지는? {송아지는?}

10329 # 게쎄 송아지 준 사라무개 가찌. {글쎄 송아지 준 사람이 갖지.}

10329 # 송아지를 준 사람. {송아지를 준 사람.}

10329 @ 그래잉까 송아지를 사 줘서 키우고, 그럼 키우자나요, 사 주면? {그러니가 송아지를 사 줘서 키우고 그러면 키우잖아요, 사 주면?}

10329 @ 그럼 그걸 키우면 그 소는 주인 주고 그 소가 난 송아지는 내가 가꼬 키운 사라미 가꼬, {그러면 그걸 키우면 그 소는 주인 주고 그 소가 난 송아지는 내가 갖고 키운 사람이 갖고,}

10329 # 응:. {응.}

10329 @ 그러능 거뚜 이짜나요?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10329 # 응:, 그쎄 그르키두 하구. {응 글쎄 그렇게도 하고.}

10329 @ 그건 이르미 머요, 그러케 하능 거? {그건 이름이 뭐요, 그렇게 하는 거?}

10329 # 그르케, 근 근 약쑉 하기 달려찌 머. {그렇게, 그건 그건 약쑉 하기에 달렸지 뭐.}

10329 # 이르미 별개 이찌? {이름이 뭐 별개 있어?}

10329 # 너: 이 따매 키워서 송아지 나면 날 달라. {너 이 다음에 키워서 송아지 나면 날 달라.}

10329 # 이러카구 그 다매 중 개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 것이지 뭐.}

10329 @ 아니면 머 키우 사 주구 키워서 팔면 고: 두리 나뉘 갇기두 하구 그러지요? {아니면 뭐 사 주고 키워서 팔면 그 둘이 나뉘 갖기도 하고 그러지요?}

10329 # 예:, 팔 팔면 그췌 그러지. {예, 팔 팔면 글췌 그러지.}

10329 # 반재기 반재기라능 개 또 이찌 머. {반재기 반재기라는 게 또 있지 뭐.}

10329 # 반재기가 머요? {반재기가 뭐요?}

10329 # 반재기 노나 노나 간는다는 반재기. {반재기 나뉘 나뉘 갖는다는 반재기.}

10329 @ 그건 어티개 하능 거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요?}

10329 # 마낙췌 배권짜리면: 오시뵤췌 노나간능 거지 머, 서루. {만약에 백원짜리면 오십원씩 나뉘 갖는 거지 뭐, 서로.}

10329 @ 그럼 맨: 처매 도는 누가 대구. {그럼 맨 처음에 돈은 누가 대고.}

10329 # 처:매는 이짜개:-서 대:지 머. {처음에는 이쪽에서 대지 뭐.}

10329 # 거 소 준 사라매개 대지. {그 소 준 사람이 대지.}

10329 @ 그럼 본전... {그럼 본전...}

10329 # 저 사라문 도:는 읍:써서 소를 하나 모: 찐다. {저 사람은 돈은 없어서 소를 하나 못 산다.}

10329 # 그래잉개 여기서 싸: 줘:찌. {그러니가 여기에서 사 줬지.}

10329 # 싸 줘 주닝까 인재 그 소가 커꺼덩, 크면서 노동하면서 커꺼덩. {사서 주니까 이제 그 소가 컸거든, 크면서 노동하면서 컸거든.}

10329 # 게 큰 다매 도널 더 바께 돼:땀 마리어. {그래 큰 다음에 돈을 더 받게 되었던 말 이야.}

10329 # 그라면 그 절반 절반 노너야지. {그러면 그 절반 절반 나뉘야지.}

10329 @ 아 그러면 사 줄 때 송아지 깎쓸 제하고... {아 그러면 사 줄 때 송아지 값을 제하고...}

10329 # 그:럼. {그럼.}

10329 @ 제하구 나머지 가꾸... {제하고 나머지 갖고...}

10329 # 나:머지 가꾸 절반 절반 나뉘야지. {나머지 가지고 절반 절반 나뉘야지.}

10329 @ 예에:. {예에.}

10329 @ 그렇 개 그개 반재기요? {그런 게 그개 반재기요?}

10329 # 반재기. {반재기.}

10332 @ 소 부릴 때 머 또 하는 소리두 이찌요? {소 부릴 때 뭐 도 하는 소리도 있지요?}

10332 @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10332 # 어:, 이러! 하구 워!: 하구 하능 개 이꾸. {어, 이러! 하고 워! 하고 하는 게 있고.}

10332 # 게 항구개서는 지금 저저저저저저저저 하구 어: 이짜그루 가서두 이짜그루 저저저저 하구. {그래 한국에서는 지금 저저저저저저저저 하고 예 이쪽으로 가서도 이쪽으로 저저저저 하고.}

10332 @ 어느 쪼그루 가요, 그럼? {어느 족으로 가요, 그럼?}

10332 # 윈:쪼그루 갈 때 저저저저 하구 오른쪼그루 갈 때 이 어어: 꼬삐를 자버댕기구. {윈 으로 갈 때 저저저저 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 예 꼬삐를 잡아당기고.}

10332 @ 머라구 안 해요? {뭐라고 안 해요?}

10332 # 머라구 안 해 그때는. {뭐라고 안 해 그때는.}

10332 # 왼쪼그루 갈 때만 꼬삐를 축축축추 치면서 저짜그루 가라 그라지. {왼쪽으로 갈 때만 꼬삐를 툭툭툭툭 치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10332 # 저저저저 하지. {저저저저 하지.}

10332 # 게 오른쪼개 꼬뿌이가 이끼 때무내 쌍꼬삐는 매지 아내꺼덩. {그래 오른쪽에 꼬삐가 있기 때문에 쌍고삐는 매지 않았거든.}

10332 # 그레이까 오른쪼그루 갈쨌는 꼬삐를 자부댕기면 대가리가 이짜그루 도라스지. {그러니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꼬삐를 잡아당기면 머리가 이쪽으로 돌아서지.}

10332 @ 아프로 갈 때는:... {앞으로 갈 때는...}

10332 # 어:, 저저저저 하구. {어, 저저저저 하고.}

10332 @ 아프로 갈 때. {앞으로 갈 때.}

10332 # 아패 이러:! 하구. {앞에, 이러! 하고.}

10332 @ 서 서:면. {서 서면.}

10332 # 위:! 하구. {위! 하고.}

10332 @ 뒤로 오라구 하능 건. {뒤로 오라고 하는 건.}

10332 # 에, 씨: 하구. {에 씨! 하고.}

10332 @ 씨:. {씨.}

10332 # 어:. {응.}

10332 @ 아 그개 다: 달르내요? {아 그개 다 다르네요?}

10332 # 다'르지 머 그개 다: 부려 멍능 기. {다르지 뭐 그개 다 부려 먹는 게.}

10332 @ 소 길드릴 때는 어트개... {소 길들일 때는 어떻게...} 10332 # 소 길드릴 때 그냥 그러케 길드리지 머. {소 길들일 때 그냥 그렇게 길들이지 뭐.}

10332 # 끌:구 땡기머. {끌고 다니면서.}

10332 # 길드릴 때 낭, 찜: 메운 소를 예:: 밧구애다가 낭글 쪼끔 단다 마리여, 개보개. {길들일 대 나무, 처음 메운 소를 예 밧구애다가 남를 조금 단단 말이야, 가볍게.}

10332 # 그래서 끄슬만 하개 해:지. {그래서 끌만 하게 하지.}

10332 # 그래 저기다 멍지애다 밧구 멍지다 소 송아지럴 메워 가주구 그 다매는 이걸 아패 서 끌지 처:매. {그래 저기에다 멍에애다 밧구 멍에애다 송아지를 메워 거지고 그 다음에는 이걸 앞에서 글지 처음에.}

10332 # 그래다 하:: 끌구 땡기면 이게 이르키 하능가보다구 그 밧구에 척척 드러스따 마리여. {그러다 계속 끌고 다니면 이게 이렇게 하는가보다고 그 밧구에 척척 들어선단 말이야.}

10332 # 드러서서 멍지만 들면 그저 여 척 드러가:지. [들어서서 멍에만 들면 그저 여기 척 들어가지.}

10332 # 그 다맨 이기 인재 끝끼 시자가면 자꾸 끄스그스 하먼 난:청 낭그 쪼끔 더 달구 더 달구 하지.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끌기 시자하면 자꾸 끄고하면 나주에 나무 조금 더 달고 더 달고 하지.}

10332 # 그러 요개 인재 소가 히미 나서 자꾸: 송아지가 히미 나서 자꾸 끄시구 땡기지. {그럼 요개 이제 소가 힘이 나서 자꾸 송아지가 힘이 나서 자꾸 끌고 다니지.}

10332 # 그: 후:애 이제 밧구가 원만하다 할 썩개 후:위리라롱 걸 씨우지. {그 후에 이제 밧구가 원만하다 할 적에 후걸이라는 걸 씨우지.}

10332 @ 예? {예?}

10332 # 후:거리. {후걸이.}

10332 @ 후거리는 머요 또? {후걸이는 뭐요 또?}

10332 # 예:: 네털마개 네리가면 그: 다야차 가통 기 먼저 갈라구 압 바키 막 구부러 나가
자나. {에 내리막에 내려가면 그 타이야차 같은 게 먼저 가려고 앞 바퀴가 막 굴러
내려가잖아.}

10332 @ 예:. {예.}

10332 # 그러면 소가 그걸 받찌. {그러면 소가 그럴 받찌.}

10332 # 받는데 똥빠지르 해:서 이르게 가주구 술기다가 톱 매: 논는다 마리어. {받는데 똥
받이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레에다가 톱 매 놓는단 말이야.}

10332 # 그러면 소가 안 네리가거따구 이르게 되면 똥빠지에 걸려서 술긴 몬 내려가지.
{그러면 소가 안 내려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똥받이에 걸려서 수레는 못 내려가지.}

10332 # 기래 그르키 하능 개 예: 지멸 받넌다, 술기를 받는다, 이르게지. {그래 그렇게 하
는 게 예 짐을 받는다, 수레를 받는다, 이렇게 하지.}

10332 # 어떻 건 사:내 가서 가파른 대 가따가 낭그 다러 가주구서는 낭기 니리 민다 마리
여. {어떤 건 산에 가서 가파는 데 갔다가 나무 달아가지고 나무를 내려 민단 말이
야.}

10332 # 여기는 누:니 이끼 때미 영 미끼럽찌. {여기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끄럽지.}

10332 # 게서 인제 이개 제가 히무루 받따가 받찌 모탈 쟁도개 되면 소가 뺨: 틀지. {그래
서 이제 이게 제가 힘으로 받다가 받찌 못할 정도가 되면 소가 뺨 틀지.}

10332 # 이르키 되 이르키 된 까파란데다가 네리가다가 모 빠드면 이르키 틀면 들 네리간
다 마리어. {이렇게 되 이렇게 된 가파란데다가 내려가다가 못 받으면 이렇게 틀면
덜 내려간단 말이야.}

10332 @ 잘못하면 소 치어 주깬내요. {잘못하면 소 치어 주겠네요.}

10332 # 주깬 거뚜 이썬요, 어: 소가 주이. {죽인 것도 있어요, 예 소가 죽어.}

10332 # 이: 가다가 바뿌면 이르키 톱: 치 친다 마리어, 소가. {이 가다가 힘들면 이렇게 톱
친단 말이야, 소가.} 10332 @ 소가 지가 그래요? {소가 자기가 그래요?}

10332 # 어: 제가 틀지. {어 제가 틀지.}

10332 # 그라면 이개 이르키 내려가니까 이 꼬추 네리가면 미끄러우미 히미 더 세지. {그러
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똑바로 내려가면 미끄러운 힘이 더 세지.}

10332 # 가:로 터기 이르키 나가다 빠뚜로 스개 되면 그 다맨 좀 들: 밀지. [가로 톱이 이
렇게 나가다가 빠뚜로 서면 그 다음에는 좀 덜 밀지.}

10332 @ 그러깬내요. {그렇겠네요.}

10332 # 예: 그러면 이 들 밀다가 밀리게 이르키 할라다가 받기가 훌쩍 번저진다 마리어.
{예 그러면 이 덜 밀다가 밀리게 이렇게 하려다가 받구가 훌쩍 뒤집힌단 말이
야.}

10332 # 여기는 너푸구 여기는 나꺼덩.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거든.}

10332 # 게 받구는 이르게 생겨찌. {그래 받구는 이렇게 생겼지.}

10332 # 게 이:거는 받구 소 등얼 치구 아래채는 이 받 다리를 친다 마리어. {그래 이거는
받구 소 등을 치고 아래채는 이 받 다리를 친단 말이야.}

10332 # 그럼 소가 이르키 너머가지. {그럼 소가 이렇게 넘어가지.}

10332 # 게 너머가서 이: 너머가면 이: 낭기 끝:구 네리온대 치어서 주글 쭈두 이꾸. {그래
넘어가서 이 넘어가면 이 나무 끌고 내려오는데 치어서 죽을 수도 있고.}

10332 @ 그르캐썬요. {그렇겠어요.}

10332 # 예: 게 소: 중궁 거: 그래 발구다리하다 소 주궁개 만:치. {예, 그래 소 죽은 거 그
래 발구다리하다가 소 죽은 게 많지.}

10332 # 그래서 이: 네릴마걸 바들 쯤개는 뒤:따리에 사람 안능 거처름 거저 요르키 딱 떠
디구서넌 영치 땅이 대:구서는 이: 꼬:늘 다 히::멀 주지 소가 압따리 이르키 하구.
{그래서 이 내리막을 받을 적에는 뒷다리에 사람 앉는 것처럼 그저 요렇게 딱 디디
고는 영치를 땅에 대고는 이 끈에 힘을 주지 소가 앞다리를 이렇게 하고.}

10332 # 압따리 압따리 배까티루 나가지 뒤따리가. {앞다리 앞다리 바깥으로 나가지 뒷다리
가.}

10332 # 게 이르카구 히:멀 주지. {그래 이렇게 하고 힘을 주지.}

10332 # 게 안 네리갈라구 자꾸 빠드덩거리구 이르게 히:멀 쓰지. {그래 안 내려가려고 자
꾸 버둥거리고 이렇게 힘을 쓰지.}

10332 # 이거뚜 바꾸 이르치. {이거도 받고 이렇지.}

10332 # 게: 영치까지 다: 다깨끔 이르게 해 가주구 네리가능 개 이찌. {그래 어침까지 다
닿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게 있지.}

10332 # 게 뒤따리는 이게 이땀 마리어. {그래 뒷다리는 이게 있단 말이야.}

10332 @ 예:. {예.}

10332 # 이게. {이게.}

10332 # 게 이러케 뒤따리에서 디디구 이러키 이르키 빠져가 나가능 개 이찌. {그래 이렇게
뒷다리에서 디디고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지.}

10332 @ 으응. {으응.}

10332 @ 소두 영니하내요. {소도 영리하내요.}

10332 # 아이구: 소: 길 잘: 디리노면 사람 승: 히미 허:라지 머. {아이고 소 길 잘 들여놓
으면 사람 영 힘이 덜 들지 뭐.}

10332 # 머 맥플 꺼뚜 우꾸 잘하지요. {뭐 맥들 것도 없고 잘하지요.}

10332 # 그 다맨 낭구토막 이런 상두레보더 더 큼 거 자기가 한쌍 머리를 들지 모타자내요.
{그 다음에는 나무토막 이런 상두레보다 더 큰 거 자기가 한쪽 머리를 들지 못하잖
아요.}

10332 # 들지 모태 여기다 발구에다 여기다 턱 시러야 되겐데 들 쭈가 업따 마리어. {들지
못해서 여기다 발구에다 여기다 턱 실어야 되겠는데 들 수가 없단 말이야.}

10332 # 게 이걸 지리때 여쿠서는 이 낭글 쪼끔 든다 마리어, 꼬트머릴. {그래 이걸 지렛대
를 넣고는 이 나무를 조금 든단 말이야, 꼬트머리를.}

10332 # 드러 가주구 여기다 가따 소릴 돌려 대구서는 이르카구 두 소누루 어깨에다 메구
서넌 기어::우 들지, 한쌍 머리릴. {들여 가지고 여기에 갖다 소를 돌려 대고는 이
렇게 하고, 두 손으로 어깨에다 메고는 겨우 들지, 한쪽 머리릴.}

10332 # 게 들기 쉽:개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중가내다가 나 낭그 하나 미리 여는다 마리
여. {그래 들기 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중간에다가 나무 하나를 밀어 넣는단
말이야.}

10332 # 그라면 거기서 떠 가주구서 낭구 미리여꾸 떠 가주구 낭구 미리여꾸 하면 낭기 인

재 함: 파내서 이:러키 돼지, 낭기. {그러면 거기서 떠 가지고 나무를 밀어 넣고 떠 가지고 나무를 밀어 넣고 하면 나무 이제 한 판에서 이렇게 돼지, 나무가.}

10332 # 그래 이 함 파내 인능 건, 여기가 공간이 생기기 때때. {그래 이 한 판에 있는 건, 여기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10332 @ 예. {예.}

10332 # 여기서 들면 좀 허라다 마리어 이러캐. {여기에서 들면 좀 쉽단 말이야 이렇게.}

10332 # 이럴 쩌개 이럴 쩌개 지리때 여쿠서는 이 낭그 꼬트머리를 요:마이 드러쉴 쩌개는 여기다 소르 가따 노쿠 여기 소 이찌 지금 인재. {이럴 적에 이럴 적에 지렛대 넣고는 이 나무 끝으머리를 요만큼 들었을 적에는 여기에다 소를 갖다 놓고, 여기 소 있지 지금 이제.}

10332 # 소 발구채는 여기 이꾸. {소 발구 채는 여기에 있고.}

10332 # 벌구 도마애다가 도매애다가 이 낭그 시려야 되겐데 게:우 들기만 해는데 이걸 여기 가따 지버열 쭈가 업따 마리어. {발구 도마애다가 도마애다가 이 나무를 실어야 되겠는데 겨우 들기만 했는데 이걸 여기 가져다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10332 # 그러문 여기다따 땡 노쿠서는 씨': 하게 되면 소가 두 발자걸 짹: 드르간다 마리어. {그러면 여기다 갖다 떡 놓고는 씨! 하면 소가 두 발작을 짹: 드러간단 말이야.}

10332 # 뒤:루 물춤한다 마리어. {뒤로 물춤한단 말이야.}

10332 # 그래 물추라면 또 드러지 드러가지. {그래 물춤하면 또 들어가지 들어가지.}

10332 # 이게 너머 드러가면:: 소 응치애 다꺼꾸 이게 좀 야치 물리면 인차 빠:지개꾸 소가 달리면 인차 빠:지거꾸 할 때 그때 쪼끔 더 서서 이러! 하게 되면 쪼끔 나가지. {이게 너무 들어가면 소 응치애 달겠고 이게 좀 알게 물리면 금방 빠지겠고 소가 달리면 금방 빠지겠고 할 때 그때 조금 더 서서 이러! 하면 조금 나가지.}

10332 # 그다쁜 소: 자라능 건 고로캐 땅 내리노면 그래드러가지 그래 바로 동지구 바루 동지구서는 가싱기루 딱 박찌. {그 다음에는 소 잘하는 건 그렇게 딱 내려놓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그래 바로 동여매고 바로 동여매고 가싱기로 딱 박지.}

10332 @ 가싱기는 또 머요? {가싱기는 또 뭐요?}

10332 # 쇠때 이렇 거 가주 땡겨 이렇 거, 뽕::쪼강 거 그래 이렇 거 가주 땡기여. {쇠 이런 거 가지고 다녀 이런 거, 뽕쪽한 거 그래 이런 거 가지고 다녀.}

10332 # 게 바:렐 다: 동지구서 그 낭기애다 탁: 박찌. {그래 바를 다 동여매고서 그 나무에 다 탁 박지.}

10332 # 바그먼 이개 언트리 돼 가주구 빠:지지 모타지 낭기. {박으면 이게 언덕이 되어 가지고 빠지지 못하지 나무가.}

10332 # 게 가싱기 바거 가주구 땡기지. {그래 가싱기 박아 가지고 다니지.}

10332 @ 그: 저기 동진대: 바거나서 그 동징개 암 빠지개. {그 저기 동여맨데 박아서 그 동여맨 게 안 빠지게.}

10332 # 암 빠지지. {안 빠지지.}

10332 # 거기 걸려서... {거기 걸려서...} 10332 @ 그개 가싱기요? {그개 가싱기요?}

10332 # 가싱기. {가싱기.}

10332 @ 또 그런 그: 그 소리두 또 침: 드런내요. {또 그런 그 그 소리도 또 처음 들었네요.}

10332 # 예 헤헤헤. 아이구 그 참. {예 헤헤헤. 아이고 그 참.}

10332 # 이 삼판 해먹자면 그거두 힘:드려요. {이 삼판 해먹으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10332 # 자간 똥씨무루다 그거 하자면 힘:드려요. {좌우간 똥힘으로 그거 하려면 힘들어요.}

10332 # 게 소 말: 잘 듣능 건 사:라미 썩:: 허라지 머. {그래 소 말 잘 듣는 건 사람이 썩 수월하지 뭐.}

10332 # 영: 허라지. {아주 수월하지.}

10333 @ 소:두 털 새까래 따라서 이르미 달라요? {소도 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10333 # 다르지. {다르지.}

10333 @ 어떤 어떤... {어떤 어떤...}

10333 # 까만소, 누렁소 누:런 누:러면 누:런소 까만소 새까만 소가 이꺼던. {까만소, 누렁소 누런 누러면 누런소 까만소 새까만 소가 있거든.}

10333 @ 거기 또 하:얀 점 박킹 거뚜 이짜너요. {거기 또 하얀 점 박힌 것도 있잖아요?}

10333 # 하야다 점배기. 점배기소. {하얀 점박이. 점박이소.}

10333 @ 그거 얼룩... {그거 얼룩...}

10333 # 얼룩쏘. {얼룩소.}

10333 @ 얼룩쏘라구두 해요? {얼룩소라고도 해요?}

10333 # 어:, 얼룩쏘. {응, 얼룩소.}

10333 @ 얼룩쏘 어디에 노랑 누렁 거애 하얀 점배깅 거요. {얼룩소 어디에 노랑 누런 거애 하얀 점박힌 거요.}

10333 # 에 에 꺼문 데다 하:얀 전 배깅 게 얼룩쏘지. {에 에 꺼먼 데다 하얀 점 박힌 게 얼룩소지.}

10333 # 게 누:런 데다가 하:얀 점 배깅 건 업써요. {그래 누런 데다가 하얀 점 박힌 건 없어요.}

10333 # 소가, 소가 점애 조매 업써. {소가, 소가 점애 거의 없어.} 10333 @ 그렇거뚜 어떤대요? {그런 것도 있던데요?}

10333 @ 보통 누:러차너요 소가? {보통 누렁잖아요, 소가?}

10333 # 어:, 하:얀 저미 배깅 거. {어, 하얀 점이 박힌 거.} 10333 @ 그런대 하양 거 머리 애두 이꾸 머 배애두 이꾸 머 그렇 거 어떤대요. {그런데 하얀 거 머리에도 있고 뒤편에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던데요.}

10333 # 어: 어 그렇 게 예:: 이썬, 이썬. {어 어 그런 게 예 있어, 있어.}

10333 # 그렇 거뚜 이썬. {그런 것도 있어.}

10333 @ 그건 머라 그래요? {그건 뭐라고 해요?}

10333 # 게 점 저 얼룩쏘지 머. {그래 점 저 얼룩소지 뭐.}

10333 @ 그거뚜 얼룩쏘구. {그것도 얼룩소.}

10333 # 으:. {응.}

10334 @ 뿔, 뿔 이름두 여러 가지라면서요? {뿔, 뿔 이름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10334 # 내 그썬 아 먼저 마라지 아내'썬 그거 다:. {내 글썬 아, 먼저 말하지 않았어 그거 다.}

10334 # 자파뿌리꾸 곤두뿌리꾸... {잡화뿔 있고, 곤두뿔 있고...} 10334 @ 그거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거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10334 # 그 다매 저: 이꾸... {그 다음에 저 있고...}

10334 @ 곤두뿌리구 자파뿔 차이가. {곤두불하고 잡화불 차이가.}

10334 # 곤두뿌른 뿌래 이리키 이리키 되서 이리키 땡 개 곤두뿌리구:. {곤두뿔은 뿔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곤두뿔이고.}

10334 @ 요로케 요로케 땡 거요? {요렇게 요렇게 된 거요?}

10334 # 으:, 그기 곤두뿌리구. {응, 그개 곤두뿔이고.}

10334 @ 머리가 요로케 대 이쓰면: 소 머리가 요로 요로케 땡 거지요. {머리가 요렇게 되어 있으면 소 머리가 요령 요렇게 된 거지요.}

10334 # 이기 곤두뿌리구. {이개 곤두뿔이고.}

10334 @ 예, 한 사시보도 정도? {예, 한 사십오도 정도?}

10334 # 자파뿌른 이리키 낭 개 곤두뿌리구. {잡화뿔은 이렇게 난 개 곤두뿔이고.}

10334 @ 어트개 낭 거요? {어떻게 난 거요?}

10334 # 이리키: 꼬꼬지 이리키 낭 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난 개.}

10334 # 이거 이: 뿔과 이 뿔과 평이 되개, 대가리서 이리케. {이거 이 뿔과 이 뿔과 평이 되개, 머리에서 이렇게.} 10334 @ 여푸루 이리케? {옆으로 이렇게?}

10334 # 예:. {예.}

10334 @ 일짜루 이리케. {일자로 이렇게.}

10334 # 예:, 일:짜루 이리키 낭 개 자파뿌리구. {예, 일자로 이렇게 난 개 잡화뿔이고.}

10334 @ 자파뿌리구 또. {잡화뿔이고 또.}

10334 # 그 다매 그: 저: 곤 곤두뿌리구. {그 다음에 그 저 곤 곤두뿔이고.} 10334 @ 또 이리케 땡:그러케 땡 거. {또 이렇게 둥그랗게 된 거.}

10334 # 그건 물래뿌리구. {그건 물래뿔이고.}

10334 # 둥:그러케 땡 건 물래뿌리구. {둥그랗게 된 건 물래뿔이고.}

10334 # 예:. {예.}

10334 # 그 다매 또 어: 재:장구살처럼 이리:키 나오다가 이리:캐서 이리키 꾸부러징 기 또 이따 마리어. {그 다음에 또 예 재장구살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부러진 게 또 있단 말이야.} 10334 @ 땡:그러케 이리케 땡칭 거. {둥구렇게 이렇게 땡친 거.}

10334 # 어: 그개 재:장구뿌리구. {어, 그개 재장구뿔이고.}

10334 # 재:장구뿔. {재장구뿔.}

10334 @ 재장거뿔? {재장거뿔?}

10334 # 어:, 허허. {어, 허허.}

10334 # 그 이기 그르키 갈러저짜이여 요 먼저 다: 얘기해짜너 그개. {그 이게 그렇게 갈라졌잖아 요 먼저 다 얘기했잖아 그개.}

10334 @ 요러케 하눌 땅 가리능 거뚜 이따면서요? {요렇게 하눌 땅 가리키는 것도 있다면 서요?}

10334 # 천지뿔. {천지뿔.}

10334 @ 아: 그건 천지뿌리요? {아, 그건 천지뿔이요?}

10334 # 어 허, 천지뿔. {어 허, 천지뿔.}

10334 @ 저버내 그거- 모:뜨러써요. {저번에 그거 못 들었어요.}

10334 # 왜: 다: 했는데 그거. {왜 다 했는데 그거.}

10334 @ 천지뿌른 모뜨러썌요. {천지뿌른 못 들었어요.}

10334 # 다: 해:써 그거. {다 했어 그거.}

10334 # 한 짜기 올라가구 한 짜기 네리 처지구. {한 쪽이 올라가고 한 쪽이 내려 처지고.}

10334 @ 예. {예.}

10334 # 그 이름 생각 안 나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 생각 안 나신다 그랬어요.}

10334 # 예: 천지뿌. {예 천지뿌.}

10334 @ 이름 생각 안 나신다구. {이름 생각 안 나신다고.} 10334 # 그개 그개 천지뿌리라구. {그개 그개 천지뿌이라고.}

10336 @ 조:은 소는 어떻 개 조은 소요? {좋은 소는 어떤 개 좋은 소요?}

10336 @ 조은 소 골들라면 소 살 때. {좋은 소 고르려며 소 살 때.}

10336 @ 아무나 아무 거, 소 크기만 하면 조은 건 아니자나요? {아무나 아무 거, 소 크기만 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10336 # 아:니저:. {아니지요.}

10336 # 황소털 조은 거 고르느냐 암소털 조은 거 고르느냐 하넌 두: 가지 문제지. {황소를 좋은 거 고르느냐 암소를 좋은 거 고르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지.}

10336 @ 예. {예.}

10336 # 거기서 황소를 로쿠 얘기할 썌개는 상소를 척 디더서 텍: 서 인능 걸 보게 되면 황소가 아까시미 텅 널붕가 이걸 처음 보구. {거기서 황소를 놓고 얘기할 적에는 황소를 척 디더서 텍: 서 있는 걸 보면 황소가 앞가슴이 텍: 넓은가 이걸 처음 보고.}

10336 # 그 다매 누:널 보지. {그 다음에 눈을 보지.}

10336 # 황소 누널 보지. {황소 눈을 보지.}

10336 # 게 누널 보게 되면 거 누니 예:: 어:똥가. {그래 눈을 보면 그 눈이 예 어떤가.}

10336 # 똥고랑가 좀 이러캐 이르키 좀 썰썰항가. {둥그란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길죽한가.}

10336 # 이걸 또 본다 마리어. {이걸 또 본단 말이야.}

10336 @ 어떻 개 조은 소요? {어떤 개 좋은 소요?}

10336 # 예:? {예?}

10336 @ 어떻 개 조은 소요, 누니? {어떤 개 좋은 소요, 눈이?}

10336 # 게 누니 똥:고랑 개 조은 소지. {그래 눈이 둥그란 개 좋은 소지.}

10336 # 그래 그: 그르캐 하구. {그래 그 그렇게 하고.}

10336 # 그 다매 거르멀 걸려 보지. {그 다음에 걸음을 걸려 보지.}

10336 # 거르멀 볼리먼 압따리: 디딘 자리에 뒤따리가 쏘끔 어:: 십센치나 시보센치나 압따르 아피 내:디디능 거. {걸음을 걸리면 앞다리 디딘 자리에 뒷다리가 조금 예 십센티미터나 십오센티미터나 앞으로 앞에 내디디는 거.}

10336 # 뒤따리가 압따리 디더뎌 자리랄 뒤따리-가 또 내'딘는다 마리어. {뒷다리가 앞다리 디뎌던 자리를 뒷다리가 또 내딛는단 말이야.}

10336 # 반자욱 꺼름하능 거넌 암:만 빨리 간다구 해두 더디지 굼띠구. {반자국 걸음하는 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더디지 굼띠고.}

10336 # 그 다매 이: 점 아푸루 내디디능 건 거르미 빠르지. {그 다음에 이 좀 앞으로 내디

디는 건 걸음이 빠르지.}
 10336 # 게서 이거: 다 걸려 보구. {그래서 이거 다 걸려 보고.}
 10336 # 그대애 발통이 어트개 생견능가, 무슨 발통인가? 이거 보지. {그 다음에 굽통이 어떻게 생겼는냐, 무슨 굽통인가? 이거 보지.}
 10336 @ 발통이요? {굽통이요?}
 10336 # 어: 소 발통 이르키... {어, 소 굽통 이렇게...}
 10336 @ 발통? {굽통?}
 10336 # 으: 발통. {응, 굽통.}
 10336 # 그래서 소 발통이 짜개가 이르키 인는데 요가 톱그라차여. {그래서 소 굽통이 짜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기가 둥그랴잖아.}
 10336 @ 예. {예.}
 10336 # 켜데 이거슬 제대루 생견능가 모:생견능가 이거 보지.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이거 보지.}
 10336 # 아푸루 예:: 그:무리 발톱빙가 그 다매 에 둥구런 발톱빙가. {앞으로 예 구물이 발톱인가 그 다음에 둥그런 발톱인가.}
 10336 @ 무슨 발톱비요, 거:머리? {무슨 발통비요, 거머리?}
 10336 # 그:머리 발톱빙가. {그머리 발톱인가.}
 10336 @ 예. {예.}
 10336 # 게 그무리 발톱은 이게 조금 나와찌. {그래 그무리 발톱은 이게 조금 나왔지.}
 10336 @ 길쭉카개? {길죽카개?}
 10336 # 으:, 쪼쭉카개. {응, 길죽카개.}
 10336 # 게 이거 보구. {그래 이거 보고.}
 10336 # 그 다매 여기서 그 발톱비 발톱비 하:나 여그 와서 두: 개가 인능 개 이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발톱이 발톱이 하나 여기 와서 두 개가 있는 게 있지.}
 10336 # 뒤에 소: 보면 이찌요? {뒤에 소 보면 있지요?}
 10336 @ 뒤꾸배? 예. {뒷굽에? 예.}
 10336 # 예. {예.}
 10336 # 소 보면 두 개 발톱비 여기 나와 인능 개 이찌요. {소 보면 두 개 발톱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
 10336 # 그래 그개 예: 이 이르키 디딜라구 이르키 떠썰 찌개 여기가 단능가 안 단능가 이거 보지. {그래 그개 에 이렇게 디디려고 이렇게 떼을 적에 여기가 닿는가 안 닿는가 이걸 보지.}
 10336 # 발톱비 여 뒤에 단능가 안 단능가. {발톱이 요 뒤에 닿는가 안 닿는가.}
 10336 @ 아아: 이러캐 썸 아빠를 압빨 이러캐 거를 때. {아아 이렇게 굽 앞발을 앞발 이렇게 걸을 때.}
 10336 # 그릴 때 이러캐 때 에 그개 여개 단능가 안 단능가. {그릴 때 이렇게 할 때 그개 여기 닿는가 안 닿는가.} 10336 @ 뒤 뒤에 이르캐 두 개 나온 찰븐 찰븐 거 단는지. {뒤 뒤에 이렇게 두 개 나온 짧은 짧은 거 닿는지.}
 10336 @ 그러면 그개 어떻 개 조은 소요? {그러면 그개 어떤 게 좋은 소요?}
 10336 # 게 다찌 아나애지. {그래 닿지 않아야지.}
 10336 # 다찌 아나야지. {닿지 않아야지.}

10336 # 그래 그르키 보구. {그래 그렇게 보고.}

10336 # 그 다매 거:러갈 찌개 어떤 소는 이러키: 해:서 이러키 디디구 이러키 디디구 이러키 디디구 하는 소가 이찌. {그 다음에 걸어갈 적에 어떤 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디고 이렇게 디디고 하는 소가 있지.}

10336 @ 뒤빠리요? {뒷발이요?}

10336 # 예:, 뒤빠리. {예, 뒷발이.}

10336 @ 여푸루. {옆으로.} 10336 # 압따리는 꼬고지 가는데. {앞다리는 똑바로 가는데.}

10336 @ 예. {예.}

10336 @ 뒤빠리 여푸루 이러캐서... [뒷발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10336 # 뒤뿌리 여푸루 가능 개지. {뒷발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10336 # 이르키 꼬개 내디디능 기 아니라 여푸루 가능 기여. {이렇게 곧게 내디디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야.}

10336 # 이근 이슬차개- 소다. {이건 이슬차개 소다.}

10336 # 이 이스를 툭툭 차구 가는 가는 소다. {이 이슬을 툭툭 차고 가는 가는 소다.}

10336 # 이슬차개 소다. {이슬차개 소다.}

10336 # 이르키 되지. {이렇게 되지.}

10336 # 그 다매... {그 다음에...}

10336 @ 그런 소는 안 조은 거지요? {그런 안 좋은 거지요?}

10336 # 안: 조치. {안 좋지.}

10336 # 게: 이게 고로: 생기야지. {그래 이게 고루 생겨야지.}

10336 # 고로 생겨서 아까스미 딱: 빠러진 황소는 매':그 쓴다 마리어. {고로 생겨서 앞가슴이 딱 벌어진 황소는 맥을 쓴단 말이야.}

10336 # 게서:.. {그래서...}

10336 @ 그렇 개 조은 소요? {그런 게 좋은 소요?}

10336 # 으:, 그렇 개 조은 소지. {응, 그런 게 좋은 소지.}

10336 # 그러나 압 이르키: 탁: 쪼꾸 황소가 여기가 쪼꾸 그 다매 저: 주딩이가 황소 주딩이가 빠주 가면 그건 나 모쨌요. {그러나 앞 이렇게 탁 줍고 황소가 여기가 줍고 그 다음에 저 주딩이가 황소 주딩이가 뽕족하면 그건 힘 못 써요.}

10336 # 이 널꾸 주딩이가 몽투가구 대가리가 그저 크:게 생겨야 맥 쓰지. {이 넓고 주딩이가 몽툭하고 머리가 그저 크게 생겨야 맥을 쓰지.}

10336 @ 그기 둥굴쏘라 그래요? {그게 둥굴소라 그래요?}

10336 # 게 둥굴소라구 하구두하구 황소라구두 하구, 그게 그러치. {그래 둥굴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황소라고도 하고, 그게 그렇지.}

10336 @ 암:소 조용 거는 어떻 거요? {암소 좋은 거는 어떤 거요?}

10336 # 암:소 좋은...어 어똥기 조용가 하니까, 암소 조용 건 이 다리 건능 건 항가지구, 그 다매 이쪽 저 아까스미 줍 쪼꾸, 영치가 탁: 퍼진 소래야- 새끼노리두 자:라구 매글 쓴다 마리어. {암소 좋은... 어 어떤 게 좋은가 하면, 암소 좋은 건 이 다리 걷는 건 한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 저 앞가슴이 줍 줍고 영치가 탁 퍼진 소라야 새끼놀이도 잘하고 맥을 쓴단 말이야.}

10336 # 압따리루 맥쓰능 기 아이지. {앞다리로 맥쓰는 게 아니지. 10336 # 언제든지 소는 뒤따리루 마:니 맥쓰지. {언제든지 소는 뒷다리로 많이 맥쓰지.}

10336 # 게서 이르 끝:다가 소가 끝:다가 끝:지 모타자니요. {그래서 이리 끝다가 소가 끝다가 끝지 못 하잖아요?}

10336 # 너머 무거워서 끝:지 모타지. {너무 무거워서 끝지 못 하지.}

10336 # 이릉 건 압따릴 라추지, 꾸불치. {이런 건 앞다리를 낮추지, 굽히지.}

10336 # 꾸불구 뒤따리루 힘:쓴다 마리어. {구굽히고 뒷다리로 힘쓴단 마리아.}

10336 # 그라먼 이기 나간다 마리어. {그러면 이게 나간단 말이야.}

10336 # 그래 무루파그루 이르캐 거러가는 소두 이찌. {그래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소도 있지.}

10336 # 그래구서 올려 논 다:으매 그 다매 이러서서 끝구 내려오지. {그리고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서 끌고 내려오지.}

10336 # 올르막 올려논 다매. {오르막 올려논 다음에.}

10336 # 게 다: 가개 하지 머. {그래 다 가게 하지 뭐.}

10338 @ 예저내 머슴사리두 이찌요? {예전에 머슴살이도 있지요?}

10338 @ 머슴 살:자나요 나무지배? {머슴살잖아요, 남의집에?}

10338 # 머슴살지. {머슴살지.}

10338 @ 머슴살 때두 여러 가지 조:꺼니 이찌요? {머슴살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10338 # 이찌:. {있지.} 10338 @ 일러하능 거 머. {일년 하는 거 뭐 .}

10338 # 어: 유개월 하능 거 일런 하능 거... {어, 육개월 하는 거 일년 하는 거...}

10338 @ 그렇 개 어떤... {그런 게 어떤...}

10338 # 그저' 요 먼저 다: 헨:는대 머. {그저 요 먼저 다 했는데 뭐.}

10338 @ 예. {예.}

10338 # 다: 헨는대 머 또 해여. {다 했는데 뭐 또 해.}

10338 @ 그 그 그럴 때에:... 그 과:정이 어트개 되요, 머슴사리 하는 과:정? {그 그 그럴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머슴살이 하는 과정?}

10338 # 과정이: 이 사리아면 이: 사람 머슴사리 하능 개 예: 주이네 맘 마취주기 위해서 죽:뚜룩 일만 하지 머 그저. {과정이 이 사람 이 사람 머슴살이 하는 게 예 주인의 마음 맞춰주기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지 뭐 그저.}

10338 # 그저 머꾸 이:라구, 머꾸 이:라구, 머꾸 이:라구 소처럼 그저 머꾸 이:라지. {그 저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소처럼 그저 먹고 일하지.}

10338 # 게 자기가 일:머릴루 다: 차자서 이:라는데 이:리랑능 게 꼬치 업따 마리어. {그래 자기 일머리를 다 찾아서 일하는데 일이라는 게 끝이 없단 말이야.}

10338 # 한:: 그저 메:가지 이:를 하는데 사라미 하는 이:른 다: 한다 마리어 그래구. {한 그 저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10339 @ 소작뚜 해짜너요 엔나래? {소작도 했잖아요, 옛날에?}

10339 # 예? {예?}

10339 @ 소:작? {소작?}

10339 # 소:자기라는 지주 땅 부치능 걸 가따 소:자기라구 하구. {소작이라는 지주 당 부치는 걸 갖다 소작이라고 하고.}

10339 @ 그렇 건 어떤 시그루 하능 거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요?} 10339 # 소:

장 소:장농. {소작 소작농.}

10339 @ 그건 어떠케 해썬요, 조거니? {그건 어떻게 했어요, 조건이?}

10339 # 조거니야 지주가 지주한테 땅을 좀 달:라. {조건이야 지주가 지주한테 땅을 좀 달:라.}

10339 @ 예. {예.}

10339 # 이라면 별써 달:랄 썬개는 그: 소장농이라능 글 알:구 달라지. {이려면 별써 달라고 할 적에는 그 소작농이라는 걸 알고 달라지.}

10339 @ 예. {예.}

10339 # 그래서 그 지주가 말:하지. {그래서 그 지주가 말하지.}

10339 # 메 썬미나 부치겐나 뎡 마지기 부치겐나, 무러보지. {뎡 짐이나 부치겐나 뎡 마지기 부치겐나, 물어보지.}

10339 # 그러면 지주가 어: 뎡 마지기 부치개썬다 하면 뎡 마지기 주지. {그러면 지주가 어 뎡 마지기 부치겐습니다 하면 뎡 마지기 주지.}

10339 # 준 다매 이견 벼:니 이따 어: 삼칠제냐 그 다매 칠삼제냐 그 다매 예: 이팔제냐. {준 다음에 이견 변이 있다 예 삼칠제냐 그 다음에 칠삼제냐 그 다음에 예 이팔제냐.}

10339 # 그 다매 사 사륙 사:류기 사:류그루 하겐나, 이르치. {그 다음에 사 사륙 사륙이 사륙으로 하겐나, 이렇게.} 10339 @ 그러케 차이가 마니 나게 해요? {그러케 차이가 많이 나게 해요?}

10339 # 게 사:류그루 할 썬넌 유글 지주개 대주구 어: 마낙썬: 열: 포대가 나따면 여서 포대를 지주 주구 네: 포대는 내가 가썬. {그래 사륙으로 할 때는 육을 지주에게 주고 예 만약에 열 포대가 났다면 여섯 포대를 지주 주고 네 포대는 내가 갖지.}

10339 # 게 사:류기루 하겐나 결썬하구 하:능 기지. {그래 사륙으로 하겐나 결정하고 하는 거지.}

10339 @ 삼칠제는요. {삼칠제는요.}

10339 # 삼칠제는 일고 푸대를 주구. {삼칠제는 일곱 포대를 주고.}

10339 # 서 세: 포대는 내가 머꾸. {서 세 포대는 내가 먹고.}

10339 @ 그럼 머 지주는 일:두 아나구 그냥 거저 다:하개? {그럼 뎡 지주는 일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다하개?}

10339 # 그러니까 땅 가주 땅 가주구 인는 사람 지주가 그래 뜨더머꾸 산다능 기지. {그러니까 땅 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지주가 그렇게 뜯어먹고 산다는 거지.}

10339 # 농민 뜨더머꾸 지주넌 농미럴 뜨더머꾸 자본가는 노동자를 뜨더 머꾸 산다구 하능 개 아니여. {농민 뜯어먹고 지주는 농민을 뜯어먹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뜯어먹고 산다고 하는 게 아니야.}

10339 # 예해:. {예해.}

10340 @ 푸마시는 어떠: 어떻 걸 푸마시 해썬요, 주로 어떤닐 할 때? {폼앗이는 어떤 어떤 걸 폼앗이해어요, 주로 어떤 일 할 때?}

10340 # 푸마시라능 건 내가 저집 닐 가서 해 주구 저지비 저지비 싸라물 래가 데루가는.... {폼앗이라능 건 내가 저 집 일 가서 해 주고 저집에 저집에 사람을 내가 데려가는...}

10340 # 마:낙새 네:덜 드러서 탈고걸 하겐데 혼자는 모타거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곡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는 못 하거든.}

10340 @ 예. {예.}

10340 # 그러면 푸마시할 찌개 저집 식꾸더라구 우리집 식꾸하구 하패서 푸마시하능 개 바뀌 쓰능 거. 먼저 해 주구 느께 하구. {그러면 품앗이할 적에 저집 식구들이 우리집 식구하고 합해서 품앗이하는 게 바뀌 쓰는 거. 먼저 해 주고 늦게 하고.}

10340 # 게 그 바뀌 쓰능 걸 푸마시다, 개 이르키 하:지. {그래 바뀌 쓰는 걸 품앗이다, 그래 이렇게 하지.}

10340 # 어떤 일: 할 때 푸마시 주로 해요? {어떤 일 할 때 품앗이 주로 해요?}

10340 # 탈곡뚜 하구... {탈곡도 학...} 10340 @ *** 마:니 이짜나요? {*** 많이 있잖아요?}

10340 # 탈곡할 때두 그러쿠 김:멜 때두 그러쿠. {탈곡할 때도 그렇고 김멜 때도 그렇고.}

10340 # 게 농사: 내가 혼자서 바까리하는데 씨 놀: 싸라미 업따 마리여. {그래 농사 내가 혼자서 밭갈이하는데 씨 농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

10340 # 아 고 하 참 절문 사람 거: 종자 잘: 로터라. {아 그 참 젊은 사람 그 종자 잘 놓더라.}

10340 # 그라구 우리집 와 할랄만 종자 나조. {그리고 우립 와서 하루만 종자 놔줘.}

10340 # 내 거: 가서 할랄 바까리 주께. {내가 거기 가서 하루 밭갈아 줄게.}

10340 # 거저 이르키. 거기 푸마:시지 그저. {그저 이렇지. 그게 품앗이지 그저.}

10340 @ 그러잉까 또까튼 일만 하능 기 아니라 종자 나 주면 바까리 줄 쑤두 이꾸. {그러니까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종자 놓아 주면 밭을 갈아 줄 수도 있고.}

10340 # 응:. {응.}

10340 @ 하이튼 하루 이르키 바뀌서 해주능 거지요? {하이튼 하루 이렇게 바뀌서 해 주는 거지요?} 10340 # 예: 바뀌 하능 거 그거 가따 우리 지비 꺼 하구 그 지꺼 가서 해: 주구 하능 개 푸마시지. {예, 바뀌 하는 거 그거 갖다 우리 집에 거 하고 그 집 거 가서 해 주고 하는 게 품앗이지.}

10340 @ 그게 머 저: 지붕 일 때나 반 뭇 때나 또 머: 저기 보리 보리 갈: 때나 머 이럴 때다: 할 쑤 인나요? {그게 뭐 저 지붕 일 때나 밭 뭇 때나 또 뭐 저기 보리 보리 갈 때나 뭐 다 할 수 있나요?}

10340 # 다:: 할 쑤 이쎬요. {다 할 수 있어요.}

10340 # 바뀌 할 쑤 이쎬. {바뀌 할 수 있어.}

10340 # 그래두 하루: 이틀 느즈 늦쎬. {그래도 하루 이틀 늦어 늦지.}

10340 # 그 다맨 사을 라을 이르키 느줄 쑤 업쎬요, 그건 푸마시는. {그 다음에는 사을 나홀 이렇게 늦을 수없어요, 그건 푸맛이는.}

10340 # 아무날 하는데 널: 모래 당신네 꺼 하구 예: 거저 내:른 우리지꺼 하자. {아무 날 하는데 내일 모래 당신네 거 하고 예 그저 내일은 우리집 거 하자.}

10340 # 이르게 해서 다 품마시 와따가따 하지. {이렇게 해서 다 품앗이 왔다갔다 하지.}

10340 @ 아아:. {아아.}

10340 @ 곡씨근 대개 가튼 가튼 시기에 시무니까. {곡식은 대개 같은 같은 시기에 심으니까.}

10340 # 그럼. {그럼.}

10340 @ 으응. {아아.}

10340 # 망중 종내 곡씩 시무면 다: 멍는다는 켜데. {망중 전에 곡씩 시으면 다 먹는다는 켜데.}

10340 @ 일꾼 어더서 일: 시키자나요, 하루 노부더서? {일꾼 얻어서 일 시키잖아요, 하루 놓 얻어서?}

10340 @ 그럼 그 사라만태 간식뚜 주구 밥뚜 주구 그래지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지요?}

10340 # 그'럼. {그럼.}

10340 # 해이지 머. {해야지 뭐.}

10340 @ 주로 언제 멀: 줘요? {주로 언제 뭘 줘요?}

10340 # 새벽밥 머꾸 나가 이라개 되면 으: 오:전 새:차멀 주구 오:후 새:참 주구 그래 증심 머꾸 오후 새:참 주구 그대 저녁 머꾸 그래 오지. {새벽밥 먹고 나가 일하게 되면 에 오전 새참을 주고 오후 새참 주고 그래 점심 먹고 오후 새참 주고 그 다음에 저녁 머고 그래 오지.}

10340 # 오늘 고상해써, 보내구 그저 그러치. {오늘 고생했어, 보내고 그저 그렇지.}

10340 @ 엔나래는 순:저니 다 몸 모무루 하- 하구 사룽 거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전히 다 몸 몸으로 하고 산 거내요, 그러니까.}

10340 # 그러캐 소처름 만:날 머꾸 이:래야지 머, 엔:나래는. {그렇게 소철럼 만날 먹고 일 해야지 뭐, 옛날에는.}

10340 # 그래 만:날 머꾸 일배 일배끼 모르지 머. {그래 만날 먹고 일밖(에) 일밖에 모르지.}

10340 # 저녁개 드러오면 또 무슨 저녁개 할: 릴 이꾸. {저녁에 들어오면 또 무슨 저녁에 할 일 있고.}

10340 # 새벽기면 새벽개 할: 릴 이꾸. {새벽이면 새벽에 할 일 있고.}

10340 # 그 잠 잠만 깨: 잠 밤 머꾸 잠만 깨:나면 그 이:리 만:치 머. {그 잠 잠만 깨 잠 밥 먹고 잠만 깨나면 그저 일이 많지 뭐.}

1.7. 의생활

10401

10401 @ 그 오투 다: 지배서 해: 이버짜너요, 엔:나래는? {그 옷도 다 집에서 해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10401 # 엔나래는 오투 다: 오투 다: 해 입넝 건 양까내드리 하능 기구. {옛날에는 옷도 다 옷도 다 해 입는 건 안식구들이 하는 거고.}

10401 @ 사: 입넝 기 아니구 다: 지배서 해짜너요? {사 입는 게 아니고 다 집에서 했잖아요?} 10401 # 어: 양까내드리 다: 하능 기구. {응, 안식구들이 다 하는 거고.}

10401 @ 짜:구 이러캐. {(옷감)짜고 이렇게.}

10401 # 이제 베트를 봐:서 베트를 짜:구 그 다매 저: 머여 난 다매 야:중에는 어: 광:모기 나온 담부터 광:목 짜다가 해: 이꾸. {이제 베트를 봐서 베틀로 짜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난 다음에 나중에는 에 광목이 나온 다음부터 광복 사다가 해 입고.}

10401 # 게 광:목 싸다 바지조고리 해: 이꾸 그저 그러치. {그래 광목 사다가 바지저고리 해 입고 그저 그렇지.}

10401 @ 여기서두 모와 시머썬요? {여기에서도 목화 심었어요?}

10401 # 모: 씨머요. {못 심어요.}

10401 #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여기.}

10401 @ 여긴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10401 # 안:대 근본 안 대요. {안돼 근본 안 돼요.}

10401 # 저: 남방에 가서 모와씨 싸다가 저: 부락 뒤에다가 거기다 한 땀기르 딱 시먼는데 아:이 돼요. {저 남방에 가서 목화씨 사다가 저 부락 뒤에다가 거기다 한 땀기를 딱 심었는데 안 돼요.}

10401 # 그냥 망우래기 이러:키 게서 이게: 소캐가 이러키 피지 모:타구 이 꼬부런 채루 이 대루 서리 마꾸 서리 마꾸는 안 돼요. {그냥 보오리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캐가 이렇게 퍼지 못하고 이 꼬부라진 채로 이대로 서리 맞고 서리는 맞고 안 돼요.}

10401 @ 여르미 찼버서 그렇가부다. {여름이 짧아서 그런가보다.}

10401 # 으:, 아이 아이 돼요. {응, 안 안돼요.}

10401 # 그 내 아 그래 모와 대:추 감: 밤: 이기 다: 안 돼요. {그 내 아 그래 목화 대추 감 밤 이거 다 안 돼요.}

10401 # 별지설 다해서 살굴라 그래는데두 안: 돼요. {별짓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10401 # 여기 저:: 동삼내 하우스에다 하우스를 쏘료루 가따 탁: 더퍼서 잘: 과동시켜 놔두 그 이듬해 보매만 여:러 노먼 발싸 안: 되능 아: 다: 주건는데. {여기 저 동삼에 하우스에다 하우스를 비닐로 갖다 딱 덮어서 잘 과동시켜 놔두 그 이듬해 보매면 열 어 놓으면 벌써 안 돼는 아 다 죽었는데.}

10401 @ 하우스 핸:는데두? {하우스 했는데도?}

10401 # 응. {응.}

10401 # 안 돼:. {안 돼.}

10401 @ 그래잉까 여려나:서 주궁 개 아니라 이미 주거이썬요? {그러니까 열어놔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어요?}

10401 # 주거 이썬요, 그. {죽어 있지요, 그.}

10401 # 동사매 주거 이썬요. {동삼에 죽어 있지요.}

10403 @ 그럼 머 여기서는 모완 아내구 사른요? {그러면 뭐 여기서는 목화는 안 하고 삼은 요?}

10403 # 사:른 돼:요. {삼은 돼요.}

10403 # 사른 어트개 되능가 하니까 무근: 씨를 삼씨를 가따 뿌려 놔두면 그 이드매 다: 나 요, 사른. {삼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묵은 씨를 삼씨를 갖다 뿌려 놔두면 그 이듬해 다 나요, 삼은.}

10403 @ 무근 씨두요? {묵은 씨도요?}

10403 # 으:, 무근씨두. {응, 묵은 씨도.}

10403 @ 그건 어트개: 재배해요, 사른? {그건 어떻게 재배해요, 삼은?}

10403 @ 그래서 어트개 재 심끼만 하면 대능 기 아니라 그거뚜 다:: 손질해 가주구 온감 찼

때까지 할라면 그 질차가 한참 대자나요? {그래서 어떻게 채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손질해 가지고 옷감 짤때까지 하려면 그 질차가 한참 되잖아요?}

10403 # 예. {예.}

10403 # 그거: 할라면 저: 처:매 삼씨릴 건: 바티다가 그거 바티 거리야 돼요. {그거 할라면 저 침음에 삼씨를 건 밭에다가 그건 밭이 걸어야 돼요.}

10403 # 영 바치 조:아야지. {영 밭이 좋아야지.}

10403 # 땅 심도두 조쿠. {땅 심도도 좋고.}

10403 # 그런데 이런 디다 가따가 족:: 뿌리지. {그런데 이런 데다 갖다가 족 뿌리지.}

10403 # 뿌리면 삼때가 이르키 클: 게 아니여. {뿌리면 삼때가 이렇게 클 게 아니야.}

10403 # 내:비러 놔두면 그저 꼬::고지 그저 한: 질 냉게 큰다 마리어. {내버려 놔두면 그저 깨끗하게 그저 한 길 넘게 큰단 말이야.}

10403 # 그라문 다: 돼서 가스래 이제 서리가 오개 되면 이퍼리가 떨어지지. {그러면 다 돼 어서 가을에 이제 서리가 오면 이파리가 떨어지지.}

10403 # 떨어지면 그 사멸 베:요. {떨어지면 그 삼을 베요.}

10403 # 나스루 이제 짝:: 베지 나스루. {낮으로 이제 쪽 베지 낮으로.}

10403 # 베 가주구서넌 다발 다발 목찌 머 이러케. {베 가지고는 다발 다발 목지 뭐 이렇게.}

10403 # 이러케 다발 다발 목찌 머. {이렇게 다발 다발 목지 뭐.}

10403 # 무꺼 가주구서는 무꺼 가주구서는 그 다매 그:: 머여 이 저 갱버니나: 어디 가서 무래 가따 그냥:: 담귀서 하는 사람두 이꾸. {목어 가지고는 목어 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뭐야 이 저 강변이나 어디 가서 물에 갖다 그냥 담귀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403 # 담귀서 하개 되면: 그:: 삼때:: 이 꺼푸리 우애 또 거몽 개 이따 마리어. {담귀서 하면 그 삼때 이 껍질이 위에 또 거은 게 있단 말이야.}

10403 # 그: 우애...{그 위에...} 10403 @ 예 거껍띠기. {예, 겉껍테기.} 10403 # 건 거껍띠기. {겉껍테기.}

10403 # 그개 안 떨어지지, 무래. {그개 안 떨어지지 물에.}

10403 # 이기 속:때에서부터 빼꺼지기는 잘: 빼꺼지는데 착 갈러 가주구 더 쪽:: 가개 착: 뜯구서 종:: 나가개 되면 삼때 삼때 대루 껍띠기 껍띠기 대루 종 나오지, 무래다 빨귀. {이게 속대에서부터 벗겨지기는 잘 벗겨지는데 착 갈라 가지고 쪽 가게 착 들고서 쪽 나가면 삼대는 삼대 대로 껍테기는 껍테기는 껍테기 대로 쪽 나오지, 부레다 불려서.}

10403 # 오래::두룩 빨귀따가 이르케 노면. {오래도록 불렀다가 이렇게 놓으면.}

10403 # 근대 이 우애 껍띠가 얇: 빼서진다 마리어. {그런데 이 위 껍테기가 안 벗겨진단 말이야.}

10403 # 그래 인재 이글: 방버벌 채취하기 위에서 이제 어트가능가 하개 되면 무래다 당구지 앙코 그 다매 인재 구덩이를 파지. {그래 이제 이걸 방법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에다 담그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를 파지.}

10403 # 구덩이를 파 가주구서 그 다매는 아: 거기다가 도::를 그냥 요망크만 도:렐 도:렐 그저 까뜩 채우지. {구덩이를 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 가기에다가 돌을 그냥 요만큼한 돌을 돌을 그저 가득 채우지.}

10403 @ 구덩이 미태다? {구덩이 밑에다?}

10403 # 구덩이 구덩이 미티다. {구덩이 구덩이 밑에다.}

10403 # 예: 판: 미티다. {예 판 밑에다.}

10403 @ 예. {예.}

10403 # 채우지. {채우지.}

10403 # 게 인재 이개 얼마만치 드르가야 얼마만치 파야 우리 저 사물 다: 여기다 열: 쭈
이깁능가. {그래 이제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야 얼마만큼 파야 우리 저 삼을 다 여
기예다 넣을 수 있겠는가.}

10403 # 이르케 해서 구덩이럴 파지. {이렇게 해서 구덩이를 파지.}

10403 # 게 구덩이를 파구 그 다매 흘걸 거기다 두어. {그래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흙을
거기에다 두어.}

10403 # 흘걸 요르케 쪽:: 피어요. {흙을 요렇게 족 펴요.}

10403 # 피구서는 그 다매 삼때를 올려노치. {피고는 그 다음에 삼대를 올려놓지.}

10403 # 예: 저: 삼때를 올려논능 게 아이라 그 다매 그: 도:린는 디다가 부릴 자::꾸 놔.
{예 저 삼대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거 돌 있는 데다가 불을 자꾸 놔.}

10403 # 그라머 이 돌:매~이가 다러따 마리어. {그러면 이 돌맹이가 달았던 말이야.}

10403 # 다라쓰면 흘그루 덩찌. {달았으면 흙으로 덮지.}

10403 # 더꾸서 그대 삼때를 쪽: 가따 논는다 마리어. {덮고서 그 다음에 삼대를 족 갖다
놓은단 말이야.}

10403 # 노꾸서는 그 다맨 그: 삼때를 다: 더퍼. {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 삼대를 다 덮어.}

10403 # 그저 쏘료랑 무슨: 어:: 무시로랑 가튼 거 이롱 거 가따 더퍼 덩찌. {그저 비닐이랑
무슨 예 무시로랑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덮어 덮지.}

10403 @ 무시? {무시?}

10403 # 무시로. {무시로.}

10403 @ 무리로가 머요? {무시로가 뭐요?}

10403 # 무시로 이 이 언제 얘기하지 아내:씨. {무시로 이 이 언제 얘기하지 않았어.}

10403 # 그 가마스처름 짜능 개 이개 꼬태 하지 앙쿠 녀:스라개 이르키 맨드능 거. {그 가
마니처럼 짜는 게 이게 끝에 하지 않고 너슬하게 이렇게 만든 거.} 10403 @ 아:
그거: 예 예. {아 그거 예 예.} 10403 # 그게 무시로. {그게 무시로.}

10403 # 그걸 가따 더꾸서는 그 다맨 삼때르 이제 더꾸서는 그 다매 거기다- 무릴 주지.
{그걸 갖다 덮고는 그 다음에는 삼대를 이제 덮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물을 주
지.}

10403 # 무릴 콧: 주게 되면 그 돌: 다러똥 개 치::치하지 그 미태서. {물을 콧 주면 그 돌
다왔는던 게 칙칙하지 그 밑에서.}

10403 # 그럼 지:미 올라올 깨 아니여. {그럼 기이 올라올 게 아니야.}

10403 # 그 지:매 올라올 때 이글 무시로를 더꾸 흘그루 덩찌. {그 김에 올라올 때 이걸 무
시로를 덮고 흙으로 덮지.}

10403 # 흘글 더퍼서 놔: 두구 그냥 우애다 무를 언치면 지:미 그저 콧:: 쓰리서 삼때가 물
렁물렁하게 되지 삼때 그: 껌띠기가. {흙을 덮어서 놔 두고 그냥 우애다 물을 얹히
면 김이 그저 콧 서려서 사대가 물렁물렁하게 되지, 삼대 그 껌띠기가.}

10403 @ 잉능 거내요 그래니까. {익는 거네요, 그러니까?}

10403 # 예:. {예.}

10403 # 그 물렁물렁하지 뜨거게 해 해서 타면 안 되거덩. {그 물렁물렁해야지 뜨겁게 해 해서 타면 안 되거든.}

10403 # 그래서 인재 그: 찌 가주구 마람 찌내능 기지 그제. {그래서 이제 그 찌 가지고 말 하자면 찌 내는 거지 그제.}

10403 # 찌 내 가주구선 껌띠기를 훌 비끼게 되면 그 다매 쪽:쪽 다: 빼꺼지. {찌 내가지 고서 껌띠기를 훌훌 벗기면 그 다음에 족족 다 벗겨지지.}

10403 # 게 빼꺼져 가주구 삼매 껌띠기가 그 다매 암 빼서저슬 때 그대 그:거 인차 뜨거웁 겐 그저 이르캐서 송꼬라그루 따구 이르키 자부댕기면 그저 껌띠기구 시커멍 기 다: 빼꺼지. {그래 벗겨져 가지고 삼매 껌띠기가 그 다음에 안 벗겨졌을 때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뜨거운 겐 그저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따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그저 껌띠기고 시커멍 게 다 벗겨지지.}

10403 # 그래 새타:야 쟁도루 호루:마개 돼지. {그래 새하얌 정도로 흐름하게 돼지.}

10403 # 게 이걸 가따가서 인재 쪽:쪽 짜개지.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쪽쪽 짜개지.}

10403 # 쪽:쪽 짜개 가주구서는 삼매 그: 껌띠기 쪽:쪽 짜개서 이른 함지다 가따 쪽::쪽 담: 찌 머. {쪽쪽 짜개 가지고는 삼매 그 껌띠기 쪽쪽 짜개서 이런 함지에다 갖다 쪽쪽 담지 뭐.}

10403 # 담:때 그 다맨 언재던지 삼매 쪽 해서 다 그 끄드머리는 삼매 그 빈: 자리 거기는 삼매엔 함지 안: 배까드루 요로케 똥 나오게 하지. {담되 그 다음에 어제든지 삼매 쪽 해서 다 그 끄트머리는 삼매 그 빈 자리, 거기는 삼매 함지 안 바깥으로 쪽 나오게 하지.}

10403 # 게 야:중애 인재 쓸 찌개 그 삼매 하나 지버 지:버서 그 다애 쪽::쪽 짜개지. {그래 나중에 이제 쓸 적에 그 삼매 하나 집어 집어서 그 다음에 쪽쪽 짜개지.}

10403 # 게 짜개 가주구 그개 삼베질쌈 한다능 기. {그래 짜개 가지고 그개 삼베질쌈 한다는 게.}

10403 @ 짜갠 다:매는 어트개 해요? {짜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0403 # 짜갠 다:매는 그췌: 그: 짹... {짜갠 다음에는 글췌 그 짜개...}

10403 @ 질 질쌈, 짜갠 다:맨 인재 질쌈하능 거요? {질 질쌈, 짜갠 당음에는 이제 질쌈하는 거요?}

10403 # 짜갠 다매 시:를 짜:야지 인재 그 다매. {짜갠 다음에 실을 짜야지 이제 그 다음에.}

10403 @ 어트개 해요? {어떻게 해요?}

10403 # 이르키 비비지, 이서 대:서 자꾸 비비지 머:. {이렇게 비비지. 이어 대서 자꾸 비비지 뭐.}

10403 # 이서 대:서. {이어 대서.} 10403 @ 짜갱 거 짜갱 거를... {짜갱 거 짜갠 것을...}

10403 # 쫘:개 짜갱 거 아주 가늘개 짜개지 아내:씨. {좁게 짜갱 거 아주 가늘게 짜개지 않았어.}

10403 @ 네. {예.}

10403 # 그걸 가따 무루파개다 노쿠 이르 이르캐선 썩: 비비개 되면 그 다매 고거 이서지 지. {그걸 갖다 무릎에다 놓고 이러 이렇게 해서 썩 비비면 그 다음에 고거 이어지 지.}

10403 # 그라먼 이서징거 자꾸 빼:내구 또 하나 가따 요기다 이서대구 또 이래구 또 이래서

함지다 자꾸 담:찌. {그러면 이어진 거 자꾸 빼내고 또 하나 갖다 요기다 이어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함지다 자꾸 담지.}

10403 # 게 다문 다:매 야:중애 풀' 이제 그걸 푸'럴 메긴다 마리어. {그래 담은 다음에 나 중애 풀 이제 그걸 풀을 먹인단 말이야.}

10403 # 푸'럴 메기면 이스매디가 푸르 무더서 딱 되게 대지. [풀을 먹이면 이음매가 풀이 묻어서 딱 되게 돼지.}

10403 # 그때 다시 이제 풀치래가주서 다시 이제 또 이르캐 하지. {그때 다시 이제 풀칠해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하지.}

10403 @ 푸른 어티개 메겨요? {풀을 어떻게 먹여요?} 10403 # 몽:땅 하지. {몽땅 하지.}

10403 @ 그냥 풀 썬서... {그냥 풀 썬서...}

10403 # 풀 썬서 인재 거기다 버무리지 머. {풀 썬서 이제 거기다 버무리지 뭐.}

10403 @ 버 버 버무리요? {버 버무리요?}

10403 # 야:. {예.}

10403 # 풀 썬서 버무리기두 하구 그 다매 이걸 거냥 말뚜글 지 바꾸 돌려서 마가 해:서 거 러노쿠 술:루다 이르키 주기두 하구. {풀 썬서 버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냥 말뚝을 박고 돌려서 막가 해서 걸어놓고 솔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10403 # 게 이르캐 가주구 이걸 다시 꼬:능 게 이게 시::리 대지.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다시 꼬는 게 이게 실이 돼지.}

10403 # 게 시:리 돼: 가주구 이걸 가따가서 어: 질싸멀 하지, 그 실:루. {그래 실이 돼 가 지고 이걸 가져다가 예 길삼을 하지, 그 실로.}

10403 # 게 이거 베틀레다 짤: 쭈두 이꾸 거: 자기에서 발루 디디구 디디구 그다 이르키 디 디구 여기다 결:구선 바디 노쿠선 자기가 이르키 부그 빼구서넌 자기가 이르키:두 하:구. {그래 이거 베틀레다 짤 수도 있고 그 자기에서 발로 디디고 디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디고 여기에다 결고는 바디 놓코는 자기가 이렇게 북을 빼고는 자기가 이렇게도 하고.}

10403 # 그걸 가따가 쪼꼬마캐 해 가주구 그래 널비가 인재 요마:나지. {그걸 가져다가 조 그망게 해 가지고 그래 너비가 이제 요만하지.}

10403 # 게 고거 거 요리키두 하구. {그래 그거 여렇게도 하고.}

10403 # 게 베틀레다 하능 건 이르키 널깨두 하지. {그래 베틀레다 하는 건 이렇게 넓게도 하지.}

10403 @ 개 그개 두: 가지가 이써요? {그래 그개 두 가지가 있어요?}

10403 @ 베트래 하능 거뚜 이꾸 또 쪼꼬마캐 하능 거뚜 이꾸 그래요? {베틀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조그만학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10403 # 쪼꼬마캐 자기 가빤 가빤 가통 거 찰라면 그 소느루 이래 쪼꼬마캐 찌지. {그만하게 자기 갑반 갑반 같은 거 찌려면 그 손으로 이래 조그만하게 찌지.}

10403 # 그: 그르치. {그 그렇지.}

10409 @ 그거 기리: 이르캐 저 다: 짜서 감:짜나요? {그거 길이 이렇게 저 다 짜서 감잖아 요?}

10409 @ 마라노치요? {말아놓지요?}

10409 # 감찌 머 **** {감지 뭐....}

10409 @ 기리는 어트개 재요? {길이는 어떻게 재요?}

10409 # 기:리는 자기 할 만치 해야지 뭐. {길이는 자기 할 만큼 해야지 뭐.}

10409 @ 그거 그 거리 켈 때 머 얼마다 얼마다 이르게는 안 해요? {그거 그 길이 켈 때 뭐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는 안 해요?}

10409 # 한 필 짜따. {한 필 찼다.}

10409 @ 한 필, 함 피리면 어느 정도 대요? {한 필, 한 필이면 어느 정도 돼요?}

10409 # 숭:, 이 수무 자가 함 피리던지 고개. {스, 이 스무자가 한 필이든지 고개.}

10409 # 수무 자가 함 필. {스무자가 한 필.}

10409 @ 그: 팔 때는 어트개 파러요, 다 그거 팔 때. {그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다 그거 팔 때.}

10409 # 필루 팔거나 자:루 팔거나 그러치. {필로 팔거나 자로 팔거나 그렇지.} 10409 @ 엔나래 그거 비싸깐내요 그러면? {옛날에 그거 비쌌겠네요 그러면?}

10409 # 그거뚜 삼베 한: 한 피리: 비싸지:, 엔:나래. {그것도 삼베 한 한 필이 비싸지, 옛날에.}

10402 @ 그 아까 저기 모콰:는: 여기서는 안 행는데 그저내는 하능 거 바:씨요? {그 아까 저기 목화는 여기서는 안 했는데 그전에는 하는 거 봤어요?}

10402 # 바:씨. {봤어.}

10402 @ 그건 어트개 해요 모콰는, 어트개 시머요? {그건 어떻게 해요 목화는, 어떻게 심어요?}

10402 # 모카씨: 모카를 뜨더다가 모카씨:릴 빼:내여지. {목화씨 목화를 뜯어다가 목화씨를 빼내야지.}

10402 @ 예. {예.} 10402 # 모카씨릴... {목화씨를...} 10402 @ 멀:루 빼요? {필로 빼요?}

10402 # 기개루 빼:내지 다:. {기계로 빼지 다.}

10402 @ 그 이르미... {그 이름이...}

10402 # 기개가 업쓸 때는 활루 빼내지 머. {기계가 없을 때는 활로 빼내지 뭐.}

10402 # 활루 탁:탁 여기다 대서는 모콰에다 대구 탁:탁 치개 되면 이 나와따 떠러지면서 팽: 하자내요? {활로 탁탁 여기다 대서는 목화에다 대고 탁탁 치게 되면 나왔다가 떨어지면서 팽 하잖아요?}

10402 # 고 시 고: 기가내 모카는 모카대루 씨넌 떠러지지. {고 시(기) 고 기간에 목화는 목화대로 씨는 떨어지지.}

10402 # 게 그때 그래 가주구 시:를 빼:지. {그때 그래 그래 가지고 실을 빼지.}

10402 @ 이르키 돌리는 거뚜 이찌 아나씨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10402 # 돌리능 거뚜 이찌요. {돌리는 것도 있지요.}

10402 @ 모카 이러:캐 지버느면 씨 빼지능 거. {목화 이렇게 집어 넣으면 씨 빠지는 것.}

10402 # 으:, 이씨요. 거뚜 이씨요. {응,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10402 @ 그거는 머요? {그거는 뭐요?}

10402 # 그 모카씨 빼:는 기개라 구라든지 머 기그때 어: 그르캐 불러찌. {그 목화씨 빼는 기계라고 하든지 뭐 그때 에 그렇게 불렀지.}

10402 # 그래 가주서 그대: 소:먼 숨:대루 씨넌 씨대루 떠러지지. {그래 가지고서 그 다음에 숨은 숨대로 씨는 씨대로 떨어지지.}

10402 @ 그거는 그 모과 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건 그 목화 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10402 # 그뽀 항가지요. {그거소 한가지요.}

10402 # 바까리 해서 모카씨릴 심는 건. {발같이 해서 목화시를 심는 건.}

10402 # 남방에서 하능 개 그개지. {남방에서 하는 게 그거지.}

10402 @ 그거 덜 니궁 거는 따 머그먼 달구 그래자나요? {그거 덜 익은 것은 따 먹으면 달고 그렇잖아요?}

10402 # 그러치. {그렇지.}

10402 # 요만: 요마:내쓸 때, 요마:내쓸 때. {요만 요만했을 때, 요만했을 때.}

10402 @ 예. {예.}

10402 # 고때 머그먼 달착찌그:나지. {고때 먹으면 달착지근하지.}

10402 @ 그 머: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10402 @ 그 이르미. {그 이름이.} 10402 # 모카송이라 구라지. {목화송이라 그러지.}

10402 @ 그 멍능 거? {그 먹는 것?} 10402 # 몽: 모과 열매. {목 목화열매.}

10402 # 모과 열매. {목화 열매.} 10402 @ 그거 나두면 하:야캐 대능 거지요? {그거 놔두면 하얹게 되는 거지요?}

10402 # 그럼, 커가 커문서 또 하:야캐 돼:서 그래 이 퍼:지지. {그럼, 커가 크면서 또 하얹게 돼서 그래 이 퍼지지.}

10402 @ 으:. {아아.}

10402 # 모 빠씨요, 항:구개서 마:니 인는 걸. {못 봤어요, 한국에서 많이 있는걸?}

10402 @ 아내요. {안 해요.}

10402 # 항:구개서 마:니 하는데...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10402 @ 안: 해요. {안 해요.}

10402 # 더우 더운 지대 마:니 나는데 머. {더운 더운 지대 많이 나는데 뭐.}

10402 @ 항구개서 그거 안 해요. {한국에서 그거 안 해요.}

10402 # 우리: 그때: 이쓸 때 엄청 시머텐는데. {우리 그때 있을 때 엄청나게 심었는데.}

10402 @ 구경두 모태요 요새. {구경도 못했어요 요사이.}

10402 # 열: 열싸리지 내 열 쌀 찌개 거기 엄:청 시머넌데. {열 열 살이지 내가 열 살 적에 거기 엄청나게 심었는데.}

10402 @ 요새 구경두 모태요. {요사이 구경도 못해요.}

10402 # 으:. {응.}

10402 # 지금 아':이 심는 모양이여.{지금 안 심는 모양이야.}

10402 @ 저:기 저: 저:기 남방애 돈황 인는데 가니까 거기 마:니 하대요. {저기 저 저기 남방애 돈황 있는데 가니까 거기 많이 하대요.}

10402 # 저 중국? {저 중국?}

10402 @ 예. {예.}

10402 # 아:이구 중궁 마:니 해요. {아이고 중국은 많이 해요.}

10402 @ 거기는 머 다: 모카 바시든데, 하:야캐. {거기는 뭐 다 목화밭이던데, 하얹게.}

10402 @ 그거뽀 실: 빼 가주구 머 온감짜능 거자나요. {그것도 실 빼가지고 뭐 옷감짜는 거잖아요.}

10402 # 어: 그래 거기서 나오능 개 광:모기지. {어, 그래 거기서 나오는 게 광목이지.}

10402 @ 거기 광:모기요? {그게 광목이요?}

10402 # 예: 거기서 나오능 개 광:모기여 소캐-라능 개.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게 광목이야 소캐라는 게.}

10414 @ 누애:에서 나오능 건 머요? {누애에서 나오는 건 뭐요?}

10414 # 비다니지 머. {비단이지 뭐.}

10414 @ 그건 비다니구? {그건 비단이고?}

10414 # 으:. {응.}

10414 # 누애서 나오능 건 비다니구. {누애에서 나오는 건 비단이고.}

10414 @ 그럼 미영? 미영하구 무명 무명하구는 어트개 달라요? 명주? {그럼 미영? 미영하고 무명 무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명주?}

10414 # 명주. {명주.}

10414 # 명주하구: 저: 머여, 명주하구 이쪽 그:... {명주하고 저 뭐야, 명주하고 이쪽 그...}

10414 @ 무명. {무명.}

10414 # 소:마군 저: 무명하구는 따지. {숨하고는 저 무명하고는 다르지.}

10414 @ 어트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0414 # 무명이라는 거슨 이쪽 저: 숨: 가주구 짱 거 가따 무명이래두 할 쑤 이꾸. {무명이라는 것은 이쪽 저 숨 가지고 짱 거 갖다 무명일라고 할 수 잇고.}

10414 # 이제 머이라 그래똥가? {금방 뭐라 그랬던가?}

10414 @ 명주. {명주.}

10414 # 명주는 명주는 그건 저: 머여 비:단 등록 소그루: 비단 등로그루 항 기지, 명주넌. {명주는 명주는 그건 저 뭐야 비단 등속으로 비단 등속으로 한 거지, 명주는.}

10414 # 그저: 여기: 삼파내 누애 삼파내서 그냥 어: 사:라미 까:마구 까:치릴 지켜 가면서 거:: 가중누애라구 이씨요. {그저 여기 산판에 누애 산판에서 그냥 에 사람이 까마귀 까치를 지켜 가면서 그 가죽누애라고 있어요.}

10414 # 그: 그거 실: 뽀버서 항 거시 명주. {그 그거 실 뽀아서 한 것이 명주.}

10414 @ 그거 사내 사능 거요? {그거 산에 사는 거요?}

10414 # 으:, 사내 살지. {응, 산에 살지.}

10414 # 지비서 운 머: 어: 뽕나무 이퍼리 따다 키우거나 머 이롱 거 아니구 그냥 거기서: 나능 개. {집에서 원 뭐 에 뽕나무 이파리 따다가 키우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나는 게.}

10414 @ 새까른 어때요? {색깔은 어때요?}

10414 # 새까른 이: 시::건 이 저:: 머:처름 생견능가 하니까 누애벌거지처름 생겨찌 머, 또 까트지 머. {색깔은 이 식은 이 저 뭐처럼 생겼느냐 하면 누애벌레처럼 생겼지 뭐, 똑같지 뭐.}

10414 # 근데 새까리 따:다 마리어. {그런데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10414 # 이건 해팡얼 그냥:: 보구 크기 때무내 참나무: 가중나무 이퍼리 이거 머꾸 하능 기지. {이건 햇별을 그냥 보고 크기 때문에 참나무 가죽나무 이파리 이거 먹고 하는 거지.}

10414 # 그래 그저 새애기 찌개 그거 해때찌 머 여기선. {그래 그저 처녀 적에 그게 했었지 뭐 여기서.}

10414 # 그래 그거 하구 하구서 그 다:맨 나와찌. {그래 그거 하고 하고서 그 다음엔 나왔지.}

10414 # 나오구 야코나다 나니까 그냥 모타구 마라찌. {나오고 약혼하게 되니까 그냥 못하고 말았지.}

10414 @ 그러면 그 뽕:나무 메, 하구 메기능 거 하구 다릉 거내요? {그러면 그 뽕나무 하고 먹이는 거와는 다른 거내요?}

10414 # 다르지요 머? {다르지요 뭐.}

10414 # 메기는 방법뚜 따르구... {먹이는 방법도 다르고...} 10414 @ 뽕 뽕 뽕 메기능 거 하구. {뽕 뽕 뽕 먹이는 거와.}

10414 # 메기는 방법뚜 따르구 바스 다: 따르지. {먹이는 방법도 다르고 벌써 다 다르지.}

10414 # 그저 짐성만 짐 저: 그 버러지 무러가는 짐성만 지키면 다: 되능 기지. {그저 짐성만 지 저 그 벌레 물어가는 짐성만 지키면 다 되는 거지.}

10414 # 게 참나무: 아 애송 참나무가 마::는 디 가따 아 그 아:를 가따 거기다 쓰러 주지. {그래 참나무 애송 참나무가 많은 데 갖다 그 알을 가져다 거기다 쓸어 주지.}

10414 # 그러면 그 참나무 이퍼리 갈가머꾸 큰다 마리어. {그러면 그 참나무 이파리 갇아먹고 큰단 말이야.}

10414 # 커서 머글 끼 업쓰면 이짜기 이짱 낭구루두 가구 저짱 낭구루두 가구 게서 다: 커가주구 그 다매 하지. {커서 먹을 게 없으면 이쪽에 이쪽 나무로도 가고 저쪽 나무로도 가고 그래서 다 커 가지고 그 다음에 하지.}

10414 # 거기서 나오능 걸루 명주두 짜구 마:대 마:대라구 저:: 어: 포대 그진 함 포대 두 포대 하능 거 포대 포대두 찢 쭈 이꾸.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명주도 찢고 마대 마대라고 저 에 포대도 그진 한 포대 두 포대 하는 거 포대도 찢 수 있고.}

10414 # 그래 다: 짜지. {그래 다 짜지.}

10414 @ 포대는 머: 머하는 데 쓰능 거요? {포대는 뭐 뭐하는 데 쓰는 거요?}

10414 # 응:~ {응?}

10414 @ 포대는 머: 하는대 쓰능 거요? {포대는 뭐하는 데 쓰는 거요?}

10414 # 곡씩 담:는 데 쓰지 머 포대. {곡식 담는 데 쓰지 뭐 포대.}

10414 @ 아 그걸루다가? {아 그걸로다가?} 10414 @ 그거 고:그비자나요? {그거 고급이잖아요?}

10414 # 고그비써지 머. {고급이지 뭐.}

10414 # 비짜지 머 그뚜. {비짜지 뭐 그것도.}

10414 @ 지배서 키우능 거는 머... {집에서 키우는 거는 뭐...}

10414 # 누애. {누애.}

10414 @ 그거는 어트개 해요? {그거는 어떠해 해요?}

10414 # 그거는: 지비서 키워 뽕나무: 뜨더다 키우지 머. {그거는 집에서 키워 뽕나무 뜯어다 키우지 뭐.}

10414 @ 고: 과정 줌 함 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 과정 좀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10414 # 처:맨: 처:매 어쨌능가 누 누이 아:를 예: 심:문지다 이르키 싸:서 심문지다 싸서 저: 나비 웬: 처매 예: 그: 과동시킨 나비가 이찌, 나비. {처음에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 누애 알을 예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서 신문지에다 싸서 저 나비 맨 처음에 예 그 과동시킨 나비가 있지, 나비.}

10414 # 그래 보매 온도가 되게 되면 이게 살라널 하여지. {그래 봄에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이게 산란을 해야지.}

10414 # 그래 살...{그래 산란...} 10414 @ 지배서 다: 하능 거요?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10414 # 예: 지배서 살라늘 누에 아:를 뽑는다 마리어. {예, 집에서 산란을 누에 알을 뽑는 단 말이야.}

10414 # 거기다가 땀물 절루 뽑찌 머. {거기다가 ** 저절로 뽑지 뭐.}

10414 # 게 인재 게: 그: 누에 뺨디기가 이제 커서: 나비가 되지. {그래 이제 그 누에 뺨디기가 이제 커서 나비가 되지.}

10414 # 나비가 돼 가주구 나비에서 아:를 나뉘면 번디가 되지. {나비가 돼 가지고 나비에서 알을 낳으면 뺨디기가 되지.}

10414 # 거기 인저 버러지가 되지. {거기 이제 벌레가 되지.}

10414 # 게 버러지르 인저 고시 중:: 쓰러노면 그걸 가따가 뽕나무 이퍼리다 가따 노나 논는다 마리어. {그래 벌레를 이제 고기 죽 썰어 놓으면 그걸 가져다 뽕나무 이파리에다 가져다 나누어 놓는단 말이야.}

10414 # 노나 노면 이 뽕나무 이파리를 글거 머꾸 이개 크지. {나누어 놓으면 이 뽕나무 잎을 글거 먹고 이개 크지.}

10414 # 게 이글 해선 너무 만:타 마리어. {게 이걸 해선 너무 많단 말이야.}

10414 # 마:느면 저까치루 또 고거 지배다 저짜기두 가따 노쿠 요짜기다 가따 노쿠 웅겨 노치. {많으면 젓가락으로 또 고거 집어다가 찌쪽에다 가져다 놓고 요쪽에다 가져다 놓고 읊겨 놓지.}

10414 # 웅겨 노면 그개 또 이짜개서 머꾸 이짜개 놓 건 야:중애 인재 머글 깨 업씨면 요만:치 커꺼딩, 그러문 뽕나무가 머글 깨 업씨면 뽕나무 이퍼리 머글 깨 업씨면 자:꾸 이래 도러당기지. {읊겨 놓으면 그개 또 이쪽에서 먹고 이쪽에 놓은 건 나중에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요만큼 컸거든, 그러면 뽕나무가 먹을 게 없으면 뽕나무 이파리 먹을 게 없으면 자꾸 돌아다니지.}

10414 # 그러면 뽕나무 이퍼리 싸다가 또 흘:: 줘서 논 그: 누에 우애다 다 가따 저서 논는다 마리어. {그러면 뽕나무 이파리를 사다가 훌훌 줘서 놓은 그 누에 위에다 다 갖다 저어 놓는단 말이야.}

10414 # 그람 이게 또 글거 머거가면서 다: 가구, 버러지가 우:루 올라오지. {그러면 이게 또 굵어 먹어가면서 다 가고, 벌레가 위로 올라오지.}

10414 # 게 우:루 올라오구서 또 한 잠 인저 다: 큰 다:매 한 잠 잔다 구라지. {그래 위로 올라오고서 또 한 잠 이제 다 큰 다음에 한 잠 잔다고 그러지.}

10414 # 자문 이게 하:나두 암 머거 그때는. {자면 이게 하나도 안 먹어 그때는.}

10414 @ 잘 때. {잘 때.}

10414 # 응:, 잘 때는 하나두 아'이 먹찌. {응, 잘 때는 하나도 안 먹지.}

10414 # 게 깨: 깨:서 멍는다 쏘리 나개 되면 또 요기서 어:: 저:짜개 가 이써두 여기 안저 써두 글거 멍는 소리가 확:: 디끼지 썩::하구 드끼지. {그래 깨 깨서 먹는다는 소리가 나면 또 요기서 에 저쪽에 가 있어도 여기 앓아 있어도 굵어 먹는 소리가 확 들리지 썩 하고 들리지.}

10414 # 그기 하:두 여러 개가 머그니까. {그게 하도 여러 마리가 먹으니까.}

10414 # 그 다맨 인재 그거 떼:다가 자꾸: 병겨 노치 인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떼다가 자꾸 번져 놓지 이제.}

10414 # 요기에 한 쌍자 조기에 한 쌍자. {요기에 한 상자 조기에 한 상자.}

10414 # 이러:키 땡때를 매구선 거기다 가따 이제 갈러 노치 자꾸. {이렇게 땡대를 매고는 거기다 갖다 이제 갈라놓지 자꾸.}

10414 # 그럼 마:너질 깨 아니여. {그럼 많아질 게 아니야.}

10414 @ 예:. {예.}

10414 # 게 인재 더 클쭈룩 더 클쭈룩 더 마:너지지. {그래 이제 더 클수록 더 많아지지.}

10414 # 그래 이래 함 방애 꼭: 찬다 마리어. {그래 이렇게 한 방애 꼭 찬단 말이야.}

10414 # 그라먼 그 팔리워니 다: 가따 해. {그러면 그 관리원이 다 갖다가 해.}

10414 # 에 두': 잠 잔다. {에 두 잠 잔다.}

10414 # 두 잠 잘 때는 또 먹찌 안치. {두 잠 잘 때는 또 먹지 않지.}

10414 # 가만:나구 자지. {가만히 자지.}

10414 # 게 석짜미 자구 나야 그 다매 지별 지끼 시작하지. {그래 석잠을 자고 나야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지.}

10414 # 게 지불 인재 저절루 시:럴 뽀버서 이제 다: 지별 지꾸 자기는 자기는 그 아내 드르가서... {그래 이제 저절로 실을 뽑고 이제 다 집을 짓고 자기는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10414 @ 어디다 지불 저요? {어디다 집을 지어요?}

10414 # 그 지바내. {그 집 안에.}

10414 @ 그래잉까 지 밤 머꾸 그래든 거기다가 지불 저요? {그러니까 자기 밥먹고 그러던 거기에다 집을 지어요?}

10414 @ 뽡 주구 그런데 이르케 상자애다가... {뽡 주고 그런데 이렇게 상자애다가...}

10414 # 상자애다가 낫:는데 뽡 이퍼리 낫:는데... {상자애다가 낫는데 뽡 이파리 낫는데...}

10414 @ 거기다가 저요? {거기에다가 지어요?} 10414 # 그럼 다: 머꾸 석: 짬 자꺼덩 인재 거기서. {그럼 다 먹고 석 잠 잤거든 이제 거기서.}

10414 # 그 다맨 석: 짬 잔다매넌 그그 인저 나와서 자기 머꾸서는 이저: 함 번 더 머꾸서는 인재: 더: 암 먹찌 머. {그 다음에 석 잠 잔 다음에는 거기 이제 나와서 자기 먹고는 이제 한 번 더 먹고는 이제 더 안 먹지 뭐.}

10414 @ 예. {예.}

10414 @ 그래구 어디다가 지불 저요? {그러고 어디애다가 집을 지어요?}

10414 # 어디다 지별 지구: 뽡나무 이퍼리에다 이제 지별 지찌. {어디애다 집을 짓느냐 하면 뽡나무 이파리에다 집을 짓지.}

10414 # 지별 진는데 시:럴 뽀버서 뽡그라케 이러케 엄지송꼬랑만:치 요로케 크게 지별 지키 이누미 이만: 기 돼:쓸 때는 그걸 머라구 하능가 하니까 꼬추라 구라지. {집을 짓는데 실을 뽑아서 둥그랗게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큼 요렇게 크게 집을 짓고 이눔이 이만큼, 그 되었을 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능가 하니까 고치라고 하지.}

10414 # 꼬추라 구래 가주서 여기서 인재 시:리 따라서 지별 진다매 이: 버러지가 이 아내 드르가 이찌. {고치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이 따라서 집을 지은 다음에 이 벌레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10414 # 지바:내 이: 지바:내 드르가 이찌. {집 안에 이 집 안에 들어가 있지.}

10414 # 드르가 이찌 가주구선 그누미 인저 그냥: 요러카구 이따 마리어. {드렁가 있어 가지고 그놈이 이제 그냥 요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10414 # 그글 살머서 시:럴 뽀버내가 되면 나무리 다: 뽀꼬 나문 그 다매 여기 버러지만 떠

러지지. {그걸 삶아서 실을 뽑아내게 되면 나머지 다 뽑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벌레만 떨어지지.}

10414 # 그게 번디기라 구라지. {그걸 번테기라 그러지.}

10414 @ 으::. {아아.}

10414 # 번디기. {번테기.}

10414 @ 예:. {예.}

10414 # ***8 명는 번더지. {**** 먹는 번테기.}

10414 @ 명능 거자나요? {먹는 거 잼아요?}

10414 # 예, 그거뚜 먹찌. {예, 그것도 먹지.}

10414 # 게 명는 번 번디기. {그래 먹는 번 번테기.}

10414 # 그래 가주서 그 시:릴 다: 뽀부먼 다: 뽀부먼 그 저 무래다 당귀 노쿠 끌러... {그래 가지고서 그 실을 다 뽑으면 다 뽑으면 그 저 물에다 담가 놓고 끌러...}

10414 # 무래다 당귀노쿠 그 시:릴 향: 가다를 뽑능 개 아니라 여:러 가다를 해 가주구선 이늬미 이: 이늬미 지비 도러가구 이늬미 지비 도러가구 이라면서 그: 순서대루 족:: 뽑버 시릴 나오지. {물에다 담가 놓고 그 실을 한 가닥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을 해 가지고는 이눔이 이눔의 집이 돌아가 이눔의 집이 돌아가고 이라면서 순서대로 족 뽑아 실을 나오지.}

10414 # 그 실:루다가 비다느 짜능 기지. {그 실로 비단을 짜는 거지.}

10414 @ 그 실: 뽀부먼 길:꺼 아니요? {그 실 뽑으면 길 거 아니예요?}

10414 # 길:지 아이구. {길지 않고.}

10414 @ 그럼 어트개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414 @ 그냥 자버당겨요? {그냥 잡아당겨요?}

10414 # 그냥 자버당기다 기개루 감:찌 아이여. {그냥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기계로 감지 않아.}

10414 # 이 물래 가통 거 이렇 거 감:찌 아이여. {이 물래 같은 거 이런 거 감지 않아.}

10414 # 물래 물래 저:: 방아 줄처럼. {물래 물래 저 방아 줄처럼.}

10414 # 그대 그 가:무녕까 거기다 인재 그눔 나가서 거기서 가서 인재 다시 푸러 가주구 그 다매 비단 짜지. {그 다음에 그 감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그눔 나가서 거기서 가서 이제 다시 풀어 가지고 그 다음에 비단 짜지.}

10414 @ 아: 그개 비다니요, 그러케 향 개? {아 그게 비단이요, 그렇게 한게?} 10414 # 예:. {예.}

10414 # 그개 비다니여. {그게 비단이야.} 10414 @ 아까 저:기 참나무애, {아까 저 참나무애,} 10414 # 참나무애::... {참나무애...} 10414 @ 향 거뚜. {한 것도.}

10414 # 그건 비단 등소개 모:뜨러 가지. {그건 비단 등속에 못 들어가지.}

10414 @ 어떻 개 더 조웅 거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요?} 10414 # 이게: 이기 뽕나무 메겨서 지비서 가:몽개 더 조웅 개지. {이게 이게 뽕나무 먹여서 집에서 감은 게 더 좋은 거지.}

10414 @ 아 그개 더 조웅 거요? {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10414 # 예:. {예.}

10414 @ 그럼 팔 때두 그개 더 비싸요? {그럼 팔 때도 그게 더 비싸요?}

10414 # 더 비싸지 확씨리 더 비싸지. {더 비싸지 확실히 더 비싸지.}

10414 # 팔구 썰때두 더 비싸지. {팔고 살 때도 더 비싸지.}

10414 # 고만해요. 아홉씨 다: 돼씨... {고만해요 아홉씨 다 되었어...}

제 2 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나라기라구두 베라구두 하구
20102	이삭	·베이삭 ·베이상모가지
20103	볍씨	·베종자 ·나락씨 ·벤나락씨
20104	못자리	·모판(못자리와 구별 못함)
20105	모판	·모판(못자리와 구별 못함)
20106	쟁기	·호리(논 용; 소 한 마리) ·가대기(밭 용; 소 두 마리)
20107	보습	·보습 ·보섭
20108	벗	·흑빠지
20108-0-1	-이	·흑빠지가
20109	극쟁이	흑쟁이
20110	써레	쓰:레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모털 심넌다
20113	흙덩어리	흑뺨 호리밥 흑뺨덩지라구두
20114	고무래	밀개(논용) 고물개
20114-1	고무래(곡식)	고물개는
20114-2	고무래(재)	고물개라그라구
20114-3	고무래(흙)	밀개
20114-4	고무래(미는 것)	밀개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꼬:괭이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광챙이
20119	호미	호미
20120	농기구	연장
20121	김	기:물 맨다

20122	김매다	김매러 간다 김:맨다
20123	애벌 매다	아시김 맨다
20123-1	두벌 매다	두벌 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 맨다 막빨맨다(제시)
20124	논둑	논뚝(한국, 논둑과 논두렁을 구별 못함) 논두렁(중국에서 논둑과 논두렁 구별 못함)
20124-1	논두렁	·논뚝(논두렁과 구별 못함)
20125	밭둑	경계선뚝 바뚝
20126	밭두둑	바뚜기구 바뚝(남의 밭과 우리 밭의 경계 선은 바뚝이라고 안 함)
20127	밭고랑	바꼬랑
20128	밭이랑	바꼬랑이 메 깨냐
20128-1	(밭이랑을)타다/갈다/째다/파다	밭 간다 흘친다(종자를 심어놓고)
20128-2	이랑밟기	보리밭 밟:는다
20129	보리	보리는 밭벼 줘요
20129-1	가을보리	*(없음)
20129-2	봄보리	봄뿌리
20130	보리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추경
20132	깜부기	깜부기
20133	두엄	거름(두엄과 거름 구별 못함)
20134	거름	거름 준다(거름과 두엄 구별 못함)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가으란다
20202	벇단	벇판
20202-1	벇단	베따이지
20202-2	벇단	베판
20202-3	벇단	베따밭
20203	가리	벇나까리
20204	가리다	썩:는다
20205	벇가리	벇나가리

20206	난가리	나가리
20207	타작	탈곡한다(옥수수) 타작 한다(벼)
20208	벼훑이	베훑치개
20208-1	그네	베훑치개라구라지
20209	개상	도리판 ?자리개파니라 그라는지
20209-1	자리개	도리끈 개상끄니라구두 자리개끈
20209-2	자리개질	도리개질 도리질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도리깨장치 도루깨장치
20210-2	도리깨열	도리깨아들이거덩
20210-3	도리깨꼭지	도루깨고두래기
20211	벧짚	벧짚: 베짚
20211-0-1	-을	베찌벌
20211-0-2	-에	베찌베
20212	새 패기	베짚모가지
20213	쪽정이	쭈구렁이(한국에서) 쪽정이라구두 하구
20214	티	티:가
20215	까끄라기	까:래 드르가따 까스래기
20216	풍구	풍선기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재비
20219	흥년	승년 드리따
20220	머슴	머슴
20221	놉	품파리지
20221-0-1	-을	품파리꾸널 노:벌 은넌다
20222	품앗이	푸마시
20223	품삯	썩
20223-0-1	-으로	싸겔 받는다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땡아 디딜땡아 cf 방아디디개 cf

20303	방앗공이	방아손자비 cf 방아썩빠치기 cf 방아채 방아쟁이 방아꼬
20304	방아확	호:박 방아확
20305	물래방아	물래방아
20306	연자방아	성매방아
20307	절구	절구방아 절기
20308	절구통	절구통 도구통
20309	절굿공이	절구때
20310	절구질	절구질-한다
20311	겨	계:
20312	보릿겨	보리께
20313	왕겨	베께(多用) 땡:계
20314	쌀겨	곤:계
20315	검불	검부리라구 하구
20316	겉질	·겉띠기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씩
20402	참쌀	참쌀
20403	맷쌀	맷쌀 메:쌀 싸리라 그라구
20404	쌀보리	쌀보리
20405	조	조:이 수수기라능 건(한국말)
20406	차조	차조 차조이
20407	메조	메조 메조이
20408	좁쌀	좁쌀
20409	잘다	잘다 자라서
20410	조이삭	조이이삭
20411	수수	수수 꼬량(중국에서)
20411-1	붉은색 수수	홍수수 수수라구두
20411-2	장목수수	비짜루수수 빔목수수
20411-3	찰수수	찰수수
20411-4	메수수	메수수

20412	수수깡	수수때 꼬랑때(중국에서)
20413	옥수수	옥'쭈꾸 cf 옥씨기때, 옥씨기짱(옥수숫대)
20413-1	찰옥수수	찰옥씨기
20413-2	메옥수수	메옥씨기
20414	귀리	귀:밀 귀밀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겹띠기 콩깍찌(중국에서) 콩깍때기 (한국에서)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매:다른다(남이) 매:다러라(남에게) 다 러맨다(자기가)
20420	띠우다	띠운다
20421	곰팡이	진:(장 뜬 데 안 것) 곰팡이(음식 상한 데)
20422	강낭콩	안진열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20424	깨	꽤
20424-1	참깨	창꽤
20424-2	들깨	들꽤
20425	고소하다	고습따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산채소 산나물
20502-1	나물(밭)_재료	채:소
20502-2	나물(밭)_반찬	해:미라 그라지(중국에서) 반차니라 그라 지(한국에서) 채:소가(흔히)
20502-3	나물(들)_재료	들채소지
20502-4	나물(들)_반찬	쌈바구채(나물별 이름)
20502-5	나물(산)_재료	산채소 산채
20502-6	나물(산)_반찬	산채소 산채나물
20503	푸성귀	채:소

20504	다듬다	다드머
20505	반찬	채:소라 그래지(중국에서) 반찬, 정거니 (한국에서)
20506	무	노배 무:라구두 해:
20507	썰다	썰:다 썰러라
20508	무청	무:이퍼리
20509	시래기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장다리 무:장다리
20512	배추	배:차(다) 배:차루 하지
20513	고깡이	꼬깡이
20514	오이	외:(한국에서) 오이(중국에서)
20515	오이지	오이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오이김치
20517	가지	까지
20518	호박	호:박 호박꼬재기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1	우영	* 우영(없음)
20522	파	파애 파:(다) 파이
20523	고추	꼬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메나리
20526	부추	정구지 염지(중국에서)
20527	상추	불기 상추(한국에서)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나싱개
20531	달래	달래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이:팍
20602	찬밥	참밥
20602-1	더운밥	더움밥
20603	조밥	자꼭빠비지(쌀+좁쌀로 한 밥) 좁쌀바비라 구 하지(쌀+좁쌀로 한 밥) 조팍(좁쌀로만 한 밥)
20604	누룽지	누렁지 가마치(중국에서) 누룽개 누 룽쟁이 누룽지는
20605	눌은밥	누롬밥
20606	송농	송녕물
20607	뜨물	뜸물
20608	김(蒸氣)	짐: 오른다
20609	갱죽(羹粥)	나물죽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국쭈
20612	칼국수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쭈
20613	건더기	건더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추미
20615	꾸미	취미지 추미
20616	미역	떡:
20617	김(海苔)	짐: 기:미라구두 하구
20618	수제비	뜨더꼭(중국에서 보1) 수지비라 하지(보 1) 뜨데구기라 하지(보1)
20619	끼니	때를 근너다 끼를 근너따
20620	미음	무읍
20620-1	(미음을)끓이다/쭈다/삶다	무유물 쏸다
20621	엿기름	여찢금
20622	식혜(食醴)	감주 바감주 단술
20623	식해	*

20624	달다(甘)	달다
20625	가루	·가루 ·가루가 ·갈기(가루-가)
20625-0-1	-에	쌀가루에
20625-0-2	-을	쌀가루 가주와라 가루털 갈글 (내가주 구)
20625-0-3	-도	가루가 새타야타
20626	밀가루	밀가루
20627	밀기울	기울 밀기울
20628	미숫가루	미수가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장물(중국에서 북한말)
20702	된장	장: 된장에
20703	고춧가루	꼬추가루
20704	고추장	꼬치장
20705	소금	소구무루
20706	김치	김치 배추김치
20707	김장	김장
20708	깍두기	깍:뚜기
20709	나박김치	냉:꼭 짐치꾸기지 김치꼭
20710	담그다	김장 버무린다(중국에서) 김장 당군다 김장얼 한다
20710-0-1	-고	(김장얼)당구구 이따 (김장얼)버무리구
20710-0-2	-어라	(김장얼)버무리려라 (배:차털)당귀라
20711	양념	양녀털 양니털
20712	버무리다	버무리려라 배차 버무리
20713	버섯	버섄
20713-0-1	-이	버서시 만;타
20714	콩나물	콩나물
20714-1	콩나물	콩나물채(반찬)
20714-2	숙주(나물)	녹뚜나물(재료) 녹뚜채(반찬)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콩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쌍 계)비지떠기다
20717	달갈	달갈 계란
20718	가래떡	떡꾸때
20719	시루떡	케: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빻다	(송퍼늘)빈는다 (송퍼늘)맨든다
20722	흰떡	젤퍼니라 그래요(보1) 골미떠기라구 하구 (중국에서)(보1)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파:죽
20725	새알심	새알 수지비 오그레이라구(중국에서) 오:그랭이(중국에서)
20726	백설기	백설기
20727	튀밥	티개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쏘주
20731	부침개	지지미 부치개(중국에서, 북한말)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매
20802-0-1	-을	가매를 씨는다
20802-0-2	-에	가매애다 소테다
20803	아궁이	고코락(한국말) 부수깨(중국에서)
20803-0-1	-이	고코라기 크다 부수깨가 크다
20804	그을음	끄:름 껌정이 무더따
20805	불쏘시개	불사리개(다, 중국에서) 부쏘시개(한국말)
20806	연기	연기
20806-1	내(煙氣)	연기가(?)
20807	그을리다	끄실러따
20808	부지깻이	부주땡이
20809	부삽	불삽 불쌔

20810	넵다	내굽따
20811	넴비	넴비
20812	그릇	그른
20812-0-1	-을	그르슬
20813	뚜껑	뚜껑이지 더깨 바끄른더깨
20814	주발 뚜껑	복쭈깨라구
20815	사발 뚜껑	사발떠깨 밥싸발덮깨 복쭈깨
20816	술뚜껑	술뚜껑 가매뚜껑 소두방이라구두(제시) 가매뚜깨라구(다용)
20817	밥주걱	주걱 밥쭈걱
20818	순가락	수갈
20819	젓가락	저까락
20820	종지	종지
20821	보시기	*
20822	툇배기	툇배기 장싸개(중국에서)
20823	접시	접씨 사래(접씨와 같음)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이남지(쌀 이는 것) 이남박(보2 제시)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군다 행귀라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자심물
20831	찌꺼기	깡치(중국에서) 찌끄레기(보1)
20832	화로	화:리
20833	화롯불	화:리빨
20834	부젓가락	부저갈 부저까치(중국에서)
20834-0-1	-이	부저까리 엽따
20834-1	부손	불쭈까락
20835	다리쇠	저시라구 절 저지 노푸지
20836	석쇠	적썰 적쇠 적썰
20837	도시락	면또 벤또 도시락
20838	바구니	광주리
20839	뒤주	두지
20840	찬합	간변또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채칼 | cf 채칼(채 쓰는 거) | 강판
상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2 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5 감추다
20906 흙
20907 돌쩌귀
20907-1 암짚
20907-2 수짚
20908 미닫이
20909 여닫이
20910 덧문
20911 열다
20912 문고리
20913 자물쇠
20914 간히다
20915 열쇠
20916 잠그다
20917 구멍
20917-1 쥐구멍
20918 찢다
20919 구들
20920 흙받기
20921 흙손
20922 흙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3 바르다
20924 장판
20925 종이

아르뽕 | 안뽕하구 | 정지
벽:
다:라근(출입구가 밖으로 난 것)
벽짚
감춘다, 꿈춘다
호:미 생겨따
지두리 | 문-지두리
암-지두리
수쩌두리
미다지 | 미다지문
열:개문
덧문
(바카트루)여러따 | 열:개 해쓰문
문꼬리 | 뭉꼬리 | cf 문쌀
자물통열 | 자물쇄 | 자물통
개끼워따
열:쇄 | 열쇄:
장파라 | 채워라 | 채우고 와라
뭉꾸녀글 | 뭉꾸녀그루
쥐굴
찌는다 | 찌저따
구들뜰
흑판 | 흑빠지 | 흑쏘니라구
흑뜨는 삽
호칼
호카리구
호카리구
바른다 | (잘:)발라라
장판 | 장파니
종이루

20926	도배	도배한다
20927	구석	·구석(물건 놓은 곳) ·구덩이(물건 안 놓은 곳)
20928	굽도리	*
20929	깨끗하다	깨끄다다 깨끄태서
20930	문지방	문턱(중국에서) 문찌방이라능 건(한국말)
20930-0-1	-에	문터개 걸려서
20931	툼	쯔:미 생겨따 새:가 떠따 어:가니 떠따
20932	가장자리	가애 여가래
20933	가운데	복판
20934	시렁	평때라구두 하구 실경이라구두
20935	살강	살강이지(제시)
20936	선반	선반 맨다
20937	서랍	뿐배
20938	경대	경대 색경
20939	거울	세:경
20940	걸다	거러라 걸구 이따
20941	호룽	등잔 호룽(보조 제보자1) 초룽뿔

2.3.2. 건물

21001	지붕	지병
21001-0-1	-에	지붕애 지병애
21002	기와	기와
21003	기와집	기와지비지
21004	수키와	걸끼와라구
21005	암키와	밋끼와
21006	대들보	대들뽀 cf 중도리(옆으로 걸쳐 놓은 것, 중도리 위에 서까래를 얹)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집 귀땡이
21009	처마	처마애서
21010	오두막	막 오도막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영 이어서('영'은 짚 엮은 것과 안 엮은 것 통틀어) 나:래 여꺼서(짚을 엮은 것)

21012-0-1	-에서	나래루
21013	용마름	용고새
21014	기스락	처마끝
21015	낙숫물	빔무리라 그래여
21015-1	기스락물	간장물
21016	사닥다리	새다리
21017	용마루	지붕꼭때기
21018	토방	뜨렁 이꾸 뜨랑이라
21019	땃돌	빔물바치개(?) 빔물바치개-돌(?)
21019-1	섬돌	문턱뿔(중국에서) 재색뿔
21020	마루	마루
21020-0-1	-에	마루애
21021	뒹마루	*
21022	기둥	기둥
21023	주춧돌	주춧돌
21023-0-1	-을	주춧돌을 깨:따
21024	굴뚝	연:통(중국에서) 굴뚝 구새(한국에서) 구새통

2.3.3. 마당

21101	뜰	뜨렁까애(?)
21102	마당	마당에서 해찌
21103	넓다	널따
21103-0-1	-어서	널버서 조타
21104	넓히다	널피야 된다
21105	곶간	고:깐두 되구 창꼬
21106	외양간	오:양간 외:양간
21107	마구간	마구간
21108	광	창꼬
21109	헛간	허더까니라구 하지
21110	쓰레기	쓰레기 가따
21111	장독대	*
21112	장독 뚜껑	장:뚝더깨
21113	변소	변소라구두, 동수까니라구두 하장시른(새로 생긴 말)

21113-1	똥장군	똥통
21114	울타리	배재
21115	담	돌:배재 돌땀 담
21115-0-1	-에	다미라 그래두
21115-0-2	-도	담두 무너저따
21116	사립문	삼짱문
21117	뒤결	뒤꺼태
21117-0-1	-에서	뒤꺼태서
21118	바깥	배깁
21118-0-1	-에	배까티 가 노라라 배까태 가
21119	모퉁이	모팅이 짐 모팅이 짐 기뛰기 모서리 (보조 제보자1)
21120	모서리	모서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동내(고형, 한국에서) 부락 마을(다용)
21202	윗마을	우똥내 움마을
21203	이웃	이우쩍
21203-0-1	-이	이우시루
21203-0-2	-에	이우스루 이우지루 와따
21204	마을가다	마실가따 말: 도리 가따
21205	우물	움물
21206	두레박	두룸박 두레
21207	샘(泉)	샘치물루 샘치
21208	가(邊)	움물까애
21208-0-1	-을	움물까애럴
21208-0-2	-에	움물까애
21209	물지게	물찌게 cf 물통자(매고 다니는 것)
21210	가게	가:게라구(고형, 작은 것) 상점이랑(규모 가 조금 큰 것) 배콰니 무순(상점보다 큰 것)
21211	싸다	싸다 눅따(다용, 중국에서)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홍정	홍정한다 중매한다
21214	거간꾼(중매인)	?홍정꾼
21215	잔돈	잔돈

21216	에누리	까꺼달라구 에누리업써(한국에서만 씀)
21217	거스름돈	승천 바더따(중국에서) 승처늘 거시름 또니나(한국에서만 쓴다 함)
21218	거스르다	거실러 바더따 승처늘 바더야 된다
21219	꾸다(借)	꾼다 빌린다(한국에서)
21219-0-1	-어야	꿔따구 하먼 꺾:야 된다 꺾:줘
21220	구두쇠	깍쟁이
21221	맡기다	매껴줘따구두 매껴노코
21222	나머지	나머지
21223	덤	보:춤 해준다 보:춤
21224	몫	내: 모거치다
21224-0-1	-을	내: 모거치 달라 내: 모글 내: 모거치를
21225	빚	비시(만:타)
21225-0-1	-을	비설 저따
21225-0-2	-에	비세 쫄리운다
21226	이자(利子)	리시결(준다)
21227	심부름	심:부름
21228	두름	한 두름
21228-1	축	한 두름
21228-2	쾌	한 두름
21228-3	접	한 황자 두 황자 행는데
21228-4	쌈	한 쌈지(열 개)
21228-5	두름	고사리 뭉치
21228-6	단/몫	한 다발
21228-7	단/몫	*
21228-8	툇	*
21228-9	모숨	한 주먹
21229	컬레	(신)한 쌍 (양말)한 토티(중국말) 항 커리
21230	마지기	한 지멸(중국에서) 한 짐(중국에서) 마: 지기 쑤는 한 마지기 (한 짐)뱅메다 기 럭찌에 열미다 광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백평(100m ² 를 말함; 중국식 평수임)
21231	꾸러미	한 두름
21232	그루	항 구루 두: 구루 한 주 두 주 하능 건 (참대 셀 때)
21233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루 자루가 잘구라구(중국과 북선)
21235-0-1	-을	자루털
21235-0-2	-에	자루애다 자루애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 개	한 개
21236-2	한 되	한 되
21236-3	한 말	한 말
21237	둘	둘:
21237-1	두 개	두:개
21237-2	두 되	두: 되
21237-3	두 말	두: 말
21238	셋	서:이
21238-1	세 개	세:개
21238-2	세 되	세: 되
21238-3	세 말	세: 말
21239	넷	너:이
21239-1	네 개	네:개
21239-2	네 되	네: 되
21239-3	네 말	네: 말
21240	다섯	다:서
21240-1	다섯 개	다서개
21240-2	다섯 되	다선 띄
21240-3	다섯 말	다섬 말
21241	여섯	여서
21241-1	여섯 개	여서개
21241-2	여섯 되	여선 띄
21241-3	여섯 말	여섬 말
21242	일곱	일고
21242-1	일곱 개	일고개
21242-2	일곱 되	일곱 띄
21242-3	일곱 말	일곱 말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 개	여덜개
21243-2	여덟 되	여덜 띄

21243-3	여덟 말	여덟 말
21244	아홉	아:호 아홉(열)
21244-1	아홉 개	아홉개
21244-2	아홉 되	아홉 띄
21244-3	아홉 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1	열 개	열:개 열 개
21245-2	열 되	열 띄 열 때
21245-3	열 말	열: 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 개	수무 개
21246-2	스무 되	수무 대
21246-3	스무 말	수무 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 개	서룻 개
21247-2	서른 되	서:른 띄
21247-3	서른 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은 마:흔
21248-1	마흔 개	마흔 개
21248-2	마흔 되	마흔 띄
21248-3	마흔 말	마흔 말
21249	쉰	쉰:
21249-1	쉰 개	오:시 개
21249-2	쉰 되	쉰: 띄
21249-3	쉰 말	쉰: 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 개	육시 개
21250-2	예순 되	예순 띄
21250-3	예순 말	예:순 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 개	칠시 개
21251-2	일흔 되	이:른 띄
21251-3	일흔 말	이:른 말
21252	여든	여든
21252-1	여든 개	팔십 개

21252-2	여든 되	야:든 되
21252-3	여든 말	야:든 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 개	구시 깨
21253-2	아흔 되	아:흔 되
21253-3	아흔 말	아흔 말
21254	백	백:
21254-1	백 개	배: 깨
21254-2	백 되	백 때
21254-3	백 말	뱅: 말
21255	이백	이:배기지 양백(중국에서, 다용)
21256	한둘	*
21256-1	한두 개	한두 개만
21256-2	한두 되	한두 되
21256-3	한두 말	한두 말
21257	두셋	*
21257-1	두세 개	서너 개
21257-2	두세 되	*
21257-3	두세 말	*
21258	두서넛	*
21258-1	두서너 개	* 뒤서너 개
21258-2	두서너 되	*
21258-3	두서너 말	*
21259	서넛	*
21259-1	서너 개	서너너더 깨 세네 개
21259-2	서너 되	서너 되 서너너덜 띄(셋이나 네 되)
21259-3	서너 말	세네 말
21260	네댓	*
21260-1	네댓 개	네다서 깨
21260-2	네댓 되	너더덜 띄(넷이나 다섯 되)
21260-3	네댓 말	너덜댄 말
21261	대여섯	*
21261-1	대여섯 개	대:여서 깨
21261-2	대여섯 되	대:여섯 띄(다섯이나 여섯 되)
21261-3	대여섯 말	대:여섯 말

21262	예닐곱	*
21262-1	예닐곱 개	여닐고 깨 여닐곱 깨(제시, 여서이나 일곱 개)
21262-2	예닐곱 되	여닐곱 띄(여섯이나 일곱 되)
21262-3	예닐곱 말	여닐곱 말
21263	일여덟	*
21263-1	일여덟 개	일고여덜 깨
21263-2	일여덟 되	* 일고여덜 띄
21263-3	일여덟 말	일고여덜 말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 개	여덜아호깨
21264-2	여덟아홉 되	* 아호열 띄(아홉이나 열 되)
21264-3	여덟아홉 말	아호열 말(아홉 열)
21265	여남은	*
21265-1	여남은 개	여나무 개(열 개 정도)
21265-2	여남은 되	여나무 띄(열 띄 정도)
21265-3	여남은 말	여나무 마리지(열 말 정도)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
21302	길이	기럭찌
21303	저고리	저구리
21304	색동저고리	새똥저구리
21305	두령이	배:띠개
21306	무늬	문 무늬 드러가따
21307	고쟁이	속:꼴 소:꼬시
21308	바지	바지라구두
21309	두루마기	두루마기
21310	의복	온: 입쌍이라구두 오시라구두 이보기라구두(제시)
21311	구겨지다	쭈구러저따 꾸겨저따
21312	옷고름	오고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정

21315	겉	겉:
21315-0-1	-에	거테 거티나
21315-0-2	-을	거테럴 거티럴
21316	홀옷	호돈 호도타구 호도시구
21317	겹옷	겨본 겨보타구 겨보시구
21318	잠방이	잠방등거리(옛날 옷) 찢분바지(요즘 옷)
21319	누더기	누더기(깎지 않고 다 떨어져 살이 여기저기 보이는 옷)
21320	거지	비렁배기(한국에서) 거:지(중국에서, 다)
21321	구걸	비락찌리라구두
21322	조끼	쫓끼
21323	내의	소:곤(제시) 내:복 소:고시나
21324	껴입다	던니버따 던니꾸 포개이꾸 껴 이꾸 껴 이버라
21325	소매	소매 소매애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거르마니(중국에서) 봉창(한국에서) 거르마이라
21328	허리띠	띠(천) 허리띠(천) 허리끄냉이(천) 가죽띠(가죽, 다) 혁띠(가죽)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포
21331	삿갓	사갓
21331-0-1	-에	사까시 크다 사까세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사:모
21334	유건	탕건?(유건은 모르는 듯)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못 봄)
21337	짚신	메커리(중국에서) 집썬(한국에서)
21338	미투리	메커리라 그라구?
21338-1	(짚신을)삼다/만들다/트다/곁다	삼:는다
21339	나막신	목썬? 나막썬
21340	설피(雪皮)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비단
21401-1	명주실	비단실 누에실 꼬추실 명지시리지(보1)
21402	목화	모과털 모카털
21402-1	목화다래	모과열매?
21403	무명	명지(손으로 짠 것) 광:목뽕(기계로 짠 것) 명주실(한국에서) 명:실(중국에서)
21403-1	무명실	소개실루 소개실
21404	씨아	*(못 봄)
21405	자새	자새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온감(짠다) 처:늘(짠다) 베를 짠다
21408	길쌈	질쌈(무릎에 대고 실을 비비는 것)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짚고리	광주리(반짚고리 없을 때, 다용) 반지끄를 반지끄르새(다머라)
21411	가위	가새
21411-0-1	-을	가새를 가새털
21411-0-2	-에	가새애
21412	마르다(裁)	말근다
21412-0-1	-고	말구구 이따
21412-0-2	-어라	말거라
21413	형겂	천쪼가리 천쪼바기라구 흥거치 가따
21413-0-1	-을	흥거치털(대:따) 천쪼바기털(대:따)
21413-0-2	-에	천쪼바기에 흥거치애
21414	바늘	바늘루
21415	꿰다	꿰:다 꿰다(격식)
21415-0-1	-고	꿰:구 이따
21415-0-2	-어라	꿰:라
21416	바느질	바누질(한다)
21417	재봉틀	마:선(machine에서 온 말)
21418	끈	끄누루 끈
21419	노끈	노: 노: 끈다 노끈
21420	참바	바: 참바(삼으로 드린 줄)

21421	매듭	불통가지 매드리가(매처 저따)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위다/묶다	매: 가주구 (불통가지를) 맨는다 불통가지)지개 하라
21422	보자기	보 보애다
21423	이불	이불
21424	숨	소캐(다) 소:미라구(목화에서 씨 뻔 것)
21425	포근하다	포근:하다
21426	훈이불	훈니불
21427	겹이불	겹니불
21427-1	숨이불	소캐이불 숨:니불
21428	누비이불	늬비이불 늬빈니불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개은:
21430-0-1	-에	베개오세 때가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없음)
21433	방석	자부동
21434	담요	탄자 양털탄자 호랑탄자 잡털탄자 cf. 요대기
21435	빨래하다	빨래한다 오설썌는다 서답썌는다(다용)
21436	빨랫방망이	방맹이 빨래팡맹이 빨래방맹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린다 다리미질(조사자 제보)
21440	인두	윤: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미방맹이 다디미 방맹이
21442	다듬잇돌	다덤똥(보조1) 다디미똥 다디미판
21443	다듬이질	다디미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서:리라 그라지 설:랄
21502	설	설:
21503	선달 그믐날	서:딸그믐날

21504	묵은세배	*(없음)
21505	올해	올해 금년
21505-0-1	-는	올해는 금녀내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그러께
21505-3	내년	명년(많이 사용) 내년
21505-4	후년	후년
21505-5	내후년	대후년
21506	작은설	자근설랄
21507	윳	유:끼(중국에서 다용) 윤:놀자
21507-0-1	-을	유스논다 유:설 유끼를
21507-0-2	-에	유끼애 유:새
21507-1	윳놀이	윤:노리 유:끼치기(중국말)
21508	윳가락	유:까락
21508-1	도	도
21508-2	개	개
21508-3	걸	컬
21508-4	윳	운 유시나따 쑹(중국)
21508-5	모	모
21509	단둥	말
21509-1	외동무니	외동마리 간다 외동무니 간다
21509-2	두동무니	두:마리 간다 어퍼간다 두:동무니 간다
21509-3	석동무니	세:동무니 석똥(보조1) 석똥무니
21509-4	넉동무니	넉똥무니
21509-5	막동	막똥무니, 막똥무니 간다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초하루보름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집뿔 집뿔로리한다
21513	취불놀이	취뿔 지뿔로리 지뿔쌈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 막대	*(이름 생각 안 남)
21514-2	긴 막대	자치기때
21515	수수께끼	수수거끼

21516	호미씻이	*(없음)
21517	팽과리	깽매기 쟁쟁이(중국에서) cf. 깽매기채, 쟁쟁이채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참 중참(오후에 먹는다고 함?) 중새(밤참을 먹는 것이라고 함, 보조 제보자1) 오후새:참 오전새:참
21520	무당	무:당
21520-1	박수	무:당(남녀구별없음)
21521	고수레	고시네:
21521-1	고수레!	고시래(보조 제보자1) 고시네
21522	점쟁이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행두(중국) 행상
21524	굴건	건
21525	제사	지:사 기지사
21526	제기	모끼두 쓰구 접씨두 쓰구 제사모끼
21527	귀신	호니 몽당귀신(보조 제보자1) 몽달귀신(처녀가 죽은 것) 귀:신
21528	도깨비	도깨비

2.5.2.농경용품

21601	고빼	곶빼
21602	굴레	굴레
21603	멍에	멍지(중국) 멍에
21604	길마	·질마
21605	부리망	·멍구럭
21606	구유	·말구수 구수(충청)
21607	작두	·작뚜
21608	꼴	·깎 ·풀 ·꼴비러 가자(중국에서)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말죽 ·소죽
21611	쇠죽바가지	·죽빠가지
21612	수레	·수레(중국에서) ·술기(바퀴가 타이어)
21613	끌다	끌:구 끌:지
21613-0-1	-고	끄시구 간다(내가 말을) 끌:구 간다(소나

21614	바퀴	말이 수레를) 바퀴 아빠퀴, 뒤빠퀴
21615	새끼(繩)	산내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cf.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21616	망태기	망태기
21617	떡등구미	등구떡
21618	거적	꺼적때기 cf. 도짜리
21619	가마니	가마스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스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도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틀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만들다/견 다/매다	자리 영는다 자리 자리를 영는다(자리 를 찐다고는 안 함)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산태미
21623-1	짚 삼태기	집산태미(보조 제보자1) 싸리산태미(보조 제보자1)
21623-2	싸리 삼태기	·보:치 ·싸리산태미(보1)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얼기미 얼경체
21625-1	고운체	곤:체 센:체(보조제보자1)
21625-2	굵은체	얼근체
21626	대장장이	야정쟁이 애정쟁이(보조제보자1)
21627	대장간	야정간
21628	풀무	풍구
21629	모루	모루뜰
21630	모루채	메(큰 것-메어 치는 것) 망치(작은 것-손 으로)
21631	갈퀴	·갈키
21632	집게	찌깨
21633	장도리	망치 모빠기 망치 장도리
21633-1	노루발	모빠기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매 짜리위따 ·토부루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자루

21636-0-1	-을	·도:끼짜루 ·도:끼짜루를
21636-0-2	-에	·도:끼짜래
21637	갈고리	·갈구리
21638	썰기	·썰:기를 처라
21639	송곳	송곳 ·진드래(중국에서)
21639-0-1	-에	·도래송고새 ·도래송고시라구두 하구
21640	뽀죽하다	·끄티 뽀조카다
21641	숯돌	·숯똥 cf. 곤:숯똥, 센:숯똥
21641-0-1	-에	·수뚜래다
21642	맷돌	·매똥
21642-1	수쇠	·수쇠
21642-2	암쇠	·암쇠
21643	지게	·쪽찌개(중국에서) ·지게(충북 말)
21644	발채	·바소고리
21645	지게 작대기	·작때기 ·바치개
21646	막대기	·막때기(제시)
21647	몽둥이	·몽:덩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루
21702	광주리	·광주리
21703	소쿠리	*
21704	함지	·함지(네모지게 판 것)
21705	폴비	술:
21705-1	귀알	·술: ·소:리지
21706	독	·단지(배가 부른 것)
21706-0-1	-에	·짐치판지다 답는다
21707	물독	·물뚝
21708	항아리	·항아리(단지와 구분 못함)
21709	단지	단지(항아리와 구분 못함)
21710	물동이	·물뚝이 동이라구
21711	파리	·따바리
21712	옹기	·오지그를 ·오지그르시지(보1)
21713	표주박	·조롬박(小) ·cf. 바가치(大)
21714	키(簍)	·치 ·칭이

21715	떡살	·떡또장?
21716	다식판	? ·다식틀?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털
21717-0-2	-에	·시루에다
21718	시룻밑	·시루빨
21718-0-1	-에	·시루빠래
21719	시룻번	?*
21720	부싯돌	부싯돌
21720-0-1	-을	·부싯또 가져오라 ·부싯또를
21721	부시	부시
21722	부싯깃	지시라능게 지슬 대고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때 cf 담배함 cf 담배재떠리함
21725	담배설대	·대 ·담배때 ·대통
21726	대통	·담배꼭찌 ·대꼭찌
21727	물부리	물쭈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여름용), 털토시(겨울용)
21731	벼루	·베루똥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나
21734	참빗	·참빈 ·참비시루
21734-0-1	-을	·참비설 ·참비슬
21734-0-2	-에	·참비세
21735	얼레빗	·빈 cf. 얼근빈
21736	세숫대야	·소래 ·세수쏘래(중국에서) ·세수따야 ·세수때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도링이 ·도렐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빼기	·이만대기 ·마:뺄(제시)
21803	눈자위	* 눈?
21804	검은자위	·꺼먼자이 ·거문자우 ·눈뚱자, ·동자
21805	흰자위	·흰자우
21806	눈꺼풀	·눈꺼풀
21807	거적눈	*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지
21809	속눈썹	·우이눈썹 ·운눈썹
21809-0-1	-이	·우이눈썹비 길다
21810	눈두덩	·눈통에 멍 드러따
21811	안경	·안:경
21812	안경집	·안:경집 ·양:경집
21813	돋보기	·도뽀기 cf. 만뽀기(눈 보호용)
21814	주름살	·주름살 생겨따
21814-0-1	-이	·주름싸리 ·주르미
21815	엷되다	·애떠난다
21816	수염	·시염
21817	구레나룻	·구레시염
21817-0-1	-을	·구레시염 ·구레시어물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시염 ·시염: cf. 코씨염(코털의 뜻)
21820	코딱지	·코딱쟁이
21821	콧구멍	·코꾸녁 ·코꾸녀기, ·코꾸멍이라구
21821-0-1	-을	·코꾸녀글 마거라
21821-0-2	-에서	·코에서 ·코꾸머개 ·코꾸멍애
21822	콧물	·콧무리 난다
21823	입술	·입씨버리
21823-0-1	-에	·입서버리에
21824	다물다	·다무려라 ·다무리지 마라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덧니
21827	휘파람	·회:파람 분다
21828	침	·치미 괴인다
21829	삼키다	·생켜라, 생키구, 생키지
21830	가래(痰)	·가래침
21831	벨다	·배터라 ·배:찌 말라
21832	혀	·쇠때 cf.·세빠닥, ·쇠때끄트머리(혀끝)
21833	헛바늘	·세빠눌 서따
21834	귓볼	·귀뺨
21835	귀고리	·귀걸개?*
21835-1	귀걸이	·귀마개
21836	귀지	·귀창
21837	귀이개	·귀우비개
21838	소리	·소리가 잘: 디킨다
21839	엿듣다	·열:든는다
21840	귀청	·귀창이 떠러진다
21841	귀밑	·귀미태
21841-0-1	-에	·귀뺨미테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짐: ·지:미 생긴다 ·지미(보1)
21844	주근깨	·주궁깨(보1)
21845	턱	·턱
21846	턱수염	·시염
21847	뺨	·볼 뺨대기(비칭)
21847-1	볼	·볼:(뺨과 구분 없음)
21848	가름하다	*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머리칼 ·머리카락
21851	비듬	·머리비늘
21852	기계충	·기계도기 올라따
21853	정수리	·수꿩기(숨구멍)
21854	대머리	·번대머리
21855	고수머리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가름채(제시) ·가름배(보1)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름배 탄다(보1)
21857	가마(旋毛)	·가매 ·가마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가매지 ·바까매(밥가마)
21857-2	가마(轎)의 성조 · 음장	·가:매 ·가마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토기 군는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 성조 · 음장	·가마니
21858	뒤통수	·뒤통시
21859	뒷덜미	·더티미
21860	목	·목 ·모가지(비칭)
21861	먹살	·먹쌀미 ·먹싸리 지어따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밀치다	·민다 ·떠민다 ·밀친다(사람이 많아서 밀 때)
21903	겨드랑	·저드랑
21904	등	·등어리
21905	가슴	·가슴
21906	결리다	·절리운다
21907	갈비뼈	·갈비 ·갈비가
21908	허파	·폐:루 ·허파
21909	쓸개	·여:른 가:내 부통 거 ·여:리지
21910	콩팔	·콩팔
21910-0-1	-에	·콩파세
21910-0-2	-을	·콩파설
21911	팔	·팔
21912	팔꿈치	·팔꿈 ·팔꾸비
21913	팔짱끼다	·깁짱찐다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왼:손
21917	다르다	·따다, ·따지
21917-0-1	-아서	·따서
21917-1	틀리다	·틀리지 ·틀려따
21918	왼손잡이	·왼: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구락
21920	집게손가락	·두:번채송꾸락
21921	가운뎃손가락	·가운데송꾸락
21922	약손가락	·네:번채송꾸락 ·약송꾸락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꾸락
21924	생인손	·생소나리(생송얌이) ·생손(보1)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손아구씨미 켜다
21927	손목	·홀목 ·홀모걸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21931	옆구리	·여꾸리 ·엽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지럽따 cf.갈질키지 마라
21933	간지름	·간지름 탄다
21934	잔허리	·가는허리(보1)
21935	근육	·근늑
21936	배꼽	·배꼽, ·배꼬비
21937	목물	·모욕 시킨다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송시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툽
22005	냄새	냄:새 마터요
22006	고린내	발꼬린내 난다
22007	굳은살	구둔살
22008	정강이	압짱갱이
22009	종아리	장판지(명사라 함, 맞다와 호응), 종아리(치다, 맞다와 호응)
22010	장판지	장판지(명사라 함, 맞다와 호응), 종아리(치다, 맞다와 호응)
22011	회초리	회초리루
22012	무릎	무릅 무루팍

22012-0-1	-을	무루팍 다쳐따 무루파글 깨다
22012-0-2	-에	무루파개
22013	오굼	오굼 오굼제~이 오굼쟁이
22014	엉덩이	엉치(남자의 것) (궁둥이와 구별 못함) 웅:덩이(아주머니, 여자) 궁:덩이(과부)
22015	궁둥이	방둥이(처녀의 것) (엉덩이와 궁둥이 구별 못함)
22016	불기	엉치가 불기루 불기친다
22017	명	명이
22018	명울	영어리
22019	가랑이	가랭이
22020	사이	이싸이애 어간
22021	살	사차구니(비칭 의미 없음)
22021-0-1	-이	사차구니 부서따
22021-0-2	-을	사차구니를
22022	사타구니	*
22023	가래툇	림파가 생긴다 망우래기
22023-0-1	-을	망우래기를
22024	허벅다리	넙쩍다리(허벅다리와 구별 안 함)
22025	넓적다리	신다리구 허벅찌라 (넓적다리와의 구별 안 함) 신다리라구
22026	가부좌(跏趺坐)	책쌍다리 토시구 안는다(중국에서)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 /꼬다/하다	책쌍다리하구 안는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감기
22102	기침	기치만다
22103	채채기	·재치기
22104	사래	사래
22104-1	사래 들리다/만나다/걸리다	개껴따 사래 들려따
22105	딸꾹질	폐:기라 그라구(중국에서) 꺄띠기 난다그 라구
22106	트림	트름한다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연두	손님(보1 제시)

22109	여드름	어드름난다 여드름(보1 제시)
22110	학질	학쩔
22110-1	하루거리	학쩔 학찌린데
22110-2	이틀거리	학쩔
22110-3	매일 앓는 학질	학찌리지
22111	홍역	호녀가구 호녀 홍진(중국에서)
22112	불거리	돼:지병
22113	땀띠	땀때기
22114	두드리기	두드리기:
22115	버짐	버듬
22115-1	마른버짐	마른버듬
22115-2	진버짐	습빠듬 물버드미라구두 하구(보1)
22115-3	도장버짐	*
22116	문둥이	문:덩이라 그려
22116-1	문둥병	문:등뺑
22117	부스럼	뽀돌치라구 부시르미라구 부시름 부 시럼
22117-1	종기	종기라구두 해여(목덜미에 나타는 것)
22118	고름	고름 찐다
22119	곰기다	공겨따(보2 제보)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
22122	언청이	허청이 켜:보(중국에서)
22123	소경	소이경 봉사
22123-1	달달봉사	달달봉사
22124	애꾸	외눈배기
22125	눈곱	농꼽
22126	다래끼	다래끼 께:지라구두 하구(보1)(북한말이라 함) 대리키라구(보1)
22126-1	다래끼	·다래끼
22126-2	다래끼	다래끼라 다래깁
22127	절름발이	절름바리 찌구대(중국에서) 절름바리
22128	곱사등이	곱싸
22129	귀머거리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말멍는사람 반버버리
22131	병어리	완버버리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잠뽀 잠꾸러기
22133	줄리다	줄린다 줄리운다
22134	하품	하품
22135	줄음	조르미 온다 조르몬다 자부르미 쏘더진 다 자미 쏘더진다
22135-0-1	-을	자부르믈
22135-0-2	-에	자부르미 와서
22136	잠꼬대	장꼬대 한다

2.7. 육아

22201	입덧	애기스([t])리 한다 아:서리 한다
22201-0-1	-을	애기서리를
22202	갓난아이	간난애기
22203	어린아이	애기 어리나
22204	경기(驚氣)하다	경영일꾼다
22205	눅히다	늪퍼라 누퍼 재워라
22206	계집아이	새:가 지지배 간나(중국에서) 가시나 (중국에서)
22207	예쁘다	곱:따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스매
22209	아우 타다	제아래탄다구(보1)
22209-1	아우보다	동새바:따
22210	야위다	여빈다구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주멀
22213	똥	똥얼
22214	기저귀	기:지개
22215	뉘다(排便)	뉘여라 누인다
22216	방귀	방:귀를 방:귀
22216-1	뀌다	뀐다
22217	구린내	쿠린내 난다
22218	구리다	쿠리다
22219	포대기	포대기래두 샬:래(여름용) 탄자(겨울용)
22220	기지개	기:지개 쓴다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기지개를 쓴다

22221	거짓말	그:증말한다
22222	남부끄럽다	부꾸롭따 남부꾸럽따 남새시럽따(보1)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한 애더리다 불쌍해
22225	죄암죄암	잼:잼
22226	곤지곤지	진:진 송곤송곤(중국에서, 보2)
22227	따로따로	따루따루 서라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부라부라
22231	걸음마	거름마(불잡고 걷는 것) 거름발 탄다(혼자 걷는 것)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거리간다
22233	넘어지다	자빠진다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질
22235	안기다	양킨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호디기
22238	숨바꼭질	숨바꼭질 한다
22239	소꿉놀이	도꿉질 한다 반두깨 논다(보1)
22240	사금파리	살림사리 새금파리
22241	연	연: 띄운다 연:
22241-1	방패연	여니라구 네모연
22241-2	가오리연	여니라구
22242	걸리다	걸려따 걸려서
22243	고누	공기(잘못 알고 있음) 꼬노 논다(조사자 제시)
22244	땅뺨기	땅따머끼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땅치치기
22247	구슬	다마(일본말)
22248	그네	군너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군너 뛴다
22249	밑신개	군너 발디디개
22250	굴렁쇠	도롱태
22251	굴리다	구불린다

22251-0-1	-고	구부리구
22251-0-2	-어야	구부려야
22252	자전거	재장거
22253	목말	몽마 탄다(보1) 몽매 탄다(보1)
22254	말타기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다라간다 달리기 잘한다
22256	썰매	도마탄다(중국에서) 스캐또 탄다 스캐 토를 탄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타구 이따 ·탄다
22256-2	송곳	스캐또 송곳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편다
22258	부아	부에 난다 배:리 나다 배알란다(보2) 싱경질 난다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라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라구
22302	어머니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엄마라구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라구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라구
22305	남편	나쩌니라구 나그내가(중국에서, 다)
22305-1	남편(호칭)	여보라구두
22306	아내	애인 안시꾸라구두
22306-1	아내(호칭)	여보라
22307	형	형니미다 내 형이다
22307-1	형(호칭)	형니미라구
22308	아우	동생 동생 아우라는 건(여자가 남자동 생을 지칭) 남동생이라구두(여자가 남자 동생 지칭)
22308-1	아우(호칭)	·동생
22309	누나	누이
22309-1	누나(호칭)	누님(존경) 누나(어릴 때, 중국에서) 누이

22310	누이	내 여동생
22310-1	누이(호칭)	이름부르지
22311	자식	자식뜨리라(여럿) 자식(하나)
22312	맏아들	크나 맏짜식
22313	맏딸	맏딸
22314	맏내	망내 cf. 망내딸, 망내아들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
22316	언니	언니
22316-1	언니(호칭)	언니
22317	아비	00애비(아이 있을 때) 애이니(아이 없을 때) 서방님(아이 없을 때)
22317-1	아비(호칭)	이름부르구(아이 없을 때) (연나미)애비야
22318	어미	(연나미)에미 너 안씩꾸
22318-1	어미(호칭)	애기야(아이 없을 때) 아무개에미라 그러지 (연나미)에미야
22319	손자	손자가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싸우지
22321-1	사위(호칭)	명함부르지(아이 없을 때) 아무개 아버지(아이 있을 때)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외손녀
22324	꾸짓다	호널낸다 꾸지찌 말라 꾸지럼주구이따
22324-0-1	-고	꾸지깨 마란다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주지 나무라지 말라 나무래준다 나무란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겨론한다
22327-1	혼인식	혼사가
22328	혼인 잔치	잔치 겨론잔치
22329	장가가다	새애기 데려온다 장가간다 서방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
22330	혼숫감	*
22331	함	함

22332	겹사둔	쌍사둔 결리찌
22333	새색시	새각씨
22333-1	새색시(호칭)	새각씨야
22334	시아버지	시아부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시아번님 아번님(다)
22335	시아머니	시아머니
22335-1	시아머니(호칭)	시아머니미라 어머니(다)
22336	비위	비우럴 심리를
22337	아주버니	아주번님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주번님
22338	서방님	시동생
22338-1	서방님(호칭)	·시동생
22339	도련님	시동생(중국에서) 도려니미라구
22339-1	도련님(호칭)	시동생이라구? 도련님
22340	형님	동세
22340-1	형님(호칭)	큰동세
22341	시누이	·형님(손위) ·시누이(손아래)
22341-1	시누이(호칭)	형니미라구 언니라구두 형니매!
22341-2	아가씨	시누이 아가씨(보1)
22341-3	아가씨(호칭)	자근시누이!
22342	올케	올캐
22342-1	올케(호칭)	올캐
22343	매형	매부라그라지
22343-1	매형(호칭)	매부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매제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라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호칭)	둘째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호칭)	세째아부지 세째크나부지라구
22346	큰어머니	크너머이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머이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둘째어머이 둘째크너머이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아내(호칭)	세째어머이 세째크너머이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근어머이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너머이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추니라구
22351	아저씨	삼추니되지 아버지(중국에서)
22351-1	아저씨(호칭)	큰삼촌 자근삼촌 (너두)삼추니라구
22352	아주머니	삼춘땡
22352-1	아주머니(호칭)	삼춘땡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따리라
22355	고모	고모가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
22357	고종	고모사춘
22358	이모	이모가 아:재(중국에서)
22358-1	이모(호칭)	이모라구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22360	이중	이모사추니라구두 외:사추니라구두?
22361	외삼촌	외숙뽀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추니라구(제시)
22362	외숙모	외승모(제시)
22362-1	외숙모(호칭)	외승모
22363	외중	외:사춘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외:하라부지
22365	외할머니	외: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외:할머니라구
22366	장인	가시아부지(중국에서, 다) 장인
22366-1	장인(호칭)	장인?
22367	장모	가시아머이(중국에서, 다) 장몬니미지 장모하구

22367-1	장모(호칭)	장몬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남
22369	처남댁	처남-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남-댁
22370	홀아비	호래비
22371	홀어미	과:부(아이가 있음) 호래미라(아이 없음)
22372	계모	들어온 여자(3자끼리) 후덤마 새로 들어온 여자(3자끼리)
22372-1	계부	후다부지
22373	아저씨	아버이
22373-1	아저씨(호칭)	아버이 하구
22374	아주머니	아:매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매:
22375	사나이	청년
22376	영감	아무개 하라부지! 영감(제시)
22376-1	할머니를 낳추어 말할 때(저놈의 할망구)	저누무 노:친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럴
22378	환갑	항:가비다
22378-1	환갑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가 따다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고기 cf 뽕차끼 cf 지차끼 cf 고기대가리 cf 물꼬기눈 cf 물꼬기입
22402	민물고기	뭍물-고기
22403	피라미	?피래미(보기는 했는데 그림은 아니라함)
22404	지느러미	짚:
22405	아가미	고기아금지(제시 유도)
22406	창자	고기창사구 고기내장(전체를 가리킴)
22407	송사리	송사리
22408	헤엄	헤엄

22409	매기	매:기 지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끼비
22416	거머리	거:머리
22417	다슬기	얼개미(얼/울 간음) 올개미
22418	우렁이	우렁이(조사자 제시) 우렁기구?
22419	고둥	올갱이라
22420	달팽이	달팽이
22421	새우	새비
22421-1	새우(대)_민물	왕:새비
22421-2	새우(소)_민물	뭍:물새비
22421-3	새우(대)_바다	왕:새비
22421-4	새우(소)_바다	새비
22422	새우젓	새우전
22422-0-1	-이	새우저지 새우저줄
22423	가재	까:재
22424	갈치	칼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
22427	가자미	가재미
22428	멸치	멸치
22429	명태	명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명태지
22429-3	노가리	명태새끼라 그라지
22429-4	북어	마른명태 명태나 부개나
22429-5	생태	물명태
22430	조기	조기(조사자 제시)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뱀장어
22433	낙시	낙쭈루

22434	미끼	니끼
22435	낙싯대	낙쭈때
22436	얼레	(연썰)도롱테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버러지
22502	날벌레	버러지지 날빠러지(조사자 제시)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암파리
22504	쉬슬다	쉬쓰러따
22505	가시	구디기
22506	진딧물	진디? 짐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진디 낀다? 지미 낀다
22507	잠자리	남자리
22508	방아깨비	절리깨? 절리기?
22508-1	암컷	절리기
22508-2	수컷	때때기
22509	메뚜기	메뚜기
22510	여치	치르기(중국에서) 여:치는(한국말)
22511	사마귀	사:마구빠는 버러지
22512	벌	뵤:리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양봉얼 한다 뵤:리를 양봉한다 양봉한다
22513	땅벌	땅버리(땅벌)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뎅이	풍덩이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버러지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개:똥불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빙이
22524	구더기	구:디기
22525	노래기	노내기
22526	그리마	돈벌거지 돛벌거지 돈버러지 돈빠러지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좀빨거지? 좀빠러지?(나무도 판다고 함)
22530	진드기	영:애
22531	벼룩	베룩 까투라내 베루기여 베루기
22532	이(蟪)	이:
22532-1	서캐	써개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칭이
22534	귀뚜라미	귀뜨래미 귀:뜨래미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누에꼬추
22537	번데기	번디기
22538	지렁이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거시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방:개

2.9.3. 가축

22601	가축	짐성 가축(보조1) 가추기라구두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매:매 하구
22605	황소	황소 소 cf 자파뿔 cf 곤두뿔 cf 물레뿔, 자전거뿔(보조 제보자1)
22606	길들이다	기털 드려요 길드려서
22606-1	소 모는 소리_앞으로 가라	이러이러
22606-2	소 모는 소리_그 자리에 서라	위: 하구
22606-3	소 모는 소리_오른쪽으로 돌아라	우로우로 한다
22606-4	소 모는 소리_왼쪽으로 돌아라	저저저저저저 하지

22606-5	소 모는 소리_뒤로 물러나라	썩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 사 머거따
22609	둘치	들치(중국에서)
22610	꼬리	꽁지(중국에서) 꼬리
22611	망아지	망아지 말새끼는(큰 호마 새끼)
22612	당나귀	땅나귀([wi]) cf 노:새
22613	갈기	갈기머리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산돼지
22615	주둥이	돼:지주딩이라 주딩이
22616	돼지 머리	돼:지대가리 대:지머리
22617	돼지우리	돼:지우리
22617-1	오래오래	꿀꿀꿀꿀 하구(중국에서) 오래:오래 하구 (보1)
22618	개(犬)	개:지 머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양:캐 암:캐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고:냉이
22621-1	수고양이	수코냉이
22621-2	암고양이	암코냉이
22622	토끼	토끼
22623	거위(鵞)	게:사니라 구라는데(중국에서) 겨우라 그 래(조사자 제시)
22624	암탉	암탉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모둔다
22627	수탉	수탉(다) 장딱(소) 날개진
22627-0-1	-이	수타기 크다
22628	벃(鷄冠)	벼슬
22629	부리	닥-주딩이
22630	모이	모시 준다
22630-0-1	-을	모시르 모시를
22630-1	모이다	모인다(스스로 오는 것)

22631	닭털	닥털
22632	닭똥	닥똥
22633	어리	달기둥저리
22634	닭장	닥꿀
22635	둥우리	알똥지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날개지시
22637-0-1	-을	지설 지슬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범:
22702	살쾡이	슬기(중국에서) 살가지(보1)
22703	여우	여우
22704	원숭이	원숭이
22705	사슴	사시미
22706	노루	노:루 놀가지 코(노루 올가미)
22706-0-1	-이	놀가지가 만:타
22706-0-2	-을	놀가지를 자버따
22707	고슴도치	고신도치
22708	두더지	두더지
22709	족제비	황가리(중국에서) 쪽찌비는
22710	뱀	뱀:
22711	도마뱀	동아비얌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무사	독쌌지 머
22714	생쥐	생:쥐
22715	박쥐	빨쥐(중국에서) 박쥐(다)
22716	거꾸로	꺼꿀루
22717	다람쥐	다름쥐
22718	새(鳥)	날짐성(다) 새:는 날짐승이라구
22719	꿩지	새:꼬리
22720	솔개	독쭈리(솔개와 구분 못함; 중국에서 쓰는 말이라고 함) 소리개미(독수리와 구분 못함; 한국말이라고 함)
22721	독수리	독쭈리(솔개와 구분 못함)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황:새(두루미와 구분 못함) 두루미(황새와 같은 것이라고 함) 두리미
22724	소쩍새	서쪽새
22725	꿩	꿩: 꿩:
22726	장끼	장꿩
22727	까투리	까투리
22727-1	꺼병이	꿩애병아리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빼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부기
22732	올빼미	올배미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차꾸
22735-0-1	-을	·취차끼털
22736	올가미	코 옹노(중국에서)

2.10. 식물

2.10.1. 꽃과 식물

22801	진달래꽃	천지꼬지라구 천지꽃(예전) 진달래꽃 (지금) 진달래꼬슬
22802	철쭉꽃	철래꽃 철래꼬시지
22803	민들레	썸바기꼬시지(보1) 민들래꼬시라능개지 (보1; 지금) 무순둘래라능 기(보1; 조사자 제시)
22804	맨드라미	*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꽃뽕오리
22809	시들다	시든다 시드러
22810	질경이	질강이 배짜개라(보1; 중국에서)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질강이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질경이 반찬 질경이채
22811	빨기	뽕비기 뽕빼기
22812	비름	비름(조사자 제시) ?비름
22813	쇠비름	·비름
22814	썸바귀	?썸:바궁가 썸:바구(보1) 세토리(중국에서)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 이름)	*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
22820	억새	왁:쌔 왁:쌔푸른
22821	갈대	갈:쭈니라구두 하구 까른 갈:쭈
22822	이끼	이끼 바우온 바우니끼라구두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보1) 피마주는(다, 중국에서)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쭈세민데(보1; 그릇담는 것, 식물 이름은 모름)
22826	덩굴	넝쿨 너추리라구(중국에서)
22827	덤불	덤불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불
22828	잔디	잔디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설라무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광:솔 솔깽이(다, 중국에서) 광:소른
22904	솔가리	솔립 솔리펄
22905	그러모으다	글거모인다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돌개
22908	도토리	도토리 굴밤(중국에서)
22909	떡갈나무	참나무(잎이 거친 것) 가중나무(잎이 좁은 것) 참참나무(잎이 넓고 거친 것)

22910	상수리	도토리라구 굴바미라구
22911	옷	오돌른다 오:미 올른다(보1) cf. 온나무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수양버들(늘어진 것) 버드나무(버들개지 피는 것)
22913	느티나무	당나무(느티나무와 다른 것이라고 함) 느 티나무(당나무와 다른 것이라 함)
22914	그림자	그늘(나무의) 그림자(사람의) 그름자(사 람의)
22914-1	그늘	그늘이지 머
22915	숲	수피 만:타
22915-0-1	-을	수필 다: 태워따
22915-0-2	-에	숲쏘개 수페 드러가떠니
22916	시원하다	시워:나다
22917	절레	*(없음) 절레열매(보조 제보자1)
22918	칠	칠기 칠기닝쿨
22918-0-1	-에	칠기닝쿠래
22919	가지(枝)	아:치
22920	끝	끝
22920-0-1	-이	끄티 뽀쫘가다
22920-0-2	-을	끄틀 찢러따
22920-0-3	-에	끄태 남자리가
22921	삭정이	삭따리
22921-1	삭정이를 탄다/꺾다/하다	삭따리 탄다
22922	나무	나무 해온다 나무 시머라
22922-0-1	-을	나무럴 비어따
22922-0-2	-에	나무애 올라가따
22923	나무하다	나무해 온다 나무하러 가씨
22924	그루터기	나무등클 나무끝 나무등커리
22924-1	그루터기	베끝 수수끝
22925	등걸	미똥가지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팬다
22928	부스러기	지즈겹치 지즈겹찌
22929	숯	숯:
22929-0-1	-이	수치 만:타

22929-0-2	-을	수출 거주와라
22929-0-3	-에	수체다
22930	불잉걸	관불
22931	씩	씩튼다
22932	있	이퍼리
22932-0-1	-을	이퍼리럴 따따
22932-1	앞사귀	이퍼리지
22933	가랑앞	가랑닙 가랑니피
22934	뿌리	뿌리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 사과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숭아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수감
23006	고욤	고:염 고여문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
23010	오얏	옹애
23010-0-1	-을	옹애럴 마니
23011	석류	*
23012	모과	*
23013	과일	실과
23014	꼭지	꼭찌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
23015-2	팻밤	*(사물 봤음, 없음)
23015-3	알밤	밤:
23015-4	쌍동밤	쌍밤
23016	보늬	밤: 속껍띠기
23017	호두	호도(자주 '포도'라고 발음함)
23018	가래(秋子)	가래토시

23019	개암	깨굼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차:무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_재배	딸기지
23025-2	딸기(밭)_야생	*
23025-3	딸기(들)_재배	*
23025-4	딸기(들)_야생	산딸기
23025-5	딸기(산)_재배	*
23025-6	딸기(산)_야생	산딸기
23026	뱀딸기	*(이름 모름)
23027	마름(菱)	마르믄 이찌 마르미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꼭때기
23102	기슭	상끼슬기 산기슬기
23102-0-1	-에	상끼슬기에다
23103	골짜기	산꼴짜 상꼴짜기 깎따
23104	메아리	사니올린다 사놀리는 소리다
23105	고함	괘: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괘: 지르지 말라
23106	묘	모:이
23107	뿔자리	모이짜리
23107-1	광중	광장
23108	구덩이	구덩이럴
23109	비탈	산뻬탈
23110	가파르다	(산뻬타리)강하다
23111	언덕	언턱 어터기라 둥산
23112	낭떠러지	뻬랑(대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음)
23113	들(野)	들판

23113-0-1	-에	들파내 이:라러 간다
23114	별	별: 버:리 님따 별파내 이:라러 간다
23115	갈림길	가름길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헤어진다
23117	바위	바우똥(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 바위똥
23117-0-1	-을	바위똥렬 바우똥런
23117-0-2	-에	바우똥루애 바위똥루애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도:렬
23118-0-2	-에	도:래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새
23120-0-1	-를	모새를
23121	진흙	지:늑 지:느개 지:느기
23121-1	찰흙	차:룩 차:르그루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렬 무래
23202	거품	더뽴 더푸미
23203	개운하다	거뽴하다(목욕 후) 시원하다(목욕 후) 깨어나다(자고 난 후)
23204	도랑	도랑 개울(중국에서)
23204-1	붓도랑	보똥
23205	둑	방축 뚝 뚜겅 싸서
23206	잠기다	쟁겨따
23207	개울	개우른 개우리(중국에서)
23208	내(川)	넴물(조사자 제시)
23209	미역 감다	모육한다
23210	발가숭이	빨개똥이
23211	목욕하다	모육하는데
23212	수채	수채꾸넉 수채-구멍
23213	개골창	수채물또랑
23214	시궁창	*(이름 모름)
23215	웅덩이	웅:덩이

23216	수렁	*(이름 모름)
23217	늪	습찌지대지
23217-0-1	-에	습찌지대애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나루때
23220	돛	풍선
23220-0-1	-에	풍서내
23221	돛대	도때
23222	돛배	도때배
23223	돛 줄	풍선줄
23224	돛줄	걸고리줄
23225	거루	쪽빠
23226	상앗대	사때(조사자 제시)
23227	개펄	*(모름)
23228	물	육찌루
23228-0-1	-으로	육찌라 그라지
23229	밀물	조:수가 드러온다
23230	썰물	조수가 나간다
23231	가라앉다	까라안찌 까라안는다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모름)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복
23302	새벽밥	새복빤머꾸 새복빠비라구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빠블
23305	점심	점슴빤 점슴(시간)
23306	저녁	저녀개 저녁
23307	설빔하다	(해가)설피타개 다 전는데
23308	노을	너우리 해너우리 해너울 씨워따
23308-0-1	-을	해너우를 보구 이따
23309	불그레하다	불구불구하지 별:거치
23310	해거름	해질무릅 해질무루배

23311	땅거미	cf.땅금(깜깜해서 앞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위가 오래간다
23315	추위	추비가 오래간다
23316	가을	가을철
23316-0-1	-에	가으래 가퍼 줄까
23317	겨울	동삼 겨울
23317-0-1	-에	동사매 온다 겨우래 온다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낼:
23321	모래	모:래
23322	글피	글패
23323	그글피	그글패
23324	어제	어재
23325	그저께	그저깨
23326	그그저께	그끄저깨
23327	훗날	후애 만나자
23328	하룻날	초하루 초하룻날
23329	이튿날	초이틀 초이튿날
23330	사흘날	초새밀 초사흘 초사밀날
23331	나흘날	초사일 초나흘 초나흔날
23332	닷새날	초다쎄 초다쨌날
23333	엿새날	초여쎄 초여쨌날
23334	이렛날	초이레 초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초야드레 초야들렌날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레 아흐렌날
23337	열흘날	여를 초여를날
23338	하루	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라흘
23342	닷새	다쎄
23343	엿새	여쎄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한나저른
23348-1	반나절	반:나절
23349	그믐	그믐날 그믐(조사자 제시)
23349-1	그믐께	그믐께 가서
23350	지금	지금 달라
23351	아직	아즉
23352	이제	인차 머글라 그란다 인재 머글라구 한다
23353	이미	이미 도러가셔따(조사자 제시)
23354	요즈음	요즈매
23355	금방	곰만 머꾸와따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해뻘테 해짱
23401-0-1	-이	해짱이 해뻘치라구두
23401-0-2	-을	해뻘털
23402	따스하다	따뜨다다 따닫-다다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
23404	음달	음달쪽 음달
23405	양달	양달쪽 양달
23406	비(雨)	비 온다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이실비 내리네
23409	안개	안: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낙기	소낙뻘
23413	갑자기	갑짜기 베락씨리
23414	홍수	장마
23415	번개	번개
23416	천둥	천둥 한다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섭따 무서워서
23419	함박눈	함방누니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자우기 눈짜우기 발짜국이 난다 발자 욱
23422	진눈깨비	진드깨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래미
23425	햇무리	햄물
23426	달무리	달물
23427	둥글다	똥구라타 둥구라타
23428	은하수	느나수(조사자 제시)
23429	금성	새뿔
23430	가뭄	가무리 드러따
23431	마르다	마른다
23431-0-1	-어서	말라 마르니까
23432	위	우:루 올라간다 위:
23433	아래	(산) 아래루 아래라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오른쪽(다) 바른쪼기라구
23436	결	(내)겨트루 와라
23436-0-1	-에	내 겨티와 안저따 네 겨티르 안 떠난다 네 겨틀 떠나지 안는다
23437	회오리바람	회어리바람 돌개바람(다, 중국에서)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제 3 편 음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	테(輪)	테
31001-0-1	-이/가	테가
31001-0-2	-보다	테보다
31002	태(胎)	태
31002-0-1	-이/가	태가
31002-0-2	-보다	태보다
31003	떼(群)	떼
31003-0-1	-이/가	떼를 지어 떼가
31003-0-2	-보다	떼보다
31004	때(時)	때
31004-0-1	-이/가	때가
31004-0-2	-보다	때보다
31005	틀(機)	틀
31005-0-1	-이/가	트리
31005-0-2	-보다	틀보다
31006	털(毛)	털
31006-0-1	-이/가	터리
31006-0-2	-보다	털보더
31007	글(文)	글
31007-0-1	-이/가	그리
31007-0-2	-보다	글보다
31008	컬(鬘)	컬
31008-0-1	-이/가	커리
31008-0-2	-보다	컬보다
31009	기(旗)	기:

31009-0-1	-이/가	기가
31009-0-2	-보다	기보다
31010	귀(耳)	귀
31010-0-1	-이/가	귀가
31010-0-2	-보다	귀보다
31011	시(生時)	시:럴 시:에
31011-0-1	-이/가	시:가
31011-0-2	-보다	시:보다
31012	쉬(蠅卵)	쉬:
31012-0-1	-이/가	쉬가
31012-0-2	-보다	쉬:보다
31013	쇠(鐵)	쇠때루
31013-0-1	-이/가	쇠때가
31013-0-2	-보다	쇠때보다
31014	외:국(外國)	외:국
31014-0-1	-이/가	외:구기
31014-0-2	-보다	외국뿐다
31015	왜국(倭國)	외:국 왜:눔 외:눔
31015-0-1	-이/가	외구기여 외누미라 외누미
31015-0-2	-보다	외눔보다
31016	쉬:다(休)	쉴:다
31016-0-1	-이/가	쉬:서 쉬:구
31016-0-2	-보다	쉬:지
31017	쇠:다(설을~)	쇠:자 쉬:자
31017-0-1	-이/가	쉬구 쇠:구
31017-0-2	-보다	쉬쓰니까
31018	베(布)	베는
31018-0-1	-이/가	베가
31018-0-2	-보다	베보다
31019	배(船)	배
31019-0-1	-이/가	배가

31019-0-2	-보다	배보다
31020	배(腹)	배
31020-0-1	-이/가	배가
31020-0-2	-보다	배보다
31021	(떡)메	평메 메
31021-0-1	-이/가	평메가 메가
31021-0-2	-보다	평메보다 메보다
31022	매(鞭)	매
31022-0-1	-이/가	매가
31022-0-2	-보다	매:보다는
31023	메:다(擔)	민:다 멘:다
31023-0-1	-이/가	미:구 메구 간다
31023-0-2	-보다	미지 메지 말라
31024	매:다(繫)	맨:다
31024-0-1	-이/가	매:구
31024-0-2	-보다	(꿍)매지 매:능기구
31025	떼:다(分離)	텐다
31025-0-1	-이/가	떼구
31025-0-2	-보다	떼지
31026	때:다(炊)	뎌다
31026-0-1	-이/가	때구
31026-0-2	-보다	때지
31027	베:다(切斷)	벤:다 빈:다
31027-0-1	-이/가	베:구 비:구
31027-0-2	-보다	베지 비지
31028	배:다(孕胎)	배:따
31028-0-1	-이/가	(새끼)배:따
31028-0-2	-보다	배:서
31029	세:다(算)	센:다
31029-0-1	-이/가	세:구
31029-0-2	-보다	세지

31030	새:다(漏泄)	샌:다
31030-0-1	-이/가	새:구
31030-0-2	-보다	새지
31031	뒤(後)	뒤
31031-0-1	-이/가	뒤가
31031-0-2	-보다	뒤보다
31032	되(升)	되박 데박
31032-0-1	-이/가	데박기
31032-0-2	-보다	데박쁘다 되박쁘다
31033	게:(蟹)	게:
31033-0-1	-이/가	게:가
31033-0-2	-보다	게:보다
31034	개:(犬)	개
31034-0-1	-이/가	개:가
31034-0-2	-보다	개:보다

3.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31035-0-1	-이/가	여:러시
31035-0-2	-보다	여:런쁘다
31035-0-3	-을/를	여:러설
31036	물결(波)	
31036-0-1	-이/가	물겨리라구두
31036-0-2	-보다	물결보다
31036-0-3	-을/를	물껴를
31037	예:의(禮儀)	
31037-0-1	-이/가	례:저리 례:가
31037-0-2	-보다	례절보다
31037-0-3	-을/를	례저를
31038	계:획(計劃)	

31038-0-1	-이/가	계:회기
31038-0-2	-보다	계:획뵤다
31038-0-3	-을/를	계:회글 계:회걸
31039	규칙(規則)	
31039-0-1	-이/가	귀:치기
31039-0-2	-보다	귀:칙뵤다
31039-0-3	-을/를	귀:치걸
31040	휴일(休日)	
31040-0-1	-이/가	쉬싱나리
31040-0-2	-보다	쉬싱날보다
31040-0-3	-을/를	쉬싱나럴
31041	교통(交通)	
31041-0-1	-이/가	교통이
31041-0-2	-보다	교통보다
31041-0-3	-을/를	교통얼
31042	효:자(孝子)	
31042-0-1	-이/가	효:자가
31042-0-2	-보다	효:자보다
31042-0-3	-을/를	효:자럴
31043	웬일(何事)	
31043-0-1	-이/가	웬니리여
31043-0-2	-보다	웬닐루
31043-0-3	-을/를	무순닐루
31044	궤:(꺈)(櫃)	
31044-0-1	-이/가	궤:([kue])꺈기 크다
31044-0-2	-보다	궤:([kwe])꺈-보다
31044-0-3	-을/를	궤:([kwe])꺈걸
31045	왜란(倭亂)	
31045-0-1	-이/가	*/외:눔더리
31045-0-2	-보다	*/외:눔보다
31045-0-3	-을/를	*/외:눔덜

31046	헛대(鷄架)	
31046-0-1	-이/가	회에 회가
31046-0-2	-보다	회:보다
31046-0-3	-을/를	회:럴
31047	원망(怨望)	
31047-0-1	-이/가	원:망이라는
31047-0-2	-보다	원:망보다
31047-0-3	-을/를	원:망얼
31048	권:투(拳鬪)	
31048-0-1	-이/가	권:투가
31048-0-2	-보다	권:투보다
31048-0-3	-을/를	권:투럴
31049	의논(議論)	
31049-0-1	-이/가	이노니
31049-0-2	-보다	이논보다
31049-0-3	-을/를	이노널
31050	무늬(紋)	문 무니
31050-0-1	-이/가	무니(문+이)
31050-0-2	-보다	문보다는 무니보다
31050-0-3	-을/를	무니럴
31051	왕(王)	
31051-0-1	-이/가	왕:이라
31051-0-2	-보다	왕:보다
31051-0-3	-을/를	왕:얼
31052	과자(菓子)	
31052-0-1	-이/가	과자가
31052-0-2	-보다	과자보다
31052-0-3	-을/를	과자럴

3.1.3. 장모음·성조

31053	일(一)	
31053-0-1	-이/가	이리 더
31053-0-2	-보다	·일보다
31054	일:(事)	
31054-0-1	-이/가	·이:리지 일:하러 간다
31054-0-2	-보다	일:보다
31055	매(鞭)	매 때린다(짧다고 함)
31055-0-1	-이/가	매:가
31055-0-2	-보다	매보다
31056	매:(鷺)	매:
31056-0-1	-이/가	매:가
31056-0-2	-보다	매:보다
31057	밤(夜)	
31057-0-1	-이/가	바:미지 바미
31057-0-2	-보다	밤보다
31058	밤:(栗)	
31058-0-1	-이/가	바:미
31058-0-2	-보다	밤:보다
31059	눈(眼)	
31059-0-1	-이/가	누:니 누니
31059-0-2	-보다	눈보다
31060	눈:(雪)	
31060-0-1	-이/가	누:니
31060-0-2	-보다	눈:보다
31061	말(馬)	
31061-0-1	-이/가	마:리
31061-0-2	-보다	말보다
31062	말(斗)	
31062-0-1	-이/가	몸마리

31062-0-2	-보다	몸말보다
31063	말:(言)	
31063-0-1	-이/가	마:리 마:를
31063-0-2	-보다	말:보다
31064	손(客)	
31064-0-1	-이/가	소니라구 손니미
31064-0-2	-보다	손님보다
31065	손(手)	
31065-0-1	-이/가	소니
31065-0-2	-보다	손보다
31066	손:(孫)	
31066-0-1	-이/가	소니
31066-0-2	-보다	손보다
31067	배(梨)	
31067-0-1	-이/가	배가
31067-0-2	-보다	배보다
31068	배:(倍)	
31068-0-1	-이/가	배: 더 크다 배가
31068-0-2	-보다	배보다
31069	벌(罰)	
31069-0-1	-이/가	벌스기 무서워서 버털
31069-0-2	-보다	벌보다
31070	벌:(蜂)	
31070-0-1	-이/가	버:리가
31070-0-2	-보다	버:리보다
31071	솔(松)	
31071-0-1	-이/가	소:리거덩 소:리
31071-0-2	-보다	솔라무보다
31072	솔:(刷)	
31072-0-1	-이/가	소ړ 썬야 소리라 그라구
31072-0-2	-보다	솔:보다

31073	줄(鉉)	
31073-0-1	-이/가	주리
31073-0-2	-보다	빨래줄보다
31074	줄:(연장)	
31074-0-1	-이/가	주:리지
31074-0-2	-보다	줄:보다
31075	돌:(石)	
31075-0-1	-이/가	도:리
31075-0-2	-보다	돌:보다
31076	담(牆)	
31076-0-1	-이/가	다미
31076-0-2	-보다	담보다
31077	담:(膽)	
31077-0-1	-이/가	담 절러따 담 드러따 다:미 드러서
31077-0-2	-보다	담보다
31078	들:(野)	
31078-0-1	-이/가	드:레 드:리 넘따
31078-0-2	-보다	들:보다
31079	달-(縣)	
31079-0-1	-고	달구
31079-0-2	-더라	·달드라
31080	달-(甘)	
31080-0-1	-고	달구
31080-0-2	-더라	·달드라
31081	달:- (熱)	
31081-0-1	-고	달쿠
31081-0-2	-더라	달드라
31082	갈-(換)	
31082-0-1	-고	가러마추구 이따
31082-0-2	-더라	가러 마취따
31083	갈-(磨)	

31083-0-1	-고	(카릴)갈구
31083-0-2	-더라	·간:다 ·갈아서
31084	갈:- (耕)	
31084-0-1	-고	갈:구
31084-0-2	-더라	·갈지 ·갈아서
31085	갈:- (收)	
31085-0-1	-고	거두구
31085-0-2	-더라	·거더서
31086	갈:- (步)	
31086-0-1	-고	거떠라
31086-0-2	-더라	·거:러간다
31087	적:- (書)	정는다
31087-0-1	-고	저꾸
31087-0-2	-더라	적떠라
31088	적:- (小)	작:따
31088-0-1	-고	자:꾸(小) cf. 적떠라(少)
31088-0-2	-더라	작:떠라(小)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 항목

32001	막:- (防) [ㄱ]	망는다
32001-0-1	-지	막찌
32001-0-2	-고	마꾸
32001-0-3	-더라	막떠라
32001-0-4	-으니까	마그니까
32001-0-5	-아/어(-았/었다)	(꿍)마거라
32002	흐르:- (流) [ㅡ]	
32002-0-1	-지	흐르지
32002-0-2	-고	흐르구

32002-0-3	-더라	호르더라
32002-0-4	-으니까	호르니까
32002-0-5	-아/어(-왔/었다)	홀러가지
32003	오-(來)[ㄴ]	
32003-0-1	-지	도러오지
32003-0-2	-고	도러오구
32003-0-3	-더라	도러오더라
32003-0-4	-으니까	도러오니까
32003-0-5	-아/어(-왔/었다)	도러와따
32004	듣-(聞)[ㄷ 변]	
32004-0-1	-지	드찌 모탄다
32004-0-2	-고	드꾸
32004-0-3	-더라	드떠라
32004-0-4	-으니까	드르니까
32004-0-5	-아/어(-왔/었다)	드러따
32005	많:-(多)[ㄴ]	
32005-0-1	-지	만:치
32005-0-2	-고	망:쿠 망:케
32005-0-3	-더라	만:트라
32005-0-4	-으니까	마:너서
32005-0-5	-아/어(-왔/었다)	마:너서
32006	맡-(任)[ㄷ]	
32006-0-1	-지	마찌
32006-0-2	-고	마구
32006-0-3	-더라	마떠라
32006-0-4	-으니까	마트니까
32006-0-5	-아/어(-왔/었다)	마터 마터따
32007	알:-(知)[ㄷ]	
32007-0-1	-지	알:지
32007-0-2	-고	알:구
32007-0-3	-더라	알:드라

32007-0-4	-으니까	아르니
32007-0-5	-아/어(-왔/었다)	아리따
32008	감:- (閉眼)[口]	
32008-0-1	-지	감:찌
32008-0-2	-고	강:꾸
32008-0-3	-더라	감:떠라
32008-0-4	-으니까	가무니까
32008-0-5	-아/어(-왔/었다)	(꼭)까머따
32009	벗-(脫)[人]	
32009-0-1	-지	빼찌
32009-0-2	-고	빼꾸
32009-0-3	-더라	빼떠라
32009-0-4	-으니까	빼스니까
32009-0-5	-아/어(-왔/었다)	빼서따
32010	올-(可)[人]	
32010-0-1	-지	올치
32010-0-2	-고	올쿠
32010-0-3	-더라	올:트라
32010-0-4	-으니까	오르니까
32010-0-5	-아/어(-왔/었다)	오러서
32011	입-(着衣)[口]	
32011-0-1	-지	입찌
32011-0-2	-고	이꾸 입꾸
32011-0-3	-더라	(자꾸)입떠라
32011-0-4	-으니까	이부니까
32011-0-5	-아/어(-왔/었다)	이버서
32012	바꾸-(換)[口]	
32012-0-1	-지	바꾸지
32012-0-2	-고	바꾸구
32012-0-3	-더라	바꾸드라
32012-0-4	-으니까	(다)바구니까

32012-0-5	-아/어(-았/었다)	(다) 바뀌따
32013	덮-(覆)[교]	
32013-0-1	-지	덮찌
32013-0-2	-고	덮꾸
32013-0-3	-더라	덮떠라
32013-0-4	-으니까	덮푸니까
32013-0-5	-아/어(-았/었다)	덮퍼따
32014	묻:- (問)[ㄷ 변]	
32014-0-1	-지	무리보지
32014-0-2	-고	무리보구
32014-0-3	-더라	무리보더라
32014-0-4	-으니까	무리보니까
32014-0-5	-아/어(-았/었다)	무리바따
32015	낯:- (癒)[ㅅ 변]	
32015-0-1	-지	(잘)낯:찌
32015-0-2	-고	(잘)낯:꾸
32015-0-3	-더라	나:뜨라
32015-0-4	-으니까	나스니까
32015-0-5	-아/어(-았/었다)	나서따
32016	닫-(閉)[ㄷ]	
32016-0-1	-지	다찌
32016-0-2	-고	다꾸
32016-0-3	-더라	다떠라
32016-0-4	-으니까	다드니까
32016-0-5	-아/어(-았/었다)	다다따
32017	쫓-(追)[ㅈ]	
32017-0-1	-지	쫓찌
32017-0-2	-고	쫓꾸
32017-0-3	-더라	쫓떠라
32017-0-4	-으니까	쫓추니까
32017-0-5	-아/어(-았/었다)	쫓쳐따

32018	베:-(枕)[베]	
32018-0-1	-지	베지
32018-0-2	-고	베구
32018-0-3	-더라	베:더라
32018-0-4	-으니까	베니
32018-0-5	-아/어(-왔/었다)	베따
32019	깨:-(破)[깨]	
32019-0-1	-지	깨지
32019-0-2	-고	깨:구
32019-0-3	-더라	깨:드라
32019-0-4	-으니까	깨지니까
32019-0-5	-아/어(-왔/었다)	깨따
32020	펴-(伸)[껴]	
32020-0-1	-지	폐지
32020-0-2	-고	폐구
32020-0-3	-더라	폐:드라
32020-0-4	-으니까	폐니까
32020-0-5	-아/어(-왔/었다)	폐 놔:따 껴: 놔따
32021	밝-(明)[밝]	
32021-0-1	-지	박찌
32021-0-2	-고	바꾸 발꾸(fo)
32021-0-3	-더라	박떠라
32021-0-4	-으니까	발그니
32021-0-5	-아/어(-왔/었다)	발가따 발거저따
32022	삶:-(烹)[람]	
32022-0-1	-지	삼:찌
32022-0-2	-고	상:꾸
32022-0-3	-더라	삼떠라
32022-0-4	-으니까	살무니까
32022-0-5	-아/어(-왔/었다)	살머따
32023	읔-(吟)[읔]	

32023-0-1	-지	(시를)역찌
32023-0-2	-고	여꾸
32023-0-3	-더라	역떠라
32023-0-4	-으니까	여끄니까
32023-0-5	-아/어(-왔/었다)	여꺼따
32024	밟:- (踏) [ㄹ]	
32024-0-1	-지	밟:찌
32024-0-2	-고	바:꾸
32024-0-3	-더라	밟:뜨라
32024-0-4	-으니까	발부니
32024-0-5	-아/어(-왔/었다)	발바따
32025	하-(爲) [ㅏ 변]	
32025-0-1	-지	하지
32025-0-2	-고	하구
32025-0-3	-더라	잘하드라
32025-0-4	-으니까	잘하니
32025-0-5	-아/어(-왔/었다)	(다:)해따
32026	맺-(結) [ㅈ]	
32026-0-1	-지	매찌
32026-0-2	-고	매꾸
32026-0-3	-더라	매뜨라
32026-0-4	-으니까	매즈닝까
32026-0-5	-아/어(-왔/었다)	매저서
32027	없:- (無) [ㅁ]	
32027-0-1	-지	업찌
32027-0-2	-고	업:꼬
32027-0-3	-더라	업뜨라
32027-0-4	-으니까	업쓰니까
32027-0-5	-아/어(-왔/었다)	(도니)업써서
32028	앉-(坐) [ㅈ]	
32028-0-1	-지	안:찌

32028-0-2	-고	앙:꾸
32028-0-3	-더라	안:뜨라 비비드라
32028-0-4	-으니까	안즈니까
32028-0-5	-아/어(-왔/었다)	안저
32029	비비-(刮)[ㅂ]	
32029-0-1	-지	비비지
32029-0-2	-고	비비구
32029-0-3	-더라	·비비드라
32029-0-4	-으니까	비비니까
32029-0-5	-아/어(-왔/었다)	비벼서
32030	끄-(消)[ㅡ]	
32030-0-1	-지	끄지
32030-0-2	-고	끄구
32030-0-3	-더라	끄더라
32030-0-4	-으니까	끄녕까
32030-0-5	-아/어(-왔/었다)	꺼서
32031	꺾-(折)[ㄱ]	
32031-0-1	-지	꺾찌
32031-0-2	-고	꺾꾸
32031-0-3	-더라	꺾뜨라
32031-0-4	-으니까	꺾끄니까
32031-0-5	-아/어(-왔/었다)	꺾꺼따
32032	신:-(履)[ㄴ]	
32032-0-1	-지	신:찌
32032-0-2	-고	신:꼬
32032-0-3	-더라	신:뜨라
32032-0-4	-으니까	신느니
32032-0-5	-아/어(-왔/었다)	신너서
32033	보-(視)[ㅂ]	
32033-0-1	-지	보지
32033-0-2	-고	보구

32033-0-3	-더라	보더라
32033-0-4	-으니까	보니까
32033-0-5	-아/어(-왔/었다)	(처다)봐:서
32034	추-(舞)[ㄷ]	
32034-0-1	-지	추지
32034-0-2	-고	추구
32034-0-3	-더라	추더라
32034-0-4	-으니까	추니까
32034-0-5	-아/어(-왔/었다)	취서
32035	피우-(吸煙)[ㅍ]	
32035-0-1	-지	피우지
32035-0-2	-고	피우구
32035-0-3	-더라	피우더라
32035-0-4	-으니까	피우니까
32035-0-5	-아/어(-왔/었다)	피워서
32036	서-(立)[ㅅ]	
32036-0-1	-지	(이러)스지
32036-0-2	-고	(이러)스구
32036-0-3	-더라	(이러)스드라
32036-0-4	-으니까	(이러)스니까
32036-0-5	-아/어(-왔/었다)	서서 서따
32037	기-(匍腹)[ㄱ]	
32037-0-1	-지	기지
32037-0-2	-고	겨가구 기:구
32037-0-3	-더라	(잘)기더라
32037-0-4	-으니까	기니까
32037-0-5	-아/어(-왔/었다)	크:간다 겨: 간다 겨가지
32038	이-(戴)[ㅇ]	
32038-0-1	-지	이:지
32038-0-2	-고	이:구
32038-0-3	-더라	이:더라

32038-0-4	-으니까	이:니
32038-0-5	-아/어(-왔/었다)	여:서
32039	아니-(呑)[ㅣ]	
32039-0-1	-지	아이지
32039-0-2	-고	아니구
32039-0-3	-더라	아니더라 아니드라
32039-0-4	-으니까	아니니까 아니닝까
32039-0-5	-아/어(-왔/었다)	*
32040	되-(升)[ㅅ]	
32040-0-1	-지	되지
32040-0-2	-고	되:구
32040-0-3	-더라	되:더라
32040-0-4	-으니까	되:니까
32040-0-5	-아/어(-왔/었다)	돼:따
32041	있-(有)[ㅅ]	
32041-0-1	-지	(지베)이찌
32041-0-2	-고	(지베)이꾸
32041-0-3	-더라	(지베)이떠라
32041-0-4	-으니까	(지베)이씨니까
32041-0-5	-아/어(-왔/었다)	(지베)이씨따
32042	놓-(放)[ㅎ]	
32042-0-1	-지	(옹:겨)노치
32042-0-2	-고	(옹:겨)노쿠
32042-0-3	-더라	(옹:겨)노터라
32042-0-4	-으니까	(탕)노니까
32042-0-5	-아/어(-왔/었다)	(옹:겨)놔:따
32043	훔-(扱)[ㅈ]	
32043-0-1	-지	훔찌
32043-0-2	-고	훔꾸
32043-0-3	-더라	훔떠라
32043-0-4	-으니까	훔트니까

32043-0-5	-아/어(-왔/었다)	홀터서
32044	곶:-(麗)[ㄴ 변]	
32044-0-1	-지	곶찌 이뿌지
32044-0-2	-고	곶꼬 이뿌구
32044-0-3	-더라	곶뜨라
32044-0-4	-으니까	이:뿌니 고부니 고우니여
32044-0-5	-아/어(-왔/었다)	고와서 이빠서
32045	쥐:-(握)[ㄱ]	
32045-0-1	-지	쥐:지
32045-0-2	-고	쥐:구
32045-0-3	-더라	쥐:더라
32045-0-4	-으니까	쥐:니까
32045-0-5	-아/어(-왔/었다)	쥐:따
32046	가-(去)[ㅏ]	
32046-0-1	-지	가지
32046-0-2	-고	가구
32046-0-3	-더라	가드라
32046-0-4	-으니까	가닝까
32046-0-5	-아/어(-왔/었다)	가따

2) 일반 항목

32047	먹-(食)	
32047-0-1	"{-지,-고,-더라}"	먹떠라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암만)머거두
32048	뜯-(摘)	
32048-0-1	"{-지,-고,-더라}"	뜨꾸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따
32049	같-(如)	
32049-0-1	"{-지,-고,-더라}"	또까따 똑-가떠라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또까터서 또까트구
32050	얕-(-淺)	
32050-0-1	"{-지,-고,-더라}"	야떠라 얕꾸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야터서
32051	흩-(-散)	
32051-0-1	"{-지,-고,-더라}"	헤치지 호터지지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헤쳐따 호터저따 허터 놔따
32052	날-(-飛)	
32052-0-1	"{-지,-고,-더라}"	(잘)나르구 (잘)나르더라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잘)나려서 날려서
32053	울-(-泣)	
32053-0-1	"{-지,-고,-더라}"	울:구 울:지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우리따 우러서
32054	일-(-洶)	
32054-0-1	"{-지,-고,-더라}"	일:구 일:지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이러따
32055	얼-(-凍)	
32055-0-1	"{-지,-고,-더라}"	얼:지 얼:더라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어:러따 어:러서
32056	넘-(-越)	
32056-0-1	"{-지,-고,-더라}"	넘떠라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너머따
32057	숨-(-隱)	
32057-0-1	"{-지,-고,-더라}"	숨:꾸 숨:떠라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수머따
32058	쉽-(-易)	
32058-0-1	"{-지,-고,-더라}"	쉽떠라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쉬워서
32059	눅:- (臥)	
32059-0-1	"{-지,-고,-더라}"	눅찌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누버따 누버서
32060	깁:- (縫)	
32060-0-1	"{-지,-고,-더라}"	꼬매드라 깁찌 깁꾸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꼬매따 기버따
32061	밋:- (憎)	
32061-0-1	"{-지,-고,-더라}"	밋찌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미버서 미워서
32062	높:- (高)	
32062-0-1	"{-지,-고,-더라}"	놉뜨라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노퍼서
32063	짓:- (作)	
32063-0-1	"{-지,-고,-더라}"	지:찌 지꾸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지어따 지어서
32064	붓:- (腫)	
32064-0-1	"{-지,-고,-더라}"	불떠라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서따 뷔:서
32065	웃:- (笑)	
32065-0-1	"{-지,-고,-더라}"	윤편라 윤편찌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우서따
32066	죇:- (吠)	
32066-0-1	"{-지,-고,-더라}"	죇뜨라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지서따
32067	꽂:- (插)	
32067-0-1	"{-지,-고,-더라}"	꽂찌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꼬져서
32068	낱-(産)	
32068-0-1	"{-지,-고,-더라}"	나:쿠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나:따
32069	땅:-(辯)	
32069-0-1	"{-지,-고,-더라}"	따쿠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따:서
32070	끓-(切)	
32070-0-1	"{-지,-고,-더라}"	끈찌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끄너따
32071	괜찮-(無妨)	
32071-0-1	"{-지,-고,-더라}"	괜창쿠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괜차나서
32072	읽-(讀)	
32072-0-1	"{-지,-고,-더라}"	일꾸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일거서
32073	땀:-(澁)	
32073-0-1	"{-지,-고,-더라}"	땀꾸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뜰:버서
32074	옮:-(遷)	
32074-0-1	"{-지,-고,-더라}"	옴:찌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올머따
32075	통:-(貫)	
32075-0-1	"{-지,-고,-더라}"	뚝꼬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뜰버서
32076	꿇-(跪)	
32076-0-1	"{-지,-고,-더라}"	꾸꾸 꿇찌 꿇꼬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꾸러따
32077	닿-(抗, 연필 심이 ~)	
32077-0-1	"{-지,-고,-더라}"	달트라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다려따
32078	닿:-(煎, 솥에서 장이 ~)	
32078-0-1	"{-지,-고,-더라}"	다리구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다려따
32079	짜-(鹽)	
32079-0-1	"{-지,-고,-더라}"	짜구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짜서
32080	말-(捲)	
32080-0-1	"{-지,-고,-더라}"	말더라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다:)마려따
32081	쓰-(書)	
32081-0-1	"{-지,-고,-더라}"	쓰:구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써따
32082	오르-(登)	
32082-0-1	"{-지,-고,-더라}"	올러가지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올러가따
32083	바쁘-(忙)	
32083-0-1	"{-지,-고,-더라}"	바뿌지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바빠서
32084	고프-(餓)	
32084-0-1	"{-지,-고,-더라}"	(배가)고푸지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배가)고퍼서
32085	쏘-(射)	
32085-0-1	"{-지,-고,-더라}"	쏘지

3208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썩:서
32086	꾸-(夢)	
32086-0-1	"{-지,-고,-더라}"	꾸지
3208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뀌:따
32087	머무르-(留)	
32087-0-1	"{-지,-고,-더라}"	머무르지
3208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머물러따
32088	다듬-(整)	
32088-0-1	"{-지,-고,-더라}"	다듬꼬
3208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드머따
32089	견디-(忍)	
32089-0-1	"{-지,-고,-더라}"	견디구
3208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견디어서
32090	마르-(裁)	
32090-0-1	"{-지,-고,-더라}"	말그지
3209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말거따
32091	끼-(烟鎖, 안개가 ~)	
32091-0-1	"{-지,-고,-더라}"	끼지
3209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끼어따
32092	마시-(飲)	
32092-0-1	"{-지,-고,-더라}"	마시지
3209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마셔따
32093	세:-(強)	
32093-0-1	"{-지,-고,-더라}"	세:구 세드라
3209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세서
32094	포개-(重疊)	
32094-0-1	"{-지,-고,-더라}"	포개지

3209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포개따
32095	두드리-(敲)	
32095-0-1	"{-지,-고,-더라}"	두디리지
3209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두디려따
32096	켜-(點燈)	
32096-0-1	"{-지,-고,-더라}"	키지
3209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키어따 켜 노코
32097	췌:- (바람을)	
32097-0-1	"{-지,-고,-더라}"	췌우고
3209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췌여따
32098	쇠-(老)	
32098-0-1	"{-지,-고,-더라}"	쉐:지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쉐:따
32099	쉬:- (饅, 밥이 ~)	
32099-0-1	"{-지,-고,-더라}"	쉬:지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쉐:서
32100	희-(白)	
32100-0-1	"{-지,-고,-더라}"	새타야쿠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새타애서
32101	볶-(炒)	
32101-0-1	"{-지,-고,-더라}"	보꾸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꺼따 보꺼따
32102	안:- (抱)	
32102-0-1	"{-지,-고,-더라}"	안:꾸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아너따
32103	묻-(埋)	
32103-0-1	"{-지,-고,-더라}"	묻찌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무더따
32104	불:-(吹)	
32104-0-1	"{-지,-고,-더라}"	불:구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러따
32105	빨-(洗濯)	
32105-0-1	"{-지,-고,-더라}"	빨구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빠러따
32106	죽-(死)	
32106-0-1	"{-지,-고,-더라}"	죽찌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주거따
32107	걸:-(步)	
32107-0-1	"{-지,-고,-더라}"	거:찌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거러따
32108	가물-(旱)	
32108-0-1	"{-지,-고,-더라}"	가물지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무러서
32109	졸:-(睡)	
32109-0-1	"{-지,-고,-더라}"	자불구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부러워서 자부러따
32110	쓸-(掃)	
32110-0-1	"{-지,-고,-더라}"	쓸지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쓰러따
32111	감:-(捲)	
32111-0-1	"{-지,-고,-더라}"	감:꾸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가머따
32112	더듬-(摸)	
32112-0-1	"{-지,-고,-더라}"	더듬찌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더드머서
32113	굽:- (炙)	
32113-0-1	"{-지,-고,-더라}"	굽찌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구버
32114	무겁-(重)	
32114-0-1	"{-지,-고,-더라}"	무거꾸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무거워서
32115	잇:- (連)	
32115-0-1	"{-지,-고,-더라}"	이:찌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이:서라
32116	빗-(梳)	
32116-0-1	"{-지,-고,-더라}"	비꾸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비서따
32117	까맣-(黑)	
32117-0-1	"{-지,-고,-더라}"	꺼:머꾸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까:매서
32118	넣-(入)	
32118-0-1	"{-지,-고,-더라}"	여:치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여:라
32119	고:- (煮)	
32119-0-1	"{-지,-고,-더라}"	고:치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과:라
32120	없-(載)	
32120-0-1	"{-지,-고,-더라}"	어:찌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언저따
32121	귀찮-(囁)	

32121-0-1	"{-지,-고,-더라}"	귀창캐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귀차나서
32122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1	"{-지,-고,-더라}"	바르지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발러라
32123	맑-(淸)	
32123-0-1	"{-지,-고,-더라}"	말꼬 막뜨라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말거서
32124	굵:- (膿)	
32124-0-1	"{-지,-고,-더라}"	곰찌 콩:꾸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골머따
32125	굵:- (太)	
32125-0-1	"{-지,-고,-더라}"	국:떠라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굴:거서
32126	얇:- (薄)	
32126-0-1	"{-지,-고,-더라}"	얇:뜨라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알버서
32127	쫄-(春, 곡식을 절구에다 ~)	
32127-0-1	"{-지,-고,-더라}"	쫄지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쓰러 내다 쓰러따
32128	잃-(失)	
32128-0-1	"{-지,-고,-더라}"	일치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이러따
32129	핥-(舐)	
32129-0-1	"{-지,-고,-더라}"	핥꼬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핥터따

32130	짧-(短)	
32130-0-1	"{-지,-고,-더라}"	짧꼬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짧버서
32131	놀라-(驚)	
32131-0-1	"{-지,-고,-더라}"	놀래구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놀래서
32132	자-(宿)	
32132-0-1	"{-지,-고,-더라}"	자구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따
32133	못:하-(不爲)	
32133-0-1	"{-지,-고,-더라}"	모타드라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모태따
32134	모르-(不知)	
32134-0-1	"{-지,-고,-더라}"	모르더라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몰:러서
32135	아프-(痛)	
32135-0-1	"{-지,-고,-더라}"	아푸지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아퍼서
32136	크-(大)	
32136-0-1	"{-지,-고,-더라}"	크지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커따
32137	꼬-(索, 새끼를 ~)	
32137-0-1	"{-지,-고,-더라}"	꼬:구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꼬아따 꺾:서
32138	쭈-(造)	
32138-0-1	"{-지,-고,-더라}"	쭈지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왔	쭈:서

32139	/있다}" 맞추-(組合)	
32139-0-1	"{-지,-고,-더라}"	마추구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똥)마취따
32140	테우-(悟)	
32140-0-1	"{-지,-고,-더라}"	테우지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테위따
32141	이:-(盖, 지붕을 ~)	
32141-0-1	"{-지,-고,-더라}"	이:지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여:따
32142	갈기-(打)	
32142-0-1	"{-지,-고,-더라}"	갈기구 갈르지 갈리지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갈려따
32143	기다리-(待)	
32143-0-1	"{-지,-고,-더라}"	기다리구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기다려따
32144	세:-(算)	
32144-0-1	"{-지,-고,-더라}"	세:구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세:따
32145	빼-(拔)	
32145-0-1	"{-지,-고,-더라}"	빼지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빼:라
32146	켜-(引, 톱으로 ~)	
32146-0-1	"{-지,-고,-더라}"	케:지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다:)케:따
32147	되:-(硬)	
32147-0-1	"{-지,-고,-더라}"	되:고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되:서
32148	쉬:- (休)	
32148-0-1	"{-지,-고,-더라}"	쉬:구 쉬지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쉬어따
32149	할퀴-(撻)	
32149-0-1	"{-지,-고,-더라}"	할키지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할켜따
32150	눌:- (焦)	
32150-0-1	"{-지,-고,-더라}"	눌치 눌터라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누러따 누러따
32151	깨달-(覺)	
32151-0-1	"{-지,-고,-더라}"	깨다라따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깨다라따
32152	마렵-(오줌이 ~)	
32152-0-1	"{-지,-고,-더라}"	마렵뜨라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마루워서
32153	부끄럽-(恥)	
32153-0-1	"{-지,-고,-더라}"	부꾸럽떠라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꾸러워
32154	가깝-(近)	
32154-0-1	"{-지,-고,-더라}"	가깝떠라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까버서
32155	깊-(深)	
32155-0-1	"{-지,-고,-더라}"	기푸지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기퍼서
32156	긋:- (劃)	
32156-0-1	"{-지,-고,-더라}"	끄찌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끄서따 끄어서
32157	씻-(洗)	
32157-0-1	"{-지,-고,-더라}"	씨찌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씨쳐서
32158	쥼-(搗)	
32158-0-1	"{-지,-고,-더라}"	찌꾸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찌어따
32159	잡-(搔)	
32159-0-1	"{-지,-고,-더라}"	극찌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글거 놔:따
32160	굶:- (飢)	
32160-0-1	"{-지,-고,-더라}"	굶찌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굴머따
32161	닮:- (似)	
32161-0-1	"{-지,-고,-더라}"	담:깨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달머따
32162	싫-(厭)	
32162-0-1	"{-지,-고,-더라}"	실쿠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러도
32163	꿍-(鞭, 달갈이 ~)	
32163-0-1	"{-지,-고,-더라}"	꼴쿠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고려따 고라따
32164	붓:- (注)	
32164-0-1	"{-지,-고,-더라}"	부:꾸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서따 부어따
32165	타-(乘)	
32165-0-1	"{-지,-고,-더라}"	타구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타따
32166	마르-(乾)	
32166-0-1	"{-지,-고,-더라}"	(잘:)마르고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바깥)말려따
32167	쓰-(苦)	
32167-0-1	"{-지,-고,-더라}"	쓰굽찌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쓰구워서
32168	슬프-(哀)	
32168-0-1	"{-지,-고,-더라}"	슬푸지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슬퍼서
32169	기쁘-(喜)	
32169-0-1	"{-지,-고,-더라}"	기뿌더라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기빠서
32170	쏘-(蜚, 벌이 ~)	
32170-0-1	"{-지,-고,-더라}"	쏘:지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썩:따
32171	주-(興)	
32171-0-1	"{-지,-고,-더라}"	주:고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쥬:따
32172	키우-(育)	
32172-0-1	"{-지,-고,-더라}"	키우구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키워따
32173	가두-(囚)	
32173-0-1	"{-지,-고,-더라}"	가두구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두어따
32174	부수-(碎)	
32174-0-1	"{-지,-고,-더라}"	부시구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셔따
32175	나누-(分)	
32175-0-1	"{-지,-고,-더라}"	노누지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노너따
32176	속이-(欺)	
32176-0-1	"{-지,-고,-더라}"	쏘기구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쏘겨따
32177	끼-(插)	
32177-0-1	"{-지,-고,-더라}"	끼:구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끼어따
32178	튀-(跳)	
32178-0-1	"{-지,-고,-더라}"	뛰지 안캐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뛰어 오른다 뛴:서
32179	괴:-(滄)	
32179-0-1	"{-지,-고,-더라}"	괴:이구 괴:지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괴여서 ·괴여 낱따 ·고여라 ·고여서
32180	여위-(癯)	
32180-0-1	"{-지,-고,-더라}"	예:비지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예:벼서
32181	맵-(辛)	
32181-0-1	"{-지,-고,-더라}"	매벼서 맵찌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매워서
32182	뀌:-(屍)	
32182-0-1	"{-지,-고,-더라}"	뀌:지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뀌어따 궤:서
32183	고치-(改)	
32183-0-1	"{-지,-고,-더라}"	고치구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고쳐야
32184	싣:-(載)	
32184-0-1	"{-지,-고,-더라}"	싣:꾸 싣:찌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러따
32185	얻:-(得)	
32185-0-1	"{-지,-고,-더라}"	어더오지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어'더온다
32186	빻:-(粉碎)	
32186-0-1	"{-지,-고,-더라}"	빻:꾸 빻:치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빻:서
32187	파랗:-(碧)	
32187-0-1	"{-지,-고,-더라}"	파:라트라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파:래서
32188	다르:-(異)	
32188-0-1	"{-지,-고,-더라}"	다르더라 다르고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달러서
32189	푸:-(汲)	
32189-0-1	"{-지,-고,-더라}"	푸구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퍼따
32190	누:-(尿)	
32190-0-1	"{-지,-고,-더라}"	누쿠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누어따
32191	더:럽:-(汚)	
32191-0-1	"{-지,-고,-더라}"	더:럽찌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더:러워서
32192	거두:-(收)	
32192-0-1	"{-지,-고,-더라}"	거찌 말라 거두구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거더라 거두어따
32193	끓-(沸)	
32193-0-1	"{-지,-고,-더라}"	끝치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끄러따
32194	이기-(承)	
32194-0-1	"{-지,-고,-더라}"	이기구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이겨서
32195	부시-(照)	
32195-0-1	"{-지,-고,-더라}"	시쿨지 새쿨지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쿠러서 새쿠러서
32196	자빠지-(後)	
32196-0-1	"{-지,-고,-더라}"	자빠지지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빠저따
32197	일으키-(使起)	
32197-0-1	"{-지,-고,-더라}"	일:쿠구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일궤:따
32198	당기-(引)	
32198-0-1	"{-지,-고,-더라}"	당기구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당겨서
32199	버리-(捨)	
32199-0-1	"{-지,-고,-더라}"	버리지 데디지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버려따 데더따
32200	훔치-(盜)	
32200-0-1	"{-지,-고,-더라}"	훔치지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훔쳐따
32201	지-(負)	
32201-0-1	"{-지,-고,-더라}"	지구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저따
32202	외:-(暗誦)	
32202-0-1	"{-지,-고,-더라}"	에우구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에워따
32203	사귀-(交)	
32203-0-1	"{-지,-고,-더라}"	사귀지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사기워라
32204	썩-(腐)	
32204-0-1	"{-지,-고,-더라}"	썩뜨라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썩거서
32205	질-(泥)	
32205-0-1	"{-지,-고,-더라}"	질:더라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지러서
32206	까불-(箕)	
32206-0-1	"{-지,-고,-더라}"	까불구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까불러따
32207	드물-(稀)	
32207-0-1	"{-지,-고,-더라}"	드물더라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드무러서
32208	줄:-(縮)	
32208-0-1	"{-지,-고,-더라}"	줄지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주러따
32209	심:-(植)	
32209-0-1	"{-지,-고,-더라}"	심찌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머따
32210	쓰다듬-(撫)	
32210-0-1	"{-지,-고,-더라}"	쓰다듬구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쓰다드머따
32211	사:납-(猛)	
32211-0-1	"{-지,-고,-더라}"	사무렵찌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사나버서 사무러워서
32212	가볍-(輕)	
32212-0-1	"{-지,-고,-더라}"	가볍꾸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벼워서
32213	젓:-(撈)	
32213-0-1	"{-지,-고,-더라}"	젓꾸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저서따
32214	두껍-(厚)	
32214-0-1	"{-지,-고,-더라}"	두껍찌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두꺼버서
32215	무르-(軟)	
32215-0-1	"{-지,-고,-더라}"	무루구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물러서
32216	분지르-(折)	
32216-0-1	"{-지,-고,-더라}"	부지르구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지러따
32217	배우-(學)	
32217-0-1	"{-지,-고,-더라}"	배우구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배워따
32218	다리-(屣)	
32218-0-1	"{-지,-고,-더라}"	다리구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려따
32219	후비-(窻, 귀를 ~)	
32219-0-1	"{-지,-고,-더라}"	우비구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우벼따
32220	아리-(痛)	
32220-0-1	"{-지,-고,-더라}"	아리지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아려서
32221	그리-(畵)	
32221-0-1	"{-지,-고,-더라}"	그리구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그려따
32222	저리-(癱)	
32222-0-1	"{-지,-고,-더라}"	저리지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저려서
32223	불리-(增)	
32223-0-1	"{-지,-고,-더라}"	뿔구구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뿔귀따
32224	뜨시-(濫)	
32224-0-1	"{-지,-고,-더라}"	뜨드타구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뜨뜨태서
32225	끓이-(使沸)	
32225-0-1	"{-지,-고,-더라}"	끄리구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끄려서
32226	누비-(縫)	
32226-0-1	"{-지,-고,-더라}"	누비지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다:)누벼따
32227	구기-(皺)	
32227-0-1	"{-지,-고,-더라}"	꾸기지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왔 /있었다}"	꾸겨저따
32228	비:-(空)	
32228-0-1	"{-지,-고,-더라}"	베우지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매:따
32229	식히-(使冷)	
32229-0-1	"{-지,-고,-더라}"	시쿠구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꿔서
32230	매-(草)	
32230-0-1	"{-지,-고,-더라}"	매:구 이따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매:따
32231	매:-(結)	
32231-0-1	"{-지,-고,-더라}"	매:구 (꽁)매지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꽁)매:서
32232	뛰-(走)	
32232-0-1	"{-지,-고,-더라}"	뛰:구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뛰어 간다
32233	담:-(盛)	
32233-0-1	"{-지,-고,-더라}"	담찌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머따
32234	가렵-(癢)	
32234-0-1	"{-지,-고,-더라}"	가렵찌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갈구워서 가루버서 가루워서
32235	때리-(打)	
32235-0-1	"{-지,-고,-더라}"	때리구
3223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때려따
32236	어둡-(暗)	
32236-0-1	"{-지,-고,-더라}"	어둡찌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어두워서
32237	잡-(執)	
32237-0-1	"{-지,-고,-더라}"	잡찌

3223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버따
32238	차-(蹴)	
32238-0-1	"{-지,-고,-더라}"	차구
3223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차따
32239	모자라-(不足)	
32239-0-1	"{-지,-고,-더라}"	모:지라더라
3223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모:지래서
32240	부르-(呼)	
32240-0-1	"{-지,-고,-더라}"	부르지
3224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불러서
32241	따르-(注)	
32241-0-1	"{-지,-고,-더라}"	딸구지
3224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딸귀따
32242	쪼:- (啄)	
32242-0-1	"{-지,-고,-더라}"	쪼찌
3224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쪼서따 쪼:서 쪼시러서
32243	두-(置)	
32243-0-1	"{-지,-고,-더라}"	두지
3224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두어따
32244	시키-(使)	
32244-0-1	"{-지,-고,-더라}"	시키구
3224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켜따
32245	지리-(漏, 오줌을 ~)	
32245-0-1	"{-지,-고,-더라}"	지리구
3224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지려다
32246	던지-(投)	
32246-0-1	"{-지,-고,-더라}"	던지지

3224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던저따
32247	모이-(集)	
32247-0-1	"{-지,-고,-더라}"	모이지
3224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모여라
32248	만지-(揔)	
32248-0-1	"{-지,-고,-더라}"	만지지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만저 본다
32249	쪼:- (擧)	
32249-0-1	"{-지,-고,-더라}"	쪼이구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쪼여따
32250	비틀-(捻)	
32250-0-1	"{-지,-고,-더라}"	비틀지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비트러따
32251	돕:- (助)	
32251-0-1	"{-지,-고,-더라}"	도와주구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도와준다
32252	씹-(咀)	
32252-0-1	"{-지,-고,-더라}"	씹꾸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씹버서
32253	미끄럽-(滑)	
32253-0-1	"{-지,-고,-더라}"	미끌지 미끌드라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미끄러워서
32254	닿-(接)	
32254-0-1	"{-지,-고,-더라}"	다:치 다:뜨라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따
32255	누르-(壓)	
32255-0-1	"{-지,-고,-더라}"	누루지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놀러서
32256	주무르-(揉)	
32256-0-1	"{-지,-고,-더라}"	주물르지 주무르구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주물러서
32257	메우-(填)	
32257-0-1	"{-지,-고,-더라}"	멩구구(중국에서) 메우구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다:)멩귀따(중국에서) 메워라
32258	고소하-(香味)	
32258-0-1	"{-지,-고,-더라}"	고소하다 고소하드라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꼬소해서
32259	내리-(降)	
32259-0-1	"{-지,-고,-더라}"	내리구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내려서
32260	구르-(轉)	
32260-0-1	"{-지,-고,-더라}"	구불구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구부러따
32261	만들-(作)	
32261-0-1	"{-지,-고,-더라}"	맨들구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잘:)맨드러따
32262	늙-(老)	
32262-0-1	"{-지,-고,-더라}"	늑찌 늑꾸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늘거따
32263	앓-(病)	
32263-0-1	"{-지,-고,-더라}"	알쿠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중일)아러따
32264	따르-(隨)	
32264-0-1	"{-지,-고,-더라}"	따르지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따러 땡기구
32265	사-(買)	
32265-0-1	"{-지,-고,-더라}"	사지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사따
32266	치우-(除)	
32266-0-1	"{-지,-고,-더라}"	치우구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치위따
32267	부리지-(被折)	
32267-0-1	"{-지,-고,-더라}"	부리지더라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부러저따
32268	다치-(傷)	
32268-0-1	"{-지,-고,-더라}"	다치지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다쳐따
32269	느리-(緩)	
32269-0-1	"{-지,-고,-더라}"	느리지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느려서
32270	무치-(和, 나물을 ~)	
32270-0-1	"{-지,-고,-더라}"	무치구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무쳐 멍는다
32271	죄:-(締)	
32271-0-1	"{-지,-고,-더라}"	조이구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조여라
32272	팔-(賣)	
32272-0-1	"{-지,-고,-더라}"	팔지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파러따
32273	뽑-(選)	
32273-0-1	"{-지,-고,-더라}"	뽑찌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뽀버
32274	뒤지-(索)	
32274-0-1	"{-지,-고,-더라}"	둘치구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둘쳐내따
32275	마치-(終)	
32275-0-1	"{-지,-고,-더라}"	끈마추구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끈마추자
32276	절이-(鹽)	
32276-0-1	"{-지,-고,-더라}"	절구지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절귀따
32277	휘-(曲)	
32277-0-1	"{-지,-고,-더라}"	후이지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후여따
32278	줍:-(拾)	
32278-0-1	"{-지,-고,-더라}"	주찌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주서따
32279	빼앗-(奪)	
32279-0-1	"{-지,-고,-더라}"	빼:꾸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빼:서 가따
32280	기울-(傾)	
32280-0-1	"{-지,-고,-더라}"	찌불지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찌부러저따
32281	아깝-(惜)	
32281-0-1	"{-지,-고,-더라}"	아깝떠라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아까워서
32282	반갑-(歡)	
32282-0-1	"{-지,-고,-더라}"	방갑떠라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방가워서
32283	찌-(蒸)	
32283-0-1	"{-지,-고,-더라}"	찌구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찌따
32284	노랑-(黃)	
32284-0-1	"{-지,-고,-더라}"	(새까리)노:라쿠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노래서
32285	푸르-(靑)	
32285-0-1	"{-지,-고,-더라}"	퍼러트라 푸러쿠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푸러서
32286	서두르-(忙)	
32286-0-1	"{-지,-고,-더라}"	서둘지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서두러 서두러서
32287	서투르-(不熟)	
32287-0-1	"{-지,-고,-더라}"	서툴더라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서트러서 서투러서
32288	게으르-(怠)	
32288-0-1	"{-지,-고,-더라}"	게우르지 게울더라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게울러서
32289	따뜻하-(溫)	
32289-0-1	"{-지,-고,-더라}"	따뜨타구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따뜨태서
32290	춡-(寒)	
32290-0-1	"{-지,-고,-더라}"	춡찌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추워서
32291	뜨겁-(極熱)	
32291-0-1	"{-지,-고,-더라}"	뜨겁찌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뜨거워서
32292	미지근하-(微溫)	
32292-0-1	"{-지,-고,-더라}"	미지근하드라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미지그내서
32293	차갑-(寒)	
32293-0-1	"{-지,-고,-더라}"	차갑찌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차구워서
32294	부럽-(羨)	
32294-0-1	"{-지,-고,-더라}"	부럽뜨라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부러워
32295	알뜰-(憎)	
32295-0-1	"{-지,-고,-더라}"	알뜰떠라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알미워
32296	비슷하-(類似)	
32296-0-1	"{-지,-고,-더라}"	비스타드라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비스태서
32297	새롭-(新)	
32297-0-1	"{-지,-고,-더라}"	새롭따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
32298	서:럽-(悲痛)	
32298-0-1	"{-지,-고,-더라}"	서러개 운다 설개 운다 섭:찌 섭떠라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설버서
32299	까다롭-(難)	
32299-0-1	"{-지,-고,-더라}"	까다롭찌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까다로워서
32300	외롭-(孤)	
32300-0-1	"{-지,-고,-더라}"	외:롭찌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예:로워서 외:로버서
32301	아쉽-(不滿)	
32301-0-1	"{-지,-고,-더라}"	외:롭떠라 애수하드라 아쉽따(잘 안 씀)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애수해서
32302	단단하-(固)	
32302-0-1	"{-지,-고,-더라}"	땅땅하지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땅땅해서
32303	늦-(晚)	
32303-0-1	"{-지,-고,-더라}"	느찌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느저따
32304	남:- (餘)	
32304-0-1	"{-지,-고,-더라}"	남:찌 양캐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나머따
32305	남기-(使餘)	
32305-0-1	"{-지,-고,-더라}"	냉구지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냉귀따
32306	넘어뜨리-(使倒)	
32306-0-1	"{-지,-고,-더라}"	너머뜨리지 자빠뜨리지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자빠뜨려따 너머뜨려따
32307	꾸그러뜨리-(使凹)	
32307-0-1	"{-지,-고,-더라}"	꾸구리구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꾸구려따
32308	견주-(比)	
32308-0-1	"{-지,-고,-더라}"	대:보지 견취보지 견주구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대:본다 견취본다 견취보개따
32309	외우-(誦)	
32309-0-1	"{-지,-고,-더라}"	에우구(약원순)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에워야(약원순) 외워따(re)
32310	문지르-(摩)	
32310-0-1	"{-지,-고,-더라}"	문대구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문대따
32311	가리키-(指)	
32311-0-1	"{-지,-고,-더라}"	가르치지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가르쳐따
32312	가르치-(教)	
32312-0-1	"{-지,-고,-더라}"	배워주구 가르쳐주구 가르켜주구 가르키 드라 배워주드라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갈켜서
32313	겨누-(照準)	
32313-0-1	"{-지,-고,-더라}"	저누구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저누어서 저누어따
32314	겨루-(競)	
32314-0-1	"{-지,-고,-더라}"	겨누구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겨눠 봐야
32315	달래-(慰撫)	
32315-0-1	"{-지,-고,-더라}"	달개구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달개서
32316	본받-(效)	
32316-0-1	"{-지,-고,-더라}"	봄바찌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봄바더라
32317	어지르-(散)	
32317-0-1	"{-지,-고,-더라}"	어질르지 어지르피구 어지르구 어지르피 더라 어지러피더라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어질러 봐:따

32318	달리-(走)	
32318-0-1	"{-지,-고,-더라}"	달리구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잘)달려 조타
32319	우기-(拗)	
32319-0-1	"{-지,-고,-더라}"	우기더라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우기서
32320	중얼거리-(獨言)	
32320-0-1	"{-지,-고,-더라}"	중얼거리구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중얼거리려따
32321	지껄이-(騷)	
32321-0-1	"{-지,-고,-더라}"	지꺼리구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지꺼려서
32322	다니-(行)	
32322-0-1	"{-지,-고,-더라}"	(잘:)댕기구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댕겨따
32323	떨어뜨리-(使落)	
32323-0-1	"{-지,-고,-더라}"	떨구지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떨귀따
32324	깨-(覺)	
32324-0-1	"{-지,-고,-더라}"	깨지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깨: 나따 깨서
32325	시-(酸)	
32325-0-1	"{-지,-고,-더라}"	시쿨지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시쿠루워서 시쿠워서 시쿠려저따
32326	솟-(湧)	
32326-0-1	"{-지,-고,-더라}"	소서오르구 소찌 아내쓰먼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왔	소서따

32327	/있다}" 좋:-(好)	
32327-0-1	"{-지,-고,-더라}"	조트라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조와서
32328	빨강-(赤)	
32328-0-1	"{-지,-고,-더라}"	빨:가트라 빨:가쿠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빨:가서
32329	끝:-(曳, 땅에 질질 ~)	
32329-0-1	"{-지,-고,-더라}"	끝:구 끈:는다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끄:러서 끄스러서
32330	넓-(廣)	
32330-0-1	"{-지,-고,-더라}"	(이거는)널꾸 넓떠라 널부지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널버
32331	하얗-(白)	
32331-0-1	"{-지,-고,-더라}"	새타야쿠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았 /있다}"	새타애서(새타야로 인식)

3.2.2. 곡용

32332	국(羹)	
32332-0-1	-이/가	구기
32332-0-2	-을/를	구걸
32332-0-3	-에(서)	구게
32332-0-4	-으로	구구루
32332-0-5	-도	국뚜
32333	논(沓)	
32333-0-1	-이/가	베바티 노니
32333-0-2	-을/를	노늘
32333-0-3	-에(서)	노내다

32333-0-4	-으로	노느루
32333-0-5	-도	논두
32334	쌀(米)	
32334-0-1	-이/가	싸리
32334-0-2	-을/를	싸털
32334-0-3	-에(서)	싸래
32334-0-4	-으로	쌀루
32334-0-5	-도	쌀두
32335	봄(春)	
32335-0-1	-이/가	보미
32335-0-2	-을/를	보물
32335-0-3	-에(서)	보매
32335-0-4	-으로	*
32335-0-5	-도	봄두
32336	집(家)	
32336-0-1	-이/가	지비
32336-0-2	-을/를	지벌
32336-0-3	-에(서)	지배서
32336-0-4	-으로	지비루
32336-0-5	-도	집뚜
32337	옷(衣)	
32337-0-1	-이/가	오시
32337-0-2	-을/를	오설
32337-0-3	-에(서)	오세
32337-0-4	-으로	오스루
32337-0-5	-도	오뚜
32338	방(房)	
32338-0-1	-이/가	방이
32338-0-2	-을/를	방얼
32338-0-3	-에(서)	방애
32338-0-4	-으로	방으루

32338-0-5	-도	방두
32339	낫(晝)	
32339-0-1	-이/가	?
32339-0-2	-을/를	?
32339-0-3	-에(서)	나재
32339-0-4	-으로	?
32339-0-5	-도	?
32340	낫(顔)	
32340-0-1	-이/가	나치 나시
32340-0-2	-을/를	나철 열구럴
32340-0-3	-에(서)	*나뚜 두껍따
32340-0-4	-으로	*나까주기 두껍따
32340-0-5	-도	나뚜 나까죽뚜
32341	부엌(廚)	
32341-0-1	-이/가	부어기
32341-0-2	-을/를	부어걸
32341-0-3	-에(서)	뵈:캐서 부어개서
32341-0-4	-으로	*
32341-0-5	-도	부엌또
32342	밭(田)	
32342-0-1	-이/가	바티
32342-0-2	-을/를	바틀
32342-0-3	-에(서)	바테다
32342-0-4	-으로	바트루
32342-0-5	-도	바뚜
32343	앞(前)	
32343-0-1	-이/가	아피 아이 보인다
32343-0-2	-을/를	아펼
32343-0-3	-에(서)	아꽤
32343-0-4	-으로	아푸루
32343-0-5	-도	압뚜

32344	넋(魂)	
32344-0-1	-이/가	넋 빠져따
32344-0-2	-을/를	넋걸
32344-0-3	-에(서)	*
32344-0-4	-으로	*
32344-0-5	-도	넋뚜
32345	흙(土)	
32345-0-1	-이/가	흙기
32345-0-2	-을/를	흙글
32345-0-3	-에(서)	흙개
32345-0-4	-으로	흙그루
32345-0-5	-도	흙뚜
32346	여덟(八)	
32346-0-1	-이/가	야:들비구 여더리라(예전에)
32346-0-2	-을/를	여더를 야:드를
32346-0-3	-에(서)	야:들배서
32346-0-4	-으로	여덜루
32346-0-5	-도	야들두
32347	돌(週歲)	
32347-0-1	-이/가	도:리
32347-0-2	-을/를	도:럴
32347-0-3	-에(서)	*
32347-0-4	-으로	*
32347-0-5	-도	돌도
32348	값(價)	
32348-0-1	-이/가	갑씨
32348-0-2	-을/를	갑썰
32348-0-3	-에(서)	(그)갑썰
32348-0-4	-으로	(그)갑쓰루
32348-0-5	-도	(담배)갑뚜
32349	속:(內)	

32349-0-1	-이/가	소:기
32349-0-2	-을/를	소:걸
32349-0-3	-에(서)	소:개
32349-0-4	-으로	소:그로
32349-0-5	-도	속:뚜
32350	돈:(錢)	
32350-0-1	-이/가	도:니
32350-0-2	-을/를	도:늘
32350-0-3	-에(서)	도:내
32350-0-4	-으로	도:느루
32350-0-5	-도	돈:도
32351	발(足)	
32351-0-1	-이/가	바리
32351-0-2	-을/를	바를
32351-0-3	-에(서)	바래
32351-0-4	-으로	발루
32351-0-5	-도	발두
32352	짐(物)	
32352-0-1	-이/가	지미라 그라구
32352-0-2	-을/를	지멸
32352-0-3	-에(서)	지매다
32352-0-4	-으로	*
32352-0-5	-도	짐두
32353	입(口)	
32353-0-1	-이/가	이비
32353-0-2	-을/를	이별
32353-0-3	-에(서)	이베 여파
32353-0-4	-으로	이부로
32353-0-5	-도	입뚜
32354	낫(鎌)	
32354-0-1	-이/가	나시

32354-0-2	-을/를	나설
32354-0-3	-에(서)	나새
32354-0-4	-으로	나스루
32354-0-5	-도	나뚜
32355	강(江)	
32355-0-1	-이/가	강이
32355-0-2	-을/를	강을
32355-0-3	-에(서)	강애
32355-0-4	-으로	강으로
32355-0-5	-도	강두
32356	젖(乳)	
32356-0-1	-이/가	저지
32356-0-2	-을/를	저절
32356-0-3	-에(서)	저제
32356-0-4	-으로	저즈루
32356-0-5	-도	저뚜
32357	꽃(花)	
32357-0-1	-이/가	꼬시
32357-0-2	-을/를	꼬설
32357-0-3	-에(서)	꼬세
32357-0-4	-으로	꼬스루
32357-0-5	-도	꼬뚜
32358	팥(赤豆)	
32358-0-1	-이/가	파끼가
32358-0-2	-을/를	파끼를
32358-0-3	-에(서)	파끼에
32358-0-4	-으로	파끼루
32358-0-5	-도	파끼두
32359	옆(側)	
32359-0-1	-이/가	여폐가 암 보인다 여피
32359-0-2	-을/를	여필

32359-0-3	-에(서)	여페
32359-0-4	-으로	(내)여푸루
32359-0-5	-도	엽뚜
32360	샀(賃金)	
32360-0-1	-이/가	싸기라 그라지 품싸기
32360-0-2	-을/를	싸걸
32360-0-3	-에(서)	*
32360-0-4	-으로	*
32360-0-5	-도	썩또
32361	닭(鷄)	
32361-0-1	-이/가	달기
32361-0-2	-을/를	달그 자버따
32361-0-3	-에(서)	달개
32361-0-4	-으로	달그루
32361-0-5	-도	닥뚜
32362	밖(外)	
32362-0-1	-이/가	바깨가 바까티
32362-0-2	-을/를	바깨를 바까틀
32362-0-3	-에(서)	바깨에서 바까티서
32362-0-4	-으로	바까트루
32362-0-5	-도	바까티두

제 4 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 거다 -내꺼다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40101-0-5	나-와	나하구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두
40102	저/제-가	제
40102-0-1	저-가	제가
40102-0-2	저-의	·제
40102-0-3	저-을/를	·저럴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하구
40102-0-6	저/-는	·저년
40102-0-7	저/-도	·저두
40103	우리	내 아버지 우리가
40104	저희	우리가 우리드리
40105	너	너
40105-0-1	너-가	니가
40105-0-2	너-의	네 거다
40105-0-3	너-을/를	너럴
40105-0-4	너-에게	너한테
40105-0-5	너-와/과	너하구
40105-0-6	너-는	너는

40105-0-7	너-도	너도
40106	자네	싸우가 가봐 자네라 그라지(노인->젊은 사람) 자네가
40107	당신	당시니 가 보오
40108	너희	느:더리 가봐 느: 아부지다
40109	개	가:가
40109-1	애	·야:가
40109-2	재	·자:가
40110	자기	제 말만
40111	당신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년)누구나 누구시어 누구니까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구 행가
40112-0-3	누구-를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누굴 주겐나 누굴 줄라구
40112-0-5	누구-와	누구하구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무어냐 (이건)뭐냐 머십니까
40113-0-1	무엇-이	머이냐 머:가 그르캐
40113-0-2	무슨	무순 니:를 헨:나
40113-0-3	무엇-을	무어슬 뭐: 머겐나 뭇: 헨니
40113-0-4	무엇-과	머:가치 생겨쓸까 머:처럼 생겨나

4.1.3. 그 밖의 대명사

40114	어디	어디루 가니 너 어디 가니
40115	언제	어느 때 와써 언제 완나
40116	어느	어느 지비 조으냐
40117	왜	어째서 우니 어제 어째 안 완니 어제 왜 안 완니

40118	얼마나	시가니 얼마 걸리대
40119	어떻게	멀:하구 지넨니 어떠케 지넨니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게 안경이다 이거
40121	그것	그게 머:이나 고거(꼭 집어서 가리킬 때) 고 게 머이나 그거
40122	저것	저건 머이야 저거 저게 머이나
40123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 안저라
40124	거기	조:가 안저라 거기 안저라
40125	저기	저:기
40126	이리	이리 와라 여기로 오라
40127	그리	고기루 가라(특정 장소, 그리와 같이 쓸 수 있 음) 그리 가라(길 가르쳐 줄 때)
40128	저리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기로 가라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무엇이)	갑씨 비싸다 도:니 업써서
40202	-이/가(무엇이)	코가 크다
40203	-을/를(어디를)	귀빠벌 자버 땡겨따 귀빠브 대려다
40204	-을/를(무엇을)	코를 푸러라 무털 조야지
40205	-에게/게(사람에게)	저 사람 줘:라 하라부지한테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누굴 당신이라 그래썬 누구더러 누구보구 누구한테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누굴 보고
40208	-에(집에)	바태 간다 노내 간다
40209	-에(나중에)	이후애 만나자
40210	-에서(큰집에서)	큰지배서
40211	-에서(서울에서)	서우래서 만나따
40212	-에서(여기에서)	연기래서 서울까지

40213	-으로(참쌀로)	쌀루 하지
40214	-으로(짚으로)	바:디루 짜지 지푸루 찐다
40215	-으로(새끼로)	산내기루 몽는다
40216	-으로(어디로)	어디루 가니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차뵈하구 수바글 마:이 멍는다 차뵈하구 수바 카구 마니 멍는다
40218	-와/과(나와)	나랑 가치 가자 나하구 가치 가자
40219	-보다(형보다)	형보다 더 크다
40220	-처럼(돼지처럼)	돼:지 마냥 사리 마:니 찌따
40221	-만큼(너만큼)	너마니 커쓰먼 조타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머글 만:치 가따 머거라 니 양만치 가따 머거 라
40223	-아/야(복남아)	연나마! 봉처라!
40224	-아/야(복남이)	봉나마!
40225	-아/야(영수야)	영수야!
40226	-아/야(누님)	누님!
40226-1	-아/야(누님!!예)	누니메!(북한말이라 함)
40227	-아/야(할아버지!)	하라부지
40227-1	-아/야(할아범요!)	아버이!(북한 말, 아버지뻔 이상 할아버지뻔까 지)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막꼴리에다가 고기반차내다가 그다매 국쑈애다 이팍애다 잘 머꾸 왔다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마:늬는 불구하구 처넌두 업따 마:넌커녕 처넌 두 업따

4.2.2. 보조사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수른 머거두 담:배는 몸 먹겐
40231	-만(딸만)	아부지는 딸만 고버한다
40232	"-도(키도, 얼굴도)"	키두 크구 얼굴두 곱따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다 술 마셔따
40234	-부터(오늘부터)	오늘부터 담:배 끄기 결썸해따
40235	-까지(내일까지)	넬:까지 다: 끈내라
40236	-조차(물조차)	쌀조차 떠러저따

40236-1	-조차(비할라)	비온다 나가지 말라
40237	-이야/야(말이야)	마:른 자란다 말:만 자란다 마:른 벼노사다
40238	-을랑(소릴랑)	그런 소리털 다시 하지 말라 그런 소릴랑 도: 따 해라
40239	-이라도(부자라도)	부:자래두 더 비쌍 건 안 찐다
40240	-밖에(너밖에)	너배끼 업따
40241	-가지고(싸가지고)	싸가주구 가따

4.2.3. 문장 뒤 조사

40242	-고(간접인용조사)(오라고)	이쫓그루 오라구 한다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아라썸니다(격식) 아라썸요(비격식)
40244	-요(높임)(했지요)	어느 부니 해썸니까? 아버지, 이거 누가 해 썸요?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앉아라)	여기 안저라
40302	-게(앉게)	여기와 안깨
40303	-으오(앉으시오)	형님 여기와 안즈시오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아버지 여기와 안즈시오
40305	-세요(앉으세요)	어머님 여기와 안즈시오

4.3.2. 청유법

40306	-자(가자)	가치 가자
40307	-세(가세)	나랑 가치 가
40308	-으오(가오)	형님 가치 갑썸다
40309	-십시오(가십시오)	아버지 가치 갑썸다 가치 가요
40310	-세요(가세요)	어머님 가치 갑썸다 가치 가요

4.3.3. 의문법

40311	-니(오니)	비가 오니?
40312	-나(오나)	배까태 비가 오니?
40313	-오(오오)	형님 비가 와요?
40314	-습니까(옵니까)	지금 비가 와요?
40315	-나요(오나요)	지금 비가 와요?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 물을 때(가니)"	어디까지 가니?
40317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 물을 때(가나)"	지금 어디 가?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 물을 때(가시오)"	지금 어디로 가시오?
40319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 물을 때(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40320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 물을 때(가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4.3.4. 서술법

40321	-는다(먹는다)	잘 멏는다
40322	-네(먹네)	밥 참 잘 멏는다 (민수)바벌 잘 멏네
40323	-오(먹소)	잘 멏네
40324	-습니다(먹습니다)	잘 멏거요
40325	-네요(먹네요)	잘 멏거요
40326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다)	오시 작따
40327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네)	오시 작따 오시 장네
40328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소)	오시 자거요
40329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 십니다)	오시 자거요
40330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 세요)	어무니게 자거요

4.3.5. 반말

40331	-아(아파)	당신 어디 아푸?
40332	-지(거지)	오느른 꼭 갈꺼지?

4.3.6. -이다

40333	-이다(생일이다)	네 오늘 생이리다
40334	-이니(생일이니)	생이리 아니냐? 오느리 네 생이리지?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내:리 자네 생이리다 내:리 사위 생이리여
40336	-인가(생일인가)	내:리 싸위 생이리 아니여?
40337	-이오(생일이오)	내:리 형님 생이리여
40338	-이오(생일이오?)	내:리 형님 생이리 아니여?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생이립니다 생지됩니다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생지니 올썸니까 아님니까? 내:리 아버님 생지 닝가요?
40341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생지니 아니요? 내:리 장모님 생이리 아니요?
40342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생지니지요?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 이냐)	머이냐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 인가)	머여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 이오)	머요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 입니까)	멈니까 머여요 머요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 인가요)	멈니까 머요 해두 되구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 이야)	머여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 이어요)	머여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맏습니다)	마:니 땡깁니다 옥씨기가 만:썸니다
-------	------------	-----------------------

40351	-습디다(많습디다)	굉:장이 만썸니다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잘 멏는다 잘 멏능구나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잘 멏는다
40354	-일세(오랜만일세)	오래마니내
40355	-으마(값으마)	넠: 꼭 주개따 가퍼주지
40356	-음세(값음세)	가퍼 주개따 꼭 가퍼 주거따
40357	-올라(다칠라)	다칠라 조심해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다: 머꾸나서 땡스를 다: 보고
40402	-으면서(보면서)	밤 머그면서 땡스를 보구 이따
40403	-어/-어서	추워서 모따따
40404	-으니/-으니까	방이 따뜨타니까
40405	-판데	무순닐루 이러캐 모여썸니까
40406	-다가	지비 오다가 밤 머꾸 와썸? 식싸 잡썸꾸 와썸요?
40407	-거든	만나면 썸:라 만나거등 썸:라 만나거덩 썸:라
40408	-더라도	고기를 머거두 먹떠래두 떼를 썸두
40409	-으려고	나눠 먹기 위해서 썸다 나눠 머글라구 썸다
40410	-도록	빼가 빠지두룩 일만 해따 죽뚜룩 일만 해따 나리 새:두룩
40411	-을수록	노꾸먼 노풀썸룩
40412	-듯이	도:넠 물썸드탄다
40413	-지	나: 영화만 보지 다룡 건 안 바

4.5. 주체 존대

40501	-셔(오셔)	이리 와:(多用) 이리 오오(보통말, 동무에게)
40502	-썸소(하썸소)	모 다 시머썸요?

4.6. 시제

40601	-는/ㄴ-(웃는다)	웃는다
40602	-는/ㄴ-(기어간다)	기어간다
40603	-는/ㄴ-(크다)	누니 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내:리 네: 생이리다
40605	-고 있-(오고 있다)	오구 이따
40606	-았/었-(먹었니/잡수셨습니 까)	식싸하고 와씨? 바블 잡쭈꾸 오셔씨? 바블 잡쭈꾸 오셔씨요?
40607	-았었(왔었다)	장백싸내 와때꾸 장녀내두 여기 와때씨
40608	-더-(먹더라)	소주걸 잘: 먹떠라
40609	-더-(먹더냐)	잘: 머거요? 소 주걸 잘: 멩니? 잘: 먹때?
40610	관형형(만나는)	날마다 만내는 칭구다
40611	관형형(만난)	야년 어제두 만난 동무다
40612	관형형(만났던)	오년저내 만내면 칭구 또 만내따
40613	관형형(만날)	넬: 만날 칭구다
40614	관형형(큰)	키가 크내들
40615	관형형(크던)	키가 쑥쑥 크던 아:다
40616	관형형(컸던)	키가 커편 아:다
40617	-겠-(알겠다)	마시지 앙캐따
40618	-겠-(오겠다)	금방 비가 쏜더질 꺾 간따 올꺼까따 눈 오 개따

4.7. 부정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아징 먹찌 아내따(多用) 아직 암 머거따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조트라 날씨가 조치 안트라(多用)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끄치 안타(多用) 안: 깨끄타다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아즉 장개가지 아내따(多用) 장개 앙 가따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 지 않았다/만나 안 보았다)	아직 암 만내 바:따 아직 안 만내 바:따(Fo) 아'이 만내 바:따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먹찌 앙코 잠만 잔다 먹찌두 앙쿠 잠만 잔다

40706-1	부정(먹도 않고)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 먹습니다 먹찌 모답니다 수럴 암 먹습니다 수럴 먹찌 안습니다 이제 아이 먹습니다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거봐: 내마리 마찌 내 마리 암 마자요? 내 마리 마찌 아나요?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귀 주어따 내가 살귀써
40802	늘리다	빨귀야 되개는데 늘귀야 되겐는데
40803	말리다1	말려라 말리워라
40804	말리다2	말긴다
40805	얼리다	무럴 얼군다
40806	녹이다	무럴 노겨라
40807	신기다	시널 싱겨라
40808	보이다	시개를 보여라 보여줘, 보개 줘
40809	알리다	알켜준다 알:개 하라 알귀라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얹히다	안쳐따 억찌루 안치지 말라
40812	벗기다	억찌루 빼끼지 말라 버끼지 말라 빼껴 줘:라
40813	웃기다	우끼개 해:따 우껴따능 건 우끼드라
40814	쓱히다	감자를 쓱키워따 감자를 쓱키우지 말라
40815	숨기다	감추워따(한국말) 꾹치워따(중국에서 쓰는 말) 숨긴다
40816	끓기다	궁기어따 굶겨라
40817	깨우다	깨운다
40818	돋우다	심지를 도꾼다 심지를 도꾸어라

4.8.2. 피동

40819	잡히다	부뜰려따 자펴따
40820	깎이다	까껴따 공자(임금)가 까껴따

40821	끼이다	짱겨따 무네 쪼워따
40822	떼이다	도널 떼워따 도널 떼우지 양캐 조시매라
40823	채이다	채워따 뒤빠래 채우지 양캐 해라
40824	단히다	바라매 다쳐따
40825	들리다	드킨다
40826	업히다	어퍼따
40827	바뀌다	바뀌 시너따 시니 바껴따 바뀌어따
40828	썸히다	도:리 씨핀다
40829	엇히다	언치어따 바배 언치어따 언치워따 치해따 채:따 매켜따 언치지 양캐 채지 양캐 매키지 양캐
40830	찍히다	발똥얼 찌켜따
40831	놀리다	꽁 놀리워서 호개 놀리우지 양캐
40832	실리다	실려 가구 실꾸 와따 실려 가따
40833	끊기다	소시기 끄너저따 열라기 끄너저따
40834	긁히다	겉키며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싶은)	바꼬 시풍개 뭐:냐 시계를 바고 쉽다
40902	싶다(싶더니)	멍능 거처럼 하더니 멍능가 십떠니(조사자 제시) 바벌 잘: 멍능 거 가떠니
40903	보다(보세요)	이버 보세요
40904	버리다(버렸네)	누가 떠글 다: 머건내 다: 머거 빠려따 마리여
40905	대다(댄다)	하루 종일 우리댄다(조사자 제시)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올 꺼 까따 비가 올라능가 부다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잠드런능가 부다 자능가 부다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 보다)	참 추웅가 부다 추운 가부다(천천히 발음)

4.10. 부사

41001	실컷	실:컨 머거라
41002	많이	마:이 머그먼

41003	너무	마:이 마시먼 너머 마:이 머그먼
41004	조금	쪼끔 머거두
41005	자주	자주 마렵따 자주 간다
41006	빨리	빠르게 와따 빨리 와라(중국에서) 얼른 오라 구두(한국) 데깍 싸가주구
41007	얼른	얼른 머거야 빨리 머거야
41008	기어코	우겨쓰구 간다 기어코 가따
41009	가끔	드문드문 마신다 가끔 마신다(제시, 중국에서)
41010	먼저	먼저 가라
41011	나중에	리자는 후에 주구 나:중애 주깨(제시)
41012	가득	골뚝 다마따 꼴뚝 다마따
41013	몽땅	다: 가주와라 몽땅 가주와라(제시)
41014	모조리	모조리 뽀버따(줄지어 있는 것 모두) 몽땅 뽀 버따(제시, 빠짐없이)
41015	혼자	나 혼자 나마따
41016	항상	항상 저르키 바뿌다 매:일 저르키 바뿌다
41017	똑똑히	똑떠기 바:라
41018	겨우	억찌루 차머따 겨우 차머따
41019	늘	항상 저르키(제시) 언제나 자구 이따(제시) 그냥: 자구 이따
41020	저절로	저절로 난다
41021	자꾸	자꾸 나온다
41022	설마	설마 나를 소겨꺼썌(제시)
41023	하마터면	까따카먼
41024	함께	한디 모여 가따
41025	결핍하면	잘모타먼(꺼뜨타먼과 의미가 같다고 함) 꺼뜨 타먼 승질넌다
41026	공연히	꽤:니 결:구 든다 고여:니 결구 든다
41027	그냥	그냥 도려와따
41028	매우	마:니 썸다 히미 대:다이 세:다
41029	곧장	꼬추 가따 오너라 곧개 가다 오너라 꼬꼬지 가따 오너라(제시)
41030	벌써	발써 끈넌니
41031	가장	젤: 크다 제:일 박따

41032	가만히	가마:니 안저 이써라
41033	미리	미:리 방지해라
41034	이따금	드문드문 온다 가:끔 온다(제시, 중국에서)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관용구(여보)	여보(아내가 남편) 여보(남편이 아내) 여보
41102	관용구(여보세요)	아주머'이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시어 안녕히 계세요 저나 끄개썸니다 안녕히 계시어 저나 끈썸니다, 자리썸요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잘: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아: 오래마니다 오랜 마니다(천천히 발음)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안녕하셔썸니까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돈 바드세요 돈: 여기썸요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예 공부 잘해썸니다(윗사람 질문 답) 오:냐(아랫사람 질문 답)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아:니(아랫사람 질문 답) 아:니요(윗사람 질문 답)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아:무치두 안타(제시)
41112	관용구(내버려 뒀)	내비려 뒀:라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저마다 다: 차를 몰고 땡긴다 지그문 원:송이 두 차를 몰구 땡기는데 뒀

4.11.2. 속담

41114	속담(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얼경체에 물당끼라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둑찌리 소 도둑찌리 된다 바늘 도둑찌리 소: 도둑절루 발썸한다
41116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땐 굴뚜개 연기 날까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 위 원 | 곽충구(서강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